호랑이 이빨

Les Dents du tigre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21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s Dents du tigre » (1921)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s Dents du tigre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오후 네 시 반. 데스말리옹 경찰청장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이, 비서실장은 책상 위에다 자신이 주석을 달아둔 편지들과 보고서 더미를 정리했다. 그는 종을 누르고, 메인 입구를 통해 들어온 문지기에게 명령했다.

"청장이 오후 다섯 시에 여러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들을 서로 격리시켜 기다리게 하세요. 서로 대화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방문객들의 명함을 제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문지기가 나가자, 비서실장은 자신의 서재로 이어지는 작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메인 입구가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균형을 잃은 듯 비틀거리다가, 바로 옆에 놓인 안락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몸을 의지했다.

"아, 보로 형사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야?"

비서가 놀라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로 형사는 덩치가 큰 사내였다. 어깨가 넓고 얼굴이 자주 빛을 띠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충혈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핏줄이 선 채 거의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격렬한 감정이 그를 뒤집어놓은 모양이었다.

"아니에요, 비서님."

"아니죠, 건강해 보이던 얼굴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창백하고… 게다가 땀방울까지 맺혔네요."

보로 형사는 이마의 땀을 닦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조금 피곤한 것뿐입니다. 며칠째 무리했거든요. 총무가 맡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했죠. 그래도 이상하네요. 지금 이런 기분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양조주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목이 말라요."

"물 한 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저는……, 원합니다……."

목소리가 어눌해졌다. 그는 마치 갑자기 다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할 것처럼 초조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총감께서 안 계신가요?"

"아니요. 다섯 시에나 오십니다. 중요한 회의를 위해요."

"네…… 알아요. 정말 중요한 회의죠. 그래서 총감께서 저를 부르셨던 거구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비서는 베로를 살펴보며 말했다.

"당신, 얼마나 초조한지. 당신의 보고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군요?"

"엄청난 일입니다. 한 달 전 오늘, 정확히 하루 전에도 못 박힌 시점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인의 여파로 인해 오늘 밤 반드시 두 건의 또 다른 살인이 자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닥쳐올 것입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베로 씨."

"아,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악마적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에게 경고했잖습니까, 베로 씨. 그리고 총무부 장관이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려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내가 그와 마주치지 못했을 경우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 관련 모든 내용을 담은 편지를 그에게 보낸 거죠."

그는 큰 노란 봉투를 비서에게 건넸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여기, 작은 상자 하나도 있습니다. 이 책상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편지 내용과 함께 이해해야 할, 중요한 보충 설명이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왜 직접 가지고 가지 않으세요?"

"무서워서요. 제 뒤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목을 노리고 있죠. 이 비밀을 저 혼자만 아는 한, 저는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시오, 베로 씨. 장관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간호실로 가셔서 진정제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형사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시금 땀범벅인 이마를 닦았다. 그러고는 몸을 굳히며 나갔다.

혼자 남은 비서는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둔 두꺼운 파일 속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이어지는 문을 통해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자마자,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다. 형사가 들어왔지만, 말더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님… 제가 보여 드리는 게 좋겠군요…"

그 불쌍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가 부들부들 떨렸다. 방 안이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비서의 개인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완전히 혼이 나간 채, 신음하는 목소리만 간신히 새어 나왔다.

"내가 왜 이런 거지…? 나도 독을 먹은 건가? 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책상은 그의 손이 닿는 거리에 있었다. 그는 연필을 집어 들고 메모장을 가까이 끌어당긴 뒤, 무언가를 필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말더듬듯 중얼거렸다.

"아니야, 쓸 필요 없어. 총감이 내 편지를 읽을 테니까……. 내가 대체 왜 그래? 어, 무서워……."

그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비서님, 제가…… 제가……. 오늘 밤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는 작은 걸음으로, 마치 자동인형처럼 다가갔다. 온몸의 의지로 힘을 모아 문을 향해 나아갔지만, 도중에 균형을 잃고 다시금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겁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 작아 들릴 리가 없었다.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손으로 더듬으며 종이나 인터폰을 찾으려 했지만, 눈앞은 캄캄했다. 안개 같은 그림자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어 벽까지 기어갔다. 눈이 먼 사람처럼 손을 허공으로 내저으며 더듬었다. 결국 나무 판자에 닿았다. 벽이었다.

그는 벽을 따라 걸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머리는 방의 구조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 왼쪽으로 돌아야 할 곳을 잘못해, 오른쪽으로 벽을 따라갔다. 작은 문이 숨겨진 가림막 뒤로 들어선 것이다.

손이 문고리에 닿자, 그는 간신히 문을 열었다. 그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외쳤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는 경찰청장 집무실의 세면대 공간으로 쓰이는 좁은 구석에 쓰러졌다.

“오늘 밤! 오늘 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이 비서의 서재에 있다고 믿으며 신음했다.

"오늘 밤… 사건은 오늘 밤 일어납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이빨 자국… 끔찍하다… 얼마나 아픈지… 도와줘요! 독약입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듯 여러 차례 중얼거렸다.

"이빨… 하얀 이빨… 다물리고 있어!"

그때 목소리는 더 약해졌다. 창백한 입술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새어 나왔다. 입은 공허하게 무언가를 씹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다. 마치 오래된 이들이 끝없이 되새김질하듯.

머리는 천천히 가슴 쪽으로 기울어졌다. 두세 번 한숨이 나왔고, 온몸이 큰 떨림에 휩싸였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임종의 신음이 시작되었다. 아주 낮고, 일정한 리듬으로. 그 사이사이에 순간적인 정적이 찾아왔는데, 그건 본능의 마지막 분투가 희미해진 영혼의 숨결을 다시 살리려 애쓰는 듯했다. 꺼져가는 눈동자에는 의식의 빛이 스치듯 비쳤다.

다섯 시 십 분 전, 경찰청장이 서재로 들어섰다.

데말리옹 씨는 몇 년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권위는 모두의 존경을 받았고, 그는 오십 살의 나이였지만 외형은 다소 둔중해 보였다. 하지만 얼굴은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풍겼다.

그의 차림새는 공무원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회색 재킷과 바지, 흰색 부츠, 그리고 느슨하게 매고 있는 넥타이.

그의 태도는 자유로웠고 소박했다. 친근함과 다정함이 묻어났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곧바로 비서가 나타나자 물었다.

"내가 소환한 사람들이 모두 왔나?"

"네, 총감님. 그리고 다른 방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니,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없지. 그래도…… 이쪽이 낫군. 미국 대사께서 직접 나섰나 봐?"

"아닙니다, 총감님."

"그분들 명함 있나?"

"여기 있습니다."

경찰 총감이 손에서 건네받은 다섯 장의 명함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읽었다.

아치발드 브라이트, 미국 대사관 서기관 일등.

마르 뤽르튀이, 공증인.

후안 카세레스, 페루 영사관 직원.

전역한 장군 백작 드 아스트리냐크.

다섯 번째 명함에는 주소도, 그 외 다른 표시도 없이 이름만 적혀 있었다.

루이스 페레나 경.

"이 사람 꼭 만나봐야겠군." 데말리옹 총감이 말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

"외인부대 보고서를 읽으셨습니까?"

"네, 총감님. 저도 그분이 궁금하긴 마찬가집니다."

"그렇지 않소? 정말 용감하군. 한때는 영웅적인 광인이었지. 동급생들이 그에게 '아르센 뤼팽'이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였으니까. 그가 얼마나 동급생들을 압도하고 놀라게 했는지 짐작이 가시오."

"아르센 뤼팽이 죽은 지 얼마나 됐소?"

"총감님, 전쟁이 일어나기 이 년 전입니다. 그와 K셀바흐 부인의 시체가 룩셈부르크 국경 근처에 있는 작은 오두막의 잿더미에서 발견됐죠. 조사 결과, 그는 나중에 그 죄상이 드러난 K셀바흐 부인을 질식사시킨 뒤,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저주받은 자의 최후라니, 마땅한 결말이지." 데말리옹이 말했다. "나로선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

네. 자, 이제 우리 상황은 어떻지? 모닝턴 유산 사건 서류는 준비됐나?"

"총경님, 서재 책상 위에 놔뒀습니다."

"좋아. 그런데 잠깐, 베로 형사는 도착했나?"

"네, 총경님.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형사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무슨 말인가? 자세히 설명해 보게."

비서는 베로 형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차례로 전했다.

"그리고 그 형사가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했지?" 데말리옹이 걱정스러운 빛을 띠며 물었다. "그 편지는 어디 있나?"

"서류 파일 안에 있습니다, 총경님."

"이상하다. 모두 다 이상하군. 베로는 일류 형사야. 정신이 매우 단단한 인물이지. 그가 걱정하는 만큼, 그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를 데려오게."

"그동안 나는 우편물을 확인하겠소."

비서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5분 뒤 돌아온 그는 놀란 표정으로 보고했다. 베로 형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한 건, 여기서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문지기에게 다시 들어오는 것도 보였지만, 두 번째로 나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방을 지나쳐 당신 사무실로 간 게 아닐까?"

"제 사무실이라고요, 각하? 저는 한 발도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

"이해할 수 없군요. 다만, 베로가 여기에도 옆에도 없으니, 서기가 잠시 부주의를 범했을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요."

"당연하지. 아마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갔겠지. 언제든 돌아올 거야. 나한테는 당장 그 서기가 필요 없으니까."

부Prefet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오후 5시 10분이군. 서기에게 이 분들을 안내해 주라고 전해주게. 아, 잠깐만요…"

데말리옹 씨가 망설였다. 그는 사건 파일을 넘기다가 베로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노란색 상용 봉투였으며, 모서리에는 '퐁뇌프 카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비서가 암시하듯 말했다.

“베로 씨가 부재중이고, 그가 저에게 했던 말을 고려할 때, 부Prefet 님께서 이 편지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데말리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당신이 옳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는 결심을 내린 듯, 봉투 윗부분에 스타일트를 꽂고 힘차게 찢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니, 이건 너무 심하군.”

“무슨 일이신가요, 총감?”

“무슨 일이냐니… 보시오.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소. 봉투에는 그것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시오. 네 군데로 접힌 하얀 종이 한 장일 뿐. 글자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소.”

“하지만 베로 형사가 직접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넣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당신도 보잖소. 정말로 만약 내가 베로 형사를 모른다면, 이건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거요.”

"실수였겠죠, 총감. 그것뿐일 테고요."

"물론, 한 가지 흠결이긴 하지만, 그에게서 그런 실수가 나올 줄은 몰랐군. 두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실수 따위 있을 수 없지. 그가 오늘 밤에 연쇄 살인이 계획되어 있다고 너에게 분명히 경고했잖아?"

"네, 총감님. 오늘 밤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특히나 섬뜩하다더군요. '마귀 같다'고 그가 말했죠."

데말리옹 총감은 방 안을 거닐며 등을 뒤로 깍지 끼고 있었다. 그는 작은 탁자 앞에 멈춰 섰다.

"내 이름으로 된 이 소포는 뭔가? '경찰청 총감 귀하. 사고 시 개봉.'"

"네,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깜빡했군요. 베로 형사가 보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자, 편지 내용과 함께 읽어야 할 보충 설명서라고 하더군요."

"음,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 데말리옹 지사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사고가 아니라고는 해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말을 하는 사이 그는 끈을 잘라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걷어내자 작은 상자가 드러났다. 약국에서 쓰는那种 작은 종이 상자였지만, 표면은 더럽고 사용 흔적으로 망가져 있었다.

그는 뚜껑을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지저분한 솜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초콜릿 반 개가 놓여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지사는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초콜릿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금방 그 표면을 살폈다. 재료가 조금 무른 탓에, 이 초콜릿 한 조각에는 특별한 점이 드러나 있었다. 바로 가니마르 형사가 이 증거물을 아껴 둔 이유였다.

초콜릿 위아래에는 이빨 자국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국들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고, 초콜릿 덩어리 속으로 두세 밀리미터 깊이 파고들어 있었다.

각각의 자국은 저마다 고유한 모양과 너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었다. 이 초콜릿을 깨물어 먹은 이는 위턱 네 개와 아래턱 다섯 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데말리옹 씨는 침묵에 잠겼다. 고개를 숙인 채 몇 분간 방을 오가며 걸었다.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그 해답을 꼭 알고 싶다…… 이 종이 한 장, 그리고 이 이빨 자국. 대체 무슨 뜻인가?"

하지만 그는 해답이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했다. 베로 형사가 현지에 있거나 근처에 있을 테니까. 그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분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가니마르 형사가 회의 중에 도착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럴 테니 즉시 알려주시오.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그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지?"

두 분 후, 문지리가 세 사람을 들여보냈다. 안경과 수염을 기른 통통한 레페튀이 씨, 대사관 서기 아치볼드 브라이트, 그리고 페루 영사관 참사관 카세레스였다. 이들을 모두 알고 있던 드말리옹 씨는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장 마라코에서 활약한 명장, 상테 형무소 출신의 장군 아스트리냐크 백작을 맞으러 나섰다. 백작은 영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조기 은퇴한 인물이었다. 드말리옹 씨는 그에게 모로코에서의 뛰어난 활약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문이 다시 열렸다.

"도 루이스 페레냐 씨 맞습니까?"

부지사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손길을 건넨 남자는 키가 평균쯤 되었고, 몸매는 오히려 마른 편이었다. 군복에는 군공 메달과 레지옹 도뇌르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표정과 눈빛, 태도, 그리고 매우 젊은 모습은 그가 마흔 살쯤 된 남자라고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눈가나 이마의 주름 몇 군데는 그보다 몇 년 더 나이가 들어 보였을 뿐이다.

페레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부지사님."

아스트리냐크 대령이 외쳤다.

"아, 페레냐! 당신, 아직 살아 있었군요!"

"아, 대령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페레냐가 살아 있다니! 내가 마르코를 떠났을 때 당신 소식이 끊겨서, 다 죽은 줄 알았소."

"저는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부족의 포로라? 그건 같은 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령관님. 도망치는 방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증거죠."

경찰청장은 잠시 동안, 자기도 모르게 밀려오는 동정심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단호하면서도 미소가 감도는 표정, 정직하고 결의에 찬 눈빛, 그리고 햇빛에 그을려 더 단단해진 피부결.

그리고 그는 손짓으로 참관인들에게 책상 주위에 앉으라고 했다. 자신도 자리에 앉아, 또렷하고 느릿한 어조로 서두를 시작했다.

"각각 여러분에게 보낸 소환장은 다소 간략하고 신비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도 여러분의 의아함을 가시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주

신다면, 이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준비해 둔 파일을 앞에 펼쳤고, 메모를 살피며 다시 말을 이었다.

"1870년 전쟁 몇 년 전, Ermeline, Élisabeth, Armande Roussel이라는 세 자매가 Saint-Étienne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스물두 살, 스물 살, 열여덟 살의 고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몇 년 연하의 사촌인 Victor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빠 Ermeline은 먼저 생테티엔을 떠나 런던으로 갔다. Mornington이라는 영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나중에 Cosmo라는 아들을 낳았다.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많은 시련을 겪었다. Ermeline은 여러 차례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1875년 무렵, Mr와 Mrs Mornington은 미국으로 떠났다. 5년 후,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Mr Mornington은 1883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부인은 유산 관리를 계속했다. 그녀는 사업과 투자의 재능이 뛰어났기에, 그 부문을 거대한 규모로 불려나갔다.

그녀가 1905년에 사망했을 때,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4억 프랑이었다.

그 숫자는 참석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준 듯했다. 총감이 사령관과 돈 루이스 페레나 사이에 눈빛이 오가는 것을 포착하고는 그들에게 물었다.

"코즈모 모닝턴을 아시죠?"

"네, 총감님." 아스트리냐크 백부가 대답했다. "저와 페레나가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가 모로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데말리옹 지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코스모 모닝턴이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의학을 공부했고, 기회가 되면 누구에게나 능숙하게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였죠. 그는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를 거쳐 1914년 말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연합국을 지지했습니다. 휴전 협정 이후인 작년, 그는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네 주 전, 너무도 어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잘못된 주사 때문이죠, 각하?" 미국 대사관 서기관이 말했다. "신문에서 다뤘던 사건입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도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말리옹 씨가 말했다.

모닝턴 씨는 지난겨울 내내 침대에 누워 있을 정도로 심한 독감에 시달렸다. 회복을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소듐 글리세로인산염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의 주사 과정에서 필요한 위생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탓이었다. 상처가 순식간에 악성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단 몇 시간 만에 모닝턴 씨는 세상을 떠났다.

경찰청장이 돌아서서 공증인에게 물었다.

“제 요약이 사실과 다릅니까, 레페튀이 선생님?”

“정확합니다, 경찰청장님.”

데말리옹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음 날 아침, 레페르튀이 씨가 여기에 찾아왔다. 그는 이 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코스모 모닝턴이 자신에게 맡겨둔 유언장을 내게 보여줬다.

대법관이 서류들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 레페르튀이 씨가 덧붙여 말했다.

“대법관 폐하, 저는 죽상에서 제 의뢰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단 한 번뿐이었다는 점을 명시해도 될까요? 바로 그가 저를 자신의 호텔로 부르며 방금 작성한 유언장을 건네주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독감 초기 증세였습니다. 그 당시의 대화에서 그는 어머니 쪽 가문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조사를 시작했으며, 회복 후에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경찰청장이 사건 파일에서 열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종이 두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더 큰 쪽을 펴며 말했다.

"여기가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과 함께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명자 코스모 모닝턴은 허버트 모닝턴과 에르멜린 루셀의 정실 아들이다.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양국으로 물려준다. 이 돈은 내가 직접 쓴 지침서에 따라 자선 사업에 쓰여야 한다. 그 지침서는 레페르튀이 씨가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파리와 런던의 여러 은행에 맡겨둔 예금, 약 2억 프랑어치다. 이 목록은 레페르튀이 씨가 검토 중이다. 이 돈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리는 뜻으로, 먼저 그녀의 가장 아끼는 자매인 엘리자베스 루셀에게, 또는 엘리자베스 루셀의 직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없다면, 둘째 자매인 아르망드 루셀에게, 또는 아르망드의 직계 후손들에게 준다. 둘 다 없다면, 그들의 사촌 빅토르에게, 또는 빅토르의 직계 후손들에게 준다.

"만약 내가 루셀 가문의 생존자나 세 자매의 사촌을 찾아내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내 친구 돈 루이스 페레냐에게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맡기고 싶다. 이를 위해 내 유럽 지역 재산의 유언집행자로 그를 임명한다. 그리고 내 사후,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들을 총괄하고, 나를 대신해 행동하며, 내 명성과 유지를 위해 모든 일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 큰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또 두 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로, 그는 백만 프랑을 받아주길 바란다."

부Prefect는 잠시 말을 멈췄다. 돈 루이스가 속삭였다.

"불쌍한 코스코. 그의 마지막 소원을 채우기 위해 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

데스말리옹 선수가 다시 읽기를 시작했다.

"또한, 내가 죽은 지 삼 달 후에도 돈 루이스 페레냐와 레페르튀이 씨가 조사한 결과가 결실을 맺지 못했고, 루셀 가문의 상속자나 생존자가 나타나 유산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두억 프랑 전액은 최종적으로 내 친구 돈 루이스 페레냐에게 귀속된다. 이후 어떤 이의 주장이 있든 상관없다."

그는 이어 말했다.

"나는 그를 잘 안다. 그가 이 막대한 부를 자신의 고결한 의도와, 모로코의 천막 아래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위대한 계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데말리옹 경이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돈 루이스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고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 끝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아스트리냐크 백경이 그에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페레나."

"명령관님," 페레나가 답했다. "이 유산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 중 생존자를 반드시 찾아내리라고 맹세합니다."

"당신을 잘 알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장교가 말했다.

경찰청장이 돈 루이스에게 물었다.

"어쨌든, 이 조건부 유산…… 당신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닙니다." 페레나가 웃으며 답했다. "거절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죠."

"제 질문은 유서의 마지막 단락 때문입니다." 경찰청장이 말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내 친구 페렌나가 이 유산을 거절하거나, 혹은 그것을 받을 날짜 전에 죽었다면, 나는 미국 대사님과 경찰청장님께서 파리에서 미국 국적의 학생들과 예술가들을 위한 대학을 세우고 유지할 방법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님은 어쨌든 30만 프랑을 징수하여 자신의 직원들 기금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말리옹 씨는 종이를 접어 다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 유언장에는 모닝턴 씨가 나중에 레페르튀이 씨에게 쓴 편지가 부속되어 있다. 그 편지에서 그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는 레페르튀이 씨에게 저의 사후 다음 날, 제 유언장을 개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는 경찰청장이 입회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청장께서는 한 달간 이 일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날, 경찰청장께서는 미국 대사관의 중진 인사, 레페르튀이 씨, 그리고 도니 루이스 페레냐를 자신의 사무실로 모셔 주시길 바랍니다.

유언장을 읽은 후, 도니 루이스 페레냐가 자신의 서류를 제시하고 신분이 확인되는 대로, 백만 프랑어어 수표를 그의 유증 수취인이자 친구인 도니 루이스 페레냐에게 건네야 합니다.

이 신원 확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개인 신분에 대해서는, 그가 모로코에서 지휘관이었던 아스트리냐크 백작에게 확인받습니다. 아스트리냐크 백작은 안타깝게도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페루 대사관 소속 인사에게 확인받길 바랍니다. 도니 루이스 페레냐는 스페인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페루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는 유언장이 루셀 가문 상속인들에게 전달되는 시기를 이틀 늦추고, 레페르튀이 공증인 사무실에서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가 유산을 배분하고 그 방법을 정하는 데 대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제60일부터 제90일 사이, 스스로 정한 날짜에 같은 사람들을 두 번째로 초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고 오직 그때야, 권리에 따라 최종 상속인이 지명되고 선포됩니다.

만약 루셀 가문의 생존자나 사촌 빅토르 중 아무도 유산을 받기 위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회의가 끝나는 순간 도니 루이스 페레나는 최종 상속인이 됩니다. 그는 반드시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상속인이 되려면, 그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는 한 누구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코스코 모닝턴 씨의 유언장입니다." 경찰청장이 말을 맺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곧 여섯 번째 인물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루셀 가문에 대한 첫 조사를 맡은 제 부하 말입니다. 그가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두 주 전, 돈 루이스 페레나가 저에게 건넨 서류들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출신 배경에 관해서는 페루 장관에게 정밀한 자료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 임무는 페루 장관이 저 페루 영사관 참사 카세레스 씨에게 맡긴 것입니다."

카세레스가 말했다.

"수행하기는 쉬웠습니다. 루이스 페레나 백작은 30년 전에 이민을 간 스페인 명문가 출신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토지와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페레나 백작의 아버지, 즉 루이스의 아버지는 제가 아메리카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아들이 유일한 후계자라고 자랑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우리 영사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카세레스가 계속했다.

"마리코에서 쓰인 그 편지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원본은 루이스 페레나 백작이 직접 제출한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 지휘관님. 그대 휘하에서 싸웠던 레지옹의 페레나 장교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스트리냐크 백작이 단호하게 답했다.

"틀림없습니까?"

"오차의 여지 없이, 망설임 따위 조금도 없이."

경찰청장은 웃음을 터뜨리며 은근히 물었다.

"당신은 동료가 그 놀라운 활약상에 경악하며 '아르센 뤼팽'이라 부른 레지옹 도뇌르 수훈자 페렌나를 인정합니까?"

"네, 경찰청장님." 대위가 단호하게 답했다. "동료가 '아르센 뤼팽'이라 부르고, 상관이 그저 '영웅'이라 불렀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다르냥만큼 용감하고, 포르토스만큼 강인하다고 말했죠."

"몬테크리스토처럼 신비롭군요." 경찰청장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 내가 받은 외국인 Legion 제4연대 보고서에 나와 있다.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병사 페레나가 단 이 년 만에 군사십자장을 받았고, 특별한 공로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일곱 번이나 훈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내가 임의로 뽑아 본 것이다.

"청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 루이스가 항의했다. "이건 평범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데말리옹 씨가 단언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단순히 유언장을 읽어주는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 즉 백만 프랑에 달하는 유증의 집행을 승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증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이분들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독 각하." 페레나가 일어나 문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저는…"

"돌아설 것! 멈춰! 그대로 있어!" 아스트리냐크 대위가 장난기 어린 어조로 명령했다.

그는 돈 루이스를 다시 방 중앙으로 끌어와 앉혔다.

"총감 각하, 제 옛 동지인 페레나 병장의 사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업적을 읽게 된다면, 겸손한 그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될 테니까요. 게다가 보고서가 여기에 있으니, 누구나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 안에 담긴 칭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군인 경력 전체를 통틀어, 페레나 병장과 비교할 만한 군인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정말 사나운 놈들을 많이 봤습니다. 레지옹 외인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악마 같은 자들이었죠. 그들은 '재미 삼아', '옆집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라고 말하며, 피를 흘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페레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드 아르타냥', '포르토스', '드 비시'라고 부르던 그 남자는, 전설과 현실 속 가장 놀라운 영웅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차분히 생각해도, 제가 그 일을 목격했는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로 몰릴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세타트에서 우리가 쫓기고 있을 때……"

"말을 더 하시면, 커맨당, 제가 정말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진심입니다. 정말, 당신의 그 방식은 제 겸손함을 너무 아껴주네요."

"친애하는 페레냐 씨, 아스트리냐크 백작이 다시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에게 말해 왔소. 당신은 모든 덕목을 갖추고 있지만, 단 하나의 欠점이 있죠. 바로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것이오."

"그리고 저도 늘 대답했죠, 커맨당. 어머니께서는 프랑스인이시고, 제 마음과 기질 또한 프랑스인이라는 것을요. 프랑스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남자는 다시 한번 정겹게 악수를 나눴다.

"자, 형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과오나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합시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기록해 두겠습니다. 1915년 여름, 당신은 40명의 베르베르인들에게 매복 공격을 받아 포로가 되었고, 지난 달이 되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왜 당신에게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상한 별명을 붙였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용기와 체력을 언급한 것일까요?"

"사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총독님. 아주 기묘한 절도 사건이죠. 겉보기엔 설명이 안 되는 단서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에 통찰력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 총독님. 아프리카에서 여러 차례 그 재능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 그가 죽은 뒤로 '아르센 뤼팽'이라는 별명이 크게 회자되었죠. 바로 그 이름이 제 별명이 된 이유입니다."

"그 절도 사건은 규모가 컸습니까?"

"상당했습니다. 당시 오랑 지방에 살던 코스모 모닝턴을 표적으로 삼았죠.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돈 루이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불쌍한 코스코! 이 사건은 내 작은 경찰 실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만들었지.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 '페레나, 내가 살해당하면(그는 내가 폭력적인 죽음을 맞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 나를 죽인 범인을 반드시 쫓아주겠다고 약속해 줘.'"

"그의 직감은 빗나갔습니다." 경찰청장이 말했다. "코스코 모닝턴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착각입니다, 각하." 돈 루이스가 말했다.

데말리옹 장관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코스코 모닝턴이……"

"코스코 모닝턴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잘못된 주사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대로, 폭력적인 죽음을 당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각하, 당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현실에 근거합니다, 각하."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셨나요?"

"저는 지난달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파리에 도착했을 때, 신문을 꾸준히 읽지 않아서 코스모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방금 전, 총경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렇다면, 당신도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확인 결과에 기대야 하지요."

"유감스럽지만, 저로서는 그 확인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비난을 하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는 겁니까?"

"어떤 증거요?"

"총경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내 말씀이라고?"

"이 문서들입니다, 총감님. 먼저 총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 모닝턴은 의학을 전공했고 매우 유능하게 진료했다고 하죠. 그리고 둘째, 그가 잘못 맞은 주사로 인해 치명적인 염증이 생겼고, 몇 시간 만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감님.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의학을 깊이 연구하고 코스모 모닝턴처럼 환자를 돌본 사람이, 필요한 모든 소독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주사를 맞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스모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의사는 의심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으니, 모든 의사가 그러하듯 간단히 진단서를 쓴 겁니다."

"즉, 당신의 의견은……?"

"레페르튀이 선생님." 페레나가 회계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모닝턴 씨의 임종 자리에서 계실 때, 이상한 점은 전혀 없으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모닝턴 씨는 혼수상태에 빠졌을 뿐입니다."

"주사 한 방이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루이스가 지적했다. "아무리 나쁜 주사라도 말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면 그랬나요. 네, 기억납니다. 얼굴에 갈색 반점이 있었죠. 처음 봤을 때는 없던 것들입니다."

"갈색 반점이라니!"

그것은 내 가설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코스코 모닝턴은 독살당했다.

"하지만 어떻게?" 총감이 외쳤다.

"글리세로인산 앰플 중 하나에, 혹은 환자가 쓰던 주사기에 어떤 물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는요?" 데말리옹 씨가 덧붙였다.

"레페르튀이 변호사님, 페렌나가 다시 물었다. 그 갈색 반점을 의사에게 말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의사는 그걸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건 평소 보던 의사였습니까?"

"아니요. 평소 보던 의사 푸졸 박사는 제 친구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파서 제가 다른 의사를 소개해 준 거죠. 제가 병상에서 본 의사는 아마 동네 의사였을 겁니다."

"이름과 주소가 있네요." 경찰청장이 파일에서 증명서를 꺼내며 말했다. "벨라부안 박사, 아스토르가 14번지."

"경찰청장님, 의사 명부 같은 게 있습니까?"

데말리옹씨가 명부책을 펼쳐들었다. 그는 몇 초 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벨라부안 박사는 없습니다. 아스토르가 14번지에 사는 의사도 없어요."

그 선언이 있은 뒤, 꽤 긴 침묵이 흘렀다. 대사관 서기와 페루 영사는 이 대화를 열렬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스트리냐크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페레나는 절대 잘못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경찰청장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분명히… 분명히… 여기에는 여러 정황이 얽혀 있군요…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 갈색 얼룩들, 그리고 그 의사 말입니다. 이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도니 루이스 페레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물론, 당신 생각에는 이 가능했던 범죄와 모닝턴 씨의 유서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경찰청장님. 아니면 누군가가 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야 하겠지요. 레퍼튀이 씨,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머닝턴 씨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당신 사무실에서 누가 누설한 흔적은 없었을 테고요?"

"누가요? 그 유언장은 저 혼자만 만졌고, 매일 밤 중요 문서들을 금고에 넣는 열쇠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금고를 깨뜨린 흔적은 없었나요? 사무실에 절도 사건이 있었나요?"

"코스모 머닝턴을 본 게 아침이군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저녁, 그러니까 금고에 넣을 때까지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을 겁니다."

"그 서랍도 강제 개입당한 흔적은 없었나요?"

레페르튀이 씨는 깜짝 놀란 듯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페레나가 다시 물었다.

"그래… 맞아… 기억나. 그날, 바로 그 금요일에 뭔가 있었어."

"확신해?"

"응.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지. 내가 잠그고 나갔는데, 틀림없어. 당장은 그다지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와서야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해서 도니 루이스 페레나가 세웠던 모든 가설이 하나씩 사실로 확인되고 있었다. 비록 몇 가지 단서에 기반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직관과 통찰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사건들을 이렇게나 능숙하게 연결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각하." 경찰청장이 말했다. "당신의 주장이 다소 추측에 불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제가 이 사건을 맡은 한 형사의 엄격한 증언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 형사는 지금쯤 여기 와야 하는데……."

"그 형사의 증언은 코스코 모닝턴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공증인이 물었다.

"일단 상속인들부터입니다. 엊그제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핵심 사항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났습니다. 그 형사가 제 비서에게 한 달 전, 정확히 오늘 날짜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언급한 적

이 있더군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전, 오늘 날짜에 코스코 모닝턴……”

데말리옹 씨는 단호하게 벨을 눌렀다.

즉시 그의 비서가 달려왔다.

“베로 형사입니까?” 경찰청장이 재촉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찾게! 데려오게! 어떻게 해서든, 지체 없이 찾아내야 하오.”

그리고 돈 루이스 페레나에게 말을 돌렸다.

“가니마르 형사가 한 시간 전에 여기로 왔소. 꽤 아픈 기색이었고, 매우 초조해했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쫓고 있다는 것이었소. 그는 모닝턴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진술을 나에게 전하려 했고, 오늘 밤 두 건의 살인이 자행될 것이며, 그 살인은 코스코 모닝턴의 피살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라고 경고를 하려 했소.”

“그런데 그가 아팠다고?”

“네, 불편해했죠. 심상치 않게도 기색이 이상했어요. 상상력이 자극된 모양이었죠.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는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란 게 하필 하얀 종이 한 장이더군요. 여기 그 종지와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가 함께 맡긴 종이 상자입니다. 안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박힌 초콜릿 한 판이 들어 있었죠."

"두 물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총감님?"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요…"

돈 루이스는 종이 상자와 '퐁뇌프 카페'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말이 뜻밖의 단서를 가져다줄 것처럼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가 내뱉은 말은 간단했다.

"봉투와 작은 상자에 적힌 글씨가 서로 다릅니다. 봉투의 글씨는 또렷하지 않고, 약간 떨린 듯 보입니다. 분명히 모방한 필체죠."

"그게 무엇을 증명한다는 겁니까?"

"그건, 총감님, 이 노란 봉투가 당신의 간부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간부가 상테교량 카페의 테이블에다 보고서를 쓰고 봉인을 한 뒤, 잠시 부주의한 틈을 타서 다른 사람이 봉투를 바꿔치기했을 것이라고요. 같은 주소가 적힌 다른 봉투로 바꾸어, 안에는 하얀 종잇장 하나만 넣은 것이죠."

"추측일 뿐이군!" 총감이 말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총감님, 형사의 예감이 단순히 직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감시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모닝턴 가의 유산 문제를 파헤친 것이, 어떤 범죄자들의 계산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 오!"

"그를 구해야 합니다, 총감님. 이 회의가 시작된 순간부터, 저는 우리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부딪혔다고 확신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그리고 형사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봐요, 각하." 경찰청장이 외쳤다. "당신이 그토록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 그건 제게는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우려가 타당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베로 형사가 돌아오면 그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될 테니까요."

"베로 형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요?"

"이미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그를 본 거예요."

"집행관이 착각을 한 거죠. 만약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이 남자의 증언뿐이라면…"

"저는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총감님. 베로 형사가 직접 남긴 것이죠."

"이 몇 마디는 거의 판독이 안 될 정도로潦草하게 적혀 있습니다. 형사가 메모장에다 급하게 쓴 글인데, 당신의 비서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가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죠!"

총감은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리에 있던 이들은 모두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비서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불안감을 한 층 더 키울 뿐이었다. 누구도 베로 형사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총감님." 돈 루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출납원을 즉시 심문해야 합니다."

출납원이 나타나자, 데말리옹 씨의 개입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는 곧장 출납원에게 물었다.

"베로 형사가 그 방에 다시 들어갔다는 게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는 것도요?"

"그것도 확실합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이 없었나요?"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장관이 소리쳤다.

"보셨습니까, 선생님! 만약 베로 형사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형사가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의 고집을 용서하십시오, 장관님. 하지만 누군가 방에 들어가서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데말리옹씨가 점점 더 화가 나며 말했다.

"아닙니다. 기절했거나, 아팠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 방패 뒤입니다."

"방패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하나뿐이죠."

"그 문은요?"

"화장실 문을 열어보시오."

"네, 총감님. 어리석은 베로 형사는 당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실로 가는 줄 알고 허둥지둥 걸어가다, 그만 이 화장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데스말리옹 총감이 재촉하며 달려나갔다. 하지만 문을 열려던 순간, 그는 뒤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놀라운 남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을까. 그는 그 남자가 명령을 내리는 태도가 너무도 위엄 있어, 마치 사건 자체까지 조종하는 것만 같았다.

도 루이스는 경의를 다한 듯한 자세로, 차분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믿을 수가 없소……." 데스말리옹이 말했다.

"총감님, 저는 베로 형사의 증언이 오늘 밤 죽어야 할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초가 소중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데말리옹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확신은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남자가 문을 열었다.

남자는 움직이지도,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다.

"세상에, 정말로요……!"

흐릿하게 번진 유리창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아래,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시체가 보였다.

"형사님…… 베로 형사님이……" 돌연 뛰어나온 법원 집행인이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비서와 함께 그는 시체를 들어 올려 작업실의 안락의자에 앉혔다.

베로 형사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기운이 너무 약해져서, 심장 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할 지경이었다. 입가에서는 침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눈에는 생명력이 없었다. 하지만 얼굴의 일부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마도 생명의 끝자락까지 끊이지 않는 의지의 힘이었으리라.

돈 루이스가 속삭였다.

"보십시오, 총감님. 갈색 반점을."

그 말에 방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요란했다.

"의사! 의사 데말리옹 총감이 외쳤다. "의사를 데려오시오. 누구라도 좋고, 신부도 한 명 불러오시오. 이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돈 루이스가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히려 남은 이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합시다."

"총독 각하, 잠시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쓰러져 가는 남자에게 몸을 굽혔다. 흔들리는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주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베로, 여기는 총독입니다. 오늘 밤 벌어질 일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베로, 내 말 잘 들리시죠? 들린다면 눈꺼풀을 한 번 감아 주세요."

눈꺼풀이 내려갔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돈 루이스가 계속했다.

"루셀 자매의 상속인을 찾아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중 두 명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도요. 오늘 밤, 연쇄 살인이 자행될 겁니다. 하지만 그 상속인들의 이름은 아마 루셀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뤼팽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메모장에 'FAU'라는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 글자들이 'Fau'라는 음절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이름의 시작 부분일까요? 그다음에 오는 글자는 무엇입니까? 'B'인가요, 'C'인가요?"

하지만 가니마르 형사의 창백해진 얼굴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머리가 무겁게 가슴으로 떨어졌다. 그는 두세 번 한숨을 내쉬더니, 온몸이 큰 떨림에 휩싸였다. 그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죽어 있었다.

제2장

비극적인 장면은 너무도 빠르게 벌어졌다. 목격한 사람들은 떨리는 몸으로 잠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법무사 성호를 그으며 무릎을 꿇었다. 주지사는 중얼거렸다.

“불쌍한 베로. 오직 직무와 의무만을 생각하던 착한 사람이었지. 치료를 받으러 갔더라면, 어쩌면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비밀을 건네고자 이 곳으로 돌아온 거야. 불쌍한 베로.”

“아내나 자녀는 없나요?” 돈 루이스가 초조하게 물었다.

“아내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주지사가 답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돈 루이스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때 의사가 이끌려 오고, 데말리옹 씨가 시신을 옆방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돈 루이스는 의사를 따로 불러 말했다.

“베로 형사는 분명히 독살당했습니다. 손목을 보세요. 주사 자국이 있고, 그 주변에 염증이 일어난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곳에서 찔렀다는 말인가?”

“네, 핀이나 깃펜 같은 것으로 찔렀죠. 하지만 원하는 만큼 세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몇 시간 뒤에 찾아왔으니까요.”

감찰관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곧이어 총독의 서재에는 소환된 다섯 사람만 남았다.

미국 대사관 서기랑 페루 영사관 참사관 둘은 자기가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는지, 도니 루이스 페레나의 통찰력을 극찬하며 자리를 떴다. 이어 아스트리냐크 대령이 나섰다. 그는 과거 부하였던 페레나의 손을 잡으며, 아끼는 마음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르페르튀이 씨와 페레나는 유산 인출 날짜를 정하고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데스말리옹이 급하게 들어왔다.

“아, 아직 여기 계셨군요. 도니 루이스 페레나 님! 잘됐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노트에 적힌 세 통의 편지를 해독하셨다고 하셨죠. 그중 ‘Fau’라는 음절이 분명히 들어간 게 맞습니까?”

“마침내 찾았습니다, 총감님. 자, 이 세 글자, F-A-U가 아닙니까? 그리고 F가 대문자로 쓰인 점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음절이 인명의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데스말리옹 총감이 말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음절이 바로…… 아무튼, 확인해 봅시다."

데스말리옹 총감은 서둘러 책장을 넘겼다. 비서가 도착하자마자 건네받아 책상 구석에 정리해 둔 편지철이었다.

"아! 여기 있군."

그가 편지 한 장을 집어 들고 다시 서명을 확인하며 외쳤다.

"봐라. 내가 생각한 대로야. '포빌'. 첫 음절이 똑같지. 이름 없이 그냥 '포빌'이라고만 적었군. 이 편지는 열이 나는 상태에서 급히 쓴 것 같아. 날짜도 주소도 없다. 글씨도 떨리고."

데말리옹 씨는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냈다.

"나와 내 아들의 목숨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우리를 위협하는 악랄한 음모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전 중 그 증거를 직접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사 올림.'

"다른 표시는 없나?" 페레나가 물었다. "봉투 머리 부분에도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없어요. 베로 형사의 진술이 그 절박한 호소와 너무 명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오늘 밤, 바로 포빌 씨와

그의 아들이 살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포빌이라는 성이 너무 흔해서 우리 수사가 제때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총감님!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죠. 지금 당장 모든 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서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아!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죽어야 할 두 사람을 우리가 구해 줄 수 없다니요. 주지님, 제발 이 사건을 직접 맡아 주십시오. 코스모 모닝턴의 뜻에 따라 이미 초기 단계부터 이 일에 관여하게 되셨으니, 주님의 권위와 경험으로 이 사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건 안전부나 검찰청의 소관입니다." 데말리옹 주지사가 반대했다.

"당연히 그렇죠, 주지님. 하지만 때로는 오직 최고 책임자만이 행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간곡하게 여쭙는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주지관의 비서가 한 장의 명함을 들고 들어왔다.

"주지님, 이분이 너무 집요하게 요청하셔서……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데스말리옹 씨가 그 카드를 집어 들고 놀람과 기쁨이 섞인 탄성을 터뜨렸다.

"보세요, monsieur."

그가 페렌나에게 말했다. 페렌나는 그 카드에 적힌 글자를 읽었다.

"자, 이제 보니 운명인지 뭐인지,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가 내 손으로 모이는군. 당신 뜻대로 내가 이 일을 맡게 되었소."

데스말리옹 씨가 말했다.

"게다가 사건이 우리 편으로 돌아가는 것 같소. 만약 그 포빌 씨가 루셀 가문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 일은 훨씬 수월해질 거요."

"물론입니다, 각하."

공증인이 반박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유언장 조항 중 하나를 상기시켜 드려야겠군요. 그 조항에 따르면 유언장 낭독은 48시간 후에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빌 씨는 아직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없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남자가 문지기를 밀치고 난입했다.

그는 말더듬듯 말했다.

"경감… 베로 경감? 죽었죠, 맞나요? 누군가 말했길래…"

"네, 신사. 죽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는 손을 모으고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 비참한 자들! 비참한 자들!"

박쥐머리 위로는 깊은 주름이 패인 이마가 보였다. 신경질적인 경련이 턱을 떨게 했고, 귓바퀴를 잡아당겼다. 대략 오십 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창백했고, 볼은 패였으며, 병색이 짙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굴러 내렸다.

부지사가 물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신사? 베로 경감을 죽인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지목하거나, 우리 수사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히폴리트 포빌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죠. 정말로, 아니요."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과했다.

"총감님, 쓸데없이 귀찮게 했네요… 하지만 궁금해서요… 베로 형사가 살아남았기를 바랐거든요. 제 증언과 그의 증언이 합쳐졌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혹시 그 형사가 총감님께 미리 알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오늘 밤, 아니 이 밤에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히폴리트 포빌이 깜짝 놀랐다.

"오늘 밤! 그렇다면 이미 시간이 다 된 건가? 아니, 아니, 그럴 리 없어. 아직 그들한테 당할 처지가 아니야…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베로 형사는 분명히 오늘 밤, 아니 이 밤에 연쇄 살인이 자행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니요, 총감님. 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 돼야야죠. 우리들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테니까요. 불쌍한 자들아…"

돈 루이가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의 어머니 이름이 에르멜린 루셀이 맞습니까?"

"네, 에르멜린 루셀입니다. 지금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에티엔 출신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총감님이 내일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한 마디만 더."

그는 베로 형사가 가져다놓은 종이 상자를 열었다.

"이 초콜릿 한 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문들은 요?"

"오!" 기술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추잡한 짓이로다! 형사는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냈단 말인가?"

그는 잠시 또다시 기절할 뻔했지만, 순간은 짧았다. 곧 몸을 일으키더니 다리를 떨며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다.

"저는 가겠습니다, 총감님. 당장 떠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 아들도요. 우리 둘 다 살아남겠습니다. 어휴, 비참한 자들아…"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뛰어나갔다.

데말리옹 총감은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남자의 주변 정황을 조사하게 하겠습니다. 그의 집도 감시하게 하고요. 이미 안전부에 전화를 걸어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총감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총감님의 지휘 아래 제가 계속 맡게 해 주십시오. 코스코 모닝턴의 유언장이 저에게 그 의무를

지우고, 허락하신다면 그 권리를 주었습니다. 포빌 씨의 적들은 놀랄 만큼 교묘하고 대담합니다. 오늘 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 곁을 지키는 것이 제 명예에 걸린 일입니다."

총감은 잠시 망설였다. 도니 루이스 페레나가 모닝턴 가의 상속인 중 아무도 찾지 못하거나, 적어도 자신과 백만 장의 유산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그는 어찌 생각지 않았겠는가? 죽음에 직면한 이피폴트 포빌을 보호하려는 그 기묘한 욕망이, 감사라는 고귀한 감정이나 우정 및 의무에 대한 높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데말리옹은 몇 초 동안 그 결의에 찬 얼굴, 그리고 유능하면서도 아이 같은 순수함이 섞인, 진지하면서도 미소가 감도는 그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매로는 개인의 비밀스러운 수수께끼를 파고들 수 없었지만, 오직 진심과 솔직함만으로 상대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비서를 불렀다.

"안전부에서 왔는가?"

"네, 총감님. 마제루 소경이 있습니다."

"들이라 해라."

그리고 페렌나를 향해 돌아섰다.

"마제루 소경은 우리 최고의 요원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능숙하고 활동적인 인물이 필요할 때, 불쌍한 베로와 함께 그를 썼습니다. 그대에게 매우 유용할 겁니다."

마제루 소위가 들어왔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근육질로 단단한 체격이었다. 축 처진 수염과 무겁게 내린 눈꺼풀, 눈물이 고인 듯한 눈, 평평하게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에 가장 우울한 표정을 만들어 주었다.

현무관은 그에게 말했다.

"마제루, 동료가 죽은 일과 그 끔찍한 사정쯤은 이미 알고 있겠지. 우리는 복수를 하고, 더 이상의 범죄를 막아야 해. 이 일은 이 분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셔. 필요한 설명은 모두 해줄 거야. 너는 그와 함께 행동하고,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

현무관은 돈 루이스 페레나에게 전권을 위임한 셈이었다. 그의 판단력과 통찰력을 믿은 것이었다.

돈 루이스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총감님. 제가 받은 신임을 후회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데말리옹 씨와 레페르튀이 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마제루 소위와 함께 밖으로 나섰다.

바깥에서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마제루에게 털어놓았다. 마제루는 동료가 가진 전문적인 자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두 사람은 먼저 상테푸브 카페로 향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자비투레였던 베로 형사가 실제로 그날 아침 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테이블 서빙 담당 직원은, 형사와 거의 동시에 들어온 옆자리 손님이 편지지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노란색 봉투를 두 번이나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또렷이 기억해 내고 있었다.

"맞습니다." 마제루가 돈 루이스에게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편지가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소년이 제공한 용의자 묘사는 충분히 구체적이었다. 키가 크고 약간 구부정했으며, 끝이 뾰족한 갈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검은 비단 끈에 매달린 상아 안경을 쓰고 있었고, 은으로 만든 백조 머리 모양의 손잡이를 지닌 흑단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 정도면 경찰도 움직일 수 있겠군요." 마제루가 말했다.

그들은 카페를 나서려던 차였다. 그때 돈 루이스가 동료를 붙잡았다.

"잠시만."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쫓아온다니요? 그건 좀 과장된 말씀이시군요. 대체 누구한테요?"

"별일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죠. 이 일도 금방 끝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지루할 틈은 절대 없게 해 드리죠, 약속합니다. 당신은 근처에 있는 친구를 한 명 만나러 가십시오."

그는 정말로 일 분 만에 돌아왔다. 수염을 기른 날씬하고 키 큰 신사가 함께였다.

그가 인사를 시켰다.

"마제루 씨, 제 친구입니다. 카세레스 씨, 페루 영사관 직원이며, 방금 전 부Prefecture에서 있었던 면담에도 참석했던 분입니다. 제 신원을 입증할 서류를 모으라는 페루 장관의 지시를 받은 분이 바로 카세레스 씨입니다."

그가 밝게 덧붙였다.

"그럼, 카세레스 씨, 저를 찾고 계셨죠… 우리가 형사국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정말로…"

페루 영사가 손짓하며 마제루 소령을 가리켰다. 페레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발요. 마제루 씨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 앞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더군다나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영사는 입을 다물었다. 페레나가 그를 마주 앉게 했다.

"서두르지 말고 솔직히 말해 주시오, 카세레스 씨. 이 문제는 직설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심지어 거친 표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죠. 자, 시작합시다. 당신에게 돈이 필요한 거죠? 아니, 적어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페루인은 잠시 망설이다, 도니 루이의 동료를 한 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만 프랑!"

"세상에, 세상에!" 돈 루이스가 외쳤다. "너무나도 탐욕스럽군요. 마제루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만 프랑이라니,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게다가…"

"자, 카세레스 씨,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몇 년 전, 알제리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당신에게, 제 이름 '페레나'로 스페인-페루 혈통의 인물을 삼 년 안에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확실한 서류와 존경할 만한 조상들이 있는 인물로요."

"당신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가격은 이만 프랑으로 정해졌죠."

"지난주, 경찰청장이 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제 출신 배경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적절히 보정된 고(故) 페레나 경의 서류를 바탕으로, 당신은 저에게 일급의 신분증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찰청장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한 뒤, 저는 이만 프랑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 빚진 것이 없습니다. 더 무엇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페루 영사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두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리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과거에 저희가 거래할 때 저는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사 복장을 하고 계셨지만, 훗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신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문제되는 사람은 코스코 모닝턴의 유산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는 내일 가명을 써서 백만 프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아마도 이백만 프랑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돈 루이스에게 확실히 먹힌 듯했다. 그럼에도 그는 반박했다.

"그렇다면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시면, 저는 즉시 공증인과 경찰청장에게 제 조사가 잘못되었으며, 도니 루이스 페레냐의 신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체포될 테죠."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집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물론이죠. 위조와 신분증 조작죄로요. 제가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보좌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후각이 매우 예민했는데, 그 코가 두 줄기의 긴 수염 사이로 길게 늘어나는 듯했다.

도니 루이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자, 카세레스 씨. 그 얼굴 좀 지으세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저를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영리한 자들도 시도했다가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남을 속이시는 솜씨는 그리 수준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카세레스 씨는 좀…… 순진하시군요. 아주 순진하게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총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 훌륭한 페레나 씨를 해치려는 어두운 계획을 접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카세레스 씨. 완벽합니다. 제가 자비로운 군주가 되어, 두 사람 중 정말로 정직한 쪽이 누구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크레디 리오네 은행의 도장이 찍힌 수표장을 꺼냈다.

"자, 친애하는 친구여. 여기 코스모 모닝턴의 유언 집행자가 주는 이만 프랑을 받으시오. 미소를 띠고 주머니에 넣으시오. 착한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는 머리를 돌리지 않은 롯의 딸들처럼 당당히 사라지시오. 가시오… 어서!"

그렇게 말하자, 비서는 도니 루이스 페레나의 지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따랐다.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짓고, 두 번이나 감사를 표한 뒤 머리를 돌리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역적 같은 놈!" 도니 루이스가 중얼거렸다. "어때요, 반장님?"

마제루 반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저기, 선생님이…"

"무슨 일이오, 반장?"

"아니, 저기,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고?"

"그 사람에 대해 들은 게 없어요? 페루 귀족이거나 스페인 귀족……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이스 페레나 경이죠."

"장난하십니까? 저는 방금……"

"루이스 페레나 경, 전직 레지옹 훈장 단원……"

"够了, 선생님……"

"훈장도 여러 개 달고, 옷깃마다 장식이 가득한 분이에요."

"够了,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총무국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전직 레지옹 훈장 단원이자…… 전직 영웅, 상테 형무소 출신, 전직 러시아 공작, 전직 안전국 국장, 전직……"

"당신 미쳤군요!" 간부가 이를 갈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진짜 역사입니다. 정말로요. 지금 제 신분을 묻는다면요? 제가 뭐라고 할지 들어보세요.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칭호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후작, 남작, 공작, 대공, 대공자, 소공자, 역공자……. 귀족 명단 전체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왕이었다고 해도, 배를 갈라버릴래요, 반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마제루 소령은 거친 일을 해온 두 손으로, 외관상으로는 가냘픈 상대방의 두 손목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장난치지 마, 알겠지? 내가 지금 누구와 마주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경찰청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조용히 말해, 알렉상드르."

약한 두 손목이 놀라울 만큼 가볍게 풀려났다. 이어 단단한 팔을 가진 병장의 두 손이 잡혀서 꼼짝 못하게 묶였다. 도 루이스가 비웃듯 웃었다.

"너, 나를 못 알아보는 게야, 바보야?"

마제루 병장은 입을 다물었다. 눈이 동그래졌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어리둥절해졌다. 그 목소리, 농담하는 태도, 그리고 그 대담함과 어우러진 장난기 어린 모습. 그리고 그 눈빛의 비웃는 표정. 더구나 '알렉상드르'라는 이름. 그건 그의 이름이 아니었고, 과거에 오직 한 사람만이 부르던 이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일까?

그가 더듬거렸다.

"사장님…… 사장님이요……"

"왜 안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냐해서 뭐?"

"사장님은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때? 내가 죽은 게 살아있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

상대방이 점점 더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누가 너를 경찰청에 넣었나?"

"안전부장이신 르노망 씨요."

"르노망 씨는 누구였지?"

"바로 보스였죠."

"그건 곧 아르센 뤼팽이라는 말이군."

"글쎄, 알렉상드르. 넌 아르센 뤼팽이 안전부장이 되는 게 도나 루이스 페레냐가 되는 것보다, 훈장을 받는 것보다, 레지옹 도뇌르 회원이 되는 것보다, 영웅이 되는 것보다, 심지어 죽은 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대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단 말인가?"

마제루 소위는 묵묵히 옆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슬픈 눈빛이 살아나고, 흐릿했던 얼굴에 열기가 돌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좋아, 그래. 하지만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절대 아니야.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고, 그 자리에 머물 거야. 상관없어. 나는 정직이라는 맛

을 봤어. 이제 다른 빵은 먹지 않을 거야. 절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더 이상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페레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바보야, 알렉상드르. 정직이라는 빵은 지성을 키워주지 못해. 누가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런데 뭐?"

"모든 음모 말입니다, 보스."

"내 음모라니! 네가 나랑 이 일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냐?"

"보스, 좀 봐 주세요."

"전혀 아니야, 내 친구. 두 시간 전엔 너만큼이나 이 일에 대해 몰랐어. 하느님께서 갑자기 예고 없이 나를 유산 상속자로 만드셨고, 그분께 불복종하지 않기 위해…"

"그래, 어때?"

"나는 고스모 모닝턴의 원수를 갚고, 그의 자연 상속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백만 프랑을 분배해야 하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면 정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사장님…"

"그래, 친구야. 만약 내 행동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루페를 통해 찾아내라. 도니 루이스 페레나의 양심에 먹칠할 만한 점이 발견되면 망설이지 말고 내 팔을 꽉 잡으라. 너에게 그 권한을 준다. 명령이다. 충분하지?"

"사장님, 저에게 충분하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해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설명해 봐."

"만약 당신이 잡혀간다면?"

"뭐라고?"

"배신당할 수도 있어."

"누구한테?"

"옛 동료들 말이야."

"이미 프랑스 밖으로 보냈잖아."

"어디로?"

"그건 내 비밀이야. 넌 필요할 때 쓰려고 파리 경찰청에 남겨뒀지. 그리고 봐, 내가 옳았잖아."

"근데 진짜 신분이 드러나면 어떡해?"

"그래서?"

"체포당하죠."

"불가능해."

"왜?"

"나를 잡을 수 없어."

"이유가 뭐야?"

"자네 스스로 말했잖아, 부자. 위대한 이유, 놀라운 이유, 막을 수 없는 이유라고."

"무슨 이유?"

"나는 이미 죽었어."

마제루는 숨이 턱 막힌 듯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고 지나갔다. 그는 순식간에 그 논리의 힘과 우스꽝스러움을 모두 깨달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미친 듯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몸이 두 동강이 될 듯이 구부러지고, 우울했던 얼굴이 가장 기괴한 방식으로 경련했다.

"아, 사장님, 정말 변함없으시네요! … 하느님, 정말 재밌어요! … 제가 따라갈까요? 물론이죠, 따라갈 수밖에요! …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은 따라갈 거예요! … 사장님은 끝났습니다! 매장당했습니다! 소멸했습니다! 아, 정말 웃겨요! 정말 웃겨요!"

히폴리트 포빌은 엔지니어였다. 부시히 대로변, 요새 담장 옆에 자리 잡은 그의 저택은 꽤나 넓은 편이었다. 왼쪽에는 정원이 붙어 있었고, 그곳에 그는 넓은 서재 하나를 지었다.

정원은 이제 나무 몇 그루와 잔디 한 줄기만 남은 셈이 되었다. 담쟁이넝쿨이 뒤덮인 철책과 그 안쪽으로 난 문이 부시히 대로와 저택을 갈라놓았다.

도 루이 페르나와 마제루는 파시 경찰서로 향했다. 마제루는 도 루이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소개하고, 요청을 넣었다. 포빌 엔지니어의 저택을 밤새 경찰 두 명이 감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만약 수상한 자가 침입을 시도한다면 즉시 체포하도록 조치해 주길 바랐다.

경찰서장은 자신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 후 도 루이스와 마제루는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홉 시가 되자 그들은 호텔 정문 앞에 섰다.

"알렉상드르."

페레나가 불렀다.

"사장님?"

"두렵지 않냐?"

"아니요, 사장님. 왜요?"

"왜냐고? 우리가 포빌 공학자와 그 아들을 변호하는 건, 이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거대한 이해관계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겁이 없어 보인다. 너희의 생명, 나의 생명…… 한순간,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끝장날 수 있다. 정말 두렵지 않냐?"

"사장님." 마제루가 대답했다. "제가 언제쯤 두렵다는 걸 알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우만큼은 절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 친구야?"

"제가 사장님 곁에 있는 한."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타났다. 마제루가 명함을 건넸다.

히폴리트 파빌은 그들을 자신의 서재로 맞았다. 책상 위는 소책자, 책,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높은 받침대에 올려진 두 개의 책상 위에는 설계도와 도면들이 놓여 있었고, 유리 진열장 두 개에는 그 공학자가 만들거나 발명한 장치들의 아이보리 및 강철 축소 모형들이 들어 있었다.

넓은 소파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반대쪽에는 원형 발코니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 천장에는 전등이, 벽에는 전화기가 달려 있었다.

마자루는 곧장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친구 페렌나가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함께 왔다고 소개한 뒤, 이번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데말리옹 씨는 방금 알게 된 매우 중대한 단서들로 인해 큰 우려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내일의 면담을 기다리지 않고, 포빌 씨에게 자신의 요원들이 권할 만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빌 씨는 처음에는 다소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미 충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당신의 개입이 해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 적들의 주의를 끌게 되면, 제가 그들을 단죄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될 테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요. 그전엔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늦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돈 루이스 페레나가 끊었다.

"이미 늦었다? 내일?"

"베로 형사가 데말리옹 씨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중 살인은 오늘 밤에 일어납니다. 필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밤?" 파빌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아니라고요. 절대 오늘 밤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게 있으니까요. 당신들은 모르는 것을요."

"그렇죠," 돈 루이스가 반박했다. "하지만 베로 형사가 알고 당신들은 모르는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사가 당신의 적들의 비밀을 더 깊이 파고들었을지도요. 그가 의심받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흑단 지팡이를 든 한 인물이 그를 감시했다는 것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 이것 역시 증거입니다."

히폴리트 포빌의 자신감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페레나는 이 틈을 타서 재차 설득에 나섰다. 그의 태도가 너무 확고했기에, 포빌은 비록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그 사람의 뜻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그래, 대체 뭐라고?"

"당신, 여기서 밤을 새울 생각은 아니지?"

"그렇습니다."

"미친 소리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어차피 최악의 경우라도…… 뭐, 대체 뭘 원한다는 거지?"

"이 호텔에 누가 사나?"

"누가? 내 아내부터야. 1층을 쓰고 있어."

"포빌 부인은 위협받지 않아."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위협받는 건 저와 아들 에드몽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흘 밤은 평소와 달리 제 방에서 자지 않고, 이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봐야 해서 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죠."

"아들이랑 같이 자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방 위, 작은 방 하나를 따로 만들어 줬어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내부 계단뿐이죠."

"지금 그 방에 있나요?"

"네. 자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열여섯입니다."

"만약 방을 바꿨다면, 누군가 습격할까 봐 두려워서인가요? 누가요? 호텔에 사는 적인가요? 아니면 하인 중 한 명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인물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침입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일…… 내일……" 오빌은 완고하게 대답했다. "내일이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밤이 안 됩니까?" 페레나는 고집을 부리며 재차 물었다.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말을 건넨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사실 그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비참해 보였고, 너무 공포에 질려 있었기에 도니 루이는 더 이상 쫓아붙이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제 동료와 저를 위해, 당신의 호출이 닿는 범위에서 밤을 보내도 되는지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그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집사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담이 나가시기 전에 먼저 만나고 싶다고 했다. 곧이어 포빌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페레나와 마제루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른에서 서른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미소 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푸른 눈과 곱슬머리, 그리고 다소 가볍게 보일 수는 있지만 친근하고 매력적인 얼굴 전체에서 풍기는 우아함이 그 아름다움의 비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코트 안에 춤추기 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어깨가 드러나 있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밤 나가신다고요?"

"기억나? 오베야르 가문에서 오페라 극장 로열 박스 자리를 초대해 주셨잖아. 그리고 직접 나더러 드 에르싱거 씨의 저녁 파티에 잠시 들르라고 부탁했지."

"맞아… 맞아… 기억이 안 났네. 일이 너무 많거든."

그녀는 장갑 단추를 마지막까지 채우며 말을 이었다.

"드 에르싱거 씨 댁에 내가 찾아갈 때 너도 같이 올 생각이야?"

"왜 그래?"

"그분들께는 큰 기쁨이 될 테니까."

"나한테는 별 재미가 없겠군. 게다가 건강상으로도 무리가 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 네가 대신 말해 줘."

그녀는 우아하게 코트를 여미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작별 인사를 건넬 말을 찾고 있는 듯했다. 그러더니 물었다.

"에드몽이 없네? 그가 너와 함께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피곤해서 쉬고 있어."

"자고 있는 거야?"

"저는 그분에게 키스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럼 깨우게 되잖아. 어차피 네 차가 왔어. 가, 사랑하는 친구여. 재미있게 놀아."

"오, 재미있게 놀다니…… 오페라나 저녁 파티에서나 하는 그런 재미 말이에요."

"그래도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낫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건강이 좋지 않아 사교 모임에 부정적인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있고, 아내인 그녀는 자신의 나이와 습관에 어울리는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부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자,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다시 두 방문객에게 인사를 건넨 뒤 그녀는 나갔다.

잠시 후,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이폴리트 포빌이 자리에서 일어나 종을 불렀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게 닥친 위기를 눈치채지 못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내 전용 하인 실베스트르에게조차 그러하다. 그는 수년간 나를 섬겨 왔고, 그 어떤 의심도 살 수 없는 정직함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하인이 들어왔다.

"자고 싶다. 실베스트르, 준비해라." 오빌 씨가 말했다.

실베스트르는 큰 소파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소파가 곧 편안한 침대로 변신했다. 그는 시트와 이불을 정돈했다.

그리고 주인의 명을 받아 물병과 잔, 비스킷 한 접시,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다. 오빌 씨는 비스킷을 하나 집어 먹은 뒤, 애플을 한 개 잘랐다.

그것은 아직 익지 않은 사과였다. 그는 다른 두 개를 더 꺼내 만져 보았지만, 역시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 다시 돌려놓았다. 그리고 배를 한 개 껍질을 벗겨 먹었다.

"접시 반찬 통은 놔두게. 만약 밤에 배가 고프면…… 아, 그렇지. 이분들은 여기서 묵으시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내가 종을 울릴 때까지 오지 마."

가구는 접시 반찬 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뒤 물러났다. 페르나는 모든 것을 눈여겨보았다. 이후 그는 기계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듯, 그 밤의 가장 사소한 디테일까지 떠올려야 했다. 페르는 접시 반찬 통 안에 배 세 개와 아피 사과 네 개가 들어있음을 세었다.

한편 오빌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들은 푹 자고 있네." 페르나에게 다가온 오빌이 말했다.

방은 작았다. 공기는 특별한 환기 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지붕 창문을 나무 판자로 단단히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작년쯤 제가 미리 해둔 조치입니다." 히폴리트 파빌이 설명했다. "이 방에서 전기 실험을 하다 보니, 누군가 엿보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옥상으로 통하는 출구를 막아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낮고 긴장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 주변을 배회하는 자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파빌이 시계를 확인했다.

"열한 시 사십오 분……. 쉴 시간입니다.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레나와 마제루는 작업실과 호텔 현관을 잇는 복도로 나가, 두 개의 안락의자를 가져와 그곳에 앉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을 떠나기 직전, 지금까지는 매우 불안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이폴트 파빌이 갑자기 힘을 잃었다.

그가 약한 비명을 지르며 내뱉었다.

도 루이스가 몸을 돌리자, 땀이 그의 얼굴과 목을 따라 물이 흐르듯 흘렀다. 그는 열과 공포로 몸이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가 말했다.

"그건 광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데!" 도 루이스가 외쳤다. "우리는 심지어 당신 옆에서, 당신의 침대 곁에서 밤을 새울 수도 있습니다."

기술자는 페레나의 어깨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얼굴이 경련처럼 떨리며 그는 더듬거렸다.

"만약 내가 열 명, 스무 명이라도 당신 곁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방해가 될까요? 그들은 무소불위입니다. 정말로요. 그들은 무언이든 할

수 있어요. 이미 베로 형사를 죽였잖아요. 이제 나를 죽이고, 제 아들까지 죽일 거예요. 천박한 자들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 이 공포라니! 제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가슴을 치며 반복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죽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벌떡 일어나 페렌나를 데리고 유리 진열대 앞으로 갔다. 그는 진열대를 밀어냈고, 진열대는 구리 바퀴 위에서 가볍게 굴러갔다. 그리고 그는 벽면에 박힌 작은 금고의 덮개를 벗겨 보였다.

"내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지난 삼 년간 날짜를 적으며 하나하나 기록해 둔 것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복수하기는 쉬울 것이다."

그는 재빨리 자물쇠의 글쇠를 돌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 하나로 문을 열었다.

금고는 사분의 일 정도만 채워져 있었다. 선반 한 곳에 쌓인 서류 더미 속에, 빨간 고무줄로 동여맨 회색 천 표지의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노트를 낚아채며 말했다.

"자… 여기…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 있다. 이것만 있으면 끔찍한 그 일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먼저 내 의심이 있고, 그다음 내 확신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 모두 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증거,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자료 말이다. 기억해 두겠지? 회색 천 표지의 노트 말이야. 나는 이걸 다시 금고 속에 넣겠네."

조금씩 그의 평정이 돌아왔다. 그는 유리창을 밀어 제치고, 책상 위의 종이를 정리한 뒤, 침대 위에 드리운 전등을 켰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매달린 샹들리에의 불을 끄고, 돈 루이스와 마제루에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돈 루이스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두 창문의 철제 셔터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한 개의 문을 발견하고, 엔지니어에게 물었다.

"저는 평소 고객들이 쓰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도 그쪽으로 나가곤 하죠."

"그 문이 정원으로 통하는 건가요?"

"문은 단단히 잠겨 있나요?"

"보시면 알 겁니다. 열쇠와 안전 잠금장치로 두 번 잠갔죠. 열쇠 두 개는 제 열쇠고리에 달려 있고, 정원 열쇠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열쇠고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지갑도 같은 자리에 뒀다. 그리고 시계를 감은 뒤, 그 옆에 시계를 올려놓았다.

돈 루이스는 주저 없이 열쇠 꾸러미를 집어 들더니, 자물쇠와 빗장을 조작했다. 세 계단을 올라가면 정원이 나왔다. 그는 좁은 화단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아이비 덩굴 사이로 경찰관 두 명이 대로 위를 거니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발소리도 들렸다. 그는 철문 자물쇠를 다시 확인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자, 잘됐군."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모두 괜찮아. 너도 안심해도 돼. 내일 봐."

"내일 봐요." 엔지니어는 페레나와 마제루를 배웅하며 답했다.

그의 서재와 복도 사이에는 이중문이 있었다. 한쪽 문은 패딩 처리되어 모레스킨 천으로 덮여 있었다. 복도 다른 쪽은 무거운 테이프스트리(벽걸이 천)로 현관과 분리되어 있었다.

"자, 자면 돼." 페레나가 동료에게 말했다. "내가 지킬게."

"하지만 사장님, 경보가 올 리가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충분히 조심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베로 형사를 잘 아니? 그가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사장님."

"그럼 알아두게. 그가 예언한 바가 있었잖아. 그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 나는 눈을 떼지 않을 거야."

"각자 차례가 있는 거죠, 사장님. 제가 경계할 시간이 되면 깨워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아 드문드문 말을 나눴다. 잠시 후 마제루가 잠들었다. 도 루이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움직이지도 않고 귀를 기울였다. 호텔 안은 고요했다. 밖에서는 가끔 자동차나 마차 소리가 지나갔다. 오트이이선 마지막 기차 소리도 들렸다.

도 루이스는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곤 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피욜트 포빌은 분명 잠들었을 것이다.

'완벽해.' 페레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보르바르에는 경비가 서 있다. 이 문 말고는 이 방으로 들어갈 다른 통로가 없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자정 두 시간, 한 대의 자동차가 호텔 앞에 멈춰 섰다. 부엌 쪽에서 기다리라고 지시받은 하인 중 한 명이 큰 문 쪽으로 재빨리 향했다. 페레나는 복도의 전등을 끄고 벽지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제야 마르쿠스 포빌과 실베스트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통로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한 시간 반 동안 위층에서는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와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페레나는 알 수 없는 공포가 가슴 깊숙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도 강렬했고, 날카로워져서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해 볼게. 문은 빗장까지 잠그지 않았을 거야."

그가 말한 대로였다. 그는 문짝을 살짝 밀어 쉽게 열 수 있었다. 손전등을 든 채 그는 침대로 다가가려 했다.

히폴리트 포빌은 벽을 등지고 누워 잠들어 있었다.

페레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복도로 돌아와 마제루를 흔들며 말했다.

"이제 네 차례야, 알렉상드르."

"새로운 소식은 없어요, 사장님?"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는 잘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거든."

"이상하네요. 저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멍청이처럼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네요."

그는 페레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페레나는 그에게 말했다.

"앉아. 깨우지 마. 내가 잠시 눈을 붙일게."

그는 다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잠든 척하면서도,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벽시계가 낮게 시간을 알렸다. 페레나는 매번 그 소리를 세었다. 그러자 밖의 세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유 배달 마차가 굴러가고, 교외 열차가 휘파람을 불었다.

호텔 안에서도 분주함이 시작되었다.

셔터 틈새로 아침빛이 스며들었고, 방은 점차 밝아졌다.

"우리 가자." 마제루 소위가 말했다. "여기서 발견되면 곤란하잖아."

"잠깐." 돈 루이스가 엄격한 손짓과 함께 명령했다.

"왜요?"

"그가 깨어날 거야."

"보십시오, 깨어나지 않아요." 마제루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말했다.

"맞아요… 맞아요…" 돈 루이스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가 잠자는 이를 깨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는 놀랐다.

그는 한밤중 중얼거리던 것과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더 선명하고도 구체적인 불안감이었다. 그는 원하지도, 감히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그 불안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무서워요."

마제루가 전율했다.

"무엇이 무서우세요? 어제 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똑같이 하시네요."

"그래… 그래…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체 왜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궁금해하는 걸 이해 못 하세요?"

"무엇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가…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사장님, 미친 건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다만… 죽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는 손에 등불을 든 채 침대 앞에 굳어 버렸다. 세상 무서운 것이 없던 그였지만, 히폴리트 포빌의 얼굴을 비추려던 담력은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다. 방 안에는 공포스러운 침묵이 가득 차올랐다.

"오, 사장님, 움직이지 않아요…"

"알고 있소. 알고 있다고. 지금 와서야 깨달았소. 이 밤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게… 그게 나를 무서운 거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간신히 침대까지 다가갔다.

엔지니어는 숨조차 쉬지 않는 듯했다.

결심한 듯 그는 그 손목을 잡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간 페레나는 모든 침착함을 되찾았다.

"창문!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는 히폴리트 포빌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갈색 반점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 저 사람이 죽었군." 그가 낮게 말했다.

"천벌을 받아라! … 천벌을 받아라!" 병장이 더듬거렸다.

그들은 두세 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멍하니, 어리석게, 그리고 가장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이 확인된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페레나가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는 몇 번의 도약으로 안쪽 계단을 올라가, 복도를 질주하듯 달린 뒤 다락방으로 뛰어들었다.

침대 위에는 히폴리트 포빌의 아들 에몽이 누워 있었다. 그는 굳어 있고, 얼굴은 회색빛을 띠었으며, 역시 죽어 있었다.

"천벌을 받아라! … 천벌을 받아라!" 마제루가 반복했다.

페레나는 모험 가득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입에 올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다. 바로 그날 밤, 그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은 철저히 경비되었고, 모든 출입구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옥 같은 주사로 독살당했다. 미국인 코스모 모닝턴을 독살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젠장! 다시 말하지만, 저 가엾은 자들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떠들 필요도 없었어!"

마제로우의 말에는 꾸짖는 어조가 담겨 있었다. 페레나는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인정했다.

"맞아, 마제루. 나는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

"나도 마찬가집니다, 보스."

"너는… 너는 어제 밤부터 이 일에 관여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보스, 당신도 어제 밤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 알고 있어. 어제 밤부터 시작했지만, 그들은 몇 주, 몇 달 동안 이 계획을 세웠거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죽었어.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내 눈앞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아무것도… 이게 가능할 리가 없어?"

그는 불쌍한 아이의 어깨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팔 위쪽에 난 주사 자국을 가리켰다.

"같은 자국이야… 분명히 아버지에게서도 발견된 것과 같은… 아이도 고통을 겪지 않은 것 같아. 불쌍한 녀석! 외형이 그리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굴은 꽤 잘생겼어. 아,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병장은 분노와 연민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다.

"크레 통네르! 크레 통네르!"

"우리가 복수해 주마, 마제루? 그렇지?"

"말씀을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상사님?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제대로 해 치워야죠!"

"한 번이면 충분해, 마제루.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건 제가 맹세할게요."

"그래, 함께 맹세하자.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갚아져야 한다고. 이폴 파빌과 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는 손을 놓지 않겠다고."

"영혼의 구원을 걸고 맹세합니다, 상사님."

"좋아." 페레나가 말했다. "이제 일을 시작하자. 너는 즉시 경찰 본부에 전화해. 데말리옹 경감이 즉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뻐할 거야. 이 사건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만약 하인들이 오면 어떡해? 만약 포빌 부인이…"

"누구도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는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경찰청장에게만 문을 열 거야. 그가 포빌 부인에게 widowed(과부)가 됐고 아들도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릴 테니까. 어서 가."

"잠시만요, 사장님. 우리를 크게 도와줄 무언가를 잊고 있네요."

"무엇이죠?"

"금고 안에 있는 회색 천으로 된 작은 노트 말이에요. 포빌 부인이 자신에게 대한 음모를 설명했던 그 노트요."

"아, 정말! 페레나가 말했어. 너 말이 맞아… 게다가 그는 자물쇠의 숫자를 지우지 않았잖아. 그리고 열쇠는 테이블 위에 둔 열쇠고리에 있구려."

그들은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맡기세요." 마제루가 말했다. "금고를 만지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는 열쇠고리를 챙겨 유리를 벗겨내고 열쇠를 꽂았다. 손이 떨리는 걸 보니, 도니 루이스는 그보다 더 격렬한 감정을 느꼈다. 드디어 그 신비로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죽은 자가 자신의 고문자들에 대한 비밀을 폭로해 줄 것이었다.

"게으르다." 도니 루이스가 투덜거렸다.

마제루는 철제 선반을 가득 채운 서류 더미 속으로 양손을 파고들었다.

"자, 마제루, 그거 줘."

"뭐?"

"회색 천 표지 노트."

"안 됩니다, 사장님."

"뭐라고?"

"없어졌어요."

도니 루이스는 욕설을 삼켰다. 엔지니어가 금고 속에 두고 간 회색 천 표지 노트가 사라진 것이었다.

마제루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그 수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

"물론이지. 그 외에도 알았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놈들과는 아직 끝이 안 봤어. 그러니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전화기를 써."

마제루는 즉시 따랐다. 잠시 후, 데말리옹 씨가 전화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기다렸다.

몇 분 뒤, 여기저기를 거닐며 여러 물건을 살피던 페레나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시선이 과일 접시에 고정되자, 그는 중얼거렸다.

"어이쿠, 사과가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었네. 네 번째 사과를 먹었나 보군."

"맞아요, 마제루가 대답했다. 먹었을 겁니다."

"이상하군, 페레나가 다시 말했다. 그 사과들은 익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는 다시 입을 다물고, 팔을 책상 위에 괴고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뚜렷이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선 이런 말을 내뱉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저질러졌습니다. 정확히 자정 반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아십니까, 상사님?"

"푸빌 씨를 살해한 범인, 혹은 범인들이 이 책상 위에 정리해 둔 물건들을 만졌을 때, 푸빌 씨가 올려둔 시계가 떨어졌거든요. 범인들은 시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지만, 떨어지면서 시계는 멈춰 있었죠. 지금 그 시계는 자정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님, 우리가 새벽 두 시쯤 이 방에 들어와서 앉았을 때, 우리 옆에는 시체가 있고, 우리 위에는 또 다른 시체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 악마들은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

"정원 쪽으로 통하는 문과, 쉬셰 대로 쪽으로 난 철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잠금장치와 자물쇠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사제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집 밖을 감시하고 있는 경찰들은 어땠소?"

"지금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며 감시할 뿐, 등 뒤에 있는 정원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죠. 출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제루 소위는 경악한 표정이었다. 범인들의 대담함, 솜씨, 그리고 행동의 정밀함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하군."

"맞아, 마제루. 그 말이 맞소. 그리고 나는 이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소. 크레블뢰! 공격의 기세가 얼마나 세소한가!"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도 루이는 마제루에게 통화를 계속하게 내버려둔 채, 열쇠 꾸러미를 들고는 문 잠금장치와 빗장을 손쉽게 풀었다. 그리고는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의 수색을 돕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이비 덩굴 사이로 두 명의 경찰을 보았다. 그들은 가로등 사이를 서성이며 배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 더구나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에게는 전적으로 무관심한 일이었다.

"이것이 나의 큰 실수군." 페렌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되는 법이지."

그의 조사는 자갈 위에 남은 흔적을 찾아냈다. 발자국의 모양을 복원하기에는 너무 흐릿했지만, 페레나의 추측을 확인하기엔 충분히 선명했다. 도둑들이 그 길을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가 갑자기 기쁨에 찬 움직임을 보였다. 길 가장자리, 작은 진달래 덤불의 잎사귀 사이에서 붉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몸을 낮췄다.

사과였다. 네 번째 사과, 그가 컴포트리에 없을 줄 알고 확인했던 바로 그 사과였다.

'완벽하군.'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폴리트 포빌은 그 사과를 먹지 않았어. 누군가가 가져갔지.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거겠지. 손에서 굴러떨어졌을 테고, 주워 담을 시간도 없었겠지.'

그가 사과를 주워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

그가 놀라 몸을 떨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말일까?"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진정한 충격에 사로잡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그 불가능한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 사과를 물었다. 너무 시어서 먹을 수 없는 사과였다. 그리고 그 이빨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정말일까?" 돈 루이스가 되뇌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이런 무모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사과가 의도치 않게 떨어졌거나, 어둠 속에서 찾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설명을 찾고 싶었지만, 사실은 명확했다. 얇은 붉은 껍질을 반원형으로 뚫고 있는 두 줄의 이빨 자국이, 과육 깊숙이 또렷하고 규칙적인 물림 자국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쪽에는 여섯 개의 이빨 자국이 있었고, 아래쪽은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호랑이 이빨이군……"

페르나는 그 두 줄의 자국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호랑이 이빨! 베로 형사의 판지에도 이미 새겨져 있던 이빨 말이야. 무슨 우연이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베로 형사가 최고 검찰청으로 가져갔던, 그 가장 확고한 증거로 여겨지던 판지에 물린 이가 바로 이 과일에도 물렸다고 확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잠시 주저했다. 이 증거를 자신만 알고, 자신이 직접 조사할 것인가, 아니면 법의 조사에 넘길 것인가.

하지만 그 물건을 만지는 순간, 그는 심한 혐오감과 신체적 불쾌감을 느꼈다. 사과를 던져 나뭇잎 아래로 굴려버렸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호랑이 이빨!… 맹수의 이빨!"

그는 정원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열쇠 꾸러미를 탁자에 올려놓은 뒤 마제루에게 물었다.

"경찰청장에게 말했나?"

"그가 오나?"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명하지는 않았나?"

"스스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잘된 일이다! 하지만 안전부나 검찰청은?"

"그들은 이미 통보했다."

"알렉상드르, 어떻게 된 거야?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답을 뽑아낼 수 없겠군.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왜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좋아. 아마 그 일 때문에 네 머리가 돌아간 모양이군. 사실 그럴 만한 일이지… 그리고 총감은 결코 웃고 넘기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있

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테니까. 총감은 내 존재를 너무 가볍게 믿었던 것 같아."

"아,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네가 떠안는 게 훨씬 나아. 그렇지? 네게 더 유리한 일이야. 오히려 네가 앞장서라구. 내 자리는 최대한 지워버리고."

"특히 하나만 기억해. 오늘 밤 복도에서 단 한 순간도 잠들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 먼저 네 탓으로 돌릴 테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거야. 우리 합의했지? 그럼 이제 작별인사야. 총감이 나를 부르면, 예상대로 전화가 올 거야. 파르 드 부르봉 광장 내 집에 걸려올 테니.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수사에 내가 개입할 필요 없어. 내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 테니까. 안녕, 동지."

그가 복도 쪽 문으로 향했다.

"잠깐만요!" 마제루가 소리쳤다.

"잠깐?"

병장이 문과 그 사이로 몸을 날려 길을 막아섰다.

"네, 잠깐만요. 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말 듣는 척하라고? 네 의견 따위엔 관심도 없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알렉상드르, 너 혹시 아픈 게 있나?"

"부탁이에요, 사장님." 마제루는 기운이 빠진 듯 애원했다. "그게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총무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 총감이 원하시나? 그래, 이봐, 그에게 말해라. 나는 그의 명령 따위 듣지 않는다고.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다고. 만약 공화국 대통령이라도, 나폴레옹 1세라도 내 앞에 가로막힌다면……."

그가 말을 끊었다.

"아, 그만하자. 꺼져."

"당신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마제루가 단호한 어조로 선언하며 팔을 벌렸다.

"재미있군."

"당신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알렉상드르, 10까지 세어라."

"100까지 세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 그 반복되는 말로 귀찮게 하지 마라. 어서 가라!"

그는 마제루의 양 어깨를 잡았다. 마제루는 빙글 돌아서 소파에 부딪혔다.

그가 문을 열었다.

"멈춰! 안 그러면 쏴!"

이미 일어서 있던 마제루가 권총을 쥐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냉혹했다.

도 루이스는 깜짝 놀라 멈춰 섰다. 그에게 위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총구가 겨누고 있어도 그는 차갑게 동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일까? 과거의 공범이요, 열렬한 제자이요, 충실한 종복이었던 마제루가 어찌 그처럼 용감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는 다가와, 뻗은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총경의 명령이오, 그렇지 않소?"

"네, 부장님." 병장은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다.

"총경이 도착할 때까지 저를 붙잡아두라는 명령이오?"

"그리고 만약 나가려 한다면, 막아내라는 명령이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총알이라도?"

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너, 쐈을 거야, 마제루?"

병장은 고개를 숙이며 희미하게 대답했다.

"네, 부장님."

페레나는 분노한 눈빛이 아니라, 다정한 연민이 담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옛 동료가 이처럼 엄격한 의무감과 규율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흥미진진한 광경이었다.

그런 의무감과 규율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무력해졌다. 마제루가 주인에게 지닌, 야생동물 같은 맹목적인 존경과 애착조차도 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

"미워하지 않아, 마제루. 오히려 너를 칭찬한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줘. 경찰청장이 왜…"

소위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어, 돈 루이스는 깜짝 놀라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니…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마제루, 너는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저는 주인님을 믿습니다. 제 자신만큼이나요. 주인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은 일들이 겹친다는 거죠."

"이상한 점… 우연치 않은 일들…"

돈 루이스는 천천히 그 말을 되뇌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멈추더니, 나직이 중얼거렸다.

"맞아… 속으로는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 모든 게 우연히 겹친다는 게… 왜 나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코스모 모닝턴과의 관계, 유언장 공개를 위해 파리에 온 것, 여기서 밤을 보내자고 고집한 것, 그리고 두 파빌 부부의 죽음이 아마도 내게 수백만 프랑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까지. 그리고 또… 그리고…"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경찰청장 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건 더더욱 그렇지. 어쨌든… 끝났군. 나는 망한 거야."

"제발, 주인님."

"이봐, 친구, 그거 꼭 명심해두게. 내가 아르센 뤼팽, 전도둑, 전감옥수, 뭐든 좋으니 네가 원하는 그 신분이어서 망하는 건 아니야. 그 분야에서는 내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니까. 하지만 돈 루이스 페레나, 정직한 신사, 전유산 상속자라는 신분으로 망하는 건 너무 어이없어!

왜냐하면,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힌다면 코스모, 베로, 그리고 두 사람인 포빌 부부를 죽인 범인을 누가 찾아내겠어?"

"잠깐만, 상사님…"

"잠깐만, 들어봐."

바르부르 대로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이어 다른 한 대가 도착했다. 분명 경찰청장과 검찰단이었다.

돈 루이스는 마제루의 팔을 꽉 잡았다.

"한 가지 방법뿐이야, 알렉상드르. 자네가 잠을 잤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말할 수 없어요, 상사님."

"정말 바보 같으니라니!" 돈 루이스가 투덜거렸다. "이렇게까지 멍청할 수가 있냐? 정말 정직하다는 게 싫어지겠군. 그럼 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상사님. 범인을 찾아내세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제루도 이제 그의 팔을 잡았다. 절박한 듯 그를 붙잡으며, 눈물을 머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범인을 찾아내야 해요, 상사님. 안 그러면 당신은 끝장이에요. 분명해요. 법무부 장관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법부는 반드시 범인을 원하거든요. 오늘 밤 중으로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범인을 찾아내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너,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알렉상드르."

"상사님에게는 별것 아닌 장난일 뿐이에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하지만 단서라고는 하나도 없어, 바보야!"

"찾아내실 수 있어요…… 꼭 그래야 해요. 제발, 누군가 한 명 잡아주십시오. 만약 형사들이 당신을 체포한다면, 저는 너무 비참해질 테니까요. 게다가, 사장님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니요. 안 됩니다…… 제발, 범인을 찾아내서 넘겨주십시오. 하루 종일 시간을 갖췄으니 충분할 겁니다. 게다가 뤼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짓을 해왔잖아요!"

그는 말을 더듬었고, 울었고, 손을 비비며 유머러스한 표정을 온통 일그러뜨렸다. 그의 주인의 앞에 닥친 위기를 걱정하며 드러난 그 슬픔과 공포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찡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복도를 막아선 커튼 너머로 데말리옹 씨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대로 위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동차가 멈춰 섰다. 아마도 형사들이 가득 실린 차들이었을 것이다.

호텔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계엄 상태에 들어섰다.

페레나는 침묵했다.

곁에서 안색이 굳은 마제루가 그를 바라보며, 마치 간절히 빌어주는 듯했다.

몇 초가 흘렀다.

그때 페레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 알렉상드르, 네가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봤고, 네가 걱정했던 대로 일이 틀어졌다는 걸 인정한다. 만약 몇 시간 안에 이피유크 파빌과 그 아들의 살인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면, 오늘 밤, 4월 1일 목요일, 나는 돈 루이스 페레나로서 축축한 짚 위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것이다."

제3장

오전 아홉 시쯤이었다. 경찰청장이 그 불가사의한 사건이 벌어진 사무실로 들어섰다. 두 명이나 죽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살인 사건 현장이었다.

그는 도 루이스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법관들은 도 루이스가 마제루 소장의 보좌관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안국장이 이 낯선 인물의 역할을 짧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오해는 곧바로 풀렸다.

데말리옹 경무국장은 시체 두 구를 잠깐 살펴본 뒤, 마제루로부터 간략한 경위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 1층의 한 접견실로 올라갔다. 파빌 경위도 그의 방문 소식을 듣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와 그를 맞이했다.

코리도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던 페레나는 드디어 현관으로 기어들어갔다. 이미 살인 사건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못하던 호텔 직원

들이 여기저기 오가던 곳이었다. 그는 몇 계단을 내려가 첫 번째 발코니로 향했고, 그곳에 큰 문이 열려 있었다.

거기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통과 금지요. 그게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 누가 그렇게 했단 말인가?"

"부관 본인이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운이 따르지 않군." 페레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밤새도록 지켰고, 이제 배가 고파 죽겠소. 입에 조금이라도 넣을 만한 것은 없을까?"

두 형사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 명이 하인 실베스트르에게 손짓했다. 실베스트르가 다가가 형사와 수군거렸다. 실베스트르는 식탁과 부엌 쪽으로 사라졌다가, 크루아상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좋아,' 돈 루이스는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속으로 생각했다. '증거는 충분히 나왔다. 나는 완전히 포위당한 셈이다. 내가 알고자 했던 바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데스말리옹 씨는 논리가欠缺했다. 만약 그가 여기에 아르센 뤼팽을 붙잡아두려 한다면, 이 성실한 형사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에 만약 그가 돈 루이스 페르냐를 노린 것이라면, 형사들은 무용지물이다. 페르냐 씨가 도망치면, 코스모 씨가 건네는 거금을 받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러니 나는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자.’

그는 실제로 복도로 자리를 옮겨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렸다.

서재의 열린 문 너머로 그는 재판관들이 조사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았다.

법의학자가 두 시신을 먼저 검시했다. 그는 어제 밤 베로 형사의 시신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독살의 흔적을 즉시 알아챘다.

그리고 형사들이 시신을 들어 올렸다. 부자는 과거 호텔 2층에 붙어 있던 두 방으로 옮겨졌다.

그때 경찰청장이 내려왔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쌍한 여인! 그녀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이해하고 보니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어. 생각해보라.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다니. 불쌍한 여인!”

그때부터 페레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문이 닫혔다.

정원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통해 본관과 연결되니, 총감은 밖에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두 형사는 복도 끝, 벽지 양옆의 현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 수완은 별볼일 없군. 알렉상드르가 얼마나 화를 낼지 상상해 봐라. 정말, 얼마나!’

정오가 되자 실베스트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기다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길고도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다.

사무실과 호텔 안에서는 점심 식사 때문에 잠시 멈췄던 수사가 다시 재개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발걸음 소리와 목소리 소리가 들려왔다.

지치고 짜증이 난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더니 곧 잠들고 말았다.

마제루 소위가 그를 깨울 때 시각은 오후 네 시였다. 그를 데려가면서 마제루는 속삭였다.

"자, 발견했습니까?"

"범인을?"

"당연하지." 페레나가 말했다. "아주 간단해."

"아, 다행이야." 마제루는 기뻐하며 말했다. 농담인지도 모른 채였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건 정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도 루이스가 들어왔다. 방 안에는 공訴院 검사, 심판장, 경찰 본부 국장, 지구 파출소 경위, 형사 두 명, 제복을 입은 순경 세 명이 모여 있었다.

밖에서는 수셰 대로변에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총경과 세 명의 순경이 préfet(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밖으로 나가 군중을 헤치고 나갔다. 그때 한 노점상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셰 대로변의 연쇄 살인 사건! 베로 형사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진실! 경찰의 혼란!"

문이 닫히자, 이내 고요함이 찾아왔다.

'마제루가 틀리지 않았군.' 돈 루이는 생각했다. '나 아니면 저놈, 분명히 정해져 있어. 만약 내가 지금부터 나올 말과 사건을 통해, 그들한테 그 신비한 X를 가리킬 만한 단서를 얻지 못한다면, 오늘 밤 내가 군중의 먹이가 될 거야. 잘 봐두자, 나의 좋은 친구 뤼팽!'

그는 큰 싸움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면 늘 느껴 왔던, 기쁨에 찬 전율을 느꼈다. 이 싸움은 그가 지금까지 치렀던 그 어떤 격투보다도 더 치열하고도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상테 형무소장 페렌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다. 페렌나는 풍부한 경험과 끈기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 수사를 직접 깊이 파고들어 마무리한 뒤 판사에게 넘기는 일을 무척이나 즐겼다.

뤼팽 또한 수경청장인 가니마르의 전문적인 자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가니마르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날카로운 논리를 말이다.

공격은 경찰청장이 지휘했다. 그는 단호하게, 구애받지 않는 태도로, 조금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도 루이스에 대한 동정심의 여지는 더 이상 목소리에 남아 있지 않았다.

자세 또한 더 굳어 있었다. 어젯날 도 루이스를 놀라게 했던 그 너그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상황이 그러해서, 유증자이자 코스모 모닝턴 씨의 대리인으로서, 두 차례의 살인 사건이 자고 있던 이 지하실에서 저질러지는 동안 밤을 새우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총감님." 페르나나 총감의 공세적인 질문을 바로 받아치며 말했다. "말하자면, 제가 하룻밤을 여기서 묵도록 허락해 주신 그 circumstance 때문에, 총감님은 제 증언이 마제루 소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네." 총감이 짧게 답했다.

"즉, 제 역할이 수상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데스말리옹은 망설였다. 그의 시선은 도니 루이의 눈과 마주쳤다. 분명히 그 솔직하고도 강렬한 눈빛에 그는 압도당했다. 그럼에도 그는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분명했고, 억양은 날카로웠다.

"총감님께 질문할 권리는 없습니다, 선생님."

도니 루이가 고개를 숙였다.

"총감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알고 계신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돈 루이스는 그후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나갔다. 데말리옹 경감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두 시 반에 이 방에 들어와서 포빌 씨 옆에 앉았을 때,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징후는 전혀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경감님.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마제루 소위와 제가 바로 경보를 올렸을 테니까요."

"정원 문은 잠겨 있었습니까?"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 일곱 시에 우리가 열어야 했으니까요."

"어떤 열쇠로 열었습니까?"

"열쇠 꾸러미에 들어 있던 열쇠로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온 살인자들이 어떻게 문을 열었단 말입니까?"

"가짜 열쇠로요."

"그녀의 문이 가짜 열쇠로 열렸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총감님."

"그렇다면 반증이 있을 때까지, 밖에서 열릴 수 없었으며 범인은 안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총감님, 그 방에는 마제루 소령과 저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의미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데스말리옹의 말이 그 정황에 또렷한 수치를 더했다.

"당신은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네, 마지막에는 잠들었습니다."

"그전, 복도에 있을 때는요?"

"그리고 마제루 소령은요?"

도 루이스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직하고 신중한 마제루 형사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명령을 따랐을 리가 있을까?

그가 대답했다.

"마제루 병장은 안락의자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뒤, 오 파빌 씨가 돌아왔을 때야 깨어났죠."

새로운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분명히 이런 말을 의미했다.

"즉, 마제루 병장이 두 시간 동안 자는 사이, 당신이 문을 열고 두 파빌 부부를 제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다는 뜻이군요."

심문은 페레나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는 뤼팽을 향해 좁혀가고 있었다. 그의 상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감탄할 만큼의 논리와 기개로 싸움을 이끌고 있었다.

'이런, 정말 곤혹스럽군. 무고한 사람이 방어하기란 너무 어렵잖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좌익과 우익이 모두 무너졌다. 중심부가 이 공격을 견딜 수 있을까?'

데말리옹 씨는 검사와 상의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어제 밤, 오피유 씨가 당신과 부사령관 앞에서 금고 열쇠를 돌릴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반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그중에는 사라진 회색 천 원단이 들어 있던 장부도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만지지도 않았습니까?"

"금고 자체를 만진 적도 없거니와, 서류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총감님. 마제로우 부사령관이 말씀드렸겠지만, 오늘 아침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저는 모든 접촉을 차단당했습니다."

"결국, 당신과 그 금고 사이에는 단 한 번의 접촉도 없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말리옹 씨는 검사에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페렌나가 덫에 빠졌음을 의심했다면, 마제로우의 얼굴만 봐도 충분했다. 마제로우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데말리옹 씨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형사 조사 경험이 있으시죠, 각하. 그러니 검증된 탐정에게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각하."

"자, 보세요. 지금 금고 안에 어떤 물건, 예를 들어 넥타이 핀에서 떨어진 보석이라도 들어 있다고 칩시다. 그 보석이 분명히 우리와 아는 사람의 넥타이 핀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람이죠. 이런 우연한 일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디어 걸렸다." 페르레나가 생각했다. "저들은 금고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냈고, 그 무언가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좋아.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금고에 손대지 않았으니까. 만약 그 무언가가 내 것이었다면, 누군가가 도둑맞은 내 물건을 금고에 넣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뜻이 되잖아.

그건 불가능해. 내가 이 일에 관여한 건 어제 밤부터고, 나는 그 밤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를 겨냥한 복잡한 음모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그의 독백을 끊으며 다시 물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그 남자가 이 호텔에 나타난 것과 두 건의 살인 사건 사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인물을 의심할 권리가 있는 셈이군요?"

"당신의 생각은?"

"매우 분명합니다."

데말리옹 씨는 주머니에서 실크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작은 파란 돌을 집어 들어 보였다.

"이것은 금고 안에서 찾은 터키석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돌은 당신이 검지에 끼고 있는 반지의 일부입니다."

돈 루이스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를 갈며 말했다.

"아! 이 사기꾼들!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믿을 수 없어…"

그는 반지를 살펴봤다. 반지 중앙의 돌은 탁하고 빛이 바랜 커다란 터키석이었다. 그 주변으로는 푸른빛이 옅은 불규칙한 작은 터키석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빠져 있었다.

데말리옹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돌이 그 빈자리를 딱 맞게 채워주었다.

데말리옹 씨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터키석은 제 반지에 들어가는 돌입니다. 이 반지는 제가 처음 목숨을 구해준 코스모 모닝턴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네, 총감님. 맞습니다."

돈 루이스 페레나는 방 안을 거닐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안전부 요원들이 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가 체포될 것이 이미 예견되었음을 직감했다. 데말리옹 씨가 단 한 마디만 입 밖으로 내뱉으면, 마제루 소위가 곧장 그의 상사인 그를 목덜미에 손을 대고 체포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돈 루이스는 다시 한번 옛 동반자를 향해 눈길을 보냈다. 마제루는 간청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마치 '자,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범인을 넘기시오.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려는 듯했다.

돈 루이스가 미소 지었다.

"무슨 말씀이오?" 총감이 물었다. 그의 어조에는 수사 초반부터 어쩔 수 없이 보여줬던 그 특유의 무의식적인 예의 따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요? … 음, 사실은…"

페레나는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로 돌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얘기합시다."

그 말투와 동작이 너무도 단호해서, 총경은 흔들린 듯 중얼거렸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총경님."

페레나는 천천히, 또렷하게 각 음절을 쪼개며 말을 시작했다.

"총감님, 상황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젯밤 총감님께서 저에게 내주신 권한은 총감님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총

감님은 지금 당장,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범인은 제가 되겠군요."

"증거는 명확합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 중 경위 마제루가 잠들고 있었다는 사실. 더구나 금고 안에서 이 터키석이 발견되었으니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무서운 정황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스모 모닝턴의 상속자가 사라지기를 바랐다는 점입니다. 만약 후사가 없다면, 제가 2억 프랑을 탕진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완벽한 조건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감옥으로 가시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면, 범인을, 진짜 범인을 당신의 손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경찰청장은 비웃는 듯이 웃으며 시계를 꺼내 들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쯤이면 충분합니다, 청장님." 페레나가 말했다. "저에게 전권을 주신다면,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진실을 찾는 데는 조금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말리옹씨가 다시 말했다.

"마제루 부사관, 실베스트르 하인을 부르시오. 청장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데말리옹씨의 눈짓에 마제루가 나갔다.

돈 루이스가 설명했다.

"총감님, 터키석이 발견된 것이 귀하께선 지극히 중대한 증거로 보이시더라도,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반지에 달려 있던 터키석이 어제 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펫 위로 굴러갔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터키석을 주워, 저라는 새로운 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금고에 숨긴 사람은 고작 네 명뿐입니다.

첫 번째는 귀하의 요원인 마제루 병장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죽었습니다. 바로 포빌 씨죠. 이 역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인 실베스트르입니다. 그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베스트르의 심문은 짧게 끝났다.

그 하인은 자신이 문밖으로 나가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포빌 씨가 도착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그는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 하녀와 다른 하인과 함께 카드를 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좋소." 페레나가 말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소. 오늘 아침 신문에서 베로 형사의 사망 소식과 그의 초상화를 보았겠소?"

"베로 형사를 아십니까?"

"그가 오늘 낮 이곳에 들렀을 가능성이 높소."

"그건 모릅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포빌 씨는 정원을 통해 많은 손님을 접대했고, 직접 문을 열어주곤 했거든요."

"다른 진술은 없소?"

"없습니다."

"포빌 씨께 말씀드리시오. 주지사가 그와面谈하기를 원하신다고."

실베스트르가 물러났다.

판사와 검찰청장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도지사가 외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각하. 파빌 씨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건 아니시죠?"

"각하, 파빌 씨는 제 터키석이 떨어진 것을 목격한 네 번째 인물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증거도 없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어머니가 아들을 독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각하."

"그럼 대체 뭐란 말이오?"

돈 루이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데말리옹 판사는 성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좋소. 하지만 당신에게는 절대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하오. 파빌 씨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한 명뿐입니다, 총감님. 모 피빌 부인이 남편 외에 루셀 자매의 후손을 알고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만약 그 후손이 존재한다면, 제가 천만 부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가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스터 피빌과 그의 아들이 사라지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쪽이 됩니다."

"당연하지…… 당연해……" 데말리옹이 중얼거렸다. "다만 그 새로운 단서가……"

파빌 부인이 들어왔다. 눈물로 붉게 충혈된 눈꺼풀과 상한 얼굴 윤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우아하고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에 질린 당혹감이 가득했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집념이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 전체, 걸음걸이와 동작에까지 떨리는 듯한 초조함과 불규칙함을 불러일으켰다.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앉으십시오, 마담." 총감이 극도로 공손하게 말했다. "새로운 충격으로 인해 피곤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당신이 슬퍼하는 두 희생자의 원수를 속히 갚아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더듬거렸다.

"사법부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총감님……"

"네, 중요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네, 총감님."

"그분이 생원도 상테이고, 미혼 시절 이름도 루셀이었죠?"

"엘리자베스 루셀?"

"남편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루셀의 후손은 아무도 남지 않은 셈이군요?"

"아무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루셀에게는 자매가 두 명 있었죠?"

"언니 에르멜린 루셀은 해외로 망명했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막내 언니는……"

"막내 이름이 아르망드 루셀이었군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의 미혼 시절 이름이 아르망드 루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엘리자베스 루셀의 아들, 즉 제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극적인 반전이었다.

이제 히폴리트 포빌과 그의 아들 에드몽, 맏언니의 직계 후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코스코 모닝턴의 유산은 아르망드 루셀의 혈통, 즉 다른 가문으로 넘어갔다. 그쪽은 지금까지 포빌 씨가 대표해 왔던 가문이었다.

경찰청장과 심판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어 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도니 루이스 페레나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페레나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경찰청장이 물었다.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없습니까, 마담?"

"없습니다, 청장님. 저는 혼자입니다."

혼자! 정확히 말해,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은 지금, 코스코 모닝턴의 수백만 프랑은 오직 그녀 혼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한 가지 끔찍한 생각, 악몽 같은 추측이 재판관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도무지 떨쳐낼 수 없는 그 생각은 바로,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에드몽 포빌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었다.

데스말리옹 판사는 돈 루이스 페레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페레나는 짧은 메모를 카드에 적어 데스말리옹 판사에게 건넸다.

점차 어제처럼 예의 바른 태도로 돌아오던 도지사는 카드를 받아 들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포빌에게 물었다.

"아들 에드몽은 몇 살이었소?"

"열일곱 살이었습니다."

"보시기엔 그다지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군요."

"에드몽은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전처의 아들이었죠. 남편이 처음에 결혼했던 여자가 죽고 난 뒤, 저는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

도지사는 에드몽 포빌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지만,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두 분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법정의 눈앞에서, 오파빌 부인은 더 이상 공격할 틈이 없는 과부이자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심문을 받아야 할 여성으로 전락했다. 그녀에게 호의적인 편견이 있든,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료되어 있든, 사람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거대한 재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혹은 오직 그녀만이 그 부를 누리기 위해 남편과 그의 아들을 죽였을까.

물론 그 질문은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

경찰청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터키석을 아십니까?"

그녀는 건네진 돌을 손에 쥐고,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터키석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평소엔 절대 안 끼지만, 돌들이 더 크고 이 불규칙한 모양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데스말리옹 씨가 말했다. "이 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반지에 달려 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해요." 그녀가 재촉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총감이 말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서서 푼 부빌 씨의 시선에서 벗어난 도 루이스를 가리켰다.

그녀는 페레나를 보고 놀라 떨며,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분이 어제 밤 여기 계셨잖아요. 제 남편과 이야기하시다가, 저기 다른 분과도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녀는 마제루 소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분을 심문해야 합니다.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만약 이 터키석이 그분들 중 한 분의 것이라면……"

그녀의 암시는 명확했지만, 너무 어설프기만 했다. 오히려 페레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터키석을 누군가 주워다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어제 밤 저를 본 사람은 Fauville 씨와 마제루 소장을 제외하고는 하인 실베스트르와 Fauville 씨 둘뿐이었습니다. 하인 실베스트르는 용의에서 제외되므로, 저는 Fauville 씨가 이 터키석을 이 금고에 넣었다고 단정합니다."

데스말리옹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인, 목걸이 좀 보여 주시겠어요?"

"물론이지요. 다른 보석들과 함께 거울장 안에 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런 수고까지는 마시죠, 부인. 하녀가 그걸 알고 있나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제루 소위가 하녀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제루가 몇 분간 자리를 비우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포빌 부인은 자신의 슬픔에 잠긴 듯했다. 데스말리옹 씨는 그녀의 눈치를 놓치지 않았다.

소위가 돌아왔다. 그는 보석함과 여러 보석들이 가득 담긴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데스말리옹 씨는 목걸이를 찾아 그것을 살펴봤다. 정말로 돌들이 터키석과 달랐고, 어느 것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보석 상자를 하나씩 치워 청석(青石)이 박힌 왕관을 드러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 열쇠 두 개가 대체 뭐죠?"

그가 물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열쇠는 두 개 모두 똑같았다. 정원의 문을 잠그던 자물쇠와 도어락의 열쇠와 생김새가 완전히 일치했다.

푸빌 부인은 매우 침착하게 반응했다.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 발견이 그녀를 흔들었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 열쇠가 여기 있던 지는 오래됐어요."

"마제루, 저 문을 열어보시오." 데말리옹 경감이 말했다.

마제루가 명령을 수행했다. 문이 열렸다.

"맞아요." 푸빌 부인이 말했다. "지금 생각나네요. 남편이 그 열쇠를 저에게 맡겼었죠. 제가 사본을 만들어 둔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은 가장 자연스러운 어조로 나왔다. 마치 그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덮쳐오는 무거운 혐의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야말로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절대적인 무죄의 증거를 보인 걸까, 아니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범인의 지능적인 속임수였을까.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이 된 이 비극의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차츰차츰 사방에서 그녀를 조이고 있는 무서운 고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위험을 예고하는 것을 이미 눈치챈 걸까.

만약 후자라면, 어떻게 저런 전례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 두 개의 열쇠를 그대로 간직해 둔다니.

모두의 머릿속으로 한 줄기 질문이 스쳤다.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죄가 저질러지는 동안, 마담, 당신은 자리에 없었습니까?"

"오페라에 가셨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친구인 에르싱거 부인의 저녁 모임에 들렀죠."

"운전기사가 동행했습니까?"

"오페라 가는 길에는 함께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차고로 돌아가라고 보냈고, 저녁 모임이 끝난 후에 다시 불러왔죠."

"아!" 데말리옹 씨가 말했다. "그렇다면 오페라에서 에르싱거 부인 집으로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마보빌 부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지한 심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시선과 태도에서 어딘지 모를 당혹감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동차를 탔습니다."

"거리에서 잡으신 겁니까?"

"오페라 광장에서요."

"자정쯤이었겠네요."

"아니요, 열한 시 반쯤이었죠. 공연이 끝나기 전에 나왔어요."

"친구 집에 빨리 도착하고 싶으셨나요?"

"네… 아니, 오히려…"

그녀는 말을 멈췄다. 볼이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과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는 물었다.

"왜 이렇게 자꾸 묻는 거죠?"

"필요한 질문입니다, 마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답해 주십시오. 친구 집에 정확히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곳으로 바로 가셨나요?"

"거의 그랬어요."

"'거의'라니요?"

"네…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운전기사에게 샹젤리제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라고 했어요… 부아 거리 쪽으로… 아주 느리게… 그리고 다시 샹젤리제를 내려오라고 했죠."

그녀는 점점 더 당황해졌다. 목소리는 희미해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물론 그 침묵에는 자백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깊은 절망이 단순히 슬픔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도 지쳐 보였다. 스스로가 이미 패배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싸움을 포기한 듯했다. 모든 불리한 정황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도 무력하게 저항할 뿐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녀를 더 이상 조여 부칠 수 없어, 측은지심이 생길 지경이었다.

데스말리옹 씨의 모습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승리가 너무도 쉬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승리를 계속 추구하는 데 뭔가 꺼림칙함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는 본능적으로 페레나를 바라보았다.

페레나는 조각난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드 에르징거 씨의 전화번호입니다."

데스말리옹 씨는 중얼거렸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물었다.

"여보세요. 루브르 25-04번으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즉시 연결이 되었다. 그는 계속했다.

"누구십니까? … 호텔 매니저이시군요. 아, 그렇군요. 드 에르징거 부인이 계신가요? … 아니요? … 그리고 부인은? … 없네요. 그런데 잠

깐, 그건 제가 직접 여쭤봐도 되겠네요. 저는 경찰청장 드 말리옹입니다. 약간의 정보가 필요해서요. 오늘 밤 모 파빌 부인이 언제 도착했는지 아시나요? … 그렇게 들으셨다고요? … 확신하시나요? … 자정 두 시라고요? … 그보다 더 이르지 않았나요? … 그리고 다시 떠났나요? … 열 분 정도 후에요, 맞죠? … 좋습니다. … 그러니까 도착 시간에 대해선 틀림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 점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자, 자정 두 시가 맞습니까? … 자정 두 시군요.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스말리옹 씨가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에 서 있는 포빌 씨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미친 듯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여자는 절대 무죄이거나, 아니면 무죄라는 표정을 가장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배우일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뜻이죠? 설명해 주세요!"

데스말리옹 씨는 간단히 물었다.

"어제 밤 열한 시 반부터 자정 두 시까지,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로 묻고 답하던 추궁의 끝자락에서 던져진, 끔찍한 질문이었다. 치명적인 질문이었다. 그 뜻은 명확했다. "범죄가 저질러진 정확한 시

간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오차 없이 말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남편과 의붓아들의 살해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신음 소리를 지르며 흔들렸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참사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답하기 쉬울 텐데요."

"오!" 그녀는 여전히 처절한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들 수 있습니까? 오, 아니요… 아니요… 정말 가능할 리가요. 어떻게 믿으실 수 있죠?"

"저는 아직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단 한 마디로, 당신은 진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갑자기 결의에 찬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보니, 그 말이 곧 입에서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놀람과 혼란에 휩싸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음절들을 몇 번 뱉어내더니, 절규하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안락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적어도, 이 논쟁을 종식시킬 그럴듯한 설명을 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었다.

경찰청장은 그녀에게서 물러서며, 재판장과 검찰총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페레나와 마제루 소령은 둘만 남은 채 서로 옆에 자리했다.

마제루가 속삭였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았어요, 당신이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당신이 이 모든 걸 주도한 거죠…"

그는 상사가 무혐의 처리되어,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마제루와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마제루는 상사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는 인물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풀렸다.

"이제 우리 다 친구잖아."

마제루는 기쁨에 질식할 지경이었다.

"이 녀석, 꼭 붙잡아 두지?"

"아니야." 페레나가 말했다. "그녀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뭐라고요?" 마제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증거가 부족하다니! 내가 보기에 그 녀석은 당신을 공격할 때 장갑을 끼고 있었잖아. 상사, 그 여자를 놓아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나운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도 루이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기적 같은 우연들을 떠올렸다. 모든 곳에서 모 피우빌 경을 쫓아다니던 일련의 사건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로 묶어, 아직 부족했던 기소의 근거를 단단히 다져줄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바로 페레나가 줄 수 있는 그 증거였다.

그것은 사과에 남은 이빨 자국이었다. 정원의 나뭇잎 사이에 숨겨져 있던 사과에 새겨진 자국.

법정에서 이는 지문과 맞먹는 증거가 될 터였다.

특히 초콜릿 조각에 남은 자국과 대조해 보면 그 확실성은 더할 나위 없이 커졌다.

그러나 그는 망설였다.

그는 초조한 시선으로 그 여자를 살폈다. 연민과 혐오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가 남편과 남편의 아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해야 할까?

그가 처형자의 역할을 맡아도 될까?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데스말리옹 선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치 마제루와 대화하는 체하면서도, 실제로는 페레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제루가 고개를 저었다. 돈 루이가 대답했다.

"총독 각하, 만약 이 여자가 유죄라면, 그녀는 비록 교활하긴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서툰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오?"

"그녀는 아마도 공범의 손아귀에 놀아난 도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공범?"

"경감님, 어제 치안국에서 남편이 외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 불쌍한 자들!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공범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범은 바로 그 남자인지도 모릅니다. 마제루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남자는 상테 형무소 근처의 카페에 있었습니다. 당시 베로 형사도 그곳에 있었죠. 갈색 수염에 은장 지팡이를 든 남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스말리옹 경감이 이어했다. '오늘이라도 단순한 추측만으로 포빌을 체포한다면, 공범까지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페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치안국장은 생각에 잠긴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체포한다니… 체포라니… 우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총감님. 제 수사가 대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수사는 철저했습니다. 이 방을 구석구석 뒤졌죠."

"정원은요, 총감님?"

"그곳도요."

"정원도 같은 정도로 꼼꼼히?"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는요, 총감님. 살인자들이 정원을 통해 들어오고 다시 나갔다면, 그쪽에서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마제루, 데스말리옹 지사가 말했다. 가서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해 봐라."

부사관이 나갔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페레나는 경찰 총감이 검사에게 다시금 말을 건네는 소리를 들었다.

"아, 만약 증거라도 하나만 있다면! 그 여자가 범인임은 자명해. 그녀에 대한 정황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코스모 모닝턴의 수백만 프랑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라. 그 아름다운 얼굴에 담겨 있는 정직함, 그리고 그 슬픔 속에 숨겨진 진심을 말이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격렬한 울음소리와 반항적인 몸부림이 그녀의 주먹을 꽉 쥐게 했다.

잠시 후, 그녀는 눈물로 흠뻑 젖은 손수건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이를 갈아 씹더니, 마치 어떤 배우들처럼 찢어 버렸다.

페레나는 그 아름다운 이빨들을 보았다. 조금 넓은 하얀 이빨들은 젖어 있고 맑았다. 가는 백색 손수건을 향해 끝없이 달려드는 모습이였다.

그는 사과의 자국을 생각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 싶은 극도의 갈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 이빨들이 바로 사과의 살에 자국을 남겼던 턱的一部分이었을까?

마제루가 돌아왔다. 데스말리옹 씨는 경위에게 다가가더니, 그이가 아이비 덩굴 밑에서 주워 온 사과를 가리켰다.

그 순간, 보르트레는 경찰청장이 마제루의 해명과 뜻밖의 발견에 얼마나 막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법관들이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끝에, 돈 루이스가 예상했던 결론에 도달했다.

데스말리옹 씨가 포발빌 씨 곁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결말이 다가온 것이다.

그는 이 마지막 승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보쇼, 부인. 오늘 밤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건가?"

그녀는 힘을 주어 속삭였다.

"네… 네. 저는 오토바이를 탔어요. 산책도 했고, 조금은 걸어도 봤죠…"

"차주인 운전사를 찾아내면 그 사실은 금방 확인될 겁니다. 그전까지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침묵이 남긴 다소… 불쾌한 인상을 씻어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범인 중 한 명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뒤뜰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과를 방금 찾아냈죠. 당신과 관련된 모든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신도 똑같은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 물론이죠!" 그녀가 재빠르게 외쳤다. "이것만으로도 당신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요."

데스말리옹 씨가 접시에서 꺼내 건네는 세 개의 사과 중 하나를 그녀가 받아들고 입으로 가져갔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두 지문이 일치한다면, 그 증거는 확실하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완전히 움직이기 전에, 갑자기 멈춰 섰다. 갑자기 찾아온 공포에 질린 듯했다. 함정일까?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기적 같은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 자신을 공격할 무서운 무기를 쥐게 될까 봐 두려웠을까?

어쨌든 그녀의 마지막 주저함은 그녀를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무죄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만약 그녀가 유죄라면 얼마나 명확한 증거인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마담?" 데말리옹 씨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요." 그녀가 전율하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모든 것이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마담, 저희가 묻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마담께는 기쁜 일만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녀는 팔을 더 높이, 그리고 더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느린 동작 속에는 그녀의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일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이 장면은 어느덧 엄숙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사람들의 마음을 조여왔다.

"그럼 내가 거절하면 어때?"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마담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경찰청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마담의 변호사가 가장 먼저 그걸 권할 겁니다."

"변호사라니…" 그녀가 비명처럼 중얼거렸다. 그 대답이 지닌 무서운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친 결의와, 큰 위기에 처한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그 어떤 야만적인 표정으로, 강요받던 동작을 취했다.

입을 벌렸다.

하얀 이빨의 광채가 번쩍였다.

그리고 단숨에 이빨이 과일에 파고들었다.

"끝났습니다, 각하." 그녀가 말했다.

데스말리옹 각하는 검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정원에서 찾은 사과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각하."

데스말리옹 각자는 두 과일을 가까이 붙여 놓았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긴장한 눈으로 지켜보던 모든 이들에게서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두 자국은 완전히 일치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의 동일성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각 이마의 지문이 절대적으로 똑같다는 전문가의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일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쌍으로 된 곡선의 완벽한 유사성이었습니다.

두 과일 모두에서 호는 같은 굽힘을 그리며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둘 다 매우 좁고 약간 길쭉한 타원형이며 반지름이 작아 서로 완전히 겹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바로 그 턱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데말리옹 씨가 고개를 들었다.

파빌 씨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공포에 질린 듯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 변화와 천부적인 연기 실력으로 만들어낸 공포나 경악, 분노 같은 감정은 눈앞에 드러난 결정적 증거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

두 개의 자국이 정확히 일치했다. 같은 이빨이 두 사과를 물었다.

"부인," 경찰청장이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다 악몽일 뿐이에요. 아니죠? 당신들이 나를 체포하려 하지 않겠죠? 내가 감옥에? 끔찍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제발, 당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 머리가 터져 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모든 걸 알려주신 건 당신들이잖아요. 전 그걸 의심할 수 있었나요? 불쌍한 남편과,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작은 에몽, 그리고 제가 그를 사랑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제가 그들을 죽여야 했을까요? 말해 주세요. 제발 말해 주세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럼… 제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분노에 몸이 떨리자, 공격적인 태도로 형사들 무리 쪽으로 주먹을 내밀며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들은 모두 고문꾼일 뿐이야…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있어? 끔찍해… 나를 무고로 고발하고 체포하다니. 정말 악랄해. 다들 잔인한 괴물들이야. 그리고 특히 당신…"(그녀는 페레나를 향해 말했다) "맞아요, 당신이에요. 잘 알아요. 당신이 적이에요. 이제야 이해가 가요. 당신에게도 사정이 있겠죠. 어제 밤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잡히지 않는 거죠? 왜 당신 대신 제가 잡힌 건가요? 당신도 있었는데, 저는 없었고, 저는 그 일과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요. 정말 아무것도요. 왜 당신은 잡히지 않는 거죠?"

마지막 말들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다.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고개가 무너져 내려 무릎에 닿았고, 그녀는 또다시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페레나가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를 들어 올렸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다.

"두 사과에 새겨진 자국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자국도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서 나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자국은 오늘 밤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제 당신에게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사과를 물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녀는 더듬거렸다.

"진짜요? … 네, 아마도요. 어제 아침에…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청장이 그녀를 막았다.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마담. 방금 하인 실베스트르에게 물어봤거든요. 그가 어제 저녁 여덟 시에 직접 사과를 사왔다고 합니다. 푸아빌 씨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접시에는 사과가 네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여덟 시가 되자 세 개만 남았죠. 그러니 정원에서 발견된 그 사과가 네 번째 사과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에는 오늘 밤 어떤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표시는 바로 마담의 이빨 자국입니다."

그녀는 말더듬듯 말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자국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국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도 맹세합니다. 네, 죽는 게 감옥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자살할 겁니다… 자살할 겁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고정된 채 굳어 있었다. 일어나려 몸이 경직되며 마지막 힘을 짜냈지만, 한 번 서자마자 몸이 빙글 돌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치료하는 사이 마제루는 돈 루이스에게 손짓하며 속삭였다.

"빠져나가요, 보스."

"아, 이제 해산 명령이군. 내가 자유롭게 된 거야?"

"보스, 열 분 전에 들어와서 préfet와 수군거리는 그 남자를 보셨나요? 아시나요?"

"세상에! 페레나가 큰 얼굴에 붉은 피부의 남자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그건 소부서장韦伯이군."

"그런데 그 자가 당신을 알아봤어요, 보스! 단번에 뤼팽을 식별했죠. 그 녀석에게는 위장이 통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보는 데 천부적인 재주가 있거든요. 자, 보스,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그에게 저지른 모든 짓들을요.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그가 복수를 위해 불가능한 일까지 감행하지 않을지."

"그자가 총경에게 알렸나?"

"물론이죠. 총경은 동료들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명했답니다. 당신이 그들을 피하려 하면 즉시 체포할 거예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없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들을 따돌려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요."

"내가 집에 돌아가고 내 주소가 알려져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뭐라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당신이 감히 집에 돌아갈 생각이라니?"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자라는 거야? 다리 밑에서?"

"미친놈이랄까!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겠나? 이 일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힐 텐데, 넌 이미 발목이 잡혔고 모든 사람이 너를 향해 돌진할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일은 손놓아."

"코스모 모닝턴과 포빌의 살인범들은요?"

"경찰이 처리할 일이지."

"바보 같으니라니, 알렉상드르."

"그럼 다시 뤼팽이 되어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뤼팽으로. 옛날처럼 직접 그들을 상대해라. 하지만 천만의 말씀, 페레나로 남지 마라. 너무 위험해. 그리고 네가 이해관계가 없는 공식적인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자네, 참으로 대담하군, 알렉상드르. 나는 이 일에 2억 프랑을 걸었다. 페렌나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2억 프랑은 코앞에서 날아가 버릴 것이다. 드물게나마 정직과 양심으로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으로 창피한 일이지."

"그리고 만약 자네가 체포당하면?"

"안 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뤼팽은 죽었지. 하지만 페렌나는 살아 있어."

"오늘 내가 체포되지 않았으니, 이제 안심해도 돼."

"그건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해. 그전까지 명령은 명확해. 자네 집을 포위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감시할 거야."

"그게 더 좋군. 나는 밤에 무서워."

"하지만, 미친놈 같으니라니! 자네는 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알렉상드르. 나는 확신해. 이제 그들은 나를 체포하지 못할 거라는 걸. 나는 확신해."

"베버가 방해하겠지!"

"제이거는 신경 안 써. 지시 없이는 제이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지시는 내려줄 거야!"

"나를 쫓아내라는 지시는 내려줄지 몰라도, 나를 체포하라는 지시는 절대 내리지 못해. 경찰청장은 나에 대해 이미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결국 나를 지켜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이 사건이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복잡해서, 너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언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나 말고는 이런 상대와 맞설 사람이 없거든. 너도, 제이거도, 그리고 보안국 형사들 모두 마찬가지야. 알렉상드르, 네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어."

다음 날, 법의학 전문가가 두 개의 사과에 남은 지문 감정을 통해, 태블릿에 새겨진 지문이 다른 지문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한 택시 기사가 증언했다. 오페라 극장을 나온 직후 어떤 부인이 그를 불러 세웠고, Henri-Martin 대로 끝장까지 곧장 데려가 달라고 했으며, 그곳에서 내렸다는 것이었다.

Henri-Martin 대로 끝자락은 Fauville 호텔까지 도보로 다섯 분 거리였다.

이 남자는 Fauville 씨와 대면하는 순간 망설임 없이 그 여자를 지목했다.

그녀는 그 근처에서 한 시간 이상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Marie-Anne Fauville는 즉시 구치소에 투옥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Saint-Lazare 감옥에서 밤을 새웠다.

바로 그날이었다. 기자들이 수사 내용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때였다. 지문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그날 두 대신문은 기사 제목에 도 루이스 페레나가 사과 자국을 일컫던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이 사건의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거의 짐승 같은 본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불길한 단어들이었다.

제4장

아르센 뤼팽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은 때로 고역이다. 그의 모험 중 상당수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때 그의 행적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그 빛바랜 흔적들만 남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을 밝히려 한다. 그러려면 다시금,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 알려진 빛의 이야기를 되짚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사정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그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 소식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적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틀 뒤, 코스모 모닝턴의 유증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황은 단숨에 변했다. 이제 우리는 네 건의 살인 사건을 알게 된 것이다.

코스코 모닝턴, 베로 형사, 그리고 기술자 포빌과 그의 아들 에드몽. 이들을 모두 같은 사람이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매번 똑같이, 그리고 불길한 핏자국을 남겼다. 운명의 장난인지, 실수인지는 몰라도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스스로 남긴 것이다. 그 증거는 군중들로 하여금 끔찍한 현실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공포감을 떨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 자리에 남은, 그의 이빨 자국, 즉 '호랑이 이빨'이 바로 그 증거였다.

그 참혹한 혼란 한가운데, 비극의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가장 기이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일종의 영웅적 모험가였다.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지성과 통찰력을 지닌 그는, 단 며칠 만에 얽히고설킨 사건 실마리의 일부를 풀어냈다. 그는 코스모 모닝턴의 살해를 직감했고, 베로 형사의 살해까지 예언했다. 그는 수사 주도권을 쥐었고, 미친 듯한 괴물을 법정에 세웠다.

그녀의 하얗고 아름다운 이빨은 보석과 그 받침틀이 꼭 맞는 듯, 지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업적 다음 날, 그는 백만 프랑 어음 한 장을 받아 들었다. 마침내 그는 거대한 부의 가장 유력한 상속자로 떠올랐다.

그리고 드디어, 아르센 뤼팽이 부활한 것이었다!

군중은 속지 않았다. 신기한 직관력이 작용한 탓일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부활설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주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단언했다.

"루이스 페레냐? 그게 바로 아르센 뤼팽이로군."

"하지만 그는 죽었어요!" 의심을 품은 이들이 반박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랬다.

"네, 맞아요. Luxembourg 국경 근처에 있던 작은 오두막의 연기가 아직 걷히지 않는 잔해들 아래에서, 돌로레스 케셀바흐의 시체와 아르센 뤼팽으로 확인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죠."

"하지만 모든 정황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뤼팽의 손짓으로 꾸며진 연극이었음을요. 그는 비밀스러운 이유에서 자신의 죽음을 세상이 믿도록 만들려 했던 거죠."

"그리고 경찰도 그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영원한 적수를 손에서 놓으려 했으니까요."

"그걸 뒷받침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당시 이미 국무총리였던 발랑글레의 자백이 그 단서죠."

"또 다른 단서는 카프리 섬의 기묘한 사건입니다. 독일 황제가 산사태에 깔릴 뻔한 순간, 한 은수자가 그를 구했다는 거죠. 독일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은수자는 바로 아르센 뤼팽이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래도 좋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그 은수자가 십 분 뒤 티베르 봉우리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이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역에서 어떤 배가 바다에서 신호를 보내는 한 남자를 구조해 알제 방향으로 향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날짜를 대조해 보십시오. coincidence(일치)가 눈에 띕니다. 그 배가 알제에 도착한 지 며칠 뒤, 바로 그 도니 루이스 페레나가 시디벨아베스에서 외국 군단에 입대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언론이 이 문제를 두고 벌인 논쟁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 인물을 경계했고, 기자들은 기사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 했다. 페르냐의 가면 속에 뤼팽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나치게 단정 짓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병사에 관해서는, 특히 그가 모로코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선 기자들이 완전히 반격에 나섰다. 마음껏 떠들었다.

아스트리냐크 대령이 증언했다. 페르냐와 함께했던 다른 장교들과 동료들도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다. 관련 보고와 훈령들이 공개되었고, '영웅의 서사시'라 불린 이야기가 하나의 금서(金書)처럼 쌓아 올

랐다. 그 페이지마다 가장 기이하고, 가장 믿기 어려운 영웅담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해서 페레나의 영웅적 전설이 만들어졌다. 그 전설은 한 인물의 초인적인 에너지, 놀랄 만한 모험심, 황홀한 환상, 모험에 대한 열정, 뛰어난 신체 능력, 그리고 냉철함을 부각했다. 그는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었고, 아르센 뤼팽과 혼동하기 쉬웠지만, 새로운 아르센 뤼팽이었다. 그는 그의 업적으로 인해 더 크고, 고귀해졌으며, 이상화되고 정화되었다.

한 아침, 부두 수셰트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 이후 15일째 되는 날, 이 놀라운 인물, 즉 모든 곳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며 강렬한 호기심을 자아냈던 루이 페레나는 옷을 입고 자신의 저택을 한 바퀴 돌았다.

그곳은 18세기 건물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아늑하고 널찍한 저택이었다. 상테 형무소 근처, 팔레 부르봉 광장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뤼팽은 이 집을 온갖 가구가 갖춰진 상태로 루마니아 귀족 말로네스코 백부에게서 사들였다. 하지만 그는 가구나 가전제품만 산 게 아니었다.

그는 말과 마차, 자동차, 그리고 하인 여덟 명까지 모두 자신의 것으로 간직했다. 심지어 백부에게서 고용한 비서 르바세르 씨도 그대로 두었다.

르바세르 씨는 집안 일을 총괄하며 방문객들을 응대했다. 집의 화려함과 새로운 주인인 뤼팽의 명성에 끌려 찾아오는 기자들, 성가신 사람들, 그리고 잡동사니 장수들을 받아들이거나 돌려보내는 일을 맡았다.

마구간과 차고를 모두 확인한 그는 경내를 가로질러 서재로 돌아갔다. 창문 중 하나를 살짝 열고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 위에는 기울어진 거울이 하나 있었다. 그 거울은 마당을 넘어, 마당을 막는 담장 너머로 부르봉 궁전 광장의 한쪽 면을 비추고 있었다.

"젠장!" 그가 말했다. "그 불운한 경찰들이 또 거기 있군. 벌써 두 주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감시는 정말 지겨워졌다."

성질이 난 그는 편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관련된 편지는 읽고 나면 곧장 찢어버렸고, 다른 편지들, 즉 구호 요청이나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은 메모를 남겼다.

일을 마친 그는 종을 불렀다.

"르바세르 씨를 불러 신문들을 가져오게 하시오."

그녀는 예전에 루마니아 백작의 비서 겸 독서 담당을 했다. 페레나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신문을 뒤져 백작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읽어주라고 시켰다. 그리고 파빌 형사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게 했다.

그녀는 늘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키와 자세가 아주 우아했다. 그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녀는 위엄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얼굴 표정은 진지했고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표정 너머로 영혼의 비밀을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만약 금발의 곱슬머리가 없었더라면, 그 표정은 엄격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곱슬머리는 어떤 규율도 따르지 않았다. 빛과 기쁨의 후광처럼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목소리는 음악적이고 부드러운 음색을 띠고 있었다. 페레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르바세르 씨가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 의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의 삶에 대해, 신문에 실린 그의 신비로운 과거에 대해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로운 소식은 없나요?" 그가 물었다.

보트를레는 푸발 씨 관련 정보를 읽어 내려갔다. 도 루이스는 이쪽 수사 진척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리아나 푸발은 변함없이 자신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울고, 분개하며, 질문받는 사실들에 대해선 완전히 무지한 척했다.

"바보 같은 짓이군."

그가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렇게 어설프게 방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런데, 만약 그녀가 무죄라면?"

레바세르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아니 일종의 지적을 내놓은 순간이었다. 도 루이스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녀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들렌?"

그녀는 대답할 준비가 된 듯했다. 자신의 방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려는 눈치였다. 무표정했던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감정이 격동하며 얼굴에 생기가 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한 노력으로 자신을 억눌렀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의견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살펴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의심이 있는 거죠. 만약 파브유 씨의 이빨 자국이 남지 않았다면, 그 의심은 정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단순한 서명 이상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증거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하지만 마리안느 포빌은 다른 일들처럼 이 일에도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존재로 남았다.

게다가 경찰은 그녀의 공범, 혹은 공범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또한 마제루에게 증언을 한 카페 종업원이 묘사했던, 흑단 지팡이를 들고 거북이 껍질 안경테를 낀 그 남자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역할은 유독 의심스러워 보였다.

결국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루셀 자매의 사촌인 비크토르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직접적인 상속자가 없는 한, 그는 모닝턴 가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었다.

"그게 다요?" 페레나가 물었다.

"아닙니다." 르바수르 형사가 말했다. "프랑스의 에코지에 실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건 제 일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신문을 들어 들이켰다.

「왜 그를 잡지 않는가?

논리에 반하는, 이상한 상황을 계속延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정직한 이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품는 이 질문에, 우리의 조사가 우연히도 정확한 답을 건네줄 수 있게 되었다.

아르센 뤼팽이 죽은 지 일 년 뒤, 사법 당국은—or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아르센 뤼팽의 실체가 블루아에서 태어난 플로리아느 씨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사법 당원은 플로리아느 씨의 주민 등록 등기부에 '사망'이라는 표기를 추가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이 달렸다.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아르센 뤼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실존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행정 기구의 가장 복잡하고 뒤틀린 수레바퀴들을 돌려야 했고, 국무회의의 명령을 받아내야 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의장 발랑그레와 경찰청장이 손을 잡고 모든 조사를 막고 있다고 했다. 너무 치밀하게 파고들면 큰 소동이 벌어질까 봐, 고위 관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센 뤼팽을 다시 소환한다? 그 저주받은 자와 다시 싸움을 시작한다? 또다시 패배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아니,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직 도둑이자 고질적인 재범자, 갱단의 왕, 절도와 사기의 황제라 불리던 아르센 뤼팽이 오늘, 숨지 않고 온 세상의 눈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지만 그 이름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쓴 이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잡는 네 명을 거리낌 없이 없애버렸으며, 자신이 조작한 거짓 증거로 무고한 여성을 감옥에 보내버렸다.

결국 상식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내통의 힘 덕분에 그는 모닝턴 가의 2억 프랑 유산을 손에 넣었다.

"바로 그 치욕적인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제 드러난 이 진실이 사건의 전개를 바꾸어 놓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 기사를 쓴 멍청이의 행동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도니루이가 비웃듯 말했다.

그는 르바세르 씨를 돌려보낸 뒤, 전화기로 아스트리냐크 대령과 연결했다.

"대령이십니까?"

"프랑스 이코지 프랑스의 기사를 읽으셨습니까?"

"그 분과 총격으로 해결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오호, 결투라니!"

"그렇습니다, 대령. 그런 예술가들은 자기들 멋대로 쓴 글 때문에 저를 귀찮게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가 다른 자들을 대신해 대가를 치르게 하죠."

협상은 즉시 시작되었다.

프랑스 일보 사장은 이 기사가 서명 없이 타자기로 친 채 자신의 신문사에 제출되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된 사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세 시, 도 루이스 페레나는 아스트리냐크 대령과 다른 장교 한 명, 그리고 의사와 함께 파리 부르봉 궁전 광장에 있는 호텔에서 자동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를 감시하러 온 안경국 요원들이 탄 택시가 바짝 뒤따랐다.

그들은 프린스 공원으로 향했다.

상대를 기다리는 동안 아스트리냐크 백도는 도 루이스를 따로 데리고 나섰다.

"페레나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중 진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은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장교 페레나일 뿐이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모로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는, 당신이 코즈모 모닝턴의 원수를 갚고 그의 후계자들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다, 지휘관님."

"저 사람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병상에서 두 달이나 지내야 한다고요, 지휘관님? 괜찮으십니까?"

"그건 너무 길어요. 이주일만."

"합시다."

두 대결자는 다시 맞섰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프랑스 에코지의 사장은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아, 이건 안 돼, 페레나." 아스트리냐크 백작이 중얼거렸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지휘관님."

그러나 의사들은 부상자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별일 아닙니다. 고작 보름에서 삼 주일만 쉬면 됩니다. 다만, 한 센티미터만 더 깊었어도 큰일 날 뻔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센티미터는 비껴갔습니다." 페레나가 중얼거렸다.

경찰 차에 계속 따라붙힌 채, 도 루이는 생제르맹 외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는 심히 의아해졌고, '에코'지의 기사는 하루 종일 묘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

호텔 마당에서 그는 작은 개 두 마리를 보았다. 마부 소유인 이 개들은 보통 마구간에서 지내곤 했다.

그들은 붉은 실로 만든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실은 여기저기에 걸려 있었다. 계단 발치나 꽃병에 말려 있던 것이다.

마침내 실이 감겨 있던 종이 마개가 드러났다.

그때 도 루이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종이에 글씨가 적힌 것을 눈치챘다. 그는 종이를 줍고 펼쳤다.

그는 놀라 몸을 떨었다. 그는 즉시 프랑스 일간지 『에코 드 프랑스』에 실린 기사의 첫 부분을 알아봤다.

그리고 그 기사가 그대로 있었다. 전체가 격자 무늬 종이 위에 펜으로 적혀 있었고, 고친 자국도 있었다.

그는 마부를 불렀다.

"이 실공은 어디서 온 거요?"

"이 실뭉치, monsieur? ...마치 안장 공방에서 쓰는 실 같은데… 미르자가 감았겠죠."

"그럼 언제 종이에 실을 감았소?"

"어젯밤입니다, monsieur."

"아! …그런데 이 종이는 어디서 구한 것이오?"

"음, monsieur,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실을 감을 무언가가 필요해서요… 마구간 뒤에서 주워 왔습니다. 집안에서 버리는 헝겊들을 거리로 내다 놓기 전까지, 거기 모아두거든요."

도 루이는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직접 묻거나, 르바수르 씨에게 다른 하인들을 취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프랑스 에코』지의 기사가 누군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바닥에서 주워 온 초안이 그 증거였다. 그 사람은 이 집에 살고 있었거나, 집안 사람 중 한 명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적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그 적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원했는가? 단순히 페레나의 체포를 원하는 것뿐이었을까?

오후의 끝자락까지 도 루이스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신비로운 기운에 시달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격분했다. 특히 체포 위협 때문에 움직임을 제약당하는 것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물론 그 위협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동에 제약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다.

그때, 열 시쯤 되어 한 사내가 찾아왔다. 알렉산드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꼭 만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린 사내였다. 도 루이스는 그를 들여보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사람은 마제루였지만, 완전히 변장한 마

제루였다. 낡고 낡아진 외투에 얼굴까지 가린 그는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도 루이스는 마치 먹이를 본 맹수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 드디어 네가구나! 내가 그랬지, 너희가 감히 총국에서 나를 붙잡지는 못할 거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찾으러 오리라."

"하하, 정말 재밌는 일이군. 저주할 년아! 나는 너희가 감히 나를 체포하지 못할 줄 알았어.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 무모한 웨버의 지나친 열정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겠지. 애초에, 필요한 사람을 왜 잡나? 자, 말해 봐. 빨리."

"하느님, 너 왜 그렇게 멍청해 보이냐? 대답이나 해라. 지금 상황은 어떤가? 빨리 말해. 나는 단 오 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마. 손에 쥔 증거를 보여 줘. 두 분면 충분해. 뭐라고?

"하지만, 상사님……"

마제루는 어리둥절해하며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야? 말을 뽑아먹어야 하는군. 자, 가자. 내가 진행하지. 문제는 흑단 지팡이를 든 남자에 대한 거지? 바로 그 사람, 베로 형사가 살해당한 날, 뽕뇌프 카페에서 목격된 그 남자에 대한 거?"

"네, 맞아요."

"그의 흔적을 찾아냈습니까?"

"자, 자, 수다 떨지 말고 보시게나!"

"이렇게요, 상사님. 카페 점원만 그를 알아본 게 아니에요. 다른 손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아낸 바로는, 그 손님은 우리 남자와 함께 카페를 나와서, 밖에서 그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뇌이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이 어디냐'고 묻는 소리를 들었어요."

"훌륭하군. 그리고 뇌이에서 여기저기 물어본 끝에, 그 화가를 찾아냈나?"

"이름까지 알아냈어요, 상사님. 아베뉴 뒤 루에 사는 위베르 로티에. 하지만 그는 여섯 달 전에 도망쳤어요. 가구는 그대로 두고 트렁크 하나만 챙겨가지고요."

"우체국으로 갔나?"

"우리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우리가 제공한 묘사를 보고 그 남자를 알아봤죠. 그 남자는 여덟에서 열 날마다 한 번씩 우편물을 받아 가는데, 그 내용은 별 볼 일 없어요. 편지 한 두 통 정도요."

"그 우편물은 그 남자의 이름으로 왔나요?"

"이름 대신 이니셜로 왔습니다."

"그 이니셜을 기억해냈나요?"

"네. B. R. W. 8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저쪽에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 중 한 명이 경찰 두 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색 손잡이에 상아 안경테를 쓴 검은색 지팡이를 든 남자가, 두 건의 살인이 일어난 그 날 밤 십일 시 사십 분쯤 오또이 역에서 나와 라네라방 거리 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 바로 그 근처에 오부빌 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살인이 자정 조금 전에 저질러졌다는 것도요.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만해. 꺼져."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삼십 분 뒤, 우리 상대의 집 앞에서 만나자."

"누구 말이에요?"

"마리안 오부빌의 공범이요."

"하지만 당신은 그를 모르잖아요…"

"주소가 뭐지? 네가 직접 알려주지 않았나? 리샤르월라스 대로 8번지. 어서 가, 그리고 그 멍청한 표정 좀 지우라구."

뤼팽은 그를 빙글 돌려세워 어깨를 툭 치며 문밖으로 밀어냈다. 멍하니 서 있던 하인에게 그를 맡긴 뒤였다.

몇 분 뒤, 뤼팽 자신도 밖으로 나섰다. 자신을 호위하던 경찰들을 데리고 그는 두 개의 출입구가 있는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경찰들을 그곳에 대기시킨 후, 그는 자동차를 타고 뉘이로 향했다.

그는 마드리드 대로까지 걸어가, 부아드부이욘 숲이 보이는 곳까지 걸어 리샤르웰라스 대로로 돌아왔다.

마제루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안마당 깊숙이 자리 잡은, 세 층짜리 작은 집 앞이었다.

"정말 8번지 맞나?"

"네, 상사님. 하지만 설명 좀 해 주셔야죠…"

"잠깐만, 친구. 숨 좀 돌리자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세상에,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내 실이 녹슬고 있었어… 이런 악당들을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알나? 자, 그러니까 네가 묻고 싶은 거지?"

그는 팔을 내밀어 병장의 팔짱을 꼈다.

"들어 봐, 알렉상드르. 그리고 잘 기억해 둬. 누군가 사서함 주소를 정할 때 아무런 뜻도 없는 이니셜을 고른다고 생각하지 마. 대개는 우연이 아니야. 그 글자들이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지. 그 의미가 있어야 상대방이 내가 알려준 주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요?"

"특히 마제루 씨, 저처럼 뉴이와 숲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 글자 B R W, 그리고 특히 이 낯선 글자 W, 즉 영어 W에 즉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제 눈앞에, 마치 환각처럼 세 글자가 제자리를 찾아 배열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글자들이 부르고 필요로 하는 단어들의 머리글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거리의 B를 보았고, 리처드와 월리스의 영어 R과 W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처드 월리스 대로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의 딸은 귀가 먼 것입니다."

마제루는 다소 의아한 기색을 보였다.

"그럼 보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그냥 찾고 있을 뿐이야. 엉뚱한 가정 위에 가설을 세우지. 그럴싸한 가설을 말이야.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나 스스로에게 말했지, 마제루. 이 작은 구석이 도대체 미스터리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이…… 쯧. 들어 봐."

그는 마제루를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다. 문이 닫히는 쾅 하는 소리였다. 실제로 발소리가 마당, 집 앞을 지나갔다. 바깥 철문의 자물쇠가 삐걱거렸다. 누군가가 나타났고, 가로등 빛이 그의 얼굴을 훤히 비췄다.

"젠장, 저 녀석이야." 마제루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맞아요, 보스. 검은 지팡이와 손잡이의 광택을 보세요. 그리고 망원 안경을 쓰셨죠. 수염도 있고요. 보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진정하고 따라가자."

그 남자는 리샤르월라스 대로 너머로 건너가 마요 대로에서 꺾였다. 그는 고개를 쑥 내민 채 꽤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손에는 가볍게 지팡이를 돌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마요 대로의 끝자락에서, 그 남자는 세관 통과를 마치고 파리에 들어섰다. 근방에 시앙 드 페르 드 세랭튀르 역이 있었다. 그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고, 여전히 미행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아우퇴이행 열차를 탔다.

"참 이상하군." 마제루가 말했다. "열다섯 날 전에 그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어. 바로 그 곳에서 그를 목격했지."

그 남자는 곧장 성벽을 따라 걸었다. 십오 분도 채 안 되어 그는 수셰 대로에 도착했고, 거의 즉시 공학자 포빌과 그의 아들이 살해당한 호텔로 향했다.

그 호텔 맞은편에서 그는 성벽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몇 분간 그곳에 서서, 정면을 향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다시 길을 계속해 무엣으로 향했고, 부아드보아 숲의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이제 시작이다. 당당하게!" 돈 루이스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말했다.

마제루가 그를 붙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장님?"

"그 녀석의 목을 조르자. 우리는 둘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제발요, 선장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유 없이 한 남자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동기가 없단 말인가? 저런 놈은 도둑이요, 살인범이요. 대체 뭘 더 원한다는 거야?"

"강력한 불가항력이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요."

"뭐가?"

"영장입니다. 영장이 없어요."

마제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대답은 돈 루이스 페레나에게 너무도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그는 터져 나오듯 웃음을 터뜨렸다.

"영장이 없다고? 불쌍한 녀석아. 내가 영장이 필요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마."

"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겁니다!" 마제루가 동료의 팔을 꼭 붙잡으며 소리쳤다. "당신은 그 인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여자분이 어머니란 말인가?"

"제발, 사장님…"

"하지만, 천하의 정직한 당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경찰서장에게 알리고, préfecture(도청)에 전화를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만약 새가 날아갔다면요?"

"나한테 영장이 없어요."

"바보야, 내가 대신 써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돈 루이스는 분노를 억눌렀다. 자신의 모든 논리가 병장의 완고한 태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질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마제루는 필요하면 그에게까지 적대감을 느끼며 적을 변호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간결하면서도 교훈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바보 하나와 너, 합치면 바보 둘이지. 그리고 종이 조각, 서명, 영장 같은 게루걸로 경찰 노릇 하려는 사람은 다 바보야. 경찰 일은 내 친구, 주먹으로 하는 거야. 적이 보이면 때리면 돼. 안 그러면 공중을 치게 되지. 그럼 잘 자. 나는 자러 갈게. 다 끝나면 전화해."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제멋대로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지쳐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의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나태함에 굴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깨어나자마자 옷을 더 빨리 챙겨 입었다. 이브네브의 지팡이를 든 남자와 경찰이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도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늦어서 구원하지 못하면, 저들은 속아넘어갈 거야.'

그때 바로 마제루가 전화로 그를 불렀다. 그는 서둘러 1층의 어두운 다락방으로 달렸다. 전임자가 설치한 작은 전화 부스였다. 그곳은 그의 사무실과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전등을 켰다.

"알렉상드르?"

"네, 보스. 리처드 윌리스 대로에 있는 집 근처의 와인 상점에 있습니다."

"그 남자는?"

"새는 둥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도착한 거죠."

"그래, 짐은 다 쌌어. 오늘 아침 출발할 거야."

"어떻게 아세요?"

"집 청소부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아줌마가 지금 막 그 집에 들어갔고, 문도 열어줄 거예요."

"혼자 사세요?"

"네. 아줌마가 밥만 만들어주고 저녁이면 가요. 그 외엔 아무도 안 와요. 다만, 그가 이사를 온 뒤 세 번이나 방문한, 베일을 쓴 한 여인이 있을 뿐이죠. 청소부 아줌마는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없대요. 그 남자는 그냥 학자라고 해요. 하루 종일 읽고 연구만 한다는군요."

"체포 영장이라도 있나요?"

"네. 곧 출동할 참이에요."

"나도 갈게."

"안 돼요! 이번엔 베버 소장이 지휘해요. 아, 그런데 푸발 씨 사건에 대해 새 소문 들으셨나요?"

"푸발 씨 사건이요?"

"네. 그 여자가 오늘 밤 자살을 시도했어요."

"뭐?! 자살을 시도했다고요?"

페레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그리고 곧이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비명 소리를 들었다. 마치 메아리처럼.

그는 수화기를 놓지 않은 채 몸을 돌렸다. 르바수르 부인이 책상 옆에 서 있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고 피가 빠진 듯 창백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페레나는 곧바로 그녀에게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내 말을 듣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저토록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지?' 도 루이스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제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자기가 자살을 시도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걸 감행하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죠."

페레나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르네요. 하지만 절대 오지 마세요, 사장님."

"아니, 내가 가야 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서두르세요, 사장님. 이제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나 곧 갈게."

그는 급히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부스스한 발걸음으로 전화 부스 안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런데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의 몸은 안쪽 벽에 부딪혔다.

문턱을 넘으려던 그 찰나,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작동했다. 그는 간신히 뒤로 점프해, 거대한 철판 커튼이 맹렬하게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커튼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 거대한 무게에 깔려 죽었을 것이다. 그는 손끝으로 그 철판이 스쳐 지나가는 기운을 감지했다. 그 순간, 그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위험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몇 초 동안 그는 진정한 공포에 사로잡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머릿속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는, 그 장애물 쪽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무거운 금속 판이었는데, 여러 조각을 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단단한 한 덩어리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기가 돌았고, 가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단하고 단단했다. 판의 가장자리는 좁은 홈에 깊숙이 박혀 있어,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다.

그는 감금된 상태였다. 문득 치밀어 오른 분노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서재에 레바쥬르 씨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아직 방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 이미 떠났을 리가 없다면, 그녀는 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돌아올 터였고, 경보를 울려 자신을 구해 줄 것이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부름을 보냈다. 대답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갇힌 선실의 벽과 천장에 부딪쳐 울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온 호텔이, 로와 계단과 현관을 지나, 자신의 부름에 귀를 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도… 그래도… 레바쥬르 씨라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는 이제 움직이지도,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금 그 젊은 여자의 이상한 태도를 생각했다. 무너진 듯한 얼굴, 어지러운 눈빛.

그는 또 물었다. 어떤 우연이 그 보이지 않는 장치를 작동시켰을까. 사납고도 냉정하게, 그는 무서운 철의 장막을 그에게 던졌다.

제5장

리처드 월레스 대로 8번지 철제 문 앞에는 수석 경위 베버, 주사 안시니, 반장 마제루, 형사 세 명, 그리고 네이유 경찰서장이 모여 있었다. 마제루는 돈 루이스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마드리드 가도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다. 전화를 나눈 지 이미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작전을 미룰 명분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수석 경위 베버가 말했다. "청소부 아저씨가 창문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그 남자가 옷을 입고 있네요."

"나가면 바로 잡으면 되지 않나요?" 마제루가 반문했다.

"다른 통로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부장이 말했다. "이런 놈들은 조심해야 해. 무작정 덤비기보다, 집으로 쳐들어가자. 거기서 잡는 게 훨씬 확실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야, 마제루?" 부장이 그를 따로 불러냈다. "우리 형사들이 얼마나 초조한지 보지 못했어? 그 녀석이 다들 불안해하거든. 이럴 땐 맹수처럼 쫓아붙여야 해. 그리고 총감이 오기 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해."

"총감이 온다는 말이야?"

"그래.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 이 사건이 총감을 아주 심각하게 걱정시키고 있어. 자, 그럼 가자! 준비됐나, 아가씨들? 내가 종을 울릴게."

종이 울렸다. 곧 청소부가 달려와 문을 살짝 열었다.

지시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다. 상대를 너무 일찍 놀라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불러일으킨 공포는 너무 컸다. 순찰대원들이 한꺼번에 밀려나며 광장으로 돌진했고, 모두 싸움 준비를 갖추었다.

그때 두 번째 층 창문이 열리며 누군가 소리쳤다.

"무슨 일이오?"

소방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임 순경과 검사, 그리고 소방대장 세 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나머지 두 사람은 광장 밖에서 도주를 막았다.

만남은 첫 번째 층에서 이루어졌다. 남자는 그대로 옷을 입은 채, 모자를 쓴 채 내려와 있었다. 소방대장이 외쳤다.

"멈춰! 손도 대지 마! 잘도 찾아냈군, 위베르 로티에?"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총 다섯 자루가 그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공포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선생님?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왔소. 여기 당신이 관련된 영장이 있소. 체포 영장이야."

"나에 대한 체포 영장이라니!"

"허버트 로티에에 대한 것이오. 주소는 리처드 윌리스 대로 8번지."

"그건 터무니없어! … 정말 믿을 수 없소. 무슨 이유에서라니?"

그는 조금의 저항도 하지 않았다. 두 팔을 붙잡힌 채, 그는 꽤 넓은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나뭇가지 의자 세 개와 한 개의 안락의자, 그리고 두꺼운 책들로 어지럽게 쌓인 테이블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요." 부장이 말했다. "그리고 움직이지 마시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당신에게 불리해질 거요…"

남자는 항의하지 않았다. 두 형사가 옷깃을 잡고 붙잡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아무런 예고 없이 체포된 것을 납득하려 하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약간 붉은 기가 도는 갈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때때로 차가운 빛을 발하는 회청색 눈을 가졌다. 넓은 어깨와 힘찬 목은 그의 체력을 말해주었다.

"차에 태우겠습니까?" 마제루가 부하에게 물었다.

"잠깐만요. 장관이 오십니다. 발소리가 들리네요. 주머니는 다 뒤졌습니까? 무기는 없습니까?"

"의심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스말리옹은 도착하자마자 수감자의 얼굴을 살피며 부하와 나직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작전 경과를 자세히 들었다.

"좋은 일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때였다."

그가 말했다. "공범 두 명이 붙잡혔으니, 이제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테니까."

"그렇다면 저항은 없었나?"

"전혀 없습니다, 각하."

"알겠다. 그래도 경계는 늦추지 말자."

수감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방문자가 경찰청장임을 깨닫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데스말리옹이 물었다.

"체포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는 공손한 어조로 반박했다.

"죄송합니다, 총감님.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 일과 관련해 저는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贵方의 수사관들이 엄청난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그 착오는 바로 풀릴 것입니다. 그 단어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아니, 꼭 듣고 싶습니다."

총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당신은 공학자 포빌과 그의 아들 에드몽의 살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히폴리트가 죽었다니!"

그 외침은 본능적으로 터져 나왔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다. 놀람과 공포가 영혼 깊은 곳까지 뒤흔드는 존재에게서 우러나온 비명이었다.

그 놀람의 표정이 너무도 기묘했고, 자신이 알 바 없다는 척하기 위해 던진 그 질문이 너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신경질적인 떨림을 섞어 다시 말했다.

"히폴리트가 죽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로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살해당했나요? 에드몽도요?"

주지사 어깨를 다시 한 번 으쓱였다.

"보빌 씨를 이름으로 부르는 걸 보면, 당신 두 사람은 사적인 사이가 아니었나 봅니다. 설령 당신이 그 살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난 열흘간 신문을 조금만 읽었어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전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주지사님."

"뭐라니? 당신은 또 무슨 변명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오직 과학 연구에만 매달리며 대중을 위한 책을 집필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일절 관심도, 참여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신문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피올트 포빌의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빌 씨를 알고 있었군요."

"예전에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가족 문제였습니다……."

"가족 문제라니요? 그러니까 친척 사이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피올트는 제 사촌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촌이요? 푸빌 씨가 당신의 사촌이라고요? 하지만… 하지만 그럼…"

잠깐만요. 정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푸빌 씨와 그의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아르망드 루셀이라는 두 자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빅터라는 사촌과 함께 자랐죠.

"네, 빅토르 소베랑입니다. 루셀 할아버지 쪽 사촌이었죠. 빅토르 소베랑은 해외에서 결혼했고, 아들 둘을 뒀습니다. 한 명은 열다섯 해 전에 죽었고, 다른 한 명, 바로 저입니다."

데말리옹 씨가 몸을 떨었다. 그의 동요는 여실히 드러났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가 정말 경찰이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비크토르의 아들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오빠와 아들인 오 부부가 죽었고, 오 부인은 살인죄로 거의 확증되어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인 코즈모 모닝턴의 최종 상속자는 바로 이 남자가 된다.

그런데 왜 그는 억지로라도 자신을 처단하는 무거운 증언을 했을까?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총감님의 놀라움을 이해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오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듯, 매우 정중하면서도 특이할 만큼 우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자신이 밝힌 내용이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경찰청장은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진짜 이름은?"

"가스통 소베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허베르 로티에라는 가명을 쓰는 겁니까?"

그 남자는 순간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 이 변화는 뒤폴리옹 경감 같은 날카로운 관찰자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몸을 숙였고, 눈이 초점을 잃으며 흔들렸다.

"그건 경찰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제 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뒤폴리옹 경감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변명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숨어 다니는지, 왜 루르 대로에 있는 집을 비워두고 주소도 남기지 않았는지, 왜 사서함을 빌려 편지를 받는지 묻는다면, 똑같은 변명으로 막으시겠습니까?"

"네, 총감님. 그것은 제 사적인 일입니다. 오직 제 양심만 아는 문제죠. 당신이 그걸 묻는 건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우리 편에서 끊임없이 듣는 답변입니다. 당신의 공범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공범?"

"네, 포빌 씨요."

"포빌 씨?"

가통 소베랑은 엔지니어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제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뭘 그렇게 말하죠? 마리에안? 아니죠, 맞죠? 거짓말이겠죠?"

데말리옹 씨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수셰 대로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선 모르는 척하는 태도가 너무도 터무없고 유치해 보였기 때문이다.

가통 소베랑은 격분한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다.

"정말이에요? 그녀도 저와 같은 오해를 한 걸까요? 혹시 그녀도 체포됐나요? 그녀가요! 마리에안이 감옥에!"

그의 쥐어짠 주먹이 공중으로 치켜들었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알 수 없는 적들, 자신을 괴롭히며 히폴리트 파빌을 살해하고 마리에안을 넘긴 자들을 향한 위협의 제스처였다.

마제루와 안세니 형사가 그를 거칠게 붙잡았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밀어내려는 듯 반발하는 몸짓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는 말을 멈췄다.

경찰청장은 마제루에게 말했다.

"파우빌 씨에게서 본 것과 같은 연극이야. 같은 종류, 같은 기량의 배우가 연기한 거지. 둘이 친척인 게 분명해."

"경계해야 합니다, 청장님. 지금 그의 체포로 인해 그는 위축되어 있지만, 각성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잠시 전 나갔던 소과장 웨버가 돌아왔다. 데말리옹 씨가 그에게 물었다.

"준비됐나?"

"네, 총감님. 택시를 대문 쪽으로 불러다 뒀습니다. 총감님 차 옆에 세워뒀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여덟 명입니다. 방금 파출소에서 순경 두 명이 합류했습니다."

"집안을 수색해 봤나?"

"네. 그런데 집안이 거의 텅 비어 있더군요. 필수 가구 말고는 없고, 방 안에는 뭉쳐 놓은 서류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좋다. 그를 데려가라. 경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라."

가스통 소베랑은 순순히 복종하며 부하들과 마제루를 따라나섰다.

문턱에 서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총감님, 수색을 하시니 부탁이 있습니다. 제 방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들을 잘 다루셨으면 합니다. 그건 제가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분명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총감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단어를 찾느라 잠시 주저했다. 말하면서도 그 말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총감님, 여기 어딘가에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아끼는 편지 더미가 있습니다. 혹시 그 편지들이 나쁜 뜻으로 해석되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편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극히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들을 총감님 한 분께만 맡기겠습니다."

"그 편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숨겨진 곳은 찾기 쉽습니다. 제 방 위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 오른쪽에 있는 못 하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겉보기엔 쓸모없는 못이지만, 그건 외부에 있는 숨겨진 공간, 즉 낙수구 옆 슬레이트 기와 아래를 여는 장치입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두 남자가 그를 에워쌌다.

그때 주지사가 그들을 막아섰다.

"잠깐만. 마제루, 다락방으로 올라가라. 편지들을 가져오너라."

마제루는 명령을 받아 몇 분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장치를 작동시킬 수 없었다.

주지사에게서 명령을 받은 안세니 경감은 마제루와 함께 올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감시인인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은신처 작동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죄수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주지사 자신은 위버 과장과 함께 방에 남아 수색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쌓인 책들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과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에는 화학 관련 책들도 눈에 띄었다. 『유기화학』, 『전기와 화학의 관계』 같은 책들이었다. 모든 책의 여백에는 메모가 가득 적혀 있었다.

그가 한 권을 펼쳐들고 있는 순간, 외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재빨리 뛰어나갔다. 하지만 문턱을 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어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두 발의 총성이 다시 터졌다. 이어 비명과 격투 소리, 그리고 또 다른 총성이 이어졌다.

경찰청장은 네 계단씩 뛰어 오르며, 그의 체격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민첩하게 2층을 올랐다. 이어 그 뒤를 따라온 차장까지 함께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은 계단이 더 좁고 가파랐다.

그가 꺾임길을 지나자, 바로 위에서 비틀거리던 누군가가 그의 품으로 떨어졌다. 다친 마제루였다.

계단 아래에는 다른 한 명의 몸이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수석 형사 안세니였다.

계단 위, 작은 문틀에 가斯顿 소베랑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나웠고, 눈빛은 잔인했다. 그는 팔을 뻗었다.

그는 무작위로 다섯 번째 총을 쐈다. 그러다 경찰청장을 보고는, 차분하게 조준했다.

총구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겨누는 순간, 장관은 깜짝 놀랐다.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찰나, 장관 뒤에서 총성이 쏙 들어왔다. 소아랑의 총이 발사되기 전에 손에서 떨어졌다. 장관은 마치 환상처럼 한 남자를 보았다. 바로 방금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낸 남자였다. 그는 수석 형사의 시체를 넘어섰고, 마제루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경찰관들을 이끌고 돌진했다.

그는 그 남자를 알아봤다. 돈 루이스 페레냐였다.

돈 루이스는 재빨리 소아랑이 물러선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창틀 위에 서서 세 층 높이에서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소아랑의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저기서 뛰어내렸다고?" 장관이 달려들며 소리쳤다. "살려 낼 수 없겠군!"

"살아 있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장관님. 보십시오, 저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놈들은 기적이나 통하는 법입니다…… 저 문쪽으로

달아납니다…… 다리가 좀 덜덜 떨릴 뿐이지, 절뚝거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내 형사들은 어찌 되었소?”

“아, 다 계단과 집 안에 모여 있습니다. 총소리에 이끌려 부상자를 돌보고 있죠.”

“아, 저 악마야.” 장관이 중얼거렸다. “그는 대가의 솜씨로 한 판을 끝냈군!”

사실 가스통 소베랑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도망치고 있었다.

“잡아라! 그를 잡아라!” 데말리옹이 고함을 질렀다.

보도블록은 이쪽이 꽤 넓었다. 그 옆에는 두 대의 자동차가 정차해 있었다. 한 대는 경찰청장용이고, 다른 한 대는 감방장이 죄인을 태우라고 불러온 차였다. 두 운전석에는 운전기사들이 앉아 있었지만,刚才 벌어진 싸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이 본 것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가스통 소베랑의 모습뿐이었다.

경찰청장 차에는 증거품들이 쌓여 있었다. 운전기사는 그 무더기에서 아무렇게나 한 가지를 집어 들었다. 흑단으로 만든 지팡이였다.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기사는 주저 없이 도망치는 남자를 향해 달려나갔다.

"멈춰라! 멈춰라!"

데말리옹이 비명을 질렀다.

대청마루 끝에서 그 만남은 벌어졌다. 짧고도 격렬했다. 소베랑이 자신을 공격한 자에게 달려가 지팡이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뒤로 뛰어나가, 그 지팡이를 쾅 하고 그의 얼굴에 부러뜨렸다.

그는 지팡이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도망쳤다. 뒤쫓아오는 다른 운전사와, 마침내 집안에서 튀어나온 세 명의 형사들이 그를 쫓았다. 그는 형사들보다 서른 걸음가량 앞서 나갔다. 한 형사가 권총을 몇 발이나 쐈지만, 명중시키지 못했다.

데말리옹 씨와 수석 보좌관 웨버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들은 2층, 가스통 소베랑의 방에서 주사관을 발견했다. 주사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를 얻어맞아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그는, 거의 즉시 숨을 거두었다.

상테 형무소에서 치료를 받던 마제루 병장은 상처가 그리 깊지 않다고 했다. 그는 치유되는 동안 사건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수랑드가 그와 수석 형사를 다락방까지 데려다주었다는 것이다. 수랑드는 문 앞에 서서,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와 입지 않는 작업복 사이로 매달아 둔 낡은 가방 같은 것에서 손을 쑥 넣었다.

그리고는 곧장 권총을 꺼내 수석 형사에게 총구를 겨누고 발포했다. 형사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졌다.

마제루가 살인자를 붙잡았지만, 그는 몸을 비틀며挣脱했다. 그리고 총알 세 발을 쏘아댔다. 그중 세 번째 총알이 마제루의 어깨를 꿰뚫었다.

이렇게 된 것이다. 경찰은 숙련된 요원들을 동원한 전력을 다했고, 포로가 된 적에게 구원의 길은 원천 차단된 듯했다. 그런데 그 적은 전례 없는 대담한 계략을 써서 적 두 명을 따로 떼어내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적들을 집 안으로 유인해 들인 뒤, 길이 뚫리자마자 도망쳐 버린 것이다.

데말리옹 씨는 분노와 절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리를 속였군… 그의 편지, 은신처, 움직이는 못까지… 다 장난이었어. 아, 이 강도야!"

그는 성화(성)로 내려가 마당으로 나갔다. 거리에서는 살인범을 쫓던 요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오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총감님, 그 남자는 옆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서 자동차가 그를 태우고 있었죠. 엔진이 이미 예열되어 있었나 봅니다.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났으니까요."

"그런데 내 차는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동안, 총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 남자를 태우고 달아난 차는 렌터카였습니까?"

"네. 택시였습니다."

"그럼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실리면, 운전기사 본인이 자수할 테니까요."

웨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면, 총감님, 그 운전기사도 공범일 수 있습니다. 설령 차를 찾아내더라도, 가통 소베랑 같은 남자가 어떻게 발자국을 지우는 법을 모를까요. 총감님, 이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 루이스가 나직이 말했다. 그는 초기 수사를 묵묵히 지켜보았고, 잠시 마제루와만 남게 되었다. "당신이 잡은 자들이 도망가게 놔두면, 특히 더 고생할 겁니다. 어쨌든, 어젯밤 내가 뭐라고 했지? 하지만 정말 무서운 놈이군. 그리고 혼자만은 아니야, 알렉상드르. 내게 동조자가 있을 거라고 장담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집 안에 있어… 내 집이라고!"

도 루이스는 소베랑의 태도와 체포 당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마제루에게 질문을 던진 후, 팔레부르방 광장에 있는 자신의 호텔로 돌아갔다.

그가 해결해야 할 수사는 기이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었다. 가스토노 소베랑이 코스코 모닝턴의 유산을 쫓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충분히 주목할 만했다. 하지만 르바세르 씨의 행보는 그에 못지않게 그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화를 하던 중 그 소녀가 내지른 비명을 잊을 수 없었다. 가니마르와 통화할 때였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던 공포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그 비명과 공포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었다. 그가 가니마르에게 던진 대답, 즉 "무슨 소리야? 모 피아브르가 자살을 시도했다니?"라는 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자살 소식과 르바세르의 극심한 동요 사이에는 너무도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했다. 페레나는 이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전화 부스 쪽으로 열린 창을 살펴보았다.

그 창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다. 너비는 대략 두 미터, 높이는 매우 낮았다. 그리고 그 창을 막고 있는 것은 벨벳 커튼뿐이었다. 거의 항상 커튼을 치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창은 거의 항상 드러나 있었다.

그는 커튼 아래쪽, 벽의 장식 틀 사이에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버튼을 찾아냈다.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두 시간 전에 부딪혔던 철제 커튼이 떨어졌다.

그는 방아쇠를 세 번, 네 번씩 다시 당겨 보았다. 이 실험들은 기계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며, 외부의 간섭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까? 이 소녀가 자신을, 즉 페레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종을 눌러 그녀를 부르려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결심한 대로 해명을 요구할 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는 종을 누르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그녀는 안마당을 지나가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느렸고, 고요한 리듬으로 고개가 흔들리며 몸이 흔들렸다. 햇살이 그녀의 금발에 반짝임을 더했다.

오전 내내 그는 소파에 누운 채 시가만 피웠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일어난 일들 모두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 어떤 사건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의도한 듯 어둠을 더 짙게 만들어, 그가 빠져 헤매는 암흑 속에 그림자만 더했다.

무언가 행동하고 싶었지만, 막상 움직이면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그 장애물들 때문에 그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장애물들의 성격을 봐도, 그들을 만들어낸 상대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정오가 되자, 그는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했다. 그때 집사 한 명이 쟁반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집안 식구들 모두 도니 루이의 애매모호한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선생님, 경찰청장입니다."

"뭐?" 페레나가 물었다. "어디 있죠?"

"아래층에 계십니다. 처음엔 몰랐거든요. 레바소르 씨에게 알리려다 말았어요. 하지만…"

"확실합니까?"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페레나가 그 브리스톨 카드를 펼쳐 들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위쪽에 달린 거울을 이용해 팔레부르궁 광장을 살폈다.

거기 다섯 여섯 명의 남자가 거닐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알아봤다. 바로 어제 밤 그가 뿌려 둔 감시자들이었고, 이제 다시 제자리를 잡은 참이었다.

'이 정도면 되는군.'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울 게 없다. 경찰청장도 나한테는 좋은 뜻밖에 가지고 없지. 내가 예상한 대로야. 내 생명을 구해 줬으니까. 그 선택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군.'

데스말리옹은 말 없이 들어왔다. 고개를 살짝 숙이는 정도가 그의 인사였다.

그를 따라온 웨버는 달랐다. 페레나라는 인물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돈 루이스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체했다. 대신 의자 하나만 앞으로 당겨 앉으려 했다.

하지만 데스말리옹은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손을 뒤에 끼고, 입을 열기 전까지 자신의 사색을 이어가고 싶은 듯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돈 루이스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다 갑자기 총장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리처드 월레스 대로에서 떠난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각하?"

돈 루이스는 그토록 묻고 싶은 태도로 대화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다.

"네, 총감님."

데말리옹 총감은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보다 서른에서 마흔 분 정도 늦게 출발했어요. 자동차로 총감실까지 왔고요. 거기서 당신도 볼 수 있는 이 통지문을 받았죠. 여덟 시 오십오 분에 증권가에서 배포됐다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돈 루이스는 통지문을 받아들고, 대문자로 적힌 다음 글을 읽었다.

"경고합니다. 가통 소베랑은 도망친 뒤 동조자 페렌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페렌나 씨가 누구인지 아시겠지만, 그는 바로 아르센 뤼팽입니다.

뤼팽은 소베랑을 처리하고 모닝턴 가의 유산을 챙기려 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늘 아침 화해했고, 뤼팽은 소베랑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만나 동맹을 맺었다는 증거는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베랑은 신중하게, 자신이 몰래 가져간 지팡이 조각을 뤼팽에게 건넸습니다. 그 조각은 페렌나 씨의 서재에 있습니다. 두 창문 사이에 놓인 소파의 쿠션 밑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도 루이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편지는 터무니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서재에서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차분하게 편지를 접어 경찰청장에게 돌려주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데말리옹 씨가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도록 내버려두기로 마음먹었다.

데말리옹 씨가 물었다.

"자백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그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청장님. 소파가 바로 저 두 창문 사이에 놓여 있죠."

데말리옹 씨는 두세 초 동안 기다렸다. 그러곤 소파 쪽으로 다가가 쿠션을 들춰냈다.

그중 하나 아래에서 지팡이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 루이스는 충격과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어차피 이 지팡이 반쪽이 가통 소베랑이 가지고 있던 것과 맞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실수로 가져간 것도 아니었다.

"저도 다른 반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말했다. 그의 말은 이미 예상된 반박이었다.

"베버 소장이 리처드 월리스 거리에서 직접 주워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반쪽을 꺼내어 맞혀 보았다.

두 지팡이 끝은 완벽하게契合되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페레나는 당황해 있었다. 그가 자신에게 이런 패배와 굴욕을 안겨준 이들을 항상 당황하게 만들곤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가통 소베랑이 단 이십 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집에 침입해 이 방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호텔에 붙어 있는 동조자가 있다는 추측조차 이 기이한 현상을 덜 불가사의하게 만들지 못했다.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군.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잡혀야겠어. 오소빌 부인의 고발은 피했고, 터키석 사건도 무마했지. 하지만 데말리옹 씨는 오늘 날에도 내가 또다시 비슷한 음모를 꾸몄고, 가통 소베랑이 마리-안느 오소빌처럼 나를 전장에서 물러나게 하려 모함하며 체포하게 했다고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자, 빨리 대답하라!"

긴장한 경찰청장이 소리쳤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데말리옹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투덜거렸다.

"그럼…… 그럼…… 자백까지 했으니……"

그는 창문 손잡이를 움켜쥐고 열 준비를 했다. 휘파람 소리가 났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체포는 이미 확정된 일이었다.

"총경님, 저의 형사들을 부르시겠습니까?" 돈 루이스가 물었다.

데말리옹 총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 손잡이를 놓았고, 다시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페레나는 그 마지막 망설임의 이유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자 돈 루이스는 두 번째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제가 이 흑단 지팡이 사건을 없었던 일로 여기거나, 오히려 당신의 하인 중 한 명이 배신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어떤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은혜들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준다면요."

페레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지팡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해 보였지만, 모든 것이 엉키기 직전인 순간에 일은 그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방향, 즉 마제루에게 일러준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

"자유롭다는 뜻인가? 더 이상 감시도 없고, 내 뒤를 쫓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이름을 둘러싼 언론 공세가 계속된다면? 특정한 루머나 우연의 일치 때문에 여론이 들끓어서, 나를 향한 어떤 조치가 요구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가?"

"베버 씨도 저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겠지요?"

"저는 적어도 버린 척은 하겠소. 그렇지 않겠소, 베버?"

부서장은 몇 차례 낮게 중얼거렸다. 억지로 따르는 승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소리였다.

루이스 도네가 곧장 외쳤다.

"그렇다면, 총감님.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정의가 원하는 대로, 또 필요로 하는 대로 승리를 거두겠지요."

이처럼 상황은 급변했다. 특별한 일련의 정황을 거쳐, 경찰조차도 도니 루이스 페레나의 놀라운 자질을 인정했다. 그가 이미 해낸 일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직감한 것이다. 경찰은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거의 그가 작전 지휘를 맡는다고 해도 좋을 지경이었다.

그 찬사는 기특하기까지 했다. 정말 도니 루이스 페레냐에게만 바치는 것이었을까? 무서운, 잡히지 않는 뤼팽도 그 공로 중 일부를 주장할 권리가 있지 않았을까?

데말리옹 씨는 속으로 두 사람이 동일인물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경찰청장의 태도에는 그의 속마음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다. 그는 도니 루이스 페레냐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이 종종 맺게 되는 그런 거래를 제안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없소?" 그가 물었다.

"네, 총감님. 신문에서 불쌍한 베로 형사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다고 보도했어요. 그 수첩에 어떤 단서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메모나 지출 내역 정도였죠.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진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신문사에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페르나는 건네진 사진을 받아 들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데스말리옹 씨의 눈에는 들어왔다.

"당신은 이 여자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총감님. 저는 그저… 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외모가 비슷한 것뿐이었죠.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밤까지 이 사진을 잠시 빌려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요, 좋습니다. 그 사진은 마제루 병장에게 돌려주십시오. 모닝턴 사건과 관련해 제가 그에게 당신과 상의하라고 지시할 테니까요."

이제 대화가 끝났다. 총감이 물러났다. 돈 루이스가 그를 현관문까지 배웅했다.

그러나 문턱에 서서 데말리옹 씨가 돌아서서 간단히 말했다.

"오늘 아침에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 도적 소베랑이…"

"아! 총감님, 그것은…" 돈 루이스가 반박했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분에게는 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제 감사의 말씀은 받아 주십시오."

경찰청장은 마치 진짜 도누이스 페레냐를 마주한 것처럼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스페인의 고귀한 신사이자 외인부대의 영웅이라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했다.

반면 웨버는 두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입마개를 한 도그개처럼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나쳤다. 하지만 적을 향한 끔찍한 증오가 서린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젠장, 이 녀석. 기회가 닿으면 절대 놓치지 않겠군.' 도누이스가 속으로 생각했다.

창문 너머로 데말리옹 씨의 자동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안전국 요원들은 부서의 수석 경위를 따라잡아, 팔레부르 광장을 빠져나갔다. 작전 본부는 이미 철수한 뒤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나는 이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 일이 꽤 복잡해질 걸세."

도누이스는 주점을 불러 말했다.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주시오. 그리고 르바세르 씨에게, 식사가 끝난 직후 바로 만나러 오라고 전해주게."

그는 식탁으로 걸어 가서 앉았다. 옆에는 데스말리옹 씨가 남기고 간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사진에 몸을 숙여, 매우 주의 깊게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사진은 조금 바래고 닳았다. 지갑 속이나 서류 더미에서 오래 방치된 사진들이 그렇듯 말이다. 하지만 이미지 자체는 여전히 또렷했다.

그것은 무도회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빛나는 초상이었다. 어깨와 팔이 드러나 있었고, 머리에는 꽃과 잎사귀 장식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르바세르 씨……."

그는 여러 번 속삭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쪽 구석에는 지워져 거의 보이지 않는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플로랑스'라는 글자를 읽어냈다. 아마도 그 소녀의 이름이겠지.

그는 다시 말했다.

"레바수르 씨…… 플로랑스 레바수르…… 가니마르 형사의 지갑에 그녀의 사진이 왜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계승한, 헝가리 백작의 독서실과 이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는 철제 커튼의 일을 떠올렸다. 『프랑스 이코』지의 기사를, 바로 자신을 겨냥한 그 기사를. 그 기사의 초안을 자신의 호텔 안마당에서 찾아냈던 일도 기억났다. 무엇보다도 그의 서재로 가져다 놓인 지팡이 조각의 수수께끼가 뇌리를 스쳤다.

그는 이 사건들의 실체를 파헤치려 애썼고, 르바세르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사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의 아름다운 선, 미소의 우아함, 목

의 매력적인 곡선, 그리고 맨 어깨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르바세르 씨가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때, 혼자 있던 페레나는 자신이 물로 채운 잔을 입술에 대고 있었다.

페레나가 갑자기 뛰어나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잔을 빼앗아 카펫 위로 던졌다. 잔은 바닥에 부서지며 산산조각 났다.

"마셨습니까? 마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페레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녀는 말더듬듯 중얼거렸다.

"이 물병의 물…… 이 물병의 물……"

"그래서?"

"이 물은 독이 들어 있어요."

페레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쥐었다.

"독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말해 보세요. 정말 확실합니까?"

자신을 단속하려 애썼지만, 그는 뒤늦게 공포에 질렸다. 자신이 상대하던 강도단이 쓰는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베로 형사의 시체, 그리고 피폴 파빌과 그 아들의 시체를 직접 목격했다.

비록 그가 비교적 많은 양의 독을 견딜 만큼 단련되어 있었지만, 이번 독의 일격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소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가 명령했다.

"도대체 대답하세요! 당신은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떠올린 생각일 뿐이에요. 직감 같은 것이었고, 몇몇 우연이 겹쳤을 뿐이죠."

그녀는 자신의 말을 후회하는 듯, 그 말을 다시 거두려 애쓰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가 외쳤다. "나는 분명히 알고 싶소. 그 물병의 물이 정말 독이 든 게 맞소?"

"아니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는…"

"제가 착각한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는 건 쉬운데." 페레나가 물병을 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더 빨랐다. 병을 낚아채서 식탁에 내리쳐 깨뜨려 버렸다.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거요?" 그가 격분하며 물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루이스 대령은 재빨리 식탁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가 마시는 물은 부엌 끝 복도 깊숙한 곳의 여관에 설치된 필터를 통해 걸러진 것이었다.

그는 재촉해 달려가 작은 선반에서 사발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여과기에서 물을 따라 부었다.

그는 복도를 계속 따라 걸었다. 복도는 이쯤에서 꺾여 안마당으로 이어졌다. 그는 미르자, 작은 암견을 불렀다. 미르자는 마구간 옆에서 놀고 있었다.

"자, 이거 마셔."

그가 사발을 내밀며 말했다.

작은 개는 물을 마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멈추고 말았다. 다리를 쭉 뻗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굳어 있었다.

그가 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몸을 떨더니, 신음 소리를 내며 두세 바퀴 몸을 돌더니 쓰러졌다.

"죽었군."

그가 동물을 만져본 뒤 말했다.

르바세르 씨가 그에게로 달려왔다. 그는 젊은 여자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독이 맞았다는 게 사실이었네…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숨을 헐떡이던 그녀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억누르고 대답했다.

"저도 다른 작은 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개는 죽어 있었죠. 그래서 운전기사랑 마부에게 알렸어요. 둘은 지금 마구간에 있어요. 그리고는 당신에게 바로 알리려고 달려왔어요."

"그럼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그런데 왜 독이 들어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마구간에서 마부와 운전기사가 나오려던 참이었다. 페렌나는 그 소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겠군. 우리 집으로 가자."

그들은 복도의 모퉁이로 다시 돌아갔다. 필터가 설치되어 있던 부엌 근처에는, 세 계단에 막다른 길이 이어지는 또 다른 복도가 눈에 띄었다. 계단 위에는 한 개의 문이 있었다.

페렌나는 그 문을 밀었다. 바로 르바세르 씨가 묵기로 한 아파트의 출입구였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섰다. 돈 루이스는 현관문을 닫고, 이어 거실 문도 잠그었다.

"자, 이제 서로 의논합시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제6장

두 개의 작은 건물이 있었다. 호텔 본채와 같은 옛 양식이었다. 이 건물들은 안마당과 팔레 부르방 광장을 잇는 낮은 담장 양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담장 뒤쪽 깊숙한 곳에는 본채가 있었다. 작은 건물들은 이 본채와 여러 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동들은 부속 시설로 쓰였다.

한쪽에는 마차고장과 마구간, 안장방, 차고가 있었다. 끝에는 하인 숙소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빨래방과 부엌, 식료품 창고가 있었다. 끝에는 르바세르 씨를 위한 숙소가 있었다.

그 집은 지하실이 없었다. 어두운 현관과 큰 방 하나뿐이었다.

방의 대부분은 거실로 썼다. 나머지 공간은 침실로 꾸몄지만, 실상은 커튼으로 가린 작은 다락방 같았다. 침대와 세면대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

창문 두 개가 팔레부르방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돈 루이는 마 르바세르의 아파트에 들어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 공간의 편안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사로잡혔다.

가구들은 소박했다. 오래된 아카시아나무 의자와 팔걸이 의자, 장식이 없는 제국 양식 서랍장, 굵은 다리의 원탁, 그리고 책장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천으로 만든 밝은 색 커튼이 방 전체를 경쾌하게 물들였다.

벽에는 유명한 그림의 복제본과 일광이 가득한 풍경, 이탈리아의 도시, 시실리의 사원 등을 그린 드로잉이 걸려 있었다.

소녀는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특유의 신비로운 표정도 돌아왔다.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당황스럽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고, 의도적으로 무표정하게 지어 올린 표정 아래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페레나는 그 안에 격렬한 감정과 격동하는 심정이 숨어 있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려면 극도로 높은 집중력이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에는 두려움도, 도발도 없었다. 정말로 그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 루이스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그 사실이 irritating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 여자, 즉 마음속

으로 가장 중대한 죄목을 뒤집어씌운 상대를 앞에 두고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 죄목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오늘 아침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

"네, 제가 전화를 막 마칠 때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인들과 주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전에요?"

"어떻게 더 일찍 알 수 있겠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얼마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는가! 뤼팽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선실 밖으로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벽 윗부분에 숨겨져 있던 철제 커튼이 갑자기 제 앞으로 떨어지더군요. 이런 장벽을 뚫을 방법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냥 전화기를 들고 친구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리냐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령은

곧장 달려와, 식객의 도움으로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물러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스트리냐크 대령이 방문하셨다는 사실조차요."

"좋소. 하지만 내가 최근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이 호텔의 지배인은 물론 이곳 모든 사람이, 그리고 당신 역시 이 철제 커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소."

"물론이죠."

"누구에게 들었소?"

"말로네스코 백작에게요. 그분 말씀으로는, 프랑스 혁명 당시 외할머니가 이 작은 공간에 열세 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이 커튼은 지금 이 방과 비슷한 목재로 덮여 있었대요."

"미리 알려주지 않아 아쉽소. 정말로 내가 깔려 죽을 뻔했으니까."

이 가능성은 소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왜 갑자기 작동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소. 이 장치는 오래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죠. 그러니 우연의 소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저는 알 수 없는 적의 소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띄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전화기를 들고 있을 때, 딱 내 사무실을 지나쳤으니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모 포빌 씨의 자살 소식에 놀라 비명을 지르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으니까요."

"네,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유죄든 무죄든, 저는 그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당신은 창가 옆에 서 계셨고, 손은 장치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죠. 만약 범인이 있었다면 당신을逃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다. 얼굴에 살짝 붉은 기운이 돌았다. 그녀는 말했다.

"정말요. 제가 사고 몇 초 전에 문을 나섰으니, 최소한 그 사람을 마주쳤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죠."

"커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요? 그리고 제 외침이나 제가 일으킨 소음도요?"

"사무실 문을 닫았을 테니,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 순간 제 사무실 어딘가에 숨어 있던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인물은 쉬셰 대로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도단과 내통하고 있었을 거예요. 경찰청장이 방금 제 소파 쿠션 밑에서 강도단 일원이 사용하는 지팡이 조각을 찾아냈으니까요."

그녀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이 새로운 이야기는 그녀에게 전혀 낯선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눈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적어도 이것이 이상하다는 점은 인정하시죠."

"무엇이 이상하다는 거죠?"

"나를 겨냥한 일련의 사건들 말입니다. 어제, 마당에서 발견한 그 편지 초안—프랑스 에코지에 실린 기사의 초안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지나가던 순간 철제 커튼이 무너지고, 이어 이 지팡이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또… 방금 전, 독이 든 물병까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네… 네… 사실들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군요…"

"일련의 사실들이죠." 그가 힘주어 말을 이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대담한 적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의 행동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의 목적도 명확하죠. 익명 기고문과 지팡이 조각을 통해 그는 저를 함정에 빠뜨려 체포하려 했습니다. 커튼이 떨어지는 사건은 저를 죽이거나,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이나 감금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독약입니다. 비겁하고 교활하게, 제 잔에 던져진 독약이죠. 내일은 제 음식에 섞일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는 칼이, 그다음에는 권총 총알, 혹은 목을 조르는 로프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를 없애버리기만 한다면요.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저는 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이 훔치려 꿈꾸는 수백만 프랑을 거머쥘 사람입니다. 저는 침입자입니다. 모닝턴 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은 저뿐입니다.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미 네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가 될 것입니다. 가통 소베랑이 결정했습니다. 가통 소베랑이거나, 그 사업을 이끄는 다른 누군가가요. 그리고 공범이 여기 있습니다. 이 호텔 한복판, 제 곁에 숨어 있죠.

그는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 발자취를 따라다닙니다. 제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를 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과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알고, 반드시 알게 되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소녀는 뒤로 물러서며 곁에 놓인 작은 원탁에 기대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선은 단 한 순간도 그녀에게서 떼지 않은 채, 변함없는 표정에서 불안의 흔적이나 긴장의 징후를 찾아냈다. 그러고는 더 격앙된 어조로 되물었다.

"그 동조자는 누구인가? 여기 누구 내 목숨을 걸고 맹세했단 말인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처럼 음모가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 뿐이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평소 적대시하는 상대에게 반말을 하던 습관이 떠올라, 곧장 입을 열려 했다.

"거짓말이야, 아름다운 여인아.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공범은 바로 너야. 마제루와 나눈 전화 대화를 단번에 알아챈 건 너뿐이고, 가스통 소베랑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것도 너, 대로 모퉁이에서 차를 타고 그

를 기다린 것도 너, 그리고 그와 공모해 여기까지 지팡이 조각을 가져온 것도 너였지.

이유야 알 수 없지만,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너야. 어둠 속에서 내게 타격을 가한 손, 바로 너의 손이었어."

하지만 그는 그녀를 그렇게 대할 수 없었다. 오히려 분노와 경멸의 말로 자신의 확신을 외치지 못하는 것이 그를 극도로 격분시켰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에 꼭 쥐었고, 강하게 조였다. 그의 시선과 온몸의 태도는, 가장 날카로운 말들보다 더 강하게 그 젊은 여자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다잡고 안았던 손을 놓았다. 소녀는 반항과 증오가 섞인 빠른 동작으로 그를 뿌리치고 벗어났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좋소. 하인들을 심문하겠소. 의심스러운 자는 해고할 생각일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가 급히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 모두를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하인들을 옹호하려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배신과 완고함으로, 정직한 품성을 가진 하인들을 희생시키는 순간에도, 양심의 가책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

돈 루이스는 그녀가 자신에게 던진 시선에 연민을 호소하는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연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들은 긴 침묵을 지켰다. 도 루이스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서서 사진 속의 여인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지금 눈앞의 여성에게 사진 속의 모든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전에는 그 아름다움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은 마치 계시라도 받은 듯 강렬하게 다가왔다.

금발은 그가 알지 못했던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입술은 아마도 이전보다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약간 쓴맛이 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의 형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턱의 곡선, 레이스 칼라가 드러내는 목덜미의 우아함, 어깨의 선, 무릎 위에 얹은 팔과 손의 제스처.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고, 큰 부드러움과 어떤 의미에서 큰 정직함을 풍기고 있었다.

이 여인이 살인자, 독살범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

"당신이 당신이라고 했던 이름, 기억이 안 나."

"진짜 이름은 아니었지."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의 이름은 플로랑스……"

그녀가 깜짝 놀랐다.

"뭐?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플로랑스?…… 어떻게 알았어?"

"이 사진이 있고, 여기엔 거의 지워진 네 이름이 적혀 있어."

"아!"

그녀는 깜짝 놀라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믿을 수가 없어…….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디서 구한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물었다.

"경찰청장이 이 사진을 건네준 거지? 그렇지? 응…… 그래, 그 사람이야. 나는 확신해. 이 사진이 내 신원 확인용이고, 나를 찾고 있다는 뜻이야. 나도 그들 손아귀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너야…… 또 다시 너야."

"걱정 마십시오." 페렌나가 말했다. "이 사진에 약간의 손만 가하면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겁니다.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진에 집중된 시선을 고정하며 중얼거렸다.

"스무 살이었어요.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 제가 그 사진을 찍던 날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리고 초상화를 봤을 때는 더더욱요. 그때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사라졌어요. 제게서 훔쳐갔죠. 예전부터 다른 것들을 빼앗겼던 것처럼요."

그리고 더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마치 불행한 친구나 다른 여자에게 말을 거는 듯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플로랑스." 그녀는 반복했다. "플로랑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돈 루이스는 생각했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그녀가 공범일 리가 없다는 건 자명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에게서 발을 떼고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창문에서 문까지, 거리를 두고 걸어가며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이탈리아 풍경화들에 머물렀다.

이어 그는 선반에 꽂힌 책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살폈다. 프랑스와 외국 문학 작품들이 즐비했다. 소설과 희곡, 도덕론을 다룬 에세이, 그리고 시집까지. 그곳에는 단단하고도 다채로운 문화적 소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라신을 옆에 두고 단테가 자리했고, 스탕달은 에드거 앨런 포와 함께했다. 몽테뉴는 괴테와 베르길리우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였다. 그는 특이한 직관력을 발휘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디테일조차도 전체의 맥락 속에서 포착해내는 그 특별한 능력으로, 그는 한 권의 책에 주목했다. 셰익스피어 영어판 전집 중 한 권이 다른 책들과는 약간 다르게 보인 것이다.

붉은 상피로 제본된 등 부분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책들처럼 쓰임새에 의한 주름이나 찢어짐이 없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새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그것은 여덟 번째 권이었다. 그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재빠르게 책을 꺼냈다.

그는 맞았다. 그 책은 가짜였다. 겉장은 얇은 판지일 뿐, 안쪽은 비어 있어 작은 상자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말 그대로 숨길 만한 완벽한 공간이었다.

그 상자 안에는 흰색 편지용지, 알맞은 크기의 봉투, 그리고 일반 노트용 격자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같은 크기였으며, 한 권의 노트에서 찢어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종이의 모습이 그를 바로 사로잡았다. 그 모습은 프랑스의 <에코>지에 실릴 기사의 초안을 썼던 종이를 떠올리게 했다. 격자 무늬가 정확히 일치했고, 크기 또한 거의 같아 보였다.

그는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겨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 연필로 쓴 글씨들이 보였다. 급하게 적어 둔 메모처럼, 단어와 숫자가 줄지어 있었다.

그가 읽은 내용은 이랬다.

"첫 번째 편지. 4월 15일 밤에서 16일 밤 사이. 두 번째. 25일 밤. 세 번째와 네 번째. 5월 5일 밤과 15일 밤. 다섯 번째와 폭발. 5월 25일 밤."

그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첫 번째 밤의 날짜가 바로 다가올 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둘째, 이 날짜들이 모두 열흘 간격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또 그는 글씨체에 눈이 갔다. 이 글씨가 주머니 속의 초안과 매우 비슷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두 글씨가 정말로 닮았는지, 그리고 두 장의 격자 종이도 같은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노트를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초안 자취가 없었다.

"젠장, 이거 큰일 났네." 이빨 사이로 낄낄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번엔 정말 손이 크다."

그때 문득, 그는 아침에 마제루에게 전화를 걸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그 순간, 그의 노트는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고, 코

트는 부스 근처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르바세르 부인은 아무 이유 없이 서재 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아, 저 가식적인 여자가! 화가 난 페렌나는 속았다고 생각했다. 눈물, 순진한 척하는 태도, 감미로운 추억까지. 다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그녀는 마리안느 포빌이나 소베랑과 같은 부류였다. 그들처럼 거짓말쟁이이자 배우였다. 가장 사소한 동작 하나, 가장 순진해 보이는 목소리의 떨림 하나까지 모두 연극이었다."

그는 그녀를 단박에 들켜버릴 뻔했다. 이번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자신을 추적해 올 수 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기고문의 초안을 절대 손에 쥐여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침편지 사건에서 활동하며 그 초안을 없애려던 자들의 동조자가 바로 그녀라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심지어 그 어두운 무리의 지휘자가 그녀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해도 되지 않을까? 용기와 지혜로 다른 자들을 압도하며, 그들이 향하는 미지의 목적지로 이끄는 이가 그녀라면 어떨까?

드디어 그녀는 자유로웠다. 자신의 행동과 움직임이 온전히 hers였다.

팔레부르방 광을 향한 창문 너머로, 그녀는 그림자를 틈타 호텔을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 누가 그녀의 부재를 확인하거나 막을 일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 두 건 살해 사건이 벌어진 밤, 그녀가 이폴트 포빌과 그의 아들을 죽인 자들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있었다.

그녀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심지어 그 작은 손으로 두 희생자에게 독을 주입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있었다. 바로 그 손, 그가 보았던 금발 머리에 기대었던 하얗고 가느다란 그 손으로.

한 기운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종이를 책 사이에 조심스레 끼워 넣고, 책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젊은 여자 쪽으로 다가가 있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이 그녀의 얼굴 아래쪽, 턱선 모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맞다. 바로 그 부분을, 볼의 곡선과 입술의 그늘 너머로, 그는 간절히 알아내려 하고 있었다.

불안과 고통스러운 호기심이 뒤섞인 채, 그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 닫힌 입술을 거칠게 벌려, 자신에게 닥친 무서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 이빨들. 그 이빨들이 과일 위에 남긴, 죄를 증언하는 자국과 같은 흔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호랑이의 이빨, 맹수의 이빨. 바로 그 이빨들일까, 아니면 다른 여자의 이빨일까?

"말도 안 되는 추측이군. 지문은 이미 마리안느 포빌의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하지만 추측이 터무니없다고 해서, 무조건 버려야 할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놀랍게 여기며,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 봐 두려워한 그는 대화를 바로 끊어버렸다. 그는 소녀 곁을 지나며, 명령조가 섞인 공격적인 어조로 말했다.

"호텔의 모든 하인들을 해고해 주시오. 급여는 당신이 계산하고, 원하는 보상을 지급한 뒤 오늘 안에 모두 떠나게 하세요. 절대 돌이킬 수 없게요. 오늘 저녁에는 새로운 인력이 들어올 거예요. 당신이 그들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를 떴다. 플로랑스와의 만남이 남긴 불쾌한 기분이 여전했다.

그녀와 그 사이에는 늘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로가 속으로 생각한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입으로 뱉은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플로랑스를 즉시 해고하는 것이 논리적일 터였다. 하지만 돈 루이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서마자 마제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옆방에서 들리지 않게 낮게 속삭였다.

"나, 마제루?"

"총감이 당신에게 배정했나요?"

"자, 네가 그에게 전하게. 내 가사 직원들을 모두 쫓아냈다고.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라고 네게 지시했다고."

"그들이 사와랑의 공범을 찾는 단서가 될 거야. 그쪽부터 파고들어야 해."

"그건 또 뭐지?"

"수셰 대로에 있는 오빌 공학자의 저택에서 밤을 보내도록, 내게와 네게 허가해 달라고 주지사에게 요청해."

"뭐라고요? 수셰 대로요?"

"그래. 거기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 확신해."

"무슨 일이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야 해. 나는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알았지?"

"알겠소.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오늘 밤 아홉 시에 수셰 대로에서 만나자."

그날 페레나는 르바세르 씨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그는 자신의 호텔을 떠나 고용 중개소로 향했다. 거기를 통해 운전기사와 마부, 집사, 요리사 등 하인들을 구했다.

그리고는 사진관으로 가서 르바세르 씨의 사진을 새로 찍게 했다. 돈 루이스는 그 사진을 보정하게 했고, 직접 화장까지 했다. 그래야 경찰청장이 대체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그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홉 시가 되자 그는 마제루와 합류했다.

이중 살인 사건 이후, 포빌 호텔은 문지기의 감시 하에 있었다. 모든 방과 모든 자물쇠에는 봉인이 내려졌지만, 작업실 안쪽 문만은 예외였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넓은 방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책이나 소책자 같은 것은 모두 치워졌거나 정리되었다.

전기 조명 아래에서 이미 보일 만큼의 먼지가, 검은 가죽과 자단나무 틀을 덮고 있었다.

"자, 내 옛 친구 알렉상드르." 돈 루이가 자리 잡자마자 외쳤다. "어떻게 느껴지나? 여기 다시 서 있다니, 정말 압도적이군. 하지만 이번엔 달라. 더 이상 문에 빗장을 걸 필요도, 철통같은 방비도 필요 없어. 만약 4월 15일 밤에서 16일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한다면, 우

리는 그 길을 막지 말자. 이분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지. 자, 이제 네 차례야."

농담조였지만, 돈 루이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본인이 말했듯, 막을 수 없었던 두 살인의 끔찍한 기억과 두 시체의 환상에 깊은 충격을 받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이지도르 보트를레의 이름처럼, 푸바빌 씨와의 치열한 결투와 그 여자의 절망, 그리고 그 여자의 체포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 말해 줘." 마제루에게 물었다. "정말 자살을 시도한 거야?"

"네, 정말로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혐오할 만한 방식으로요. 시트와 이불에서 뜯어낸 천 조각들을 서로 엮어 매듭을 만들어 목을 매달았거든요. 숨을 돌리기 위해 인공호흡과 압박을 가해야 했죠. 현재는 위기를 넘겼다고 하지만, 다시 시도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눈치도 못 보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백은 하지 않았어?"

"검찰과 경찰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론이 그녀를 위해 바뀌겠습니까, 상사님? 수사 결과로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가 하나도 빠짐없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녀만이 사과에 손을 댈 수 있었고, 그 시간도 밤 열한시부터 아침 일곱시 사이로 한정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에는 그녀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똑같은 자국을 남길 수 있는 턱이 두 개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아니요." 도 루이스는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생각하며 단언했다. "논리에 틈이 없습니다. 이건 낮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이빨 자국은 말하자면 현행범을 잡는 것과 다름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무슨 관계요, 상사님?"

"아무것도 없어. 머릿속이 복잡하군. ……그런데 보게, 이 일에는 비정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기묘한 우연과 모순이 얽혀 있어서, 내일 현실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는 확실한 결론에 매달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들은 꽤 오랫동안 낮게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샅샅이 파헤쳤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천장 전등을 끄고, 서로 차례로 잠들기로 했다.

시간은 처음 밤을 지새울 때와 똑같이 흘렀다. 늦은 시간의 차량 소리, 자동차 소리, 철도 신호의 피리 소리가 반복됐다.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밤이 지나갔지만, 아무런 경보도, 이상 징후도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바깥세상의 생기가 다시 돌아왔다. 돈 루이스는 교대 시간을 지키며 방 안에서 단 한 가지 소리만 들었다. 그것은 동료의 단조로운 코골이 소리였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셰익스피어 책에서 얻은 단서가 다른 의미를 지녔을까? 아니면 그 단서가 작년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 사건들은 기록된 날짜에 일어났으니까.’

반쯤 닫힌 창문 틈으로 아침 빛이 스며들수록,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15일 전에도 그에게 경고를 줄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건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두 희생자가 자신의 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었다.

일곱 시가 되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알렉상드르?”

“응? 뭐야, 상사?”

“너 아직 안 죽었어?”

“뭐라고요? 제가 죽었다니요? 아니죠, 상사.”

“정말 확실해?”

“에이, boss,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 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아, 내 차례도 멀지 않았어. 저런 놈들을 상대하다 보면 말이야!”

그들은 한 시간 더 기다렸다. 그러자 페레나가 창문을 열고 셔터를 밀어 올렸다.

"자, 알렉상드르. 너 아직 죽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하지만?"

"네 얼굴이 파래."

마제루스는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참, boss. 자고 계실 때 제가 경비를 서는 동안, 솔직히 말해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다는 거야?"

"머리카락 끝까지 떨렸어요."

그는 말을 멈췄다. 도 루이 보스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에요, boss?"

"봐… 책상 위를. 그 편지를."

그가 바라보았다.

작업대 위에는 정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봉투가 점선 따라 찢겨 나간 편지 한 장이었다. 표지에는 주소와 우표, 우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걸 여기 둔 게 너야, 알렉상드르?"

"선생님, 장난하십니다. 누가 했는지 아시잖아요. 당신밖에 없죠."

"나밖에 없다니… 그런데 내가 한 건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가?"

돈 루이스가 편지를 집어 들었다. 꼼꼼히 살펴본 뒤 그는 이렇게 확인했다. 주소와 우편 도장은 거칠게 긁어내어 수신자 이름과 거주지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발송지와 날짜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편지가 도착한 지 석 달 반이 지났군." 돈 루이스가 말했다.

그녀를 안쪽을 향하게 돌려놓았다. 안에는 줄이 열두 줄쯤 적혀 있었다. 그는 즉시 외쳤다.

"히폴리트 포빌의 서명이다!"

"글씨체도 그렇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폴리트 포빌이 죽기 세 달 전에 쓴 편지라니……"

페르나가 큰 소리로 읽어 나갔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쓴 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뿐입니다. 수법이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 눈빛에서 그걸 봅니다. 때때로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너무 기이합니다! 아, 정말 치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그녀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정말 불행합니다, 내 친구."

"서명은 이폴리트 파빌입니다." 마제루가 이어서 말했다. "그가 직접 쓴 글임은 틀림없습니다. 올해 1월 4일, 이름은 알 수 없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죠. 하지만 그 친구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를 줄 것입니다."

마제루는 격앙된 어조로 외쳤다.

"증거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파빌 씨가 직접 증언하고 있죠.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 눈빛으로 그것을 봅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의 아내, 마리안느 파빌을 가리킵니다. 남편의 증언은 이미 우리가 그녀에게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확증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페렌나가 딴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야. 이 편지는 결정적인 증거지. 하지만 대체 누가 가져왔을까? 누군가 우리가 있는 동안 이 방에 들어왔다는 뜻이잖아. 가능할까?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들었을 텐데… 그게 나를 당황하게 하는 거야."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열흘 전 사건도 이미 수상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다른 방에서 작업했어.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책상 옆에 함께 있었잖아. 어제 밤에는 이 책상에 종이 한 장 없었는데, 아침에 보니 이 편지가 놓여 있었어."

그들은 현장을 꼼꼼히 뒤졌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호텔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고, 숨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설령 누군가 숨어 있다 해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눈치를 채지 않고 방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 이상 찾지 맙시다." 페레나가 말했다. "이런 일에는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에서는 언젠가 보이지 않는 틈새로 빛이 들어와, 모든 것이 서서히 밝아지거든요."

"이 편지를 경찰청장에게 가져가세요. 우리 밤새도록 한 일을 이야기해 주고, 다가오는 4월 25일 밤에서 26일 밤 사이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세요."

"그날 밤에도 분명 새로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작용으로 두 번째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들은 문을 닫고 호텔을 나섰다.

무에트로 차를 타러 오른쪽으로 향하던 그들은 슈셰 대로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연히 돈 루이스가 차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들을 지나쳤다.

도 루이스는 그 무수염의 얼굴과 자신을 노려보는 빛나는 눈동자를 단초만 보았다.

"날 조심해!"

그가 마제루를 거칠게 밀쳤다. 그 충격에 병장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남자는 권총을 든 주먹을 내밀었다. 총성이 터졌다. 도 루이스가 재빨리 몸을 낮추자, 총알이 그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갔다.

"쫓아가자. 마제루, 다친 데 없어?"

"아니요, 사장님."

두 사람은 도움을 부르며 뒤쫓았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라 이 지역의 넓은 대로에는 행인이 드물었다. 남자는 빠르게 달아나며 거리를 벌렸다. 그는 멀리 있는 옥타브 피에 거리로 꺾여 순식간에 사라졌다.

"개자식, 다시는 놓치지 않겠어."

도 루이스는 헛수고를 멈추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patron,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알고 있다. 바로 그 녀석이다."

"누구란 말입니까?"

"흑단 지팡이를 든 남자다. 수염을 깎았다. 면도를 한 거지. 어쨌든 나는 그를 알아봤다. 바로 어제 아침, 그의 집에서 계단 위로부터 우리를 향해 총을 난사했던 그 남자다. 후, 불쌍한 놈이여. 내가 Fauville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나를 미행하고 엿본 것인가? 하지만 누가? 왜?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Mazeroux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기억나십니까, patron. 오늘 오후에 전화로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죠. 혹시라도요. 비싼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집안 누군가가 엿들었을지도 모릅니다."

Don Luis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플로렌스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도 루이스에게 우편을 가져다 준 것은 르바세르 씨가 아니었다. 도 루이스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새로 온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을 뿐이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물러갔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자동차를 불러 소셰 대로에 있는 호텔로 향했다. 那里에서 그는 마제로우와 함께, 그리고 주지사 지시에 따라 조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가 돌아온 시각은 여섯 시였다. 그는 경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흑색 지팡이 남자의 거주지를 직접 살펴보고 싶어졌다. 그는 다시 자동차를 타고 마제로우와 함께 이동했다. 그가 적어낸 목적지는 리처드 월리스 대로였다.

차량은 센 강을 건너, 강변을 따라 우안 쪽으로 달렸다.

"더 빨리 가시오."

그가 스피커를 통해 새로운 운전사에게 말했다.

"나는 빠른 걸음이 습관이오."

"언젠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사장님." 마제로가 말했다.

"걱정 마시오." 돈 루이가 대답했다. "자동차 사고는 멍청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그들은 알마 광장에 도착했다. 그 순간, 차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직진하라고요!" 돈 루이가 외쳤다. "트로카데로 쪽으로 올라가시오."

자동차가 다시 바르게 서려 했지만, 곧바로 세 네 번이나 급선회했다. 속도를 높인 채 차도는 오르더니, 나무에 부딪혀 전복되고 말았다.

몇 초 만에 열여섯 명의 행인들이 달려왔다. 유리창 하나를 깨고 문을 열었다. 돈 루이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알렉상드르, 너는?"

브리adier(소대장)를 꺼냈다. 그는 bruises(타박상)가 있었고 통증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떨어뜨려졌던 운전사는 인도 위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머리는 피투성이였다. 그는 약국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10분 후에 사망했다.

마제루는 불쌍한 희생자를 따라갔고, 그는 자신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강장제를 마셔야 했다. 그는 자동차로 돌아갔고, 두 명의 경찰관이 사고를 확인하고 증언을 수집하고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다.

페레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빠르게.

광장에 내리자 그는 뛰어서 현관 아치 밑을 지나 안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르바세르 씨의 집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계단 꼭대기에서 그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용 방의 문이 열리자 플로랑스가 나타났다.

그녀를 거실 안으로 밀어 넣으며 그는 분노와 격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고가 났죠. 그런데 과거에 일했던 하인들 중 그 장면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떠났고, 저는 오늘 오후에 자동차를 타고 외출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저녁, 여섯 시부터 아홉 시 사이에 누군가 차고에 침입해 조향봉을 사분오분 정도 갈아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녀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당신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도둑들의 동조자가 새로운 하인일 수는 없다는 것과, 이 계획이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성공했습니다. 희생자가 나왔고, 그 사람이 제 대신 대가를 치르고 있죠."

"제발 말씀하세요, 선생님! 두렵습니다!… 무슨 사고가 난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자동차가 전복됐어요. 운전기사님은 숨졌고요."

"세상에, 끔찍하다! 그런데 내가…… 내가 그 차를 탔다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끔찍한 죽음이다. 불쌍한 사람."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페레나 바로 앞에 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기운이 빠진 그녀는 눈을 감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넘어지려던 순간, 그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몸을 빼려 했지만 힘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차례 신음하며 그를 붙잡았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는 한 팔을 소녀의 머리 뒤로 돌려 올린 채, 손수건으로 땀에 젖은 이마와 눈물이 흐른 자국으로 창백해진 뺨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듯, 페레나의 돌봄에 온전히 몸을 맡기며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움직임을 멈춘 채, 불안한 눈으로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입술을 바라보았다. 평소엔 선홍빛을 띠던 그 입술은 이제 핏기가 완전히 빠져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각 입술 위에 손가락 끝을 올려놓았다. 꾸준히 힘을 주어 입술을 벌리자, 마치 장미꽃잎을 피우듯 입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줄의 치아가 드러났다.

그 발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형태와 하얀 빛깔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다. 푸아빌 부인의 발보다 조금 작았을지도 모르고, 둥글게 벌어진 모양도 조금 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누가 그들의 물림 자국이 똑같다고 단언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한 추측이요, 용납할 불가사의였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 젊은 여자를 지목했다. 그녀는

가장 대담한 범죄자요, 가장 잔인하며, 가장 냉혹하고, 가장 무서운 인물로 몰렸다.

그의 숨결이 점차 고요해졌다. 입술 사이로 고른 숨이 새어 나왔다. 그 숨결이 뺨을 스칠 때, 그는 마치 꽃향기처럼 상쾌하고 현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저절로 그는 몸을 더 기울였다.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 다가선 나머지 그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애써 힘을 모아, 의자 등받이에 젊은 여자의 머리를 다시 돌려놓았다. 입술이 살짝 벌려진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 시선을 떼어내기도 쉽지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제7장

이 사건들 중 세상에 알려진 것은 마리아나 포빌의 자살 미수, 가스통 소베랑의 체포와 탈출, 안시니 경감의 살해, 그리고 이폴리트 포빌이 쓴 편지가 발견된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닝턴 사건으로 호기심을 자극받았던 대중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도 루이스 페레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열광했다. 사람들은 그를 고집스럽게 아르센 뤼팽과 동일시했다.

물론, 사람들은 그가 흑단 지팡이를 든 남자를 일시적으로 체포했다고 여겼다.

그가 경찰청장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요청으로 수셰 대로에 있는 저택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그곳에서 푸빌 공학자의 유명한 편지를 받아냈다. 그 편지는 도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이 모든 일이 여론을 최고조로 들끓게 만들었다.

도니 루이스 페레냐가 직면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도 불안한 것이었다.

사십팔 시간 동안 네 번이나, 익명 기고문으로 비난받은 것까지 제외하고도, 네 번이나 그가 죽임을 당하려 했다. 철제 커튼의 추락, 독약, 쉬셰 대로에서의 충격, 그리고 그의 자동차를 조작한 사건 말이다.

플로랑스가 이 연이은 저격에 관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셰익스피어 여덟 번째 권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 덕분에, 그 젊은이와 이폴트 포빌의 살인자들 사이의 관계가 입증된 것이다.

이제 장례 목록에는 두 명의 새로운 희생자가 더해졌다. 수석 형사 앙세니의 죽음, 그리고 자동차 운전사의 죽음.

이 모든 재난 한가운데서, 그 수수께끼의 존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떻게 그 역할을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팔레 부르봉 광장의 호텔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일 아침, 플로랑스 르바서와 돈 루이스는 함께 우편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돈 루이스와 관련된 기사, 혹은 모닝턴 사건과 연관된 신문 기사를 플로랑스가 큰 소리로 읽어 주었다.

그는 이틀 동안 자신에게 가해진 사나운 공격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서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진 듯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적이 공격을 멈췄다는 신호였다.

돈 루이스는 안심했다.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젊은 여자에게 무심한 태도로 말을 걸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 흔한 누군가인 양 대했다.

그는 몰래 그녀를 지켜보며 얼마나 열렬한 마음으로 눈길을 떼지 못했는지 모른다.

평온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고통스럽고 과민하며, 억누르기 어려운 예민함이 얼굴 곳곳에서 떨려 나왔다. 입술의 미세한 떨림이나 콧구멍의 격렬한 움직임을 통해, 그 감정이 얼마나 격렬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너는 대체 누구인가? 너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네가 원하는 것이 도처에 시체를 던지는 것일까? 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내 죽음이 꼭 필요했던 걸까?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디서 온 것인가?'

생각해 보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그를 덮쳤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수수께끼를 해결해 주었다. 바로 그가 파르 부르봉

광장의 저택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과, 명백히 그를 미워하며 쫓아오는 한 여자의 존재 사이에는 어떤 신비로운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이 저택을 산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타자기로 찍은 전단지 하나를 통해 받은 익명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 제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 피렌체에서였다. 피렌체의 그녀가 그를 자신 곁으로 끌어들이려, 그를 감시하고 공격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 진실은 여기에 있어.'

그는 생각했다. '코스모 모닝턴의 가능한 상속자이자, 이 사건의 핵심에 직접 연관된 나. 나는 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없애려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이는 플로랑스다.

모든 것이 그녀를 비난하지만, 그녀를 변호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수한 눈매라든가, 성실한 목소리라든가, 그 품위의 무게라든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랴?

그렇지, 그 이후에는?

그는 순진한 눈빛을 지녔으면서도 이유 없이, 거의 쾌감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여자들을 이미 수없이 봐왔다.

그는 도레즈 케셀바흐의 기억에 떨었다. 두 여자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는 한쪽을 사랑했다. 끔찍한 도레즈였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직접 목을 조랐다. 운명이 그를 오늘 같은 사랑과 비슷한 살인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플로랑스가 떠날 때면,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에서 해방된 듯 숨을 깊게 들이켰다. 하지만 그는 창가로 달려가 그녀가 마당을 건너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얼굴에 향기로운 숨결을 느끼었던 그 소녀가 지나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신문에 오늘 밤일 것이라고 나왔어요."

"오늘 밤?"

— 네, 맞아요. 그녀가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은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정보, 바로 당신께서 제공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정보는 열흘마다 수세 대로에 있는 저 저택에 편지가 나타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편지가 등장하는 밤에 그 저택이 폭발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발이었을까?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그가 셰익스피어 8권에서 발견했던 목록에 적힌 그 신비로운 편지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그는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가 대답했다.

— 맞아요. 바로 오늘 밤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반박하려다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뒤섞는 감정들을 억누르고 침묵을 지켰다.

그날 도 루이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점심을 식당에서 먹고, 저녁도 식당에서 해결한 뒤, 마제루와 상의해 팔레부르봉 광장을 감시하게 했다.

오후에는 르바수르 씨가 호텔에서 한 발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도 루이는 마제루의 부하들에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모두 뒤쫓아 달라고 명령했다.

열 시가 되자 병장이 공학자 포빌의 서재로 도 루이를 찾아갔다. 부두목 웨버와 형사 두 명이 그를 따랐다.

도 루이는 마제루를 따로 불러냈다.

"나를 의심하는군, 시인해 봐."

"아니요. 데말리옹 씨가 있는 한, 당신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웨버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 모든 일을 꾸민 당신이 장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무슨 목적에서요?"

"마리안느 포빌을 죄인으로 몰아세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경과 경관 두 명을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네 명 모두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겠소."

각자는 제 자리에 올랐다. 경찰 두 명이 교대로 밤을 지켰다.

이번에는 히폴리트 포빌의 아들이 잠들던 작은 방을 철저히 수색한 뒤,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갔다.

열한 시가 되자 천장 전등을 껐다.

도 루이스와 웨버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밤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일곱 시가 되자, 창문이 열리자마자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편지가 있었다!

초반의 당혹감이 가시자, 차장은 그 편지를 들어 올렸다. 그는 편지를 읽지도, 다른 사람이 읽게 하지도 말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이 편지는 언론이 전문가들의 진술과 함께 실었는데, 전문가들은 필적이 히폴리트 포빌의 것임을 확인했다.

"내가 봤어요! 이해해 주시죠, 내 좋은 친구여. 내가 그를 봤다고요! 그는 부아에서 한 길목을 거닐고 있었어요. 목깃을 세우고, 모자를 귀까지 눌러쓴 채로 말이죠.

그가 나를 보았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의 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를 분명히 알아봤어요. 흑단 지팡이의 은 손잡이를 말입니다. 틀림없었죠, 그 악당이라고!

그렇구나, 그는 약속을 어기고 파리에 있다는 거야. 가통 소베랑이 파리에 있다는 거지!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가 가나? 그가 파리에 있다는 건, 그가 무언가 행동을 하려 한다는 뜻이야. 파리에 있다는 건, 내 죽음이 이미 결정났다는 뜻이지.

아, 정말 내 상대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군. 그는 이미 나의 행복을 훔쳐갔고, 이제는 내 목숨이 필요해 하는 거야. 무서워."

이렇게 해서 기술자 포빌은 흑단 지팡이를 든 남자가, 곧 가스통 소베랑이 자신을 살해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포빌은 직접 쓴 서면 증언으로 이를 가장 단호하게 밝혔다.

그 편지는 체포 당시 소베랑이 흘린 말들을 뒷받침했다. 두 남자는 과거에 어떤 관계였으며, 우정이 깨졌고, 소베랑은 결코 파리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사실이 암시되었다.

조금씩이나마 아침의 빛이 '모닝턴 가문의 유산'이라는 어두운 사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다. 바로 서재 책상 위에 그 편지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최고의 정예들이 다섯 명이나 밤을 지켰다. 그런데도 4월 15일 밤과 똑같이,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편지를 가져다놓았다. 창문과 문이 모두 봉쇄된 방 안이었다. 가장 작은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 문과 창문 봉쇄 흔적에도 손상이 없었다.

즉시 비밀 출구가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벽을 면밀히 조사하고, 몇 년 전 이 집을 지은 시공사를 불러낸 뒤 그 설은 기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어난 일의 양상이 마술사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마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숨겨진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사람들은 한 가지 유력한 가능성을 떠올렸다. 즉, 놀라운 재주를 가진 마술사가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 벌인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 루이스 페레나의 지시가 옳았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입증되었다. 4월 15일과 마찬가지로 25일이라는 날짜도 예상대로 사건을 촉발했다. 그렇다면 5월 5일이라는 날짜는 이 연쇄를 이어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도 루이스가 이미 예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이에게 도 루이스는 절대 틀리지 않는 존재로 보였다.

5월 6일로 넘어가는 밤 내내, 쉬체 대로에는 인파로 가득 찼다. 호기심 많은 시민들과 야행성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며 소식을 전하려 했다.

경찰청장까지 이 두 가지 기적에 크게 감동받아,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제3의 밤의 작전에 참관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여러 형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을 정원과 복도, 그리고 위층 다락방에 나누어 배치했다.

그 자신은 지하실에 머물렀다. 베버 소장과 마제루, 그리고 도 루이스 페레나와 함께였다.

기다림은 헛수고가 되었다. 그 이유는 데스말리옹 씨 탓이었다.

루이스 부인은 이 실험이 무의미하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데스말리옹 씨는 빛이 기적 발생을 막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등을 끄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편지가 나타날 리 없었다. 실제로 편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법사의 속임수든, 악당들의 계책이든, 그림자가 필요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열흘이 날아갔다. 설령 악마 같은 편지 쓴이가 다시 시도하고 세 번째 편지를 보낼 용기가 있다면 말이다.

5월 15일, 당국은 다시 작전을 시작했다.

바깥에는 같은 군중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불안해하며 숨을 헐떡였고,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모두 푸빌 호텔 정면을 응시한 채, 압도적인 침묵을 지켰다.

이번에는 불을 껐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전기 스위치에 손을 올린 채로 긴장하고 있었다.

갑자기 테이블을 비추자 아무것도 없었다. 열 번, 스무 번이나 반복했다. 소리는 가구가 삐걱거린 것뿐이거나, 옆에 있던 누군가의 손짓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모두가 놀라 외쳤다.

이례적인 소리가 침묵을 가른 것이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였다.

데스말리옹은 이미 스위치를 돌렸다. 그리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그 편지가 있었다. 테이블 위가 아니었다. 바닥, 바로 옆의 카펫 위에 놓여 있었다.

마제루는 성호를 그었다.

형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데말리옹 씨는 도 루이스를 바라보았다. 도 루이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금장치와 빗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도 그 편지 내용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방식이 정말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기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위안을 주었다. 그것은 수셰 대로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구심을 완전히 걷어냈다.

편지는 여전히 그 기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지난 2월 8일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보낼 주소는 보이지 않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니, 절대 안 돼.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목을 베이고만 있겠어? 아니야. 나는 맞서 싸울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할 거야.

이제 사정이 달라졌거든. 나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 거절할 수 없는 증거말이야.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내 손에 들어와 있어.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처음처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아무것도 그들을 막지 못해. 이미 결정났어, 들었지? 마리안나의 친필로 적혀 있어. '인내해, 사랑하는 가스통아. 내 용기가 커지고 있어. 우리를 막는 자는 사라질 거야.'"

"내 좋은 친구여. 내가 이 싸움에서 진다면, 그 편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비열한 여자를 고발하기 위해 모아둔 모든 자료

도 함께.) 그 자료들은 작은 진열장 뒤에 숨겨진 금고 속에 들어 있다. 그러니 나를 대신해 복수해다오. 작별인사다. 아마도 영원한 작별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세 번째 편지였다.

그 무덤 속에서 히폴리트 포빌은 죄 있는 아내를 지목하고 고발했다.

그 무덤 속에서 그는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건넸다. 왜 이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며 말이다.

마리-안과 가스통 소베랑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코스코 모닝턴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코스코 모닝턴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재산을 차지하려는 조급함이 사건을 급박하게 끝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범죄의 근본적인 동기는 오래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안느와 가스통 소베랑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피욜트 포빌이 자신의 복수를 맡긴 그 알 수 없는 상대방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자는 단순히 서신을 검찰에 제출하는 대신, 마키아벨리식이라 할 만큼 교묘한 수단을 써가며 서신을 전달했다. 그 자신도 그림자 속에 머물기를 원했을까?

마리안느는 이 모든 질문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그녀의 위협과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사흘 후, 그녀는 남편의 옛 친구가 누구인지 말해 달라는 장시간의 심문 끝에, 끝내 입을 닫았다. 그녀는 끈질긴 침묵과 멍한 무기력함으로 일관했다.

그날 저녁, 감옥 방으로 돌아간 그녀는 숨겨 둔 유리 조각으로 손목의 정맥을 베었다.

다음 날 아침, 여덟 시가 되기 전에 마제루가 도니 루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마제루는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도니 루이를 찾아왔다. 그는 손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전한 소식은 도니 루이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요? 무슨 수로?"

"당연하지. 그녀는 또 시작할 거야.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는 이번에도 자살 시도 전에 자백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종이 조각에 몇 마 적어 놨을 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상한 편지의 출처는 랑르노 씨 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남자는 그녀 남편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유일한 친구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내 좋은 친구'라고 부르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랑르노 씨는 그녀가 무죄임을 증명하고, 그녀가 당한 끔찍한 오해를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를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녀는 정작 스스로 목을 매거나 정맥을 베는 짓을 하는 겁니까?" 도 루이가 물었다.

"그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한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죠.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원하는 건 휴식, 그리고 죽음뿐이에요."

"쉬는 것. 쉬는 것. 죽음 속에서만 쉴 수 있는 건 아니야. 진실을 발견하는 게 그녀를 구원한다면, 그 진실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보스? 뭔가 눈치채셨나요? 이해하기 시작하셨나요?"

"아니, 아주 막연하게 말이지. 하지만 그 편지들의 정확성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오히려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세 통의 편지 주소에 지워진 글자를 다시 살펴봤나?"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랑르노'라는 이름을 복원해냈습니다."

"랑르노는 어디에 사나?"

"포빌 씨에 따르면, 오르주 폼니뉴 마을에 산다고 합니다."

"폼니뉴라는 이름도 편지 중 하나에서 읽어냈나?"

"아니, 그건 도시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에 붙어 있는 건물이야."

"그 도시라니?"

"알랑송이지."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야?"

"응. 경찰청장이 급히 나를 보내고 있거든. 기차를 타려던 참이야."

"기차라니, 무슨 소리야. 내 차에 올라타자고. 우리 같이 가자, 친구. 나는 지금 움직여야 해. 이 집의 공기는 내게 독약이나 다름없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상사님?"

"아무 말도 아니야. 내가 알아서 알아듣는다고."

반 시간 뒤, 그들은 베르사유로 가는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페레나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운전 솜씨는 너무 과감해서 마제루는 숨을 헐떡이며 가끔씩 중얼거렸다.

"젠장, 우리 얼마나 빨리 가는데… 끔찍해! 상사님, 정말 속도를 내시네요! 전복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들은 알랑송에 도착해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주요 우체국으로 향했다.

거기서는 랑르노 씨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포르미니 마을에는 자체 우체국이 따로 있었다. 따라서 우편물에 알랑송 우표가 찍혀 있었다는 것은, 랑르노 씨가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이 도시를 이용했지만, 우체국 사서함(poste restante) 방식을 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했다.

도 루이와 마제루는 포르미니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우체국장은 랑르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지 못했다. 포르미니 인구가 천 명에 불과했음에도 말이다.

"시장님을 뵙시다." 페레나가 말했다.

시장실에서 마제루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시장이 외쳤다.

"랑르노 부인 말이야… 음, 좋은 분이었지… 옛날 파리에서 장사하시던 분이고."

"알랑송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는 게 습관이라면서?"

"그렇지. 매일 산책 겸 해서 들르는 거지."

"그 집은 어디 있나?"

"마을 끝이야. 방금 지나쳤을 거다."

"구경해도 되나?"

"물론이지… 다만… 그 분은 네 년 전, 이 세상 떠난 뒤로 그 집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불쌍한 분이야."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네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돈 루이스와 마제루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 돌아가셨다고?" 돈 루이스가 다시 물었다.

"그래. 총에 맞았지."

"뭐라고?" 페레나가 소리쳤다. "살해당했다니?"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방 바닥에서 발견되었을 때부터요. 하지만 수사를 통해 사고임이 증명되었죠. 사냥총을 청소하던 중 총이 발사되어 배를 맞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상쩍어했어요."

"그가 돈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오히려 그 때문에 사건이 더 꼬였죠. 그의 재산은 단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돈 루이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가 아이를 남겼나요? 성이 같은 가족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 사촌도 없다. 그 증거로, 그의 재산—성곽이 남아 있어 '구성(舊城)'이라 불리는 곳—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국유지 관리 당국은 집 문에 봉인을 하고, 공원 쪽 문은 벽으로 막아 버렸다. 소유권을 넘기는 법적 기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성벽이 있더라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거닐지는 않나요?"

"글쎄, 그렇지 않을 거야. 우선 성벽이 매우 높거든. 그리고… 그리고 구성은 예로부터 그 지방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어. 유령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믿기 힘든 괴담들이 수두룩했지. 하지만 어쨌든…"

페르나와 그의 동행자는 귀를 의심하며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군." 도니 루이스가 시청을 나서며 외쳤다. "공작 푸빌이 편지를 죽은 사람에게 썼다니. 게다가 그 죽은 이는 살해당한 것 같은데."

"누군가 편지를 가로챘겠지."

"물론이지. 하지만 그는 그 죽은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 그리고 아내의 음모에 대해 이야기했지."

마제루는 입을 다물었다. 그 역시 매우 당황한 기색이었다.

오후 내내 그들은 랑르노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조사했다.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서 유용한 단서를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오후 여섯 시쯤, 떠나려던 순간이었다. 도 루이는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제루를 마차에 태워 알랑송 외곽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잠시 숨 돌릴 틈을 타 마을 끝자락에 있는 구성으로 향했다.

두 줄의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야 했다. 그 길은 리넛나무가 심겨진 원형 광장으로 이어졌고, 광장 한복판의 벽에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문이 서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기에, 루이스는 벽을 따라 걸어가 근처 나무의 가지를 빌려 벽을 넘었다.

공원 안은 손보지 않은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큰 들꽃들이 어지럽게 자라 있었다. 풀이 무성한 길은 오른쪽으로는 멀리 있는 언덕을 향해, 왼쪽으로는 창문 판이 제대로 맞지 않는 허름한 작은 집으로 이어졌다. 언덕 위에는 폐허가 된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최근 비에 흙이 무른 화단 위에서 그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아주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었다.

그 발자국은 여성용 부츠의 것이었다. 우아하고 섬세한 부츠였다.

'도대체 누가 여기서 산책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는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화단을 지나간 산책객의 발자국을 다시 찾았다. 그 자취는 그를 집 반대편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작은 숲들이 이어진 곳으로, 그는 그 발자국을 두 번 더 다시 보았다.

그리고는 그 흔적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때 그는 아주 큰 창고 근처에 서 있었다. 창고는 매우 높은 비탈에 기대어 있었고, 반쯤 무너져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문들은 단지 우연한 균형에 의해서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다가가 나무 틈새에 눈을 댔다. 안은 어두웠다. 창문이 없고 구멍도 짚으로 막아둔 곳이라, 해가 지며 어두워질수록 더 캄캄했다. 안에는 통나무 더미, 부수어진 압착기, 낡은 쟁기, 온갖 철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내 여인이 여기로 향했을 리 없다.'

루이스는 생각했다. '다른 데를 찾아보자.'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에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었다. 그는 어깨로 한 번 밀쳐서 판자를 쓰러뜨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뚫어낸 구멍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그는 두 통 사이에 몸을 비켜 넣고, 유리 조각이 날카롭게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창틀 부스러기들을 넘었다. 그리고 반대편 빈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는 걸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점차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이마를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쳤다. 그 물체는 움직이며 이상하고도 건조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결국 어둠이 너무 짙었다. 돈 루이스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고 스위치를 눌렀다.

"크레블뤼! 크레블뤼!"

그가 놀라 후퇴하며 저주했다.

그 위에 시체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페레나도 또 한 번 저주를 퍼부었다. 첫 번째 시체 옆에, 두 번째 시체도 똑같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굵은 밧줄 두 가닥이 마루의 서까래에 고정된 못에 단단히 묶여, 두 시신을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 매듭 아래로 두 해골이 푹 숙여져 있었

다. 페르나가 부딪쳤던 해골은 아직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뼈들이 부딪히며 기이하고 섬뜩한 소리를 냈다.

그는 비틀거리는 탁자를 끌어가 어설프게 받쳐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두 해골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두 해골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키는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좀 더 컸다. 남자와 여자였다. 외부의 충격이 없었음에도, 마루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두 해골은 가만히 흔들렸다. 바람이 그들을 서로 가까이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며, 마치 느린 춤을 추듯 균일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 끔찍한 광경 중 가장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옷조각 하나 남지 않은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들이 모두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살이 모두 썩어 없어진 지금 반지는 너무 헐거웠지만, 굽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고리처럼 반지를 잡아주고 있었다.

그는 오싹한 혐오감에 떨며 그 반지들을 떼어냈다. 그것은 바로 결혼 반지들이었다.

그가 자세히 살펴보니, 반지 안쪽에는 모두 같은 날짜와 두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1892년 8월 12일, 그리고 알프레드와 빅토린.

"남편과 아내. 자살일까, 살인일까.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일까, 두 개의 해골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야. 랑르노 부인이 죽은 뒤,

행정 당국이 그 땅을 접수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때부터, 그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인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니? 정말 아무도? 아니, 정원은 발자국이 있었잖아. 그리고 오늘, 한 여자가 그 안으로 들어왔어."

그 낯선 방문자의 모습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들었던 소리가 있었음에도, 그 여성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몇 분간 수색을 해본 그는 이제 밖으로 나오려던 참이었다. 그때 왼쪽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렸다. 통나무 고리가 그의 근처로 떨어졌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사다리가 기대어 있던 다락방에는 물건과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방문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놀라 그 은신처로 숨어든 뒤, 움직이다가 통나무 고리들을 떨어뜨렸다고 믿어야 할까?

돈 루이스는 전등을 통 위에 올려놓았다. 등불빛이 다락방 한가운데를 환하게 비추도록 말이다.

그는 수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철처럼 쌓인 낡은 괭이, 곡괭이, 그리고 쓸모없어진 낫들뿐이었다. 그는 모든 일을 야생 고양이 같은 짐승의 장난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확인이라도 하듯, 그는 사다리를 향해 재빠르게 다가가 올라갔다.

그가 방바닥 높이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떨어지는 굉음이었다.

그리고 어수선한 물건들 사이에서 한 인물이 끔찍한 제스처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일어난 일은 번개처럼 빨랐다. 돈 루이스는 자신의 머리 높이에서 낫날이 공기를 가르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잠시 주저하는 사이, 단 한 순간의 틈이 생겼다. 그리고 그 끔찍한 무기가 그의 목을 베어내려 했다.

그는 사다리에 몸을 붙이는 데 딱 그 순간만큼의 시간밖에 없었다. 낫이 그의 바로 옆을 스치며 휘몰아왔고, 재킷 자락이 살짝 스쳤다. 그는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보았다.

그는 가스토노 소베랑의 끔찍한 가면을 보았고, 흑단 지팡이를 든 남자 뒤에서, 전등 빛줄기에 창백하게 드러난 플로랑스 르바서르의 경련하는 얼굴을 보았다.

제8장

그는 잠시 동안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섰다.

위쪽에서는 물체들이 부딪히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두 명의 포위된 자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전기 투영기의 오른쪽으로, 갑자기 드러난 틈새로 흐릿한 낮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 틈새 앞에 실루엣 하나를 보았고, 이어 또 다른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은 지붕 위로 도망치기 위해 몸을 낮추고 있었다.

그는 권총을 겨누고 총알을 댔다. 하지만 명중시키지 못했다. 플로렌스를 생각하며 손이 떨렸기 때문이다.

세 번의 방아쇠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총알이 다락방의 녹슨 철재 위에 튀었다. 다섯 번째 총성이 터지자 고통의 비명이 들려왔다. 돈 루이스는 다시 사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섞여 있는 도구들과, 마치 성벽처럼 쌓인 마른 유채 이삭 더미 때문에 발이 묶였다. 하지만 결국 몸이 상하고 피부가 벗겨질 지경이 되어서야 그 틈새를 뚫고 나올 수 있었다.

그 틈을 지나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어느새 단단한 흙 언덕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마구간이 기대어 있는 사면의 정상이었다.

그는 무작정 마구간 왼쪽으로 사면을 내려갔다. 건물 정면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언덕 위 공간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샅샅이 뒤졌다. 해가 지며 어스름해져 가는 저녁노을 속에서, 적이 다시 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그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흙더미는 벽 꼭대기를 따라 이어져 있었고, 그 부분의 벽은 무려 5미터나 높았다. 가통 소베랑과 플로랑스는 분명 그곳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페르나는 너른 벽 꼭대기를 따라 걸어가, 벽이 낮아진 곳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작은 숲 가장자리에 있는 농경지로 뛰어내렸다. 도망친 두 사람이 그곳으로 향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숲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수풀이 너무 짙어 헛된 쫓아다님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임을 곧 깨달았다.

그는 마을로 돌아왔다. 새로운 격투의 여파를 생각하며.

한 번 더 플로랑스와 그 동조자가 그를 제거하려 했다.

한 번 더 플로랑스가 이 범죄적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다.

우연이 돈 루이스에게 랑르노 부인이 아마도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알려준 그 순간. 우연이 그의 표현대로 '매달린 사람들의 창고'로 그를 데려가 두 개의 해골과 마주하게 했던 그 순간.

플로랑스가 나타났다. 살인의 환상처럼. 악령처럼.

죽음이 지나간 곳, 피와 시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녀가 보였다.

"참으로 끔찍한 존재라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과연 저토록 고귀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잊을 수 없는 눈빛이라니, 그 눈은 진중하고 진솔하며, 거의 순진하기까지 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잖아."

교회 광장, 여관 앞이었다. 돌아온 마제루는 기름통에 연료를 채우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었다. 도 루이스는 광장을 지나가는 포르미니 시장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는 시장을 따로 불러냈다.

"시장님, 잠깐만요. 혹시 이 지방에서 이틀 전쯤, 사십에서 오십쯤 된 노부부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남편 이름이 알프레드였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비크토린, 맞죠?" 시장이 말을 끊었다. "당연하죠. 그 사건은 꽤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알랑송에 살던 작은 연금 생활자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후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단서조차 잡지 못했어요. 그들의 보물, 즉 전날 집 팔이로 마련한 약 2만 프랑의 돈도 마찬가지고요. 기억나시죠? 데데수스라마르 부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페렌나는 그 정보면 충분했다며 말했다.

자동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1분 뒤, 그는 마제로와 함께 알랑송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상사?" 부지장이 물었다.

"역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가통 소베랑이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밤 오 포빌 씨가 랑르노 할아버지에 대해 밝힌 진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늘 이 저택 주변, 그리고 랑르노 할아버지의 저택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가 기차로 왔고, 기차로 돌아갈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페레나의 추측은 즉시 확인되었다. 역에서 그는 한 부부가 오후 두 시에 파리에서 도착했고, 근처 호텔에서 마차를 빌렸으며, 할 일을 마치고 방금 7시 40분 열차를 탔다는 말을 들었다. 이 부부의 생김새는 소베랑과 플로랑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출발합시다." 페레나가 시간표를 확인하며 말했다. "한 시간이나 늦었네요. 그 도둑보다 먼저 만스까지 갈 수도 있겠군요."

"당연히 갑니다, 상사님. 그리고 그놈과 그 아가씨, 둘 다 꼭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맞아요, 둘이 맞죠. 하지만…"

"하지만…"

돈 루이는 대답하기 전에 그들이 자리에 앉고, 엔진이 시동되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봐, 너는 이 아가씨를 건드리지 마."

"왜요?"

"그녀에 대해 체포 영장이 있나?"

"그럼 저희는 그냥 가라는 거요?"

"물론, 하지만…"

"한 마디 더 하면, 알렉상드르, 너를 길가에 내려놓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체포하면 된다."

마제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이 즉시 내달린 속도는 그를 항변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꽤나 불안한 마음에 오직 지평선을 살피고 장애물을 피하는 일만 생각했다. 양옆의 나무들은

스치듯 지나갈 뿐이었다. 위로는 나뭇가지들이 밀물처럼 들이닥치는 파도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흔들렸다. 밤의 동물들은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발광하듯 허둥댔다.

마제루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도착할 거야. 더 속도를 낼 필요는 없어."

속도는 더 빨라졌다.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마을들이 지나고, 평야들이 지나고, 언덕들이 지나더니, 갑자기 어둠 한가운데서 큰 도시의 빛이 나타났다. 르망이었다.

"역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알렉상드르?"

"네, 사장님. 오른쪽으로 꺾은 뒤, 바로 직진하면 됩니다."

물론, 왼쪽으로 꺾어야 했던 길이었다. 그들은 모순되는 안내에 따라 몇 분간이나 헛걸음을 했다.

자동차가 역 앞에 멈춰 섰을 때, 기차는 이미 사이렌을 불고 있었다.

도 루이스는 차에서 뛰어내려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를 붙잡으려는 직원들을 밀쳐내고, 그는 마침내 승강장에 도착했다.

다른 쪽 선로에서는 기차가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차문이 닫히려는 찰나였다. 그는 차체 구리 손잡이를 붙잡고 차들을 따라 달렸다.

"표, 표를 보여주세요, 선생님! 표가 없군요!" 직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두이 로이스는 차체 옆의 받침대 위에서 요란하게 몸을 굴리며, 창문 너머로 한눈을 팔았다. 창가에 서서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을 쫓아내고는, 두 공범자가 있는 칸으로 곧장 들이닥칠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칸에는 그들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가 비명을 지른 순간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둘 다, 혼자서! 그가 그들을 목격했다.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 플로랑스가 좌석 위에 누워 있고, 그녀의 머리는 가스통 소베랑의 어깨에 기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녀 위에 몸을 굽혀, 두 팔로 젊은 소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분노에 치올라 그는 황동 자물쇠를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쥐었다.

그때였다. 그는 균형을 잃고 말았다. 격분한 역무원과 마제로우가 그를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마제로우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에요, 사장님. 치여 죽으실 거예요."

"바보야!" 돈 루이스가 고함을 질렀다. "저들이야… 나를 놓아라!"

기차가 줄줄이 지나갔다. 그는 다른 차체에 올라타려 했다. 하지만 두 남자가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역무원들이 끼어들었고, 역장도 달려왔다. 기차는 멀어져 갔다.

"바보들아!" 그가 중얼거렸다. "둔재들아! 무식한 놈들아! 왜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못했냐? 하느님, 맹세하건대…"

왼손으로 한 방울을 날려 역무원을 쓰러뜨렸다. 오른손으로 한 방울을 날려 마제로주를 넘어뜨렸다. 역무원들과 역장을 뿌리치고, 그는 플랫폼을 질주해 수하물실까지 달려갔다. 몇 도약으로 그는 여러 짐상자와 가방 더미를 넘어섰다.

"아, 정말 귀찮은 놈이군."

그가 중얼거렸다. 마제루가 자동차 엔진을 끄는 것을 잊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는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이지."

만약 낮에는 도네 루이스가 차를 빠르게 몰았다면, 그날 밤은 더할 나위 없이 어이없을 정도였다. 그는 마치 토네이도처럼 만의 교외를 가로질러 주요 도로로 치달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두 공범자들보다 먼저 다음 역인 샤르트르에 도착해, 소베랑의 목을 잡아챌 생각뿐이었다.

그는 오직 그 장면만 보았다. 플로랑스 르바서르의 연인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르며 비명 지르게 하는, 야생적인 그 포효를.

"그의 연인! 그의 연인!"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아, 그래, 그렇구나. 이제 모든 게 설명된다. 그들은 공범인 마리아나 포빌을 배신하고联手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쌍한 여자가 끔찍한 연쇄 살인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게 되는 거야."

그녀가 그들의 공범이었을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악마 같은 커플이 엔지니어 포빌과 그의 아들을 죽인 뒤, 모닝턴 가의 유산을 가로채는 마지막 장애물인 마리아나의 몰락을 꾀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지 않겠는가?

이 추측과 모든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가? 날짜 목록이 플로랑스의 장서에서 발견되지 않았던가? 그 사실 자체가 편지가 플로랑스를 통해 유출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는가.

그 편지들이 가스통 소베랑도 지목한다? 상관없다. 그는 이제 마리아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플로랑스를 사랑한다. 그리고 플로랑스도 그를 사랑한다. 그녀는 그의 공범이자 고문이며, 그의 곁에서 그의 부를 누릴 여인이다.

물론 때로는 그녀가 마리아나를 변호하는 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과잉 연기일 뿐이다. 아니면 적에 대한 자신의 행적과 불쌍한 여자가 맞을 운명에 대한 죄책감이나 공포에서 비롯된 반성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소베랑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녀는 쉬지 않고, 자비 없이 싸움을 계속한다.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나를 죽이려 했다. 눈치 빠른 나를, 방해자가 될 나를.

그녀는 나를 증오한다. 그리고 나를 미워한다.

엔진 소음과 마주치는 나무들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속에서,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두 연인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기억나자, 질투에 찬 비명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다. 그는 복수를 원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살해하려는 욕망과 의지가 그의 소란스러운 뇌속에서 끓어올랐다.

"젠장, 엔진이 고장 난 것 같은데. 마제루!"

"응? 뭐야? 사장님,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마제루가 갑자기 튀어나오며 고함을 질렀다.

"바보야! 네가 내 차 발판에 매달려 있어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거기서 편하게 잘 지냈겠지."

"고문당하는 줄 알았어요. 몸이 떨려요."

"좋아. 네가 배워야 할 일이지. 그런데 그 기름 어디다 샀어?"

"식료품 가게에서요."

"도둑한테 산 거야. 엉터리 기름이네. 양초도 더러워지고."

"정말요?"

"당연하지. 엔진이 터질 때마다 그 소리를 못 들었어? 멍청이."

차도 확실히 흔들렸다. 순간순간 멈칫거리다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도 루이스는 속도를 높였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마다 차는 마치 절벽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한쪽 헤드라이트는 꺼졌다. 다른 쪽도 평소만큼 밝지 않았다. 하지만 도 루이스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또다시 엔진이 터졌다. 차가 다시 흔들리더니, 마치 엔진이 용감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애쓰는 듯한 힘을 쏟았다. 그러다 갑자기 완전히 힘이 빠졌다. 차는 도로 옆에서 멈춰 섰다. 멍청한 고장이었다.

"세상에나!" 돈 루이스가 고함을 질렀다. "우리가 걸렸군. 정말 끝장이야."

"진정하십시오, 사장님.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샹트르 대신 파리에서 사베랑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바보 같은 놈!" 돈 루이스가 다시 소리쳤다. "수리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네게 주유한 건 휘발유가 아니라 진흙이니까."

그들 주변으로 광활한 시야가 끝없이 펼쳐졌다. 하늘의 어둠을 별빛이 뚫고 내리비치는 것 외에는 다른 빛이 없었다.

돈 루이스는 분노로 발을 구르고 있었다. 차를 발로 차서 부수고 싶었다. 그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마제로가 그 일을 '받았다'고 했다. 불쌍한 부사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이다. 도니 루이스가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흔들며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비탈진 곳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숨을 헐떡이며 alternating하게 증오와 고통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녀야, 마제루, 들리나? 소베랑의 여자친구, 바로 그 여자가 모든 일을 저질렀어. 내가 지금 바로 말하는 이유는, 내가 금방 무너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겁쟁이야… 그녀의 얼굴은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눈은 아이 같아. 하지만 바로 그녀야, 마제루… 그녀가 내 집에 살고 있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줘, 플로랑스 르바세르… 너는 그녀를 체포할 수 있겠지,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어… 그녀를 바라볼 때면 나는 용기를 잃거든. 내가 그토록 사랑한 적이 없었거든… 다른 여자들… 다른 여자들… 아니, 그것은 단지 사소한 욕망일 뿐이었어… 아니, 심지어 아니었어… 나는 과거의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아!… 반면에 플로랑스… 그녀를 반드시 체포해야 해, 마제루… 나는 그녀의 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해… 그녀의 눈은 나를 태워버려… 그것은 독이야. 만약 나를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면, 나는 도레즈처럼 그녀를 죽일 거야… 아니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오! 나는 내 마음을 찢어놓는 모든 생각들을 다 알지 못해… 사실 다른 남자가 있어… 소베랑이 있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 불쌍한 자들… 그들은 포빌과 아이, 그리고 늙은 랑르노를 죽였어, 그리고 창고에 있던 두 사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코즈모 모닝턴, 베로, 그리

고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은 괴물들이야… 특히 그녀야… 그리고 만약 네가 그녀의 눈을 본다면…”

그가 너무 낮게 말해서 마제루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포옹이 풀리자, 그는 마치 절망에 짓눌린 듯 보였다. 에너지와 자기 통제가 남다르던 그 남자에게서 나오는 절망이라니,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자, 반장님.” 부장이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이건 다 과잉이야. 여자 문제지. 난 다 안다. 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그걸 겪었으니까. 마제루 씨… 천만에, 네가 없는 동안에 난 결혼을 했어. 그런데 마제루 여자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 난 많이 고통받았지. 마제루 씨…”

그는 그를 아주 부드럽게 차 쪽으로 이끌고 뒷좌석에 앉혔다.

“쉬세요, 사장님. 밤이 너무 춥지도 않아요. 모피도 충분하잖아요. 아침 일찍 지나가는 첫 농부를 보내서 근처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게 할 거예요. provisions도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여자들은 다 잘 해결해 주거든요. 그냥 인생에서 문밖으로 내쫓으면 되죠. 아니면 여자가 먼저 나설 수도 있고요. 마제로우 씨가 그랬잖아요.”

다음 날 그는 늦게까지 잤다. 아침 일곱 시가 되어서야 마제로우는 샤르트르로 향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잡아 세울 수 있었다. 그는 아홉 시에 떠났다.

돈 루이스는 다시 모든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부사관에게 말했다.

"나 밤새 온갖 어리석은 소리를 늘어놓았지. 후회하진 않아. 내 임무는 오직 파빌 씨를 구하고, 진범을 잡는 거야. 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해. 오늘 밤 플로랑스 르바세르는 경찰서 구치소에 갇힐 거야."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사님." 마제루가 특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한테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네가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를 박살 내겠어. 알겠지?"

"네, 상사님."

"그럼 조용히 있어."

분노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속도가 빨라졌다. 마치 그 분노가 마제루를 향한 복수인 양 느껴졌다.

샤르트르의 포장도로는 불타듯 달렸다. 랭부유, 셰브루즈, 베르사유가 모두 놀랄 만큼 빠른 자동차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생클루. 부롱 숲……

콩코르드 광장. 자동차가 튀일리 쪽으로 향하자 마제루가 물었다.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나요, 보스?"

"아니. 먼저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해. 마리안느 포빌이 자살에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인을 잡았다고 말해야 해."

"그리고 나서?"

"그럼 경찰청장을 만나야 해."

"데말리옹 청장은 외출 중이시고, 오후에나 돌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 가자."

"판사들은 정오가 돼야 법정에 도착합니다. 지금 열한 시군요."

"보겠습니다."

마제루가 맞았다. 사법 궁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돈 루이스는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마제루는 안경국에 들러 그를 다시 만나 사법 궁전의 판사 복도로 안내했다. 그의 극심한 초조와 불안은 마제루에게도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당신, 아직 그 결심을 굽히지 않으셨습니까, 보스?"

"그 이상으로 단호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신문을 봤는데, 마리안느 포빌이 두 번째 자살 시도 후 병동으로 이송된 뒤에도 벽에 머리를 부딪히려 들었습니다. 결국 구속복을 입혔죠.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진범을 넘겨주는 거죠. 검사에게 통보하고, 오늘 밤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끌고 오겠습니다. 죽은 몸이든 살아있는 몸이든 상관없습니다."

"소베랑은요?"

"소베랑! 곧 잡힐 겁니다. 아니면……"

"무슨 뜻이죠?"

"내가 직접 저 해적을 처단할 수도 있죠."

"보스!"

"입 다물어!"

그들 옆에는 정보를 얻으러 온 기자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마리아나느 포빌의 변호를 맡겠습니다. 그녀의 사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 사람이 마 포빌을 체포하게 한 장본인이 아니었던가? 바로 그 사람이 그녀를 옥죄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낸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 증거들은 하나하나 없애겠습니다. 마리안느 포빌은 비열한 자들의 악랄한 음모에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저는 곧 그들을 법정에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이빨 자국은요? 이빨 자국 말입니다."

"우연입니다. 전례 없는 우연이지만, 오늘 아침 저는 이것이 마리안느의 무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만약 마리안느가 모든 살인을 저지를 만큼 교활했다면, 그 교활함으로 자신의 이빨 자국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무죄야. 그걸 재판장에게 직접 말해야 해. 그녀에게 우리 측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해. 당장 희망을 줘야 해. 안 그러면 불쌍한 여자가 자살할 거야. 그 죽음이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 모든 이들의 어깨를 짓눌러. 그러니까……"

그때 가니마르가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메모를 하던 한 기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마제루에게 속삭였다.

"저 녀석 이름 알아볼 수 있나?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법원 집행관이 이미 재판장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페레나의 명함을 제시한 재판장은 그를 즉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마제루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참이었다.

그때였다. 그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저놈이다! 바로 저놈이 숨어 있었던 거야. 소베랑이잖아!"

"잡아라! 그가 도망쳤어. 어서 달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마제루와 경비원들, 기자들이 그를 뒤따랐다. 하지만 그는 이내 모두를 따돌렸다.

삼 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뒤에서는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쥐덫'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왔고, 두 마당을 잇는 지하 통로를 가로질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저런, 아주 빠른 걸음으로 달리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 길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찾아보고, 시간을 잃고, 드디어Sauverand가 파레 뒤 팔레 대로로 달아나, 르콜르 부두에서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 플로랑스 르바세르와 합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은 생미셸 광장에서 생라자르 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도 루이는 한 소년이 자동차를 지키고 있는 외딴 골목으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고, 그는 전속력으로 생라자르 역으로 향했다.

버스 사무실에서 그는 새로운 단서를 쫓았지만, 그 길은 헛수고였다. 한 시간 이상을 더 잃고 역으로 돌아온 그는 드디어 확신을 얻었다. 플로랑스는 혼자 버스를 타고 팔레부르방 광장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하게도, 그 소녀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다시 본다는 생각은 그의 분노를 격앙시켰다. 로얄 거리를 따라 걸으며 콩코르드 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는 복수와 위협의 말을 중얼거렸다.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는 플로랑스를 모욕했다. 저주하는 말로 그녀를 후려쳤다. 추한 여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절실한 필요였다.

하지만 팔레 부르봉 광장에 다다르자 그는 멈춰 섰다. 익숙한 눈으로 좌우를 살펴보니, 반쯤 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의 태도는 전문적인 것이 분명했다. 마제루가 그를 발견하고는 제자리에서 돌아서서 현관문 아래로 숨었다.

그가 불렀다.

"마제루!"

소령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데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며 차 쪽으로 다가왔다.

"어, 사장님이시네!"

마제루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도 루이스는 자신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말이지, 내 호앞에서 너와 네 부하들이 빈둥거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마제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사장님이 지금 가장 각별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도 루이스는 깜짝 놀랐다. 그는 상황을 파악했다. 마제루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마제루는 자신의 양심에 따른 고뇌와, 사장님이 치명적인 사랑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두 가지 이유에서,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밀고한 것이었다.

그는 온몸의 힘을 모아 주먹을 꽉 쥐었다. 속을 끓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어제부터 질투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저지른 모든 잘못이 갑자기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그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사건의 흐름은 이미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수표장 가져왔나?" 그가 물었다.

마제루는 말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총감이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과 만났죠. 그리고 미스 일에 대한 이 사건을 함께 논의했어요. 그러다 보니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사진, 아시죠? 플로랑스 르바쾨르의 사진, 총감이 당신에게 맡겼던 그 사진 말이에요. 그 사진에 위조 흔적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로랑스라는 이름을 말하자, 총감이 그 이름이 바로 그 사진과 관련이 있다는 걸 떠올리셨죠."

"영장이라도 준비했나?" 돈 루이스가 더 날카로운 어조로 되물었다.

"물론이죠. 어쩔 수 없었잖아요. 데스말리옹 판사가…"

파르부르 궁전 광장이 비어 있었다면, 도 루이스는 마제루의 턱을 향해 정석대로 한 방을 날리며 속을 시원하게 풀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제루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서 있었고, 상사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끝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당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에요, 상사. 어쩔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직접 명하셨잖아요. '이 여자를 처리해 줘. 나는 너무 겁이 많아서… 너가 잡아줄 수 있겠지? 그녀의 눈이 나를 태워. 독약 같아…'"

"상사,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장 베버도…"

"아! 베버도 그 일을 알고 있다는 말이냐?"

"당연하지요. 이제 초상화의 위장이 드러났으니, 치안국장이 당신을 조금 의심하고 있답니다. 한 시간쯤 뒤면 웨버가增援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차장도 방금 전, 누이이 베르나르가 네이유에 있는 가통 소베랑네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리처드 월리스 대로에 있는 그 집 말이죠. 그 여자는 금발에 아주 예뻤고, 이름은 플로랑스였어요. 심지어 밤새 머물기도 했답니다."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페레나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의 분노가 다시 끓어올랐다. 그는 플로랑스를 쫓아다녔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의도적으로, 또다시 그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무작정 행동했다. 다양한 감정에 휘둘리며, 사랑이라는 불규칙한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충동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죽이게도 하지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게 하기도 한다.

한 신문팔이가 지나갔다. 그는 「미디 저널」 특별판을 팔고 있었다. 뤼팽은 큰 글씨로 적힌 기사를 읽었다.

"루이스 페레나 공작의 성명. 모빌 부인은 무죄. 범인의 즉각 검거."

"그래, 그래."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드라마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플로랑스가 자신의 빚을 갚을 차례다. 그녀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는 차를 다시 시동 걸고 큰 대문을 나섰다. 마당에서 차를 몰고 나온 기사에게 말했다.

"차 시동 건 채로 대기해. 차고에 넣지 마. 언제든 다시 출발할 수 있어."

그는 좌석에서 뛰어 내려, 홀을 지키는 주임을 불렀다.

"르바세르 씨가 여기 계신가요?"

"네, 신사, 자택에 계십니다."

"어제 잠시 외출하셨죠?"

"네, 신사. 친척 중 병든 분이 계신 지방으로 전보를 받고 나가셨다가, 오늘 밤 돌아오셨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신사의 서재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요. 위층, 내 방 옆의 작은 거실로."

그곳은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예전에는 부인의 다과실로 쓰이던 곳이었다. 그는 최근 자신을 노린 살해 미수 사건 이후, 이 방을 자신의 서재보다 더 선호했다. 이곳은 더 조용했고,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서류들을 여기 숨겨 두었다. 그는 특별한 열쇠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홈이 세 개나 있고, 내부에 스프링이 달린 전용 열쇠였다.

마제루는 안뜰에서 그를 따라왔지만, 페레나는 아직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걸었다. 그는 경위에게 팔을 잡더니, 그를 데리고 현관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괜찮아요. 플로랑스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해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어제 제가 그녀를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그녀는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관을 지나 1층으로 올라갔다. 마제루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드셨나 봐요, 상사?"

"아무튼 결심은 했다. 내가 원하지 않아, 이해했지? 파브이유가 자살하는 건 원하지 않아.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뿐이니까, 나는 플로랑스를 희생시키겠어."

"마음 아프지 않아요?"

"후회 없이."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고마워."

그는 단호하고도 힘껏, 그의 턱 밑에 주먹을 내리쳤다.

마제루는 신음도 없이 2층 계단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계단 한가운데에는 어두운 구석방이 있었다. 집안일 도구와 빨래를 쌓아두는 곳이었다.

돈 루이는 마제루를 그 곳으로 옮겼다. 바닥에 편안하게 앉힌 뒤, 등받이로 나무 상자를 대주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그의 입에 쑤셔 넣고, 식탁보를 묶어 입을 막았다. 손목과 발목도 두 장의 식탁보로 단단히 묶었다. 식탁보 끝은 튼튼한 못에 고정했다.

마제루가 의식을 되찾자, 돈 루이가 말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건 다 갖췄어. 식탁보 두 장, 식탁보 하나, 그리고 배를 채울 배."

"입에 배를 물고 있으니, 배고픔도 잊을 수 있겠지. 차분히 먹어라. 그다음엔 짧은 낮잠을 자면, 장미처럼 상쾌해질 거야."

그는 문을 잠그고 시계를 확인했다.

"나에게는 한 시간이 남아 있다. 완벽해."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뚜렷한 계획이 서 있었다. 플로랑스를 욕설로 몰아세우고, 그녀의 모든 추잡함과 죄악을 얼굴에 뱉어붙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에게 서명까지 곁들인 자백서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다.

마리안나의 안전이 확보된 뒤의 일은 그다음에 생각하자. 어쩌면 그는 플로랑스를 자동차 뒷좌석에 던져 넣고, 어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젊은 소녀를 인질로 삼아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수를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하려 애쓰지 않았다.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격렬한 해명뿐이었다.

그는 2층 자신의 방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찬물에 얼굴을 푹 담갔다. 온몸의 신경이 고동치듯 떨리고, 이성을 잃은 본능이 거세게 분출하는 경험은 그에게 처음이었다.

"바로 저 녀석이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계단 아래에 있군. 드디어! 내가 그와 정면으로 마주하다니! 둘이서만!"

그는 다시 복도로 돌아와 부두아르(사적인 안방) 앞에 섰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이 열렸다.

그가 비명을 지른 것은 끔찍할 정도였다.

가통 소베랑이 그곳에 서 있었다.

닫힌 방 안, 팔짱을 낀 채 가통 소베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9장

"가통 소베랑!"

돈 루이스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총을 꺼내며 강도 쪽을 겨눴다.

"손 들어! 손 들어, 안 그러면 쏴!"

소베랑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탁자 위에 놓인 두 자루의 권총을 가리켰다.

"내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돈 루이스는 그 차분한 태도에 격분하며 말했다. "가짜 열쇠를 썼지? 하지만 그 가짜 열쇠를 어떻게… 그리고 무슨 수로?"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돈 루이스가 발로 땅을 차며 재촉했다.

"말해! 제발 말해. 안 그러면…"

하지만 플로랑스가 달려왔다. 그녀는 페르레나의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옆을 지나가, 가스똬 소베랑에게로 달려가 그를 안았다.

"왜 오셨어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맹세까지 하셨는데… 제발 가세요."

소베랑은 그녀를 뿌리치고 앉히려 했다.

"내버려 둬, 플로랑스. 내 약속은 너를 안심시키려는 것이었어. 내버려 둬."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녀는 열렬히 반박했다. "아니에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단 한 마디도 하지 말라고요… 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는 천천히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금발 머리카락을 헤쳐냈다. 그리고 몸을 약간 기울이며 속삭였다.

"내버려 둬, 플로랑스."

그녀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무력해진 듯 말을 멈췄다. 뤼팽은 다른 말들을 건넸고, 그 말들은 그녀를 확신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정면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페레나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팔을 뻗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그는 적을 노리고 있었다.

사베랑이 플로랑스를 향해 반말을 하며 온몸을 어루만질 때, 페레나는 몸을 떨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대체 왜 그는 총을 쏘지 않았을까? 부러움과 증오가 불꽃처럼 타올랐음에도, 어떻게 그 충동을 억눌렀던 것일까.

그리고 이제 사베랑은 플로랑스의 머리를 쓰다듬을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페레나는 팔을 내렸다. 나중에,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나중에,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들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이제 그들을 저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베랑의 권총 두 자루를 집어 서랍에 넣었다. 그러고는 문을 닫으려 다시 문가로 돌아섰다.

그때 1층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난간 쪽으로 다가가 보니, 접시를 든 채 올라오던 호텔 지배인이었다.

"또 뭐야?"

"급한 편지 하나 왔습니다, 각하. 마제루 씨에게요."

"마제루 씨가 여기 있네. 가져다 줘. 그리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마."

그는 봉투를 찢어 열었다. 호텔 주변을 에워싼 형사 중 한 명이 급하게 연필로 써서 서명한 편지였다. 내용은 이랬다.

"경사, 주의하십시오. 가통 소베랑이 저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면 건물에 사는 두 목격자에 따르면, 그 동네에서는 호텔의 집사로 알려진 그 소녀가 한 시간 반 전에 저희가 감시 태세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는 별채의 창가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그 별채 아래에 있는 작은 낮은 문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지하 저장고로 쓰는 문이었죠."

"그녀가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한 남자가 광장으로 나타나 벽을 따라 이동한 뒤, 지하 저장고로 숨어들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그 남자는 가통 소베랑입니다."

"경사,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경사가 떨어지거나, 저희가 신호만 보내면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 루이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야 그 도적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집에 침입했고, 또 가장 안전한 은신처에 숨어 모든 수색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그 사람, 즉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선언한 자의 집에 퍼레나는 살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 이 늙은이는 이미 끝장 났군. 그 딸도 마찬가지야. 권총 총알로 처리할지, 경찰의 수갑으로 묶을지는 그들의 선택에 맡기지.'

그는 더 이상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자동차 생각은 하지 못했다. 플로렌스로부터의 도피 계획도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만약 그

들을 둘 다 죽이지 않는다면, 놓치지 않는 정의의 손길이 반드시 그들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 낫다. 그가 사회에 넘겨줄 두 명의 죄인을, 사회가 직접 심판하게 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 두 포로 앞에 다시 서서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앉았다.

"자, 이야기해 봅시다."

방은 작았다. 덕분에 그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앉을 수밖에 없었다. 도 루이스는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이 남자의 손끝이 거의 닿을 듯이 가까움을 느꼈다. 두 의자 사이는 겨우 한 미터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책으로 가득한 긴 책상이 놓여 있었고, 창문은 두꺼운 벽을 뚫고 만들어져 있었다. 창틀 안쪽은 구식 저택에서나 볼 수 있는 아담한 구석방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플로렌스가 의자를 조금 돌려서 등졌기, 도 루이스는 그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빛이 닿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그는 가스통 소베랑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뜨거운 호기심과 함께 지켜보았다. 분노도 커져 갔다. 젊은 얼굴, 표현력 풍부한 입술, 지혜롭고 아름다운 눈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시선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래, 뭐라고 할 거야?" 도 루이스가 위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잠시 휴전을 합의했지.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야. 필요한 말

을 다 할 때까지 말이지. 지금 두렵지 않아? 네 행동이 후회되지는 않아?"

남자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그리고 온 것을 후회하지도 않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한다는 확신이 강하기 때문이오."

"우리가 손을 잡는다니!" 도 루이스가 몸을 뒤로 젖히며 반발했다.

"왜 안 되겠어요?"

"동맹 조약입니다. 당신과 저 사이의 동맹 조약이요."

"왜 안 되겠어요? 그건 이미 여러 번 생각해 본 아이디어예요. 심문실 복도에서 그 생각이 또렷해졌고, 이 신문의 특별판에 실린 당신의 '감동적인 선언'을 읽자마자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혔죠. '모 파빌은 무죄다'라고."

가통 소베랑이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그는 단호한 제스처로 말을 다듬으며 속삭였다.

"모든 것이 이 네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 '파빌 부인은 무죄다.' 당신이 공개적이고 엄숙하게 쓴, 또 말한 그 네 단어가 당신의 진정한 생각입니까? 지금, 당신의 모든 신념을 다해 마리안느 파빌의 무죄를 믿으십니까?"

돈 루이스는 어깨를 으쓱였다.

"하! 하느님, 파빌 부인의 무죄가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 둘과 저, 이 세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 지체 말고 핵심으로 갑시다. 속히요. 이는 제 이익보다 더 큰, 당신의 이익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의 이익?"

돈 루이스가 외쳤다.

"기사에 적힌 세 번째 소제목은 잊으셨군요. 저는 마리안느 파빌의 무죄만 선언한 게 아닙니다. '유죄자들의 임박한 체포'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사우베랑과 플로랑스는 아무 생각 없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범인은 누구죠?" 사우베랑이 물었다.

"글쎄요. 당신도 나만큼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흑단 지팡이 든 남자가 있죠. 적어도 그는 안시니 경감 살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모든 범죄의 공범이기도 하죠."

"두 사람 모두 나를 저지한 살해 미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쉬셰 대로에서 쏜 총격, 그리고 내 차를 해쳐 운전기사를 죽게 만든 사보타주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그곳, 두 시체가 매달려 있는 창고에

서요. 기억나시죠? 저 멈출 줄 모르는 낫이 제 목을 베려다 아까운 순간에 멈췄던 그 사건을."

"그리고 나서?"

"그래, 여보게. 판은 진 거야. 빚은 갚아야 해. 더군다나 너희가 바보처럼 늑대의 입속으로 뛰어들었으니, 더더욱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한 일이야. 플로랑스 르바세르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여기 있다는 사실도. 호텔 주변은 이미 포위됐고, 부소장 웨버가 곧 도착할 거야."

사보랑은 뜻밖의 이 협박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곁에 선 플로랑스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광기 어린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녀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세상일이 어찌 이럴 수가…… 아니, 안 돼! 나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는 돈 루이스에게 달려들었다.

"배신자! 너야말로 우리를 팔아먹은 거야! 배신자! 알았어, 너라면 어떤 배신도 저지를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는 도살자처럼 서 있네. 참으로 추잡하고도 비겁한 짓이로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얼굴을 가린 채 손으로 눈을 누르며 통곡했다.

돈 루이스는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게도 그는 동정을 느끼지 못했다. 소녀의 눈물이나 저주 같은 말은, 그가 플로랑스를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가 일으킨 혐오감이 모든 사랑을 죽여버린 것이다.

그는 몇 걸음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들 앞에 섰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기에 처한 친구들이 서로를 지탱하듯 말이다.

순간, 다시 찾아온 격렬한 증오에 그는 미쳐버린 듯 남자 팔을 움켜쥐었다.

"당신을 금지합니다… 무슨 권리로요? …그녀가 당신의 아내입니까? 연애 상대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목소리가 어수선해졌다. 자신도 알 수 없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열정이 거세고도 맹목적인 힘으로 다시 살아났다.

가스똬 소베랑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뤼팽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적군이 자신의 비밀을 간파했음이 틀림없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뤼팽은 플로랑스의 시선을 마주쳤다. 적대감으로 가득 차고, 반항과 경멸이 서린 눈빛이었다. 그녀도 무언가 눈치챈 걸까?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소베랑의 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곧 드러나게 될 진실을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해결책을 마주하게 될 무거운 문제들도, 다가오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그의 머릿속을 차지하지 못했다. 오직 한 가지만,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온몸이 떨리도록 생각했다.

피렌체에 대해, 소녀의 마음속을, 그녀의 과거를, 그리고 소베랑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될 그 사실 말이다.

그것만이 그의 전부였다.

"좋습니다." 소베랑이 말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운명이여, 이루어지소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저의 유일한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말하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이 문은 닫혀 있습니다. 제가 원할 때만 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통 소베랑이 말했다. "사실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진실을, 온전한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나는 히폴리트 포빌과 마리안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촌 사이라 편지를 주고받았다. 몇 해 전 팔레르모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들이 쉬데 대로에 지을 새 호텔을 짓는 동안, 겨울을 보내고 있던 곳이었다.

우리는 다섯 달을 함께 지냈다. 매일 만났다. 히폴리트와 마리안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더 격렬한 다툼 끝에 나는 우연히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린 나는 비밀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나는 마리안느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영원히, 그리고 더 깊게 사랑해야 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도니 루이스가 참지 못하고 외쳤다. "어제 알랑송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당신 둘을 함께 봤습니다…"

Gaston Sauverand는 Florence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 위에 팔꿈치를 괴고 있었다. 도니 루이스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고, 그는 계속했다.

"마리안느도 나를 사랑했어요. 그녀가 직접 고백했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우정 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몇 주 동안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히폴리트 포빌은 공공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여배우에게 빠져서 자주 집을 비

웠죠. 저는 건강이 약했던 에드몽의 육체 교육을 열심히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가장 훌륭한 친구이자 헌신적인 조언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자애로웠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우리의 기쁨을 다시 깨워 주었고, 우리의 사랑에 힘과 고귀함을 더해주었죠. 플로랑스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돈 루이스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가통 소베랑의 말을 믿어서는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들 너머로, 그는 진실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자 했다.

아마도 그는 모르게 소베랑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겉으로는 솔직해 보이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돈 루이스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소베랑이 다시 말을 이었다.

열다섯 해 전 일이다.

오빠 라울 소베랑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착해 지내던 중, 친구 집의 고아 소녀를 한 명 거두었다. 오빠가 죽자, 그는 열네 살이었던 그 아이를 내게 맡겼다.

아이의 보모는 나를 키워준 늙은 하녀였다. 그 노모는 오빠를 따라 남미로 건너가 함께 지내다가, 아이를 데리고 프랑스에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아이를 이탈리아로 데려갔다. 그곳의 지인들 집에 머물며 그녀는 일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자립하고 싶었던 그녀는 어느 가정의 가정교사 자리를 받아들였다.

나중에는 내 사촌 부부인 포빌 부부를 통해 그녀를 다시 찾았다. 팔레르모에서였다. 그녀는 에드몽이라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가정교사가 되어 있었고, 아이는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마리안느 포빌의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날의 행복은 내 것이기도 했다. 그토록 빛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짧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의 행복은 가장 갑작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파멸을 맞는다.

매일 밤, 나는 일기장에 사랑의 일상을 적었다. 사건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삶이었지만, 그 열정은 얼마나 뜨거웠고, 그 빛은 얼마나 찬란했던가. 마리아나는 신처럼 숭배받았다.

무릎을 꿇고 글을 쓰는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기도를 적었다. 그리고 가난한 내 상상력의 보복처럼, 그녀가 했을 법한 말과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던 모든 기쁨을 약속하는 환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그 일기를 히폴리트 파빌이 찾아냈다. 어떤 기적 같은 우연이었는지, 운명의 사악한 장난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그 일기를 찾아냈다.

그의 분노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처음에 마리-아nn을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를 보고, 그녀가 무고함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보았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완고한 의지와 다시는 나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들은 후, 그는 진정했다.

나는 영혼이 죽은 채 떠났다. 파면당한 플로랑스도 함께 떠났다. 그 비극적인 순간 이후로, 기억하시라, 나는 마리-아nn과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묶어두었다. 이별도, 시간도 그 사랑의 힘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돈 루이스의 얼굴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돈 루이스는 긴장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가통 소베랑의 놀라울 만큼의 침착함이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그는 서두르지 않고, 거의 느린 속도로, 그리고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풀어놓았다.

'참으로 훌륭한 배우군!'

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마리안느 포빌이 그에게도 같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다시금最初的 확신으로 돌아가야 할까? 마리안느를 범인으로, 그리고 그녀의 공범이자 플로렌스처럼 연기를 잘하는 자로 봐야 할까? 아니면 이 남자에게 어느 정도의 정직함이 있다고 인정해야 할까?

그가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전쟁이 터졌어요. 저는 중부 지방의 한 도시에서 징집되었죠."

"그럼 포빌 부인은요?"

"파리에 있는 새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녀와 남편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가 편지를 썼나요?"

"아니요. 마리안느는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의무관이 너무도 강직하죠. 그녀가 저에게 편지를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랑스는 말입니다. 그녀는 전임자이신 말로네스코 남작의 집에서 비서 겸 독서 보조로 일했죠. 플로랑스의 별장에는 마리안느

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플로랑스? 마리안느가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모든 삶과 영혼은 오직 사랑과 열정적인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그녀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지치고, 게다가 전역까지 했으니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파탄이었습니다."

대략 일 년 전의 일이다. 나는 루르 대로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살았다. 히폴리트 포빌이 내 귀국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리안느의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은밀하게 지냈다.

플로랑스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끔 나를 찾아왔다. 나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낮이 저물어 가는 시간, 오직 보르 데 부르의 한적한 산책로로만 나갔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도 가끔은 흔들리는 법이다. 어느 수요일 밤, 열한 시쯤 되자 나는 무의식중에 쉬셰 대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러다 마리아나네 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때 운명처럼, 밤이 아름답고 따뜻했던 탓인지, 마리아나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나는 확신했다.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

그 순간의 기쁨은 내 다리가 떨릴 정도였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 매수요일 밤, 나는 그녀의 저택 앞을 지나게 되었다. 거의 매번 마리아나가 있었다. 그녀의 사회적 생활, 자연스러운 여가 추구, 그리고 남편의 지위 때문에 그녀는 자주 외출해야 했지만, 그중 거의 매번 그녀가 창가에 서서 나에게 뜻밖이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기쁨을 베풀어주었다.

"더 빨리! 서둘러요!" 돈 루이스가 재촉했다. 궁금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실을 바로 말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갑자기 그는 이 설명의 끝부분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려워졌다. 동시에 가스통 소베랑의 말이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 그는 그 말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의 선입견보다 그 말이 더 강했고, 그의 논리보다 더 승리했다.

진실은 이렇다. 사랑과 질투로 어지러운 그의 영혼 깊숙이, 어떤 것이 그를 이 남자를 믿도록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를 싫어하는 경쟁자로만 여겼는데, 이 남자는 플로랑스 앞에서도 마리아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사베랑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모두, 입을 열기 전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른 말입니다. 모든 말이 꼭 필요하죠. 하나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아무렇게나 뭉뚱그려진 사실들

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충실하게 서술되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해가 안 가요."

"진실이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게 바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거죠?"

"아닙니다. 마리-아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증명할 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당신이 저에게 증거를 대야 할 차례 아닙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믿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돈 루이가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절대요, 천 번이나 절대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 한 마디도 믿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모두 믿어주셨죠." 소베랑이 담담하게 되받았다.

돈 루이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시선을 플로랑스 르바세르로 돌렸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혐오가 조금은 사라진 듯했고, 오히려 그가 자신의 감정에 저항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중얼거렸다.

"계속하세요."

정말 기묘한 광경이었다. 한 남자는 각 단어의 무게를 정확히 짚으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다른 한 남자는 그 말을 경청하며 하나하나 곱씹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의 격동을 잘 억누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마치 양심의 가책이라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차분해 보였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대로, 그 결과에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없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오직 그것만 중요했다. 한 사람이 말을 해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들어야 했다.

사우랑랑이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들, 특히 당신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해석이지만 진실에 엄격히 부합하여 저희의 선의를 입증해 줄 사건들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계속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산책 중 히폴리트 포빌과 마주쳤습니다. 조심스러워져서 저는 거처를 바꾸어 리처드월리스 대로에 있는 작은 집에 정착했고, 플로랑스가 그곳을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직접 만나지 않도록 했고, 우편물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고독과 안전 속에서 일했고, 아무 일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향한 위험이나 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적으로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듯 일이 터졌습니다."

"경찰청장과 그 요원들이 제 집에 난입해 제 체포를 실행했을 때, 저는 동시에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폴리트 포빌의 살해, 에드몽의 살해, 그리고 마리안느의 체포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 루이스가 다시 한번 격분하여 외쳤다. "불가능합니다! 그 일들은 이미 열흘이나 지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신문을 통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녀를 통해서 말입니다!" 돈 루이스가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소베랑이 단호하게 말했다.

"신문을 통해요? 저는 그걸 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매일 반 시간씩 정치의 허황된 말과 사건 사고의 추악함을 읽어야만 하는 게 의무나 불가피한 일인가요?

우리는 과학 잡지나 소책자만 읽는 사람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드문 일이긴 하지만, 드물다고 해서 그 사실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살인 사건이 있던 아침, 저는 플로랑스에게 3주 동안 여행에 간다고 미리 알려주고 작별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 계획을 바꿨죠.

그런데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떠난 줄 알고, 제 행방을 모르니, 마리아나느의 체포나, 흑단 지팡이를 든 남자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저를 향한 수사를 알려줄 수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돈 루이가 말했다. "흑단 지팡이를 든 남자, 베로 형사를 뒤쫓아 뽕뉘프 카페까지 따라갔다가 편지를 훔쳐간 그 남자가 당신이 아니라고는 도무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베랑이 끊어 말했다.

돈 루이가 어깨를 으쓱하자, 그는 더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오해가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뽕뉘프 카페에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이 진술이 절대적으로 진실임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 그리고 제 성향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과도 완벽하게 일치하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예상치 못하게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예상치 못함이,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저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반응이었고, 가장 야생적이고 원시적인 본능의 폭발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제게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 건드려졌다고요. 마리안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리안느가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렸습니다.

일단 자제를 하며 경찰청장과 연기를 했고, 모든 장애물을 넘었으며, 안세니 경감을 쓰러뜨리고, 마제루 반장을 처리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한 번 자유로워지면 마리안느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길에 막힌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탓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째서 가장 순수한 여성인 마리안느를 건드리려 했단 말입니까?

그날 저는 한 명의 남자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열 명을, 스무 명을 죽였을 것입니다. 안세니 경감의 목숨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비참한 자들 모두의 목숨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들은 마리안느와 저 사이에 가로놓인 벽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안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스통 소베랑은 얼굴의 모든 근육을 조이며 몸부림쳤다. 차분함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그 차분함은 서서히 그를 떠나가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몸은 숨길 수 없는 전율로 떠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나는 리처드 월레스 대로에서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가장 위태로울 때, 플로랑스가 나를 구해 주었다.

그녀는 열흘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신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이 읽고, 논평하고, 토론하던 그 신문이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 옆에 앉아 있던 그녀는 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론은 사건들이 모두 그녀를 그렇게 이끄는 듯했다.

마리-안느의 유일한 적, 즉 진정한 적은 바로 당신이었다.

— 하지만 왜요?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이 당신 행동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소베랑이 힘차게 외쳤다. "당신은 마리안느가, 그리고 이어 내가 모닝턴 가의 유산을 가로채는 것을 막아야 할 이해관계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스토 소베랑이 잠시 주저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르센 뤼팽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플로랑스는 도루이스 페레나의 시선 아래서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 닫힌 문처럼 굳은 얼굴에서, 그녀를 끓어오르게 했을 감정의 흔적은 조금도 읽어낼 수 없었다.

가스토 소베랑이 다시 입을 열었다.

플로랑스, 마리안느의 놀란 친구가 바로 아르센 뤼팽과 맞섰다.

그녀는 뤼팽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이 기사를 썼다. 아니면, 직접 쓰게 했을 것이다. 그 기사의 원본은 여러분이 낡은 실뭉치 밑에서 발견한 바로 그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뤼팽이 마제루 소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내 체포가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나를 뤼팽의 손아귀에서 구하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눈앞에서 철제 커튼을 내려쳤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리처드 월리스 대로 모퉁이로 향했다.

그곳은 나를 경고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경찰들이 이미 내 집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저에게 당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공포에 질린 증오를 즉각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공격자들을 쫓아내는 데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었고, 당신이가 이 일에 얼마나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 단 몇 마디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당신을 겨냥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에게 공범 의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경찰청장에게 전보를 보냈고, 플로랑스는 돌아와서 제가 실수로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조각을 당신의 소파 쿠션 밑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반격은 충분치 않았고,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투는 시작된 뒤였습니다. 저는 목숨을 건 그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학자이자 고독한 자였지만, 동시에 열정적인 연인이기도 했죠. 저는 평생을 연구에 바치며, 운명에게 그저 밤마다 마리아나의 창가에 그녀가 있는 모습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박해를 받자, 제 안에 또 다른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행동하는 남자 말입니다. 물론 서툴고 미숙했지만,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나를 구할 방법을 몰랐기에,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가졌습니다. 마리아나의 적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의 모든 불행을 그 적에게 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당신의 저택에 잠입해 플로랑스의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는 플로랑스에게서 은밀히 당신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정말로 모르게 한 일입니다.

만약 플로랑스가 그런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반발했다면, 저는 아마도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마리-안느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수세 대로에서 당신을 쫓아다니다가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당신의 자동차는 당신과 동조자였던 마제루 병장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은 내 복수에서 벗어날 뻔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 즉 운전 기사가 너를 대신해 대가를 치렀지. 플로랑스의 절망은 너무도 깊어서, 나는 그녀의 간청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손을 놓아주었다.

나 역시 내가 저지른 일들에 terror에 떨었다. 두 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바꾸고, 마리아나를 구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부자였다. 감옥 간수들에게 돈을 주어 그들의 눈치를 살폈지만, 내 계획은 절대 누설하지 않았다. 공급 업체들과 병동 직원들과도 끈을 맺었다.

그리고 매일 법관 기자증을 구해 법정으로 향했다. 심판관들의 복도를 거닐며 마리아나를 만날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녀에게 눈짓과 손짓으로 용기를 주었고, 어쩌면 위로의 말도 건넸을 것이다.

그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다. 히폴리트 포빌의 편지 사건이라는 이 미스터리한 일로 인해, 당신은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셈이었다.

그 편지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나? 어디서 나온 것이었나? 그 편지들을 끔찍한 논쟁의 한복판에 던진 당신에게 모든 음모의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플로랑스는 밤낮으로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줄 단서 하나, 빛 한 줄기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아침, 플로랑스가 브리adier 마제루를 발견했다. 그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말은 들을 수 없었지만, '랑르노'라는 이름과 '포르미니'라는 마을 이름을 알아챘다. 랑르노. 그는 이피요트 포빌의 옛 친구였다. 그에게 보낸 편지들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당신과 마제루 브리adier가 차를 타고 떠난 것이 아니었는가?

하루 반 시간 후, 우리도 수사를 하려 알랑송행 기차에 올랐다. 역에서 마차가 우리를 태워 포르미니 근처로 데려다주었다.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현장을 살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 랑르노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우리는 그의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어렵사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플로랑스가 공원에 있는 당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당신과 내가 마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잔디밭과 수풀 사이를 지나갔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따라왔다.

그때 마구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문을 밀었고, 살짝 벌어진 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 어둠 속을 빠르게 지나, 어수선한 물건

들을 피해 올라갔다. 우리가 부딪친 사다리를 타고, 우리는 피신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들어왔다.

"이후의 일은 아시죠. 두 사람이 목매달아 죽은 채 발견된 일, 플로랑스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우리 쪽으로 시선이 쏠린 일, 그리고 그 공격에 저는 운이 좋게 손에 잡히는 첫 번째 무기로 맞대응했던 일. 마지막으로 당신의 권총 총탄을 피하며 환풍구를 통해 도망친 일까지.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녁, 기차 안에서 플로랑스가 실신했습니다. 그녀를 돌보던 저는 그녀의 어깨에 총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벼운 상처라 고통은 없었지만, 그녀의 이미 극도로 긴장된 신경에는 더 큰 부담이 되었죠."

"당신이 우리를 봤을 때, 바로 르망 역에서였죠? 그때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끊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며, 깊은 진실을 담은 숨결로 불타올랐다.

도 루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을 발휘했다. 소베랑의 모든 말과 모든 제스처를 자신의 마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그 손동작이 이루어질 때마다, 도 루이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진짜 플로렌스 옆에, 또 다른 여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도 루이스가 사건들을 믿고 플로렌스를 더럽혔던 모든 오물과 수치심에서 해방된 여성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내맡기지 않았다.

플로랑스가 순진하다니, 정말 가능할까?

아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한 이성의 증언은, 그런 주장을 단호히 부정했다.

그는 플로랑스가 갑자기 본모습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녀에게겐 속임수, 교활함, 잔혹함, 피를 좋아하는 본성, 그리고 괴물 같은 면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 남자는 지옥 같은 손재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너무도 천재적으로 포장해, 진위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빛과 어둠이 섞여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어떤 달콤함이 담겨 있었다.

상상의 피렌체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운명에 이끌려 자신이 증오하는 행동들을 저지르면서도, 모든 죄악으로부터 순수했고, 양심의 가

책도 없었으며, 인간적이자 연민을 자아내는 피렌체. 맑은 눈매와 하얗게 빛나는 손.

그 환상적인 꿈에 몸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가스통 소베랑은 옛 적의 얼굴을 살폈다. 돈 루이스의 바로 옆에 선 그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감정과 열정으로 얼굴이 환해지며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믿는 거죠, 맞죠?"

"아니요… 아니요…"

페레나는 이 남자의 영향력에 맞서 몸을 굳게 조이며 말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소!" 소베랑이 거친 에너지로 외쳤다. "당신이 내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하오. 내 사랑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라오. 마리안느는 내 생명이오. 그녀가 죽으면, 나도 살아남을 이유가 없소."

"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불쌍한 그녀가 정맥을 베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의 그 절망감!"

"그것도 당신의 탓이오. 히폴리트의 고발 편지 때문에!"

"아,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목베고 싶다는 생각은 접었소. 대신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가하고 싶었소. 불쌍한 마리안느,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 아침 내내 플로랑스와 나는 그녀의 소식을 찾기 위해 떠돌았소. 먼저 교도소 주변을 뒤졌고, 그다음엔 검찰청과 법원 쪽으로 향했지.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소."

"그때 당신은 기자들 무리 앞에서 마리안느 포빌의 이름을 불렀소. 그리고 그녀가 무죄라고 선언했지! 당신 증언을 공개하며 그녀를 옹호하고 있었소."

"아, 그 순간 제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적은 동지가 되었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 주군이 되었죠. 당신, 정말 대담하십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을 부정하고, 마리안나의 구원에 온 힘을 쏟으시다니요!"

기쁨과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달음박질쳐 플로랑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안나를 구했어요. 그가 그녀의 무죄를 선포했답니다. 꼭 만나야 해요. 꼭 말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플로랑스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의 간곡한 부탁은 이랬다. "당신의 새로운 태도가 결정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당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마시오."

나는 그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먹은 상태였다. 오히려 당신에 대한 증언을 실은 신문을 읽고 나서, 나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의 손에 마리안나의 운명을 맡겨야 했다. 나는 당신의 귀환을 기다렸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처음 면담할 때 저토록 냉정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몇 주째 이어진 싸움과 자신의 노력에 지쳐 있었다. 헛되이 에너지를 다 써버린 그 고된 투쟁은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떨고 있었다.

그는 도니 루이스에게 매달렸다. 한 무릎을 도니 루이스가 서 있던 안락의자 위에 올린 채였다. 그는 헛간거렸다.

"제발 그녀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이라면 그 힘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모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싸우면서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저로부터 지켜 준 것은 재능만이 아닙니다. 행운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치열하게 추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저의 말을 듣고, 우리 세 사람 모두 무죄라는 상식 밖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에게 말하려던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성이라는 유일한 안내자만을 믿고 마리-아나의 무죄를 외친

그 남자가,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반드시 구해 낼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제발, 그녀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며칠 안에 마리-아나는 죽고 맙니다. 감옥에서는 그녀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자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죽는다니, 그 상상이 끔찍합니다. 만약 법이 죄인을 원한다면, 저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모든 죄목을 뒤집어쓰고 모든 형벌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나는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제발 그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를 감옥과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제발… 그녀를 구해 주십시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절망에 몸이 일그러진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플로랑스도 함께 울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페레나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숙이 무서운 불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대화 내내 퍼져 있던 새로운 확신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순식간에 깨달음이 찾아왔다.

소베랑의 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플로랑스는 그가 상상했던 끔찍한 괴물이 아니었다. 거짓말 없는 눈빛을 지닌, 영혼과 얼굴이 고운 여성이었다.

또 한 가지. 그 두 사람, 그리고 마리아나느. 그들이 어설프게 싸우며 사랑했던 그 여인까지. 모두 풀 수 없는 철환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철환을 조여 넣은 이는 바로 자신, 페레나였다. 그는 누구보다 잔인하게, 그들을 옥죄고 있었다.

"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그는 쏟아져 들어오는 감격과 생각에 몸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확신과 기쁨, 공포와 절망, 분노가 격렬하게 부딪쳤다. 그는 가장 끔찍한 악몽의 발톱에서 몸부림쳤고, 이미 경찰의 무거운 손이 플로랑스의 어깨 위에 올려지는 것을 본 것만 같았다.

"가자! 빨리 가자!" 그는 공포에 질린 몸짓으로 외쳤다. "남아 있는 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호텔이 포위됐는데…" 소베랑이 반박했다.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럼 내가 잠시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자, 보자.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나 안에도 의심이 남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걸 없애 줄 거고, 우리는 오 파빌을 구해 낼 거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순경들이 둘러싸고 있잖습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겁니다."

"소위장인 베버는요?"

"그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가 없으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죠. 자, 저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멀리서요. 제가 신호를 보낼 때, 오직 그때만…"

그는 빗장을 풀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마ître d'hôtel(식당 책임자)였다.

"자, 왜 저를 귀찮게 합니까?" 그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형사부 소위장인 베버 씨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제10장

물론 도 루이스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는 여러 번 중얼거렸다.

"아, 웨버가 여기 있군… 웨버가 여기 있군…"

그의 모든 기세는 이 장애물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거의 해방된 듯 도망치던 군대가 갑자기 가파른 산비탈에 막혀 서 있는 모습과 같았다. 웨버가 있었다. 즉, 적들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그는 공격과 저항을 치밀하게 조직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웨버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앞장선다면, 무력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에게 문을 열어줬습니까?" 그가 물었다.

"주인님께서 닫지 말라고 명하시지 않았기에, 제가 열었습니다."

"그는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주인님. 차장도 함께 왔고, 그는 안뜰에 여섯 명의 부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차장은요?"

"차장이 1층으로 올라가려 했어요. 서재에서 선생님을 찾으실 거라 믿고 있었죠."

"지금은 내가 마제루 씨와 르바세르 씨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선생님."

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에게 네가 나를 찾지 못했다고 전하고, 르바세르 씨의 아파트에서 나를 찾아보라고 해. 아마도 동행해 줄지도 몰라. 더할 나위 없지."

그는 문을 닫았다. 방금 그를 짓누르던 격정은 얼굴에 단서 하나 남기지 않았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놓치지 않던 놀라운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플로랑스 쪽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겁내지 마세요, 미스. 제 말만 믿고 따르시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자신에게 믿음을 갖게 하리라 생각했다.

"들으세요, 소베랑 씨." 그가 말했다. "만약 제가 실패하더라도, 아직 명확히 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소베랑이 물었다. 그의 차분함은 여전했다.

그때 도 루이스는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생각들을 억누르고 질서와 규율을 강요했다. 잊지 않으려 하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말만 하려며 차분하게 물었다.

"사건 당일 아침, 당신과 외모가 비슷한 흑단 지팡이를 든 남자가 베로 형사를 따라 뽕뇌프 카페로 들어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집에 있었소."

"외출한 적은 없단 말이오?"

"단단히 확신합니다. 뽕뇌프 카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 그곳에 간 적이 있을 리 없습니다."

"좋소. 다른 질문이 있소.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왜 경찰청장이나 수사 판사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았소? 스스로를 넘겨놓고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간단했을 텐데, 왜 불리한 싸움을 감수하며 이런 고초를 겪었소?"

"저도 그렇게 하려다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저를 노린 음모가 너무 교묘해서, 단순히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법정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요. 저를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댈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를 몰아세우는 증거들은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마리안나의 이빨 자국이 그녀의 죄를 확실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제 침묵과 도주, 그리고 안세니 경시찰관 살해는 각각 또 다른 범죄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리안나를 구하려면, 제가 자유로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여성으로서의 부끄러움도 막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빠뜨릴 뿐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날, 히폴리트 포빌의 편지들이 하나씩 증거로 제출되면서야 비로소 검찰은 우리가 왜 이런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는지 그 숨은 동기를 알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그 편지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는 그 편지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포빌이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가 전혀 몰랐죠. 그는 그 감정을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게다가 그는 왜 저희를 의심했을까요? 누가 그에게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공포와 악몽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모두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저희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썼죠. 어떤 편지였을까요?"

"그리고 호랑이 이빨 자국, 바로 모 포빌이 남겼음이 틀림없는 그 자국 말입니다."

"모르겠소. 모든 게 이해가 안 가."

"오페라극장을 나온 뒤, 자정부터 새벽 두 시 사이,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도 당신은 모른다는 거요."

"그렇소. 그녀가 함정에 빠졌다는 건 자명하죠.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 의해? 그리고 왜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미스터리입니다."

"그날 밤, 즉 살인 사건이 있던 밤, 당신도 오퇴이유 역에서 목격됐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

"저는 수셰 대로 쪽으로 가다가 마리안느 창문 아래를 지나쳤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다는 점, 기억나시죠? 저는 그다음 주 수요일에도 다시 갔습니다. 그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 제가 숨어 있던 곳을 찾아내시고 마제루에게 제 신원을 폭로하신 그날 밤에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건과 마리안느의 체포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모닝턴 가의 유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플로랑스도 모르고요. 마리안느와 그녀의 남편도 아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포르미니의 그 헛간은 처음 들어본 곳이었습니까?"

"네,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빗줄에 시체가 매달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당신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도 루이스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더 생각하며 다른 질문이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궁금한 건 다 물었습니다. 당신 쪽은 어때요? 필요한 말을 모두 했는지 확신하십니까?"

"상황이 중합니다. 아마 다시 만날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주장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해 드렸습니다. 당신 같은 분께는 진실로 충분합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마리안느를 구해 주십시오."

"세 분 모두 구해 드리겠습니다." 페레나가 말했다.

"내일 밤, 네 번째 수수께끼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논하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아 둔 새로운 진상들로 세 분 모

두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25일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제발 마리안느 생각만 해 주세요. 저를 희생하셔도 좋습니다. 플로랑스도요. 제 이름과 그녀의 이름을 대변해 말씀드립니다. 작은 성공의 기회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세 분 모두 구해 드리겠습니다." 돈 루이스가 다시 말했다.

그는 문을 살짝 열어젖힌 뒤, 귀를 기울였다. 그러곤 그들에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어떤 구실로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 주지 마. 하지만 나는 곧장 올 테니."

그는 문을 두 번 돌려 잠그고 1층으로 내려갔다. 보통 큰 싸움이 다가올 때 느껴지던 그 설렘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 싸움의 승패는 플로렌스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다. 패배의 결과는 그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계단의 창문으로 그는 안마당을 지키는 요원들을 발견했다. 일곱 명이었다. 그리고 그의 서재 창가에서 안마당을 감시하며 요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차장도 보였다.

'이봐, 저 녀석은 아직 자리에 있군. 이건 쉽지 않겠어. 경계심이 강하니까. 어쨌든 해보자.'

그는 첫 번째 거실을 지나 작업실로 향했다. 베버가 그를 발견했다. 두 적수가 서로 마주 섰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 대결은 빠르고 치열해야 했다. 조금의 실수도,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다.

3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했다.

부주방장의 얼굴에는 기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그는 저주받은 돈 루이스를 상대할 허가를 받았고, 명령까지 받았다. 그의 원한은 그 누구보다도 깊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그에게 더 큰 쾌감을 안겨주었다. 모든 카드가 자신의 손에 쥐여졌기 때문이다. 돈 루이스는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옹호하고, 그녀의 초상화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셈이었다.

하지만 웨버는 잊지 않았다. 돈 루이스가 바로 아르센 뤼팽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은 그에게 일종의 불안을 안겨주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다.

'사소한 실수만 저지르면, 나는 끝장이다.'

그는 농담조로 선을 그었다.

"보아하니, 당신은 르바세르 부인의 별장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인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요."

"내 하인이 지시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어요, 바로 위층에요. 하지만 내려가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죠."

"그래서 끝낸 거요?"

"그렇습니다. 플로랑스 르바세와 가스통 소베랑이 제 집에 있습니다. 묶이고 입도 막힌 채로요. 그냥 인수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통 소베랑!" 웨버가 외쳤다. "그렇다면 정말 저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본 거였군요?"

"네. 그는 플로랑스 르바세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애인이죠."

"아, 아! 부하장이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애인이라니?'"

"네. 그리고 마제루 병장이 플로랑스 르바세를 하인들 시야에서 벗어나 방으로 불러 심문하려 했을 때, 소베랑은 자신의 애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는 그 용감함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우리 손에서 구해 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제압했소?"

아래 부장은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확신했다. 데스말리옹 씨와 마제루의 말을 통해 그는 도 루이스가 플로렌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도 루이스는 사랑에 눈이 먼 남자가 아니었다. 설령 질

투심에서라 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넘겨줄 리 없었다. 그는 더 주의를 기울였다.

"훌륭한 수고입니다." 그가 말했다. "방으로 모시죠. 싸움이 심했나요?"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도둑을 제압할 수 있었죠. 다만 마제루가 손가락에 칼에 찔려 다쳤습니다."

"심각한 상해는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는 근처 약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장은 깜짝 놀라 멈칫했다.

"뭐라고? 마제루가 당신의 방에 있는 두 죄수와 함께 있지 않다는 말이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의 하인 말로는…"

"제 하인이 실수를 저지른 모양입니다. 마제로우는 당신들이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나갔습니다."

"이상하군요." 베버는 돈 루이스를 주시하며 말했다. "제 모든 요원들이 그가 여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니?" 돈 루이스는 걱정스러운 척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는 분명히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부서장은 점점 더 의심에 사로잡혔다. 분명히 페레나는 그를 보내어 부대장을 찾게 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었다.

"제 요원 중 한 명을 급파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약국이 근처에 있습니까?"

"부르고뉴 거리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전화가 가능하군요." 부서장은 중얼거렸다.

그는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머리에 무슨 재앙이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천천히 전화기 쪽으로 걸어가면서, 도 루이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도 루이스는 마치 강제로 밀려난 듯 전화기 뒤로 물러섰다. 한 손으로는 수신기를 들어 올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에 기대어 식탁에서 미리 챙겨 둔 작은 플라이어를 이용해 전화선 중 하나를 잘라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크스 24-09…

"여보세요… 24-09… 약국입니까? 여보세요. 보안국의 마제루 소위가 당신 집에 와 있죠, 맞죠? 네? 뭐? 무슨 소리요? 정말 끔찍하군요! 당신은 확신하십니까? 상처에 독이 들어갔다고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부장은 도 루이스를 밀쳐내고 전화기를 낚아챘다. 중독된 상처라는 생각은 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는 도 루이스를 주시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손짓으로 그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명령했다. "여보세요. 어때요? 나는 보안국 부장 웨버입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마제루 병장 말인데요… 여보세요. 제발 말 좀 하세요, 미친듯이!"

갑자기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선을 살펴보니 끊겨 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마치 '끝났군. 내가 속았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페레나는 그로부터 세 발자국 뒤, 창틀의 목재 판자에 느슨하게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왼손은 등을 짚고 판자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다정하게, 그리고 친절한 호방함으로 웃고 있었다.

"가만 있어." 그가 오른손을 들어 손짓하며 말했다.

베버는 움직이지 않았다. 위협보다 그 미소가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가만 있어." 돈 루이스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되뇌었다. "게다가 걱정할 것 없어…… 다칠 거 하나도 없어. 장난감 같은 아이를 어두운 감옥에 가두는 거야. 잘했어? 하나, 둘, 셋, 찰칵!"

그가 살짝 물러나 손가락으로 철제 커튼을 내리는 버튼을 눌렀다. 무거운 판이 떨어졌다. 부하장은 감옥에 갇혔다.

"두억이 떨어졌군." 돈 루이스가 비웃듯 말했다. "좋은 수였지만, 값이 좀 비싸군. 모닝턴 가문의 유산은 안녕! 돈 루이스 페레나는 안녕! 이제 잘 가라, 친애하는 뤼팽. 베버가 복수하지 않게 하려면, 질서 있게 물러나거라. 하나, 둘…… 짚, 건초……"

말을 하는 사이, 그는 1층 거실과 1층 복도를 잇는 쌍문 안쪽에서 열쇠를 돌려 잠그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그 방과 거실을 연결하는 문도 닫았다.

그때였다. 부지장이 철제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다. 창문이 열린 채였으니, 밖에서도 그의 외침이 들릴 정도였다.

"소리가 아직 부족하군, 부지장." 돈 루이가 소리쳤다.

그는 권총을 꺼내 세 발을 쐈다. 그 중 한 발이 창문 유리 하나를 깨뜨렸다.

그는 재빨리 서재의 무거운 작은 문을 나와, 꼼꼼하게 자물쇠를 채웠다. 그는 두 방을 돌아서 다른 문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서 있었다. 그 문은 대기실로 통했다.

그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문짝 뒤에 숨을 수 있었다.

이미 총성과 소음에 이끌려 경찰들이 현관과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이 1층에 올라와 대기실을 지나쳤을 때, 거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였다. 부장이 호출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복도였다. 그들은 여섯 명 모두 그 복도로 뛰어들어갔다.

마지막 사람이 굴곡진 길 너머로 사라지자, 돈 루이스는 자신을 숨겨 주던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다른 문들처럼 단단히 잠근 것이다. 부하 두 명을 비롯해 여섯 명의 형사들은 이제 완전히 속박된 신세가 되었다.

"막혔군." 돈 루이스가 낮게 중얼거렸다. "저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닫힌 문을 두드리고, 그중 하나를 부수는 데 최소 오 분은 걸릴 거야. 오 분 뒤면 우리는 이미 저 멀리 떠난 뒤지."

그때 놀란 표정으로 달려오는 하인 두 명을 만났다. 운전기사와 주방장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천 프랑 지폐 두 장을 던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엔진 돌리세요, 예술가들. 내 차 앞에 누가 서서 길을 막지 못하게 하세요. 차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면, 각자 2천 프랑씩 더 드

리죠. 네, 그게 맞아요. 그 멍청한 표정 짓지 마세요. 2천 프랑이에요. 그 돈을 벌려면 너희가 움직여야죠. 서두르세요, 선생님들."

그는 자신도 서두르지 않았다.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마지막 계단에서 기쁨이 그를 사로잡았다.

"승리다! 길이 열렸다."

작은 방의 문이 정면에 있었다. 그는 문을 열며 다시 외쳤다.

"승리다! 하지만 한 순간도 아까워해서는 안 돼. 나를 따라와."

그가 안으로 들어섰다. 목에 걸린 욕설이 막혀 나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뭐라고?!" 그가 더듬거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 그들은 떠났어… 플로랑스…"

물론 그 추측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지금까지 소베랑이 열쇠를 훔쳐 만든 가짜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경찰들 사이를 뚫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다.

창문이 있는 벽면의 오목한 부분 아래, 창문 바로 아래에 있는 낮은 벽 부분이 마치 넓은 상자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그 상자의 뚜껑 역할을 하는 나무 판이 들어 올려져 창문 유리창에 기대어 있었다. 마치 상자 뚜껑이 열려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열린 상자 안쪽에서는, 매우 좁은 철제 계단의 첫 단계들이 보였다. 그 계단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루이스는 단숨에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선대인 말로네스코 백작의 조모가 가족의 오래된 저택에 숨어 지냈다는 것이다. 그녀는 수색대를 피했고, 혁명의 혼란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았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벽 두께 속에 뚫린 통로가 먼 곳의 출구로 이어져 있었다. 그래서 플로랑스가 저택을 드나들 수 있었고, 가스통 소베랑도 안전히 출입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 통로를 통해 그의 방에 숨어들어 비밀을 엿볼 수 있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의심해서?'

그러나 책상 위 한 장의 종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초조한 손길로 가스통 소베랑이 남긴 글귀였다.

"우리는 당신을 함락시키지 않기 위해 도망치려 합니다. 우리가 잡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희망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 문장 아래에는 플로랑스가 쓴 두 단어가 적혀 있었다.

'마리-아나를 구해 주세요.'

"아!" 그가 중얼거렸다. 이 결말에 당황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는 헤어졌군…"

아래층에서는 경찰들이 그들이 감금되어 있던 복도의 문을 부수고 있었다. 경찰이 문을 열기 전에, 그는 아직 자신의 차에 도달할 시간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그는 플로랑스와 소베랑이 간 것과 같은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 길이라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다시 만나 구할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상자 가장자리를 넘어선 뒤, 윗쪽 사다리에 발을 디뎌 아래로 내려갔다. 대략 스물 개쯤 되는 사다리 칸을 내려가자, 그는 1층 중간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아주 낮은 아치형 터널로 들어섰다. 그는 이 터널이 벽돌벽을 파고 만든 것이라 생각했다. 터널이 너무 좁아 어깨를 비스듬히 돌려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가 약 30미터를 더 나아가자, 90도 각도로 꺾이는 코너가 나타났다. 이어 또 다른 터널이 이어졌고, 그 끝에는 열린 구멍이 있었다. 그곳에서 다른 사다리의 사다리 칸들이 보였다.

그는 도망친 이들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갔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다.

아래쪽에서 밝은 빛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문이 열려 있는 찬장 속에 있었다. 평소라면 커튼이 덮고 있을 터였으나, 지금은 치워져 있었

다. 이 찬장은 침대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침대는 작은 벽장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벽장 공간을 지나, 얇은 벽 하나로 나뉜 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그곳은 바로 피렌체의 거실이었다.

이번에는 확신했다. 비밀 출구는 아니었다. 팔레부르방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았다. 플로랑스가 그를 집으로 들일 때 보통 쓰던 길이었다.

그는 현관을 지나 몇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식당 바로 앞, 호텔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낮은 문이 보였다. 성벽을 통과할 때 쓰던 곳이었다. 작은 창살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그 자리를 알려주었다. 더듬거리며 자물쇠를 찾았다.

드디어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른 그는 기뻤다. 문을 열었다.

"젠장!"

그가 뒤로 뛰며 자물쇠를 붙잡고 다시 문을 닫으며 내뱉은 소리였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두 순경이 그의 모습을 보고 달려들었다.

그 두 사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소베랑과 플로랑스의 탈출을 막은 걸까? 만약 그렇다면, 두 피고행자가 정확히 같은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도 루이스는 그들을 만나야 마땅했다.

'아니, 탈출은 정문 감시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어. 하지만, 음, 이제 내가 빠져나갈 차례인데, 이 일이 만만치 않군. 우리 집처럼 발각되고 말 건가?'

그는 지하실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가려 했다. 부속 건물 복도를 통해 마당으로 숨어들어, 차에 올라타서 길을 뚫고 나가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마당 근처, 차고 바로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사후국 요원 네 명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몇 명은 그가 감옥에 넣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손짓하며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게다가 큰 문과 문지기 초소 쪽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많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요란했다.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마도 이 혼란을 틈타 밖으로 빠져나갈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주변은 경찰과 안경부 형사들로 가득했다. 가스토 살베랑은 벽에 등지고 묶인 채 욕설과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철제 차륜이 채워져 있었다.

가스토 살베랑이 죄수가 되었다는 사실. 두 피신자와 경찰 사이에 과연 어떤 비극이 벌어졌던 것일까. 가슴이 답답해져 올랐다. 그는 몸을 더 기울여 상황을 지켜보려 했다. 하지만 플로랑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젊은 여성은 어찌되었든 탈출에 성공한 모양이었다.

베베르가 현관 계단에 나타나며 내뱉은 말들이 그의 기대를 확인시켜 주었다. 베베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감금과 패배의 굴욕이 그를 격분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 드디어 하나 잡았군!" 베베르는 죄수를 보며 중얼거렸다. "가스토 살베랑! 아주 좋은 사냥감이지. 이 녀석, 어디서 붙잡았어, 친구들?"

"파르부르궁 광장에서 봤다." 한 형사가 말했다. "지하실 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걸 목격했다."

"공범인 르바쥬르 여자는?"

"놓쳤습니다, 상사님.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돈 루이스는요? 절대 호텔에서 나가게 두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지시했잖아요."

"그 사람도 다섯 분 뒤, 지하실 쪽 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

"그 문 앞을 지키던 경찰관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베버가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우리 손에 잡혔다! 저자에겐 큰일이다. 경찰에 대한 반역, 공범 혐의까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 야호! 야호! 아이들아."

"사우베랑 감시할 사람 두 명, 팔레 부르봉 광장 경계할 사람 네 명, 손에는 권총을 쥐고. 지붕 위 두 명. 나머지는 내 편이다."

"일단 르바세르 소녀의 방부터 수색하자. 그다음은 저자의 방. 가자, 아이들아!"

도 루이스는 공격자들의 습격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의 의도를 이미 파악한 그는, 들키지 않은 채 플로랑스의 방으로 물러났다.

여기서 그는 웨버가 아직 부엌 쪽 복도를 통해 가는 지름길을 몰랐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 사이 그는 다락문 메커니즘이 아주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침대 커튼 뒤, 그리고 알코브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찬장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도 얻었다.

다락문을 통해 통로로 들어선 도 루이스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갔다. 벽 안쪽에 뚫린 긴 복도를 따라 걸었고, 자신의 소파실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기어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 다락문이 나무 판자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어선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자신의 머리 위로 다락문을 닫았다.

잠시 후, 위에서 수색하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하여, 5월 24일 오후 5시, 상황은 이랬다. 플로랑스 르바세르가 체포 영장을 받고 도망친 상태였고, 가스통 소베랑은 감옥에 있었다. 마리안느 포빌도 감옥에 갇혀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무고함을 믿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돈 루이스는 자신의 호텔에 갇혀 스무 명의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다.

모닝턴 유산 이야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유산 상속인 역시 이제 사회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훌륭하군." 도 루이스가 비웃듯 말했다. "이게 바로 제가 이해하는 삶이란 거요."

문제는 간단하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다. 주머니에 동전 한 닢 없는 거지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병사와 탄약 하나 남지 않은 장군이 어떻게 이미 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해, 내가 아르센 뤼팽으로서 어떻게 내일 저녁 부르바르 쉬셰에서의 모임에 참석해, 마리안느 포빌, 플로랑스 르바세르, 가통

소베랑을 구하고, 그 위에다 내 절친 도 루이스 페레나까지 구해낼 수 있겠는가?

어딘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마 지붕 위를 뒤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벽을 두드리며 숨은 사람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돈 루이스는 바닥에 엎드렸다. 팔을 꼬아 그 위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은 채, 그는 속삭였다.

"생각해 보자."

제11장

그 후 아르센 뤼팽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일화를 내게 들려줄 때, 그는 이 대목에서 다소 자만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저를 놀라게 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 중 하나로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베랑과 마리안느의 무죄를, 이미 해결된 문제처럼 단번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께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는 심리적 가치나 수사적 공로 면에서, 유명한 탐정들이 남긴 가장 유명한 추론들을 능가하는 일등공신의 업적입니다."

» 결국 모든 것을 따져보니, 내 판결을 수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쌓인 혐의는 여전했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조사 판사는 주저 없이 영장을签发했고, 배심원도 모든 질문에 단호하게 유죄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 그런데도 왜 나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을까? 왜 명백한 사실에 등을 돌렸을까? 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믿었을까? 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였을까?

"왜요? 아, 물론 진리에는 귀에 특별한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모든 증거, 모든 사실, 모든 현실, 모든 확실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세 범인 중 한 명이 내놓은 이야기, 즉 처음부터 끝까지 터무니없고 거짓말투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직한 목소리로, 또렷하고 간결하게, 치밀하게 짜인 줄거리로 이어졌습니다. 모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복잡한 구석도 부자연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긍정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직함 때문에 모든 공정한 정신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뤼팽이 내게 설명한 내용은 완전하지 않았다.

"플로랑스 르바세르는요?" 내가 물었다.

"플로랑스 르바세르?"

"네, 당신은 그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눈으로만 보자면, 그녀가 당신을 저지른 모든 암살 시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높았죠. 하지만 사법부 역시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리샤르 월라브루바드에서 가스통 소베랑에게 비밀리에 방문한다는 사실이 세

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베로 형사의 수첩에서 그녀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비난과 확신이요. 소베랑의 증언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뀌었나요? 당신에게 플로랑스는 무죄였나요, 유죄였나요?"

그는 잠시 주저했다. 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했지만, 결국 그 결심을 접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행동하려면 의심이 밀려와도, 미지의 어둠이 사건 일부에 드리워져 있어도, 온전한 신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움직였죠."

고립된 시간 동안 도 루이스 페레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했다. 가통 소베랑이 사건을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것이었다. 그는 그 진술의 모든 디테일을 재구성하려 애썼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문장이나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찾아냈다.

그는 각 문장을 하나씩, 각 단어를 하나씩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추출해 내려고 했다.

사실은 그 곳에 있었다. 소베랑이 그렇게 말했고, 돈 루이스는 의심하지 않았다.

모닝턴 가의 상속 문제와 쉬체 대로에서 벌어진 비극, 마리안느 포빌을 겨냥한 음모의 실체, 그리고 소베랑과 플로랑스의 실종이 모두 드러나는 단서들. 이 모든 것이 소베랑의 진술 속에 담겨 있었다.

그 진술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터였다. 마치 어두운 상징에서 도출되는 교훈처럼 말이다.

돈 루이스는 자신의 방법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머릿속에 의문이 스며들면, 그는 곧바로 그에 답했다.

좋다. 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소베랑의 진술이 나를 이끄는 단서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 진실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으로 그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일단 내가 가진 것은 오직 가스트OH 소베랑의 진술뿐이다. 신비로운 편지들이 줄줄이 도착하며 내가 얻은 단서들은 잠시 잊자. 오직 그 진술만이 내가 가진 유일한 조사 도구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는 다시 한 번, 남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처럼, 소베랑이 겪었던 모험을 생생하게 되새겼다.

그는 그 실제 사건이 자신이 지금까지 상상해 왔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두 사건은 정반대였다. 하지만 그 극명한 대비에서 작은 불꽃이라도 튀어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말했군요,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실제였고, 저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다. 범인은 왜 실제가 정확히 그런 모습으로 보이도록 꾸몄을까?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 하

지만 만약 그렇다면, 의심을 자신에게서 돌리는 대신, 하필이면 다른 이들에게로 향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답을 하곤 했다. 용자들을 나열하고, 단어를 이어 붙였다. 인용한 이름이 바로 범인의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듯, 발음한 단어들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 말이다.

그리고 곧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듯, 논리적 분석과 문법적 분석을 병행했다. 모든 표현을 체로 걸러내고, 각 문장을 해체해 분해했다. 그리고 문장을 그 본질적인 가치로까지 줄여 나갔다.

시간이 몇 시간이고 흘렀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밤중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시계를 꺼내 들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확인했다. 시각은 열한 시 사십삼 분이었다.

"정각 열한 시 사십삼 분, 그 어둠의 끝까지 들어섰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도 거세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시험이 그에게 준 충격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그는 방금, 번개의 빛에 비친 밤 풍경처럼, 끔찍한 진실을 순간적으로 꿰뚫어 본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느끼는 충격을 더 강렬한 감정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발버둥 치다가 문득 빛이 비치는 순간, 그 충격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그는 이미 육체적인 노고와 굶주림으로 지쳐 있었다. 몸이 아파올 정도였다. 그런데 그 충격은 너무도 깊게 그를 덮쳤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힘이 없었다.

그는 잠들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회복되는 목욕탕의 물속으로 가라앉듯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벽녘, 그는 눈을 떴다. 침대가 불편했음에도 기운은 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받아들인 가설을 떠올리자 오한이 일었다. 본능적으로 그 가설을 의심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그 생각은 사라졌다.

증거들이 스스로 그의 생각 속으로 달려와, 가설을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 확신은 확인해 볼 바가 없을 만큼 확실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가 예감한 대로, 진리는 소베랑의 진술 속에 적혀 있었다. 또한 마제루에게, 이상한 편지들이 나타난 방식이 진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한 것도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리는 끔찍했다.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베로 형사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미 독에 시달려 고통스러웠던 그 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악마처럼 계획되었어요!"

정말 악마적이었다. 돈 루이스는 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할 말을 잃었다. 인간의 뇌에서 이런 악랄한 계획이 탄생할 수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쏟아 부으며 상황을 모든 각도에서 살폈다.

결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이제 그 끔찍한 비밀을 손아귀에 넣었으니, 할 일은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쉬셰 대로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범죄의 실체를 입증하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도망칠 기회를 엿보며 지하실을 올라, 가장 높은 사다리를 타고 자신의 부두아르(사적인 안방) 높이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는 바닥 구멍을 통해 그 방 안에 있는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단하군.' 그가 중얼거렸다. '일이 꼬이고 있군. 경찰의 하수인들을 피하려면 이 감옥에서 나와야 해. 그런데 그 탈출구 중 하나가 막혔어. 남은 건 하나뿐이지.'

그는 플로랑스의 방으로 다시 내려갔다. 추중추를 이용해 장치를 작동시켰다.

옷장 패널이 미끄러져 열렸다.

배가 고팠다. 포위 공격을 견디기 위한 식량이 있을까 기대하며, 그는 커튼 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발소리가 들려 오더니 그가 굳어 섰다.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래, 마제루. 너는 밤새 여기서 지냈구나. 새로운 건 없나?"

목소리를 듣고 도 루이스는 경찰청장을 알아봤다. 그리고 던져진 질문으로 그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마제루가 묶여 있던 검은 방에서 풀려났다는 것과, 두 번째로 병장이 옆방에 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천장 기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작동했다. 도 루이스는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각하." 마제루가 대답했다.

"이상하군. 그 저주받은 녀석이 어딘가에 분명 있을 텐데. 아니면 지붕을 타고 달아났거나."

"불가능합니다, 각하." 도 루이스가 세 번째 목소리를 알아봤다. 소위 베버 지휘관이었다. "불가능합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 날개가 없는 한…"

"그럼 너의 생각은 어때, 베버?"

"제 생각에는 그자가 호텔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호텔이 오래된 건물이니, 아마 구석진 공간이 있을 테니까요."

"당연하지. 당연해." 데스말리옹 총감이 말했다. 커튼 틈새로 그 모습을 보던 도 루이스는 총감이 창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도 그를 잡을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총감!"

"그래, 당신도 나도, 그리고 총리까지 같은 생각이지. 뤼팽을 다시 끌어내는 건 실수야. 결국 우리 어깨에 짐이 돌아갈 테니까. 어쨌든 그는 이제 정직한 사람이 됐잖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나쁜 짓도 하지 않는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총감?" 웨버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데스말리옹 총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 어제 일, 전화기 사건이군요.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총리는 배를 잡고 웃었으니까요."

"진심으로, 웃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 도둑놈은 절대 당황하지 않네요. 웃기든 말든, 그 수법은 과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눈앞에서 전화선을 끊어 버리고는, 철제 커튼 뒤로 숨어 버리다니요. 그런데 마제로우 씨, 오늘 아침부터 이 전화기를 수리해야 합니다. 당신도 여기에서 검찰청과 연락이 닿도록 말이죠. 이 두 방에서 수색은 시작하셨습니까?"

"당신의 지시에 따라 이미 한 시간째, 차장 경감과 제가 함께 찾고 있습니다."

"네, 데말리옹 씨가 말씀하신 대로, 플로랑스 르바세르는 좀 수상한 여자입니다. 그녀가 공범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사베랑과는 어떤 사이였고, 돈 루이스 페레냐와는 또 어떤 관계였는지요. 그 점이 중요하죠."

"그녀의 서류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 웹버, 너는?"

"전, 총감님, 흥미로운 걸 하나 찾았습니다."

웹버는 triumphant한 어조로 말했다. 데말리옹의 질문을 받자 그는 이어서 말했다.

"장관님, 이건 셰익스피어 전집 여덟 번째 권입니다. 다른 권들과 달리 속이 비어 있다는 점, 그리고 표지가 비밀 문서를 숨기기 위한 상자 덮개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군. 그리고 그 문서들은?"

"이것들입니다. 종이가 몇 장 있군요. 대부분 하얀 종이지만 세 장만 제외하고는요. 그중 한 장에는 기묘한 편지가 도착할 날짜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오, 오!" 데말리옹 장관이 말했다. "플로랑스 르바세르에 대한 혐의가 매우 강력하군요. 게다가 우리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목록은 도니 루이스가 바로 이 책에서 건져낸 것이 분명합니다."

페레나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 사실을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통 소베랑의 진술에서도 이 대목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 동시에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플로랑스는 이 날짜 목록을 대체 누구에게서 얻은 걸까?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은?" 데스말리옹이 물었다.

돈 루이스는 더 경청했다. 이 두 장의 종이는 바로 오늘, 같은 방에서 플로랑스와 면담했을 때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이쪽이 그중 하나입니다." 웨버가 답했다.

데스말리옹이 종이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읽었다.

"편지들과 폭발은 무관하며, 폭발은 새벽 세시에 일어난다."

"아, 그렇군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돈 루이가 예언한 그 유명한 폭발 사건요. 다섯 번째 편지가 도착할 때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이 날짜 목록이 증명하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죠. 지금까지 세 통의 편지만 왔고, 오늘 밤은 네 번째 편지가 올 차례니까요. 게다가 수셰 대로에 있는 호텔을 날려버린다니, 대담한 계획이긴 하네요. 그건 다인가요?"

"총경님."韦버가 마지막 종이를 꺼내 들며 말했다. "연필로 그린 이 선들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큰 정사각형 안에 더 작은 정사각형들과 다양한 크로의 직사각형들이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집의 평면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호텔 평면도입니다." 웨버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가 중정이고, 뒤쪽 건물들이고, 문지기용 별채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르바세르 씨의 별채입니다."

별채에서 붉은 연필로 그은 점선이 뒤쪽 건물 쪽으로 지그재그로 이어져 있었다. 선의 시작점은 작은 십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곳이 우리가 있는 방, 정확히 말해 알코브를 가리키는 표시였다.

그곳에는 벽난방 자리, 아니 옷장 자리를 그린 듯했다. 침대 뒤에 파여 있고 커튼으로 숨겨진 옷장 말이었다.

"그렇다면 웨버 씨," 데말리옹 씨가 속삭였다. "이것은 별채에서 뒤쪽 건물로 이어지는 통로의 윤곽선일까요? 보세요, 선의 반대쪽 끝에도 붉은 연필로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총감님. 십자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새겨졌는지, 나중에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저는 2층의 작은 방에 정찰대를 배치했습니다. 어제 돈 루이스, 플로랑스 르바세르, 가통 소베랑이 마지막 회의를 열었던 곳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돈 루이스 페레나의 은신처를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 부장이 점점 더 장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총감님, 어제 그 남자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부하들이 모두 목격했고, 하인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곧 일반 대중도 알게 될 일입니다.

그 남자는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탈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스통 소베랑도 탈주시키려 했죠. 그는 가장 위험한 부류의 악당입니다.

총감님, 제게 그 악당의巢穴을 습격할 권한을 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총감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대시오." 총감이 웃으며 말했다. "결국 그 철의 커튼 사건 때문에 당신 마음은 편치 않군요. 가보십시오. 어차피 돈 루이스는 불운할 수밖에요. 본인이 원한 일입니다…… 마제루, 전화가 수리되면

즉시 총감부에서 상황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수셰 대로 포브빌 호텔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편지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편지는 없습니다, 총감님." 웨버가 말했다.

"왜요?"

"그때가 되면 돈 루이스는 이미 감옥에 있을 테니까요."

"아, 당신도 돈 루이스를 범인으로 지목하는군요……"

돈 루이스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옷장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패널을 잡아당겨 소음 없이 닫았다.

이제 그의 퇴로가 모두 탄로난 것이었다!

"젠장, 이거 큰일 났네."

그가 투덜거렸다. '이제 정말 곤경에 빠졌군.'

그는 터널 중간쯤까지 달려가 다른 출구를 향해 나설 참이었다. 하지만 발을 멈췄다.

"소용없어. 그쪽 출구는 이미 지키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정말로 체포당하는 건가? 자,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아래, 즉 벽장 쪽에서 이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판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 특이한 울림이 아마 부하들의 주의를 끈 모양이었다.

또한 베버는 돈 루이스처럼 조심하지 않았다. 그는 메커니즘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판자를 부수는 데만 몰두했다. 위기는 코앞이었다.

"젠장, 또다시 젠장!" 돈 루이스가 투덜거렸다. "참으로 어이없군. 어찌할 것인가? 그들을 발로 밟고 지나갈 것인가?…… 아, 내가 만신창이가 아니었더라면!"

하지만 굶주림이 그를 점점 약하게 만들었다. 다리가 떨렸고, 머릿속도 평소처럼 맑지 않았다.

다락방에서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가 그를 억지로 위로 이끌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손전등으로 벽돌과 트랩 주변의 목재를 비췄다. 어깨로 트랩을 밀어보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다시금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분노에 몸서리치며, 할 수 없이 그는 부하의 도착을 기다렸다.

아래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울림이 터널을 따라 퍼져 나갔다. 이어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드디어 끝이군. 수갑, 유치장, 감방… 세상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그리고 마리안느 포빌은 죽게 되고, 플로랑스는…'

랜턴을 끄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빛을 주변으로 비춰 보았다. 사다리의 밑에서 약 두 미터 위, 높이의 사분의 삼 지점쯤 되었고, 벽면에서 약간 안쪽으로 물러난 곳에 돌 하나, 큰 석재 한 개가 빠져 있었다. 집 안쪽 벽면이었다. 그곳에는 충분히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석은 그다지 값진 곳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그 틈새를 점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었다. 루이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만약을 대비해 그는 불을 끄고 구멍 가장자리에 몸을 기울였다. 손이 닿았고, 그는 몸을 구부려 그곳에 몸을 숨겼다.

웨버와 마제루,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 루이는 등불빛이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석에 몸을 꽉 대고 버텼다. 그는 이미 등불의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등에 기대었던 바위가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는 뒤로 넘어져 바로 뒤에 있던 또 다른 공간으로 떨어졌다.

그는 재빨리 다리를 그 공간 안으로 당겼다. 그리고 바위가 다시 천천히 닫혔다. 다만 벽에서 떨어진 자갈들이 그의 다리를 절반 정도 덮으며 떨어졌을 뿐이다.

"이런, 이런." 그가 비웃듯 말했다. "하늘이 정의와 선을 편다는 말인가?"

그때 마제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 통로의 끝이에요. 혹시 우리가 다가오자 도망쳤을까요… 어쨌든, 이 사다리가 끝나는 곳에 있는 맨홀 뚜껑 쪽으로요."

웨버가 대답했다.

"우리가 올라온 경사를 보면, 그 뚜껑은 확실히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상의 두 번째 작은 십자가 표시는 2층에서 도니 루이 씨의 침실과 이어진 작은 거실을 가리키죠. 제 추측이 맞다면, 그곳에 우리 병사 세 명을 배치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만약 그가 그쪽으로 도망쳤다면, 이제 잡힌 셈입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마제루가 말했다. "우리 병사가 뚜껑을 찾아내서 열어줄 거예요. 안 열리면 부수면 되죠."

다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약 15분 후, 뚜껑이 열렸고 다른 목소리들이 웨버와 마제루의 목소리에 섞여 들렸다.

그 사이 돈 루이스는 자신의 처지를 살폈다.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곳에 앉으려면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였다. 길이가 1미터 50센티미터쯤 되는 좁은 통로였다. 끝부분은 더 좁아져 벽돌이 쌓여 있었다.

벽도 벽돌로 되어 있었다. 일부 벽돌이 빠져 있었기에, 원래 벽돌이 받치고 있어야 할 석조 파편들이 살짝만 부딪혀도 무너져 내렸다. 바닥은 그 파편들로 가득했다.

« 저런! » 뤼팽이 생각했다. «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되겠군. 안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매몰될 수도 있어. 참으로 기분 좋은 전망이군! »

또한 소음을 낼까 봐 두려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실제로 두 방과 가까운 곳에 서 있었는데, 그 방들 중 하나는 그의 사적인 휴식실(부두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서재였다. 그는 자신의 부두아(사적인 휴식실)가 전화가 설치된 서재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문득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다. 말로네스코 백작의 조모가, 그가 숨어야 할 시간들 동안, 철제 커튼 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말이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다. 비밀 통로와 현재 전화 부스인 곳 사이에는 예전에 통로가 있었음을. 너무 좁아 사람이 지나갈 수는 없었지만, 환기용 통로로 쓰이던 곳이었다.

만약 비밀 통로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그 통로의 위쪽 입구는 한 장석으로 가려져 있었다. 말로네스코 남작은 서재의 목재 장식을 다시 설치하면서, 통로의 아래쪽 끝을 막았을 것이다.

그는 벽 속 깊은 곳에 갇혀 있었다. 경찰의 엄중한 포위망을 빠져나갈 방법 말고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었다. 시간이 한참 더 흘렀다.

점점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던 그는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잠이 너무 깊어 그는 저녁 여덟 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식을 되찾았다.

깨어난 그는 온몸이 축 처진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처참한 현실을 직감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는 즉각 결심했다. 은신처를 나와 자수하겠다고. 지금 겪는 지옥 같은 고통이나, 더 기다릴 경우 닥칠 위험보다 나은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굴렁쇠 입구에 닿으려 몸을 돌렸다. 그런데 돌이 단순히 밀어내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돌을 움직이는 장치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집착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힘을 줄 때마다, 위쪽 벽에서 몇 개의 돌조각이 떨어져 내렸다. 그로 인해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

그는 감정을 누르고, 농담조로 말했다.

"완벽해! 이제 나는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겠군, 나 아르센 뤼팽이! 그래, 경찰서 형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분마다 묻힐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젠장! 혼자서 이겨내야 해. 도움을 부르다니? 절대 안 돼!"

그는 온갖 의지를 짜내려 애썼다. 하지만 지친 두뇌는 더 이상 흐릿하고 엉킨 생각만 떠올려주었다. 피렌체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리안느의 얼굴도 겹쳐 보였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이들을 구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물론 구해낼 거야. 이들에게 죄가 없고, 범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어떤 수단을 써야 할까?'

그는 경찰청장을 생각했다. 그리고 수셰 대로에 있는 오빌 공학자의 저택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를 떠올렸다. 이미 회의는 시작되었을 터였다. 경찰이 저택을 포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를 또 다른 기억으로 이끌었다. 웨버가 셰익스피어 8권에서 찾아낸 종이의 사각편과, 그 위에 적힌 문구. 경찰청장이 그 문구를 읽었던 것을 기억했다.

'폭발은 편지와 무관하며, 새벽 세시에 일어난다.'

'그래, 데스말리옹 선생의 추론대로라면 맞군.' 돈 루이스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편지가 세 통밖에 없으니, 이제 열흘이 남았어. 네 번째 편지는 오늘 밤 나타날 거야. 하지만 폭발은 다섯 번째 편지가 올 때야 일어나. 그러니까 열흘 뒤지.'

그는 중얼거렸다.

"열흘. 다섯 번째 편지가 올 때. 맞아, 열흘 뒤야."

그가 갑자기 놀라 몸을 떨었다. 끔찍한 환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환상은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바로 오늘 밤,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평소의 통찰력이 다시 작동했다. 그는 이 가설이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편지는 세 통뿐이었다. 하지만 네 통이 나와야 마땅했다. 한 통은 정해진 날짜가 아닌, 열흘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도 루이스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날짜와 편지가 뒤섞인 이 복잡다단한 혼란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속에서 확실한 진실을 찾아낼 수 없었다.

상황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바로 그 문장이었다.

"폭발은 편지와 무관하다."

폭발은 5월 25일 밤부터 26일 밤 사이에 일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니 폭발은 바로 오늘 밤, 새벽 세시에 일어날 것이다!

"도와줘! 도와줘!" 그가 비명처럼 외쳤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감옥 깊은 곳에서 기적 같은 구원이 올까 기다려 온 용기가 있었지만,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형벌을 감수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청장 웨버와 마제루,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을 저주받은 운명에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와줘! 도와줘!"

삼사 시간 후, 공학자 포빌의 저택은 폭발할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편지가 제때 도착했듯이, 폭발도 정확히 지정된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저주받은 일의 지옥 같은 장인(장인)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새벽 세 시가 되면 저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도와줘! 도와줘!"

그는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가 돌벽과 나무 벽지를 뚫어 밖까지 울려 퍼지도록 다시 힘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호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소리를 멈추고 오랫동안 귀를 기울였다.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완전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 순간, 끔찍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땀이 흠뻑 배었다.

만약 경비원들이 위층의 감시를 포기하고, 밤을 보내기 위해 지하실 방으로 물러났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벽돌을 하나 집어 들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현관 돌계단을 내리쳤다. 소리가 호텔 전체로 퍼져 나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즉시, 충격에 떨어진 석조 파편들이 눈사태처럼 그 위로 쏟아졌다. 그는 다시 쓰러졌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고요함. 압도적이고 냉혹한 고요함.

"도와줘! 도와줘!"

그의 비명은 자신을 짓누르는 벽 너머로 새어 나가지 않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상한 목구멍에서 새어 나오는 쉰 숨소리, 헐떡이는 신음소리만이 그의 목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말을 멈췄다. 온 신경을 집중해 들었다. 돌관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시신이 납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에 감싸여 있는 그 고요함을.

하지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완전히 고요했다. 그를 구하러 누군가 올 리도, 올 수 있는 곳도 없었다.

피렌체의 모습과 이름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가 구하겠다고 약속했던 마리안느의 일도 생각났다. 하지만 마리안느는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스통 소베랑과 마찬가지

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처럼, 그 역시 이 끔찍한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한 가지 사건이 그의 당혹감을 더 깊게 했다. 갑자기 어둠의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 켜둔 전등이 꺼진 것이다. 시각은 밤 열한 시였다.

현기증이 그를 어지럽혔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미 탁해진 공기가 폐부를 채웠다.

두뇌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듯했다. 마치 뇌리에 박힌 듯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언제나 피렌체의 아름다운 얼굴이거나, 마리아나의 창백한 시체였다.

환각 속에서 그는 마리아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빌 호텔이 폭발하는 굉음을 들었다. 그리고 경찰청장과 마제루가 찢어죽은 채로 쓰러진 광경을 목격했다.

혼미함이 그를 뒤덮었다. 그는 일종의 실신 상태에 빠졌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입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음절들이 새어 나왔다.

"피렌체… 마리아나… 마리아나…"

제12장

네 번째 신비한 편지! '마귀가 우편함에 넣고 마귀가 배달한다'는 신문 표현 그대로의 일이었다. 5월 25일 밤에서 26일로 넘어가는 밤이 다가오자, 대중의 흥분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였다.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이 호기심의 끓는 물을 한층 더 달궜다. 순식간에 세 가지 소식이 터져 나온 것이다. 소베랑이 체포되었고, 그의 공범인 플로랑스 르바서르가 도망쳤으며, 도니 루이스 페레나의 비서였던 그녀가 사라졌다. 게다가 페레나 자신도 설명할 수 없이 행방불명되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대며, 그를 아르센 뤼팽과 동일시하는 데 집착했다.

이제 승리는 확실해졌다.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거의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경찰은, 조금씩 입이 새기 시작했다.

어느 기자에게든 누설된 디테일들을 통해, 돈 루이스의 태도 변화는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사랑했고, 그것이 반란의 진짜 이유였다는 추측도 나왔다.

이 놀라운 인물이 벌이는 새로운 싸움은 사람들에게 감격과 전율을 안겨주었다.

그는 무엇을 하려던 걸까.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추행에서 구하고, 마리안느와 소베랑을 석방하려면, 그날 밤 중으로 개입해야 했다. 그는 무언가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해야 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의 보이지 않는 메신저를 잡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는 해명을 내놓아 세 공범자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다.

요컨대, 그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상황인가.

게다가 마리안느에 대한 소식은 좋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을 시도하는 계획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했고, 생타자르 병원 의사들도 그들의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돈 루이스 페레나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즉 네 번째 편지 발송 열흘 후엔 푸빌 공학자의 저택이 폭파될 것이라는 위협이 있었다. 이는 정말로 위압적인 경고였다. 적의 경고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는 아직 그 참사가 일어나기 열흘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 사건이 점점 더 음산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뮤엣과 오트이역을 거쳐 쉬셰 대로로 몰려갔다. 그들은 파리는 물론 교외와 지방에서도 달려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광경에 열광했다. 보고 싶었다.

저 멀리서나 볼 수 있었다. 경찰이 호텔 좌우 100미터 지점에 검문소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벽의 해자로 올라가려던 자들을 모두 밀어내며 엄중히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하늘은 우중충했다.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하얗게 빛나는 달빛이 간간이 구름 사이로 새어 나왔다. 번개가 치고, 먼 곳에서 천둥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이 짐승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벤치와 인도 위에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앉아 음식을 먹고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한밤중이 깊어갔지만,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지친 듯이 물러나갈까 말까 고민했다. 사베랑이 감옥에 갇혔으니, 네 번째 편지가 다른 세 편지처럼 어둠 속에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 도 루이스 페레나가 곧 도착할 테니까.

저녁 열 시부터 경찰청장, 경찰청 사무총장, 안전부 장관, 차관 베버, 반장 마제루, 그리고 두 명의 형사가 살인 사건이 일어난 큰 방에

모여 있었다. 다른 방에는 열다섯 명의 형사가 배치되었고, 지붕과 정문, 정원을 지키는 경관도 스무 명 정도였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드말리옹 씨는 요원들에게 커피를 내렸다. 자신은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방 안을 끝에서 끝까지 오가며,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현관과 복도를 거닐었다.

감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그는 모든 문을 열어 둔 채, 전등불도 모두 밝게 켜두었다.

하지만 마제루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편지가 오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경감님, 어둠이 없을 때 시도해 봤자 편지가 오지 않았던 실패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시도해 봅시다."

드말리옹 씨가 대답했다. 그는 결국 도 루이스의 개입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조바심이 사람들을 뒤덮었다. 모두 싸움에 대비한 상태라, 고조된 에너지를 쓸 기회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안간힘을 다해 주변을 살폈다.

한때쯤, 한 차례 경보가 울렸다. 그들이 얼마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먼저 1층에서 총성이 났고, 이어 비명 소

리가 들려왔다. 확인해 보니, 순찰 중 마주친 두 순경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 한 명이 동료들에게 알리려 공중으로 총을 쏜 것이었다.

밖으로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 듯했다. 데말리옹 씨가 정원의 문을 살짝 열며 확인해 본 결과였다. 경비 규정이 다소 느슨해져, 구경꾼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인도 주변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었다.

마제루가 그에게 말했다.

"다행히 폭발은 오늘 밤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착한 시민들까지 모두 날아갔을 테니까요."

"열흘 뒤에는 폭발도 없고, 오늘 밤 편지도 없소." 데스말리옹 지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다행히도 그날에는 명령이 엄격할 것이오."

그때는 이미 두 시 십 분이었다.

두 시 이십 오 분, 경찰청장이 시가를 켜려던 순간, 안무국장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부터는 이거 좀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사님. 너무 위험하거든요."

"다음이라니." 데스말리옹 지사가 말했다. "다음부터는 경비 서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소. 솔직히 말해서, 이 편지 사건은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싶으니까."

마제루가 비꼼조로 끼어들었다.

"알고 있는 거야?"

몇 분 더 기다렸다. 데말리옹 씨가 자리에 앉았다. 다른 이들도 차례로 자리를 잡았다. 더 이상 말소리는 없었다.

그때였다.

모두가 동시에 자리에서 뛰어나갔다. 놀람이 고스란히 담긴 표정들이었다. 사이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소리가 났다.

말이 되는 일인가?

그 소리의 출처를 곧장 눈치챘다.

"전화기야." 데말리옹 씨가 속삭였다.

그는 이 현상에 깊은 놀라움을 느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학자 포빌의 저택에서 전화기가 작동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이 기기에 다가서려 할 때, 벨이 다시 울렸다. 그가 말했다.

"아마 경찰청일 거야. 긴급한 소식일지도 몰라."

세 번째 벨 소리.

그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전화가 끊길 듯 말 듯 이어졌다. 상대방 목소리는 너무 멀고도 약해서, 그는 희미한 소음만 들릴 뿐이었다.

"제발 크게 말해 주시오! 뭐라고요? 누구십니까?"

전화를 받은 쪽이 몇 마디 더듬거리자, 그는 깜짝 놀랐다.

"여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이번엔 또렷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도 루이스 페레냐입니다."

"뭐? 도 루이스… 페레냐?"

그는 즉시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 말고, 투덜거렸다.

"장난이군. 재미를 보는 녀석이로군."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다시 이어받았다. 성이 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대체 무슨 일이오? 당신도 도 루이스 페레냐요?"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몇 시입니까?"

총경이 화가 난 듯 손짓했다. 그 질문이 얼마나 터무니없어서라기보다, 그 목소리가 도니 루이스 페레냐 그 자신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그가 자제를_TRY하며 말했다. "또 무슨 새 사연이오? 당신은 어디에 있소?"

"제 호텔이에요. 철제 커튼 위, 서재 천장 속에요."

총경은 당황한 듯 되물었다.

"천장 속에?"

"네, 솔직히 좀 상해 있기는 합니다."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데말리옹 총경이 점점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나중에요, 총경님. 먼저 저에게 답해 주세요. 서둘러요. 안 그러면 힘이 다 빠져버릴지도 몰라요. 지금 몇 시죠?"

"아, 그렇지만…"

"부탁합니다."

"두 시 사십 분입니다."

"두 시 사십 분!"

도 루이스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뜻밖의 힘을 얻은 듯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조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절박하게, 간청하듯,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를 남에게도 강요하려는 확신에 차서 명령했다.

"떠나십시오, 총감님. 모두 떠나십시오. 이 호텔을 비우십시오. 세 시가 되면 이 호텔은 날아갈 겁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네 번째 편지를 받은 지 열흘째 되는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편지 배달이 열흘이나 늦어졌으니까요. 지금부터 세 시입니다. 오늘 아침 소위 베버 차장이 발견한 쪽지에 적힌 말을 기억하십니까. '폭발은 편지와 무관합니다. 새벽 세 시에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세 시, 총감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이 호텔 안에 남지 않게 하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실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모두 떠나십시오. 아,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모두 떠나십시오."

그는 더 많은 말을 했지만, 데말리옹 씨는 그중 단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통신이 끊겼다.

총감이 비명을 들었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마치 마이크가 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울리는 것처럼 말이다.

총감은 수신기를 내려놓았다.

"선생들, 지금 세 시 사십 분입니다. 열일곱 분 뒤, 우리는 날아오릅니다."

총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친구 돈 루이스 페레나의 말입니다."

그 위협에 대해 농담조 반응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소장 웨버가 물었다.

"정말 돈 루이스 맞습니까, 총감님?"

바로 그 사람이다. 호텔 구석진 구멍 속에 숨어 지내며, 극심한 기아와 피로 탓인지 정신이 조금 흐트러진 모양이다. 마제루, 가서 그를 붙

잡아라. 하지만 또다시 그의 함정일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 영장 가지고 있나?

마제루 병장이 데말리옹 경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경감님, 그 자들이 우리를 날려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다. 웨버가 셰익스피어 책에서 찾아낸 그 메모를 근거로 하고 있지. 폭발은 오늘 밤 일어난다."

"새벽 세 시에?"

"새벽 세 시다. 즉, 십오 분 뒤란 말이지."

"경감님, 여기서 계속 계실 건가요?"

"병장,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 자들의 제멋대로인 요구를 우리가 따를 줄로 아나?"

마제로우가 비틀거렸다. 망설였지만, 깊은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소리쳤다.

"총감님, 이건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저는 돈 루이스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가 어떤 말을 꺼냈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쁜 이유겠지."

"아닙니다, 총감님." 마제로우는 점점 더 흥분하며 애원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새벽 세 시에 그가 말했습니다. '호텔이 날아간다'고요. 우리는 몇 분밖에 없습니다. 제발, 떠나십시오."

"즉, 도망가는 거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총감님. 그냥 precaution(예방 조치)일 뿐입니다. 감히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습니다. 총감님 자신도…"

"够了(그만해)."

"하지만 총감님, 돈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는데…"

"충분해!" 데말리옹 지사가 날카로운 어조로 다시 말했다. "두렵다면 내가 내린 명령을 따르시오. 도 루이스 씨 댁으로 바로 가."

마제루는 발뒤꿈치를 딱 맞대고, 옛 군인의 손짓으로 경례를 했다.

"전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지사 각하."

그리고 몸을 돌려 구석으로 가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침묵이 흘렀다. 데말리옹 지사는 등을 뒤로 깎고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곤 단속국장과 사무총을 향해 물었다.

"자,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물론입니다, 지사 각하."

"그렇죠? 우선 그 추측은 근거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경호를 받고 있잖아요. 폭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던져야 하는 법이죠. 어떻게? 어디서?"

"우편물과 같은 경로로요." 총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뭐? 그럼 인정하시는 건가요?"

총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데말리옹 씨도 문장을 끝마치지 못했다. 그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고통스럽고 거의 견딜 수 없게 되는 불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세 시!'

이 짧은 문구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두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십이 분이나 남았다. 이제 십 분이다. 정말로, 지옥 같은 강력한 의지의 작용으로 인해 이 호텔은 폭발할 것인가?

"바보 같은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

그가 발을 구르며 외쳤다.

하지만 동료들을 둘러본 순간, 그는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 한복판에서 심장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수석에서 하급 요원까지, 모두 도 루이스 페레나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서 놀라운 업적을 보았고, 어둠이 깔린 이 모험에서 놀랄 만큼 뛰어난 재주로 길을 인도하는 그를 지켜보았다.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를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초인적인 용기와 천재성, 그리고 예지력으로 가득한 전설적인 아르센 뤼팽이 떠올랐다.

그리고 도망치라고 한 사람은 바로 뤼팽이었다. 쫓기고 쫓기며, 그는 스스로를 잡혀 감으로써 그들에게 위험을 알린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은 눈앞에 닥쳐 있었다. 단 일곱 분, 여섯 분만 지나면 호텔은 공중으로 날아갈 터였다.

마제루는 매우 평범하게 무릎을 꿇고, 십자 성호를 그으며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외기 시작했다. 그 제스처는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총무국장과 경무국장은 경찰청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불안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말들이 귀속을 맴돌았다. 페르나의 권위, 그의 간절한 호소, 그리고 절박한 확신. 그 모든 것이 그를 흔들었다. 그는 페르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인물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떠나자."

그가 말한 어조는 가장 차분했다. 그 말을 듣는 이들은 그것을 매우 평범한 상황의 합리적인 결론으로 여겼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혼란도 없었다.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중함이라는 의무를 따르는 남자들처럼 행동하며 자리를 떴다.

문턱에서 그들은 경찰청장 앞에서 몸을 피웠다.

"아니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전등을 켜 둔 채 마지막으로 방을 나섰다.

현관에서 그는 안전부장을 불렀다.

"휘파람을 불어 모든 요원을 소집하십시오."

모든 경찰이 모이자, 그는 그들과 경비원을 함께 호텔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는 문 뒤에서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는 대로변을 순찰하던 경찰들을 불렀다.

"모두 물러서십시오. 군중을 최대한 멀리, 그리고 빠르게 밀어내십시오. 알겠지요?"

"15분 뒤면 우리는 다시 이 호텔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제루가 속삭였다.

"청장님, 혹시 당신은 남으시지 않죠?"

"아니요, 전혀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만약 우리 친구 페렌나의 조언을 듣는다면, 저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틀만 남았어요."

"우리 친구 페렌나는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안전부 국장과 비서, 그리고 마제루와 함께 대로 너머를 가로질러 반대편 제방을 올랐다.

"아마도 몸을 낮춰야 할 것 같군요." 마제루가 재촉했다.

"그렇죠." 총경은 여전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제 머리에 총을 쏴버릴 겁니다. 이렇게까지 굴욕을 당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폭발할 겁니다, 총경님." 마제루가 단언했다.

"우리 친구 도 루이스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시죠."

"당신도 믿음이 똑같군요, 총감."

그들은 말을 멈췄다. 기다림에 긴장한 나머지, 가슴을 조이는 불안함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하나, 자신의 심장 박동으로 초를 세었다.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어딘가에서 세 시가 울렸다.

"보시오, 데말리옹 씨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보시오, 아무 일도 없을 거요… 신께 감사할 일이지!"

그는 투덜거렸다.

"바보 같은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

또 다른 시계가 울렸다. 더 멀리서였다. 이어 근처 호텔 꼭대기에서도 같은 시간이 울려 퍼졌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기 직전, 그들은 쩍 하는 파열음을 들었다. 그리고 곧장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은 장엄했고,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으며, 너무도 짧아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그들은 거대한 불꽃과 연기의 기둥, 그리고 그 속에서 날아오르는 커다란 돌조각들과 벽돌 부스러기들, 마치 거대한 폭죽놀이의 마지막 마당처럼 보이는 광경만을 스쳐 지나가는 듯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화산이 분출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청장이 소리치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전화기 쓰세요! 소방차를 빨리 불러요…"

그는 마제루의 팔을 꽉 잡았다.

"저기 백 미터쯤 떨어진 제 차까지 달려가세요. 운전기사에게 돈 루이스 씨 댁으로 가라고 하세요. 만약 그를 발견하면 구출해서 여기로 데려오세요."

"체포영장을 발부하라는 말씀입니까, 청장님?"

"체포영장? 너 미쳤나?"

"하지만 웨버 차장님이…"

"베버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겠지. 내가 알아서 하겠어. 얼른 가."

마제루는 이 임무를 수행했다. 도 루이스를 체포하러 갈 때보다 더 급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가 '보스'라 부르며 끝까지 쫓아다녔던 자와의 싸움은 그를 너무나도 괴롭혔다. 그 고통은 때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떨어뜨리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조력자, 아니 구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어, 데말리옹 씨의 지시에 따라 호텔 안을 더 이상 뒤지는 것을 포기했다. 도니 루이스의 탈출이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장은 경계 요원으로 삼 명만 남겨두었다.

마제루는 그들을 1층의 한 방에서 만났다. 그들은 교대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마제루가 묻자,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마제루는 혼자 위층으로 올랐다. 상사와의 면담에 목격자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그는 살롱을 지나 작업실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불안에 휩싸였다. 전등을 켜고 첫눈에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여러 번 불렀다.

"사장님, 어디 계신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제루는 생각했다. '만약 전화를 걸었다면, 여기서 걸었을 거야.'

그는 멀리서도 수신기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부스 안으로 다가가려니, 바닥에 널브러진 벽돌과 석고 조각에 발이 채였다.

그제야 그는 부스 안을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천장 아래로 한쪽 팔이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팔 주변 천장은 찢겨 나간 듯했다. 하지만 어깨는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없었고, 갇힌 사람의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마제루는 의자에 올라 팔에 닿는 손길을 더듬었다. 그 포근한 온기가 그를 안심시켰다.

"마제루? 당신 맞나요?"

형사에게 그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네, 저입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죠? 큰일 아니죠?"

"아니, 그냥 어지럽고 좀 기운이 빠졌을 뿐이야. 배가 고파서 그래. 내 말 들어봐."

"네, 듣고 있습니다."

"서랍장 왼쪽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봐. 거기……"

"무엇이 있죠, 상사?"

"낡은 초콜릿 한 조각."

"일단 가져오세요, 알렉상드르. 배가 고파 죽겠어요."

사실 그 말을 듣고 나서, 돈 루이스는 기운이 돌아 더 밝은 어조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 좀 기다릴게. 부엌으로 가서 빵과 물을 가져와."

"곧 돌아올게요, 상사."

"바로 오지 마. 플로랑스 르바쇠르의 방을 지나, 위쪽 구멍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 돌아와."

그리고 그는 돌을 밀어내어 그물 같은 통로로 들어가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십 분도 채 안 되어 일은 끝났다. 마제루가 구멍을 파헤치고, 돈 루이스의 다리를 잡아당겨 그의 굴 밖으로 끌어냈다.

"아니, 정말로, 사장님." 그가 동정 어린 탄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떤 처지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걸 계산하셨나요? 네, 제가 눈앞에서 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배를 바닥에 붙이고 앞장만 파셨겠죠. 그리고 또 파셨을 테고…… 깊이는 일 미터는 족히 넘어갔겠네요. 배가 고팠을 텐데,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돈 루이가 자신의 방에 자리 잡고, 빵 두세 조각을 뱃속에 채우고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말 대담하군, 친구. 천만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것이 아닐 때는, 정말로 말이지만,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야. 하지만 난 열심히 파냈어. 네가 보았듯이, 반쯤 잠든 듯, 악몽 속처럼. 봐, 내 손가락이 다 으스러졌어. 그런데 문제는, 그 끔찍한 폭발 사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는 거야. 어쨌든 너희를 경고해야겠다고, 그래서 난 터널을 파냈지! 정말 고역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허공이 느껴졌어. 내 손이, 그리고 팔이 뚫린 거야. 내가 어디에 있나? 당연하지, 전화기 바로 위였지. 벽을 더듬다가 전선을 만지면서 바로 깨달았어. 그러자 반 시간쯤 걸린 복잡한 작업이 시작됐지. 팔이 너무 짧아서 전화기까지 닿지 않았거든. 끈과 올가미를 이용해 수신기를 낚아 올려 입가까이, 아니 정확히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가져다 댔지. 그리고 소리쳤어. 들리게! 비명을 지른 거야!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결국,

끈이 끊어졌고… 그리고… 그리고 난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어. 어쨌든, 너희는 이미 경고받았잖아. 너희가 알아서 해."

그는 머리를 들어 마제루를 바라보며, 대답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물었다.

"폭발이 일어났지?"

"네, 사장님."

"정확히 세 시에?"

"그렇습니다. 물론 데스말리옹 씨가 호텔을 비웠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돈 루이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가 끝까지 저항할 줄 알았네.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굴복하겠지. 고마워, 마제루.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당황했을 거야. 하지만 네가 처음부터 내 편이었잖아."

그는 말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먹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평소의 활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배고픔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군. 사람 마음을 얼마나 뒤집어놓는지 모르지. 하지만 걱정 마. 금고는 든든하고 여력도 남아 있어. 반 시간

만 지나면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이제 목욕하고 면도나 하고."

청소를 마친 그는 마제루가 준비해 준 계란과 차가운 고기 요리 앞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제 떠날까?"

"하지만 서둘 필요 없습니다, 보스. 몇 시간이라도 자시고 기다리세요. 총감도 기다릴 테니까요."

"너 미쳤나? 마리아느 포빌과 소베랑을 감옥에 그대로 둘 생각인가? 단 한 초도 아까워할 수 없소, 친구."

마제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장님, 아직 머리가 완전히 맑은 것 같진 않군. 마리아나와 소베랑을 마법 지팡이 한 번 휘두르듯 그냥 풀어주다니. 좀 지나치잖아.'

그는 기분이 다시 좋아진 페레나를 데리고 있었다. 페레나는 상쾌하고 활기차 보였다. 마치 방금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정도로 피로가 싹 사라진 듯했다. 마제루는 그를 데리고 총독의 자동차까지 모셨다.

"내 자존심을 너무도 어루만져 주시는군요." 뤼팽이 마제루에게 말했다. "내 전화 한 통으로 총장이 주저하더니,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하더군요. 내가 이 모든 분들을 얼마나 손아귀에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비'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요."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지옥 끝에서 전화가 온 거야. 경계하라고!"

"오후 세 시에 폭탄이 터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거는요?"

"증거라니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것이 증거입니다."

"아,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오후 세 시 오 분 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

아, 내가 만약 겸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수셰 대로에 도착했다. 인파가 너무 빽빽해서 그들은 발을 내려놓아야 했다.

마제루는 호텔 주변을 막고 있던 경찰들의 줄을 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돈 루이스를 반대쪽 비탈로 안내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보스. 제가 경찰청장에 알리러 가겠습니다."

마침내, 희미한 아침 하늘 아래, 아직 검은 구름이 떠다니는 곳에서도 루이스는 폭발의 피해를 목격했다. 그 피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겉보기에 훨씬 덜했다.

몇몇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들은 창문의 커다란 구멍을 통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택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심지어 엔지니어 포빌의 별채는 오히려 조금만 손상을 입은 듯했다.

이상하게도, 경찰청장이 떠날 때 켜두었던 전기가 꺼지지 않았다. 정원은 물론 보도 위에도 가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병사와 형사들이 경계하고 있었다.

"따라오십시오, 사장님."

마제루가 돌아와 도 루이스를 찾아가 엔지니어의 사무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바닥의 일부는 이미 부수어진 상태였다. 안마당 쪽을 향한 왼쪽 외벽은 무너졌고, 천장을 지탱하기 위해 두 명의 작업자가 근처 공사장에서 가져온 목재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폭발은 준비한 자의 기대만큼 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데스말리옹 씨가 그곳에 있었고, 그 방에서 밤을 보낸 모든 사람들과 경찰 검찰청의 주요 인물들이 함께했다. 다만 수석 Weber는 방금 떠났다. 그는 자신의 적과 마주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도 루이스의 등장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총경은 즉시 그를 향해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각하. 각하의 통찰력은 그 어떤 찬사보다도 높습니다. 각하 덕분에 우리 모두, 그리고 저까지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이를 가장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각하를 감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총감님." 돈 루이가 말을 이었다. "저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임무라니요?"

"네, 총감님. 제가 오늘 밤에 한 일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완수는 마리에안 포빌과 가스통 소베랑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데말리옹 각하는 미소를 지었다.

"오호, 오호!"

"너무 큰 소리를 드리는 건가요, 총감님?"

"소리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결정하는 것은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그들의 무죄를 입증한다면, 총감님께서 그들을 미리 알리실지는 전적으로 총감님의 재량입니다."

"음, 그렇군. 만약 그 증거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면 말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말이지…"

그동안과 비교해 훨씬 더 강렬했던 도 루이스의 자신감은 데스말리옹 총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총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간단히 조사한 결과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폭탄은 이 대기실 입구에 설치되었고, 아마도 바닥 판자 바로 아래에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총감님. 그것은 부수적인 세부 사항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총감님께서 전체 진실을, 단순히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느껴보시는 것입니다."

총경이 그에게 다가가며 다가섰다. 법관들과 형사들이 그를 에워쌌다. 이미 이루어진 연행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진리는 여전히 멀고도 희미했다. 그런데도 모두의 시선이 그의 말과 행동에 고정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

시간은 중차대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여들었다. 돈 루이스가 폭탄 폭발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끔찍한 참사에서 사람들을 구해냈고, 그런 인물이 내놓는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조차 현실로 받아들이기 쉬웠다.

그가 입을 열었다.

"총감님, 오늘 밤 네 번째의 수수께끼 편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셨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명의 기적처럼, 바로 그 네 번째 편지가 도착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손이 바로 하나임을,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마제루에게 말을 돌렸다.

"병장, 이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 주시오. 셔터가 없다면 커튼을 닫고 문짝도 닫아 주게."

총감에게 다시 물었다.

"총감님, 여기 전등이 켜져 있는 것도 우연인가요?"

"네, 우연입니다. 곧 끌 예정이오."

"잠깐만요."

촛대에 놓인 촛대를 하나 들어 올렸다. 그는 그것을 켠 뒤, 스위치를 껐다.

방 안은 반쯤 어두워졌다. 바람이 불어와 초불꽃이 흔들리자, 빛이 깜빡거렸다. 도 루이스는 손바닥으로 바람을 막아 초를 보호한 뒤, 책상 쪽으로 다가섰다.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제 계산으로는 몇 초만 지나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침묵이 깨지지 않은 그 몇 초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데스말리옹 씨는 이후 인터뷰에서, 밤새도록 쌓인 피로와 그 극적인 상황 때문에 뇌가 과도하게 흥분해 온갖 기이한 상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호텔 침입이나 강도 사건이 벌어질까 봐 전전긍긍했고, 심지어 귀신이나 망령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그는 스스로를 비꼬듯, 그 상황을 매우 날카롭게 묘사했다.

하지만 그는 도네 루이스를 관찰해 보고 싶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힌 도네 루이스는 딴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한 조각의 빵을 먹고, 초콜릿 바를 바삭바삭 씹고 있었다. 배가 고픈 듯했지만, 태도는 매우 평온했다.

다른 이들은 극한의 신체적 노력 속에서 보이는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얼굴 근육이 수축된 듯 한 번 찡그린 표정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다가올 상황에 대한 예감보다, 과거의 폭발 기억에 더 사로잡혀 있었다. 벽면에는 불꽃이 그림자를 그렸다.

don 루이스 페레나가 말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서른에서 마흔 초쯤 되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페레나는 손에 든 촛대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야."

그와 거의 동시에, 모두들 무언가를 보았다. 천장에서 한 장의 편지가 내려오고 있었다. 편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낙엽처럼 천천히 회전했다. 편지는 don 루이스의 옷자락을 스치며 바닥으로 내려와, 식탁 다리 두 개 사이에 떨어졌다.

돈 루이스는 종이를 주워 데말리옹 경에게 건네며 다시금 말했다.

"경감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 도착할 네 번째 편지입니다."

제13장

데말리옹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페레나가 말했다.

"거기에 환상 같은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이 편지를 던진 것도 아니고, 천장에는 구멍 하나 없죠. 하지만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 정말 간단하다니!" 데말리옹 씨가 말했다.

"네, 총감님. 다분히 마술사의 실험처럼, 지나치게 복잡하게, 그리고 거의 장난처럼 꾸며져 있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 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비극적입니다."

페레나가 계속했다.

"마제루 병장, 커튼을 열어 주시오.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들여보내 주게."

마제루가 명령을 수행하는 사이, 데말리옹 씨는 네 번째 편지를 흘끗 훑어보았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고, 앞서 읽은 편지들의 내용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루이스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들어 올렸다. 작업자들이 그대로 두고 간 것이었다. 그는 그 사다리를 방 한가운데 세우고는 올라탔다.

상단 난간 위에 양반차로 앉아 그는 전기 장치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그것은 황동 띠로 된 큰 원반 모양의 샹들리에였다. 그 아래로는 수정으로 된 장식품들이 얽혀 늘어져 있었다. 세 개의 전구가 안쪽에 있었는데, 전선을 숨긴 황동 삼각형의 세 꼭짓점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전선을 풀어내고 잘라냈다. 그러고는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형사들이 건네준 망치로 등불을 고정하는 철제 못 주변 벽지를 모두 뜯어내야 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가 마제루에게 말했다.

마제루가 사다리를 올랐다. 두 사람은 함께 등불을 잡아들여 기둥을 따라 미끄러지게 했다. 그리고 몇 번의 삽질 끝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등불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기 때문이다.

처음 살펴보니, 등불 위에는 한 변이 20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의 금속 상자가 올려져 있었다. 이 상자는 철제 못 사이에 끼어 천장 안쪽으로 파묻혀 있었고, 그 때문에 돈 루이스는 상자를 가리고 있던 벽지를 뜯어내야만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오?" 데말리옹 경감이 소리쳤다.

"경감님, 직접 여보세요. 뚜껑이 있답니다." 페레나가 답했다.

데말리옹 경감이 뚜껑을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톱니바퀴와 용수철, 그리고 시계 기계처럼 정교하고 복잡한 장치가 들어 있었다.

"경감님, 잠시만요." 돈 루이스가 말했다.

그는 장치를 꺼내자, 그 아래 또 다른 장치가 드러났다. 첫 번째 장치와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장치는 인쇄된 종이를 한 장씩 내밀어 주는 자동 기계와 더 비슷해 보였다.

상자의 가장 깊은 곳, 금속판에는 반원 모양의 홈이 파여 있었다. 그 위치는 상자의 바닥이 천장에 닿는 정중앙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홈 가장자리에는 편지 한 장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발의 연쇄가 이어지는 글이죠." 도 루이가 말했다. "총감님, 처음에 설치된 샹들리에에는 중앙에 전구 네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샹들리에를 편지함으로 개조할 때, 편지가 지나갈 공간을 마련하려고 중앙 전구를 빼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설명을 계속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따라서 편지들은 모두 그 바닥에 놓여 있었죠. 한 장씩, 정교한 장치가 시계 메커니즘의 명령을 받아, 정해진 시각에 편지를 집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등불과 샹들리에 장식품 사이에 숨겨진 홈 가장자리로 밀어 넣은 뒤, 공중으로 던져버렸죠."

돈 루이스 주변은 고요해졌다. 청중들 사이에는 실망감이 감돌았을 것이다. 물론 장치들은 매우 정교했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트릭이나 메커니즘의 발동보다 더 놀라운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诸位. 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좋소." 경찰청장이 말했다. "편지가 시작된 장소라니, 그건 인정하지. 하지만 의문점이 아직 많이 남았어. 특히 하나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 샹들리에를 저렇게 설치했는지 말이오. 그리고 경찰이 지키는 호텔, 밤낮없이 감시하는 방에서, 어떻게 눈치도 채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않고 저런 작업을 해냈다는 거요?"

"답은 간단합니다, 청장님. 그 작업은 경찰이 호텔을 지키기 전에 이미 끝났거든요."

"즉,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소?"

"청장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말씀이나 하십시오!" 데말리옹이 성내며 소리쳤다. "중요한 사실을 밝히려는 거라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숨기시나요?"

"총감님, 진리는 제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편지의 비밀을 아는 이상,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 그 흉악한 범행이 불러일으킨 경악이 그를 향한 모든 의심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범인을 지목했을 겁니다."

데말리옹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페렌나가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의 무게를 절감했고, 그는 진정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씀대로, 오스발드 포빌과 가스통 소베랑을 누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만으로 그 편지가 놓여진 것입니까?"

"네, 총감님."

그들이 그 물건을 범행 전에 미리 넣어뒀다면, 그건 음모가 범행 전에 이미 꾸며졌다는 뜻인가?

"네, 총감님. 범행 이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프오빌과 가스통 소베랑의 무죄를 인정한다면, 그들이 모두의 의심을 받는 이유도 결국 의도적인 사주와 계략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범행 당일 밤 프오빌이 집을 나선 것, 그건 계략입니다. 범행이 자행되는 동안 그의 행적을 대지 못한 것도 계략입니다. 무에트 쪽으로 이어진 그의 불가해한 산책과,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서 소베랑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모두 계략입니다."

"사과 주위에 남은 이빨 자국, 그것도 바로 프오빌의 이빨 자국. 이보다 더 악랄한 계략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어 준비되었죠. 정밀하게 계산되고, 라벨이 붙여지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각 사건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제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숙련된 장인이 만들었을 법한, 정교한 조립품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어떤 힘도 이를 어지럽힐 수 없을 만큼 견고했고, 그 메커니즘은 오늘까지 정확하고도 흔들림 없이 작동해 왔습니다."

"상테 형무소 금고 속에 들어 있는 이 시계 기계처럼 말입니다. 이 시계는 이 사건의 가장 완벽한 상징이자,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범

행이 일어나기 전, 용의자들을 고발하는 편지가 이미 우체통에 넣어졌고, 그 후 우편 수거도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이루어졌으니까요."

데말리옹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반박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쓴 편지들 속에서, 오빌 씨가 아내를 비난하고 있군요."

"물론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받아들여야 해. 그가 아내를 비난한 것이 옳았거나, 아니면 그 편지들이 위조된 것이거나."

"편지는 위조된 게 아니야. 모든 전문가들이 오빌 씨의 필적이라고 인정했거든."

"그럼 대체?"

"그렇다면…"

돈 루이스는 대답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데말리옹 씨는 그 순간, 자신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진리의 숨결을 더 선명하게 느꼈다.

다른 이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초조하게 침묵을 지켰다. 데말리옹 씨는 중얼거렸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총감님. 이해가 가시죠? 이 편지들이 푸아빌 씨와 가스통 소베랑 씨를 조종한 음모의 일부라면, 그 내용은 두 사람을 몰락시키도록 미리 짜여졌을 거라는 뜻입니다."

"뭐? 뭐라고? 대체 무슨 소리야?"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두 분이 무죄라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음모의 소산일 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경찰 총감은 자신의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루이스 경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범인이 누구든, 이런 증오의 소산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총감님, 그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페레나는 차츰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말했다. "그리고 사베랑의 고백을 아직 모르시는 당신은 그 증오의 강도를 아직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남자를 듣는 순간, 그 증오의 깊이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모든 생각은 그 증오의 핵심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마리아나와 사베랑은 어떤 저주에 희생된 걸까? 그 두 희생자를 강력한 사슬로 묶어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은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나를 괴롭혀 온 생각이었다. 마제로우 부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은 편지가 나타나는 방식이, 말하자면 수학적으로 정확했다는 점이었다.

이토록 중대한 증거들이 일정한 날짜에 꾸준히 제출되는 것을 보면, 그 날짜의 고정성이 꼭 필요했을 만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면, 오히려 날짜는 제멋대로였을 것이다. 특히 사법 당국이 이 사건을 맡고 편지 배달 상황을 지켜본 이후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편지는 계속 날아들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그때서야 나는 서서히 진실을 깨달았다. 편지는 기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치에 의해 배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장치는 한 번 설정되면 물리 법칙처럼 냉정하고도 어리석은 정확성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인간의 지능이나 의지가 개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단순한 물질적 필요성에 불과했다.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한 순간, 작은 불씨가 튀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쫓아낸 증오의 생각과, 그 증오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동원된 기

계적 힘의 생각. 이 두 생각이 서로 맞닿아 제 머릿속에서 결합했고, 그 결과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폴트 포빌이 기술자였다는 사실이요."

그는 경청하는 이들을 향해 말했다. 듣는 사람들은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사건이 조금씩 실체로 드러날수록, 오히려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조되고 있었다.

데말리옹씨가 반박했다.

"편지가 명시된 날짜에 도착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번 도착 시간이 달랐다는 점은 어떻습니까?"

"즉, 감시가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변화가 달랐습니다. 바로 그 디테일이 수수께끼의 열쇠가 되어주었죠.

편지는 필수적인 precaution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오직 어둠을 틈타 도착했다는 것은, 전등이 켜져 있을 때는 어떤 장치가 편지의 통과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필연적으로 방 안에 있는 스위치로 조절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동 배분 장치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죠. 이 장치는 시계 장치의 움직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밤의 특정 시간대에만 고발 편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전등이 꺼진 특정 분에만요.

이제 그 장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기교에 감탄하고, 제 주장을 확증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치가 이 방 천장에서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오자빌 씨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말입니다. 이 장치는 전기 기술자이자 오자빌 씨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미스터 포빌이라는 이름이 집착처럼 되살아났다. 매번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의미는 더 뚜렷해졌다.

먼저 미스터 포빌. 그다음엔 포빌, 기술자. 그리고 포빌, 전기 기술자.

이렇게 '증오자'의 모습이, 돈 루이가 말한 대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가장 기이한 범죄의 왜곡도 익숙한 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공포의 전율을 느꼈다.

진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빙빙 돌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목을 조르고, 결국은 쓰러뜨리는 그런 적과.

경찰청장은 그 느낌을 요약하며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즉, 포빌 씨는 아내를 파멸시키고, 아내를 사랑하던 남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다면…"

"그런다면요?"

"반면에 자신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만약 그 위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아내와 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갚아주려던 자신의 증오를 풀기 위해, 자신에게 가해질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그들을 단정지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묶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다는 뜻입니다… 포빌 씨는 저주받은 자신의 계획 중 일부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살해자의 공범이 된 셈이죠. 그는 죽음 앞에서는 떨고 있었습니다… 몸부림도 쳤죠.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증오를 채울 수 있도록 상황을 조종했던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총감님. 지금 총감님이 밟고 계신 발자국은 제가 걸어온 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마지막 진리 앞에서 주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이 비극에 끔찍하고 인간을 초월한 무게를 더하죠."

경찰청장은 갑자기 분노에 휩싸인 듯, 두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말도 안 돼! 터무니없는 추측이야."

그가 외쳤다.

"푸빌 씨가 죽음을 위협받으면서도, 아내의 파멸과 이런 마키아벨리식 끈기를 결합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방에 찾아온 사람, 당신이 본 그 남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죽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죠.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순간에 기계를 맞추고 함정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그 함정은 자신이 살해당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면요."

"푸빌 씨가 시계를 고치고, 세 달 전에 친구에게 써서 가로챈 편지들을 직접 배치하며, 아내를 유죄로 보이도록 사건을 조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살해당했을 때를 대비해. 나는 안심이다. 마리아나를 체포하면 되니까.'"

"아니, 인정하세요. 이런 음산한 준비는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반드시 살해당할 것을 확신하는 경우뿐이죠. 즉, 살해당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인자와 내통하고 목을 내미는 격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는 말을 멈췄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자신이 놀란 듯했다. 다른 이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들은 모른 채로, 그 말들이 암시하는 결론을 모두 추론하고 있었다.

돈 루이스는 여전히 총경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필연적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데말리옹 총경이 중얼거렸다.

"자, 그가 동의했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총경님, 그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일 뿐입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가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드리려 한 말입니다. 그 가설이 맞고, 마리안느 포빌의 무죄를 믿으려면, 포빌 씨가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에 가담했다는, 전례 없는 상상을 해야 하거든요. 웃기는 일이죠."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고, 속이 빈 소리였다.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빌 씨는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에 가담한 셈이 됩니다."

그는 가장 평온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너무도 단호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상대방들을 추리와 추측의 강요에 내몰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골목길 끝에 서 있었다. 거기서 뒤로 물러나려 들면, 피할 수 없는 반박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프아빌 씨의 관여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이 처참한 살인과 집행의 비극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그의 생명을 바치는 결과로 이어진 그 역할은,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억지로 당한 것이었을까? 결국 그를 동조자로 삼았거나, 혹은 그를 처형자로 만든 이는 누구였는가?

데말리옹 씨와 참석자들의 머릿속엔 온갖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 의문들을 풀어내는 일만이 남았다. 돈 루이스는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이 이미 받아들여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반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듯 간결하게, 핵심 사항만 짚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 세 달 전, 오빌 씨는 친구인랑르노 씨에게 연달아 편지를 썼습니다. 마제루 병장이 말씀드렸듯이, 랑르노 씨는 이미 몇 해 전에 죽었습니다. 오빌 씨는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편지는 우편함에 넣었지만, 중간에 가로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 필요는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오빌 씨는 우표와 주소를 지우고, 편지를 특별한 기

계에 넣었습니다. 그 기계는 오빌 씨가 직접 조절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오빌 씨가 죽은 지 열하루 후에, 그다음 편지는 열흘 간격으로 발송되도록 말입니다. 이때쯤이면 그의 계획은 사소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짜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빌 씨는 소베랑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소베랑의 행동을 어떻게 감시해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라이벌이 매주 수요일 밤, 호텔 창문 밑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안느 오빌이 그 때마다 창가에 나타났다는 것도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저는 큰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도 이 사실이 물증만큼이나 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매주 수요일 밤, 소베랑은 호텔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빌 씨가 계획한 살해가 바로 수요일 밤에 자행되었다는 점. 둘째, 그날 밤 오빌 씨가 극장에 가고, 에르징거 백작의 연회에 참석하러 나간 것은, 바로 남편의 명시적인 요구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도 루이스는 잠시 멈춰 섰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결과, 그 수요일 아침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운명적인 시계는 다시 감겨 있었고, 유죄를 입증하는 기계는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Fauville가 미리 준비해 둔 증거들은 곧바로 드러날 증거들을 뒷받침할 터였다.

게다가 당신은, 총경 각하,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서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음모를 고발했고, 내일 아침, 즉 그가 죽은 후에 당신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했다.

결국 모든 것이 '증오하는 자'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당신이 지명한 Inspector Vérot가 등장한 것이다. 그는 Cosmo Mornington의 상속인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파견된 형사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죽었고, 그들의 비밀은 다시는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확언할 수 있다. 첫째, Inspector Vérot가 이곳에 왔고, 그곳에서 호랑이 이빨이 처음으로 찍혀 나온 초콜릿 한 장을 가져왔다는 사실. 둘째, 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Fauville의 계획을 알아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Inspector Vérot가 직접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을 얼마나 절박한 어조로 했는지! 그는 그 덕분에 다음 밤에 범죄가 저질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발견 내용을 편지에 적어두었는데, 그 편지는 훔쳐졌다.

이 모든 것을 Engineer Fauville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독살했다.

독이 느리게 작용하자, 그는 대담하게도 Gaston Sauverand처럼 보이는 가면을 쓰고 그를 쫓아갔다. 그 가면은 언젠가 Sauverand에게 혐의가 돌아가게 할 용도였다.

그는 Inspector Vérot를 Pont-Neuf 카페까지 따라가, 그가 당신에게 쓰던 설명 편지를 훔쳤다. 그리고 빈 종이로 바꿔 넣은 뒤, 지나가던 행인에게 Neuilly로 가는 지하철 길을 물었다. Sauverand이 살고 있는 Neuilly로 가는 길을 말이다.

이것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총경 각하.

도 루이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그 말에 불을 붙였다. 그의 논리는 치밀했고, 엄격했다. 마치 현실 그 자체를 소환해 내는 듯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바로 그 남자입니다, 총감님. 바로 그 강도죠."

그가 처했던 상황과 베로 형사가 입을 열었을 때의 공포를 생각하면, 그는 저지르려던 끔찍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경찰청을 찾아갔다. 피해자가 정말로 죽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고발할 기회가 없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총감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 인물의 동요와 공포를요.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총감님. 제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일 저를 죽일 것입니다."

내일, 맞습니다. 그는 내일을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녁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경찰은 이미 완성된 살인 사건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는 이미 두 피고인, 특히 마리아나 포빌을 향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쌓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녀를 미리 죄인으로 지목했던 셈이죠.

"그게 바로 마제로 소위와 내가 저녁 아홉 시에 그 호텔의 그를 찾아갔을 때, 그가 왜 그렇게 당황해했는지 이유야. 그 침입자들은 누구였을까? 그의 계획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하지만 그는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켰고, 우리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굴복했다. 결국 그에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의 조치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감시도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심지어 눈치채게도 하지 못했다. 일어날 일은 우리 눈앞에서, 하지만 우리의 몰락 속에서 일어날 뿐이었다. 그가 부른 죽음은 제 역할을 다할 것이었다."

그리고 비극적인 코미디가 막을 올렸다.

그는 푸빌을 오페라 극장으로 보냈고, 푸빌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이어 하인이 그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중에는 사과가 가득 담긴 컴포티어도 있었다.

그다음은 격분과 공포의 순간이었다. 죽어가는 남자가 느끼는 절박함과,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거짓말투성이의 한 장면이었다. 그는 자신의 금고를 보여주고, 음모의 기록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던 회색 노트를 내보였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끝이 났다. 마제루와 나는 안방으로 물러나 문을 닫았고, 오직 포빌만 혼자 남아서 마음껏 행동할 수 있었다. 그의 의지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 열한 시가 되면, 포빌은 오페라극장을 떠났다. 그는 먼저 드르싱거 백작의 저녁 모임에 가기 전, 호텔 근처를 한 시간 정도 거닐었다. 그날 낮에 그는 소베랑의 필체를 모방해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받는 즉시 찢어 버리는 것이 관례였다. 편지 내용은 소베랑이 불쌍한 여인에게 라네라그에서 만나자는 청을 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그로부터 오백 미터 떨어진 반대쪽에서는 소베랑이 수요일마다 하던 순례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사이 살인 사건은 저질러졌다.

두 사람 모두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 포빌의 암시와 뤼네프 카페의 사건 때문이었다. 게다가 둘 다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도, 호텔 근처에 있던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었다. 이토록 명백한 상황인데도, 그들이 살인죄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리가 없었다.

만약 운이 좋아 그들이 살아남는다 해도, 버릴 수 없는 증거가 손끝에 닿는 곳에 있었다. 오빌 부인이 직접 놓아둔, 마리아나나 오빌의 이빨이 박힌 사과가 바로 그 증거였다.

그리고 몇 주 뒤,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왔다. 열흘마다 한 번씩, 신비로운 편지들이 도착한 것이다. 고발장들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악마처럼 냉철한 계산으로 사소한 디테일까지 모두 준비되었죠. 총독 각하, 제 반지에서 떨어져 상자에 들어갔던 터키석이 다시 발견된 일 기억하시죠? 그걸 볼 수 있고 주울 수 있었던 사람은 네 명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포빌 씨였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에게 의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빌 씨는 제가 범인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가 위험한 개입을 하기 전에 미리 막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터키석을 금고에 넣어둔 것이 바로 그였죠.

이번 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운명이 실현될 차례입니다. '증오하는 자'와 그의 먹이 사이에는 한 번의 손짓 거리밖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손짓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포빌 씨는 죽습니다."

도 루이스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말 뒤로 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방금 끝낸 기이한 이야기들이 청중들로부터 가장 절대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믿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믿어야 할 가장 믿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데말리옹씨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마제루 소령과 함께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형사들이 있었죠. 만약 오빌 씨가 그날 밤, 그 시각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을 알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누가 그를 죽였으며, 또 누가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 네 벽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빌 씨가 있었습니다."

순간, 항의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한순간에 가려졌던 진실이 벗겨졌다. 돈 루이스가 드러낸 광경은 공포를 자아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불신감도 불러일으켰다. 그토록 신중하게 받아들이던 설명들이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었음을 깨닫자, 사람들은 마치 반란을 일으킨 듯 저항했다.

경찰청장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듯 외쳤다.

"더 이상 말은 그만! 더 이상 추측도 그만! 논리가 완벽해 보여도, 결론은 터무니없어!"

"겉보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판사 부인의 기이한 자살이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죽기 싫어합니다. 단순히 복수심을 풀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판사 부인은 저와 당신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극도로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만 말하라." 판사가 외쳤다. "당신은 여전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단 하나의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판사님."

"뭐라고? 뭘 말하는 거야?"

"총감님, 제가 램프를 받치고 있던 석고를 벗겨냈을 때, 금속 상자 위쪽, 바깥면에 봉인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램프는 오빌 부인의 아들이 사는 다락방 바로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 오빌 부인이 다락방 바닥판을 들어 올려, 자신이 설치한 장치의 윗부분에 손댈 수 있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그 봉투를 그곳에 숨겼습니다. 안에는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인 '3월 31일 밤 11시'라고 적혀 있었고,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폴리트 오빌'.

이미 데말리옹 씨는 이 봉투를 급하게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그는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아, 저 비열한 놈, 저 비열한 놈!" 그가 말했다. "세상에 그런 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오, 정말 끔찍해!"

충격에 목소리가 끊어졌다. 때로는 멍하니 어둑어둑해지기도 했다. 그가 읽었다.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먹인 약에 잠든 에드몽은 독의 불꽃도 깨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최후가 시작됩니다. 지옥의 모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마지막 글자를 적을 힘조차 겨우 나옵니다.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도 제 행복은 큽니다!"

그 행복은 네 달 전, 에드몽과 함께 런던으로 떠났던 여행에서 비롯되었다. 그전까지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 나를 미워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던 그 여자를 향해 숨겨진 증오를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

내 건강은 이미 나빠져 있었고, 치명적인 병이 내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꼈다. 더구나 병약하고 쇠약해진 내 아들 에드몽을 보니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오후면 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더 이상 의심을 품을 여유조차 없었다. 암이 내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결론뿐이었다.

게다가 아들 에드몽도 나와 똑같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결핵 환자였다.

그날 밤, 위대한 복수의 아이디어가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보복은 얼마나 치열했던가!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내려진,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고발이었다. 감옥! 항소법원! 유배지! 단두대! 구원할 길도, 맞설 방법도, 희망도 없었다. 쌓여만 가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무고한 사람조차 자신의 무죄를 의심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압도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보복은 참혹했다. 무고한 몸으로,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외치는 현실 자체, 그리고 자신을 지목하는 사실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었던가!"

"그 기쁨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소. 새로운 단서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새로운 기교가 하나씩 발명될 때마다 나는 웃음 터져 나왔소. 하느님,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소!

암이라? 아프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아니요. 영혼이 기쁨으로 떨칠 때, 육체의 고통이 무슨 상관이 있겠소? 지금 이 순간, 나는 독이 타오르는 끔찍한 화상을 느끼지 못하오.

나는 행복하오. 내가 스스로 택한 죽음은 바로 그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오. 그렇다면 왜 살아남아 자연사를 기다려야 하겠소? 그것은 그들의 행복이 시작될 뿐이오. 에드몽이 죽어야 한다면, 왜 느린 죽음으로 고생하게 두어야 하겠소? 왜 마리아나와 소베랑의 죄악을 두 배로 불태우는 죽음을 그에게 주지 않아야 하겠소?"

"이제 끝이야." 나는 고통에 이겨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이제야 조금 진정되는군.

주변이 너무도 고요하다. 호텔 안팎으로 경찰의 사자들이 내 '범죄'를 감시하고 있다. 나보다 멀리서, 내 편지를 받고 달려온 마리안느가 약속 장소로 향한다. 하지만 그녀의 연인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연인 역시 자신의 미인이 나타나지 않을 창문 아래를 배회하고 있다.

아, 내 줄을 쥐고 있는 작은 인형들아. 춤을 춰라! 뛰놀아라! 하느님, 정말 재미있군.

목에 밧줄을 맨 신사와 부인, 맞지? 아침에 베로 형사를 독살하고, 아름다운 흑단 지팡이를 들고 상테뉴프 카페까지 그를 쫓아간 건 당신 아니오? 맞아요, 당신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부인이 나를 독살하고, 의붓아들까지 독살하죠. 증거는요? 바로 이 사과입니다, 부인. 부인이 한 입도 베어 물지 않은 이 사과 속에는, 분명히 당신의 이빨 자국이 발견될 테니까요.

정말 재미있는 연극이군. 춤을 춰라! 뛰놀아라!

"그리고 편지들! 랑르노 부인에게 보낸 편지 사건 말이다. 그게 바로 내 가장 놀라운 업적이지. 그 작은 기계 장치를 고안하고 조립할 때 느꼈던 기쁨이란 말야! 설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정밀함과 구조가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네.

정해진 날이 되면, 톡! 첫 번째 편지가 날아오고, 열흘 뒤에는 톡!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하거든. 자, 이제 끝이야. 가엾은 친구들, 너희는 완전히 속았어. 춤을 춰라! 뛰어라!"

« 그리고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야. 마리안느와 소베랑이 유죄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 외에는 완전히 미스터리야.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야. 영원히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될 거지.

몇 주 뒤, 두 죄수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될 때, 즉 5월 25일, 아니 26일 새벽 3시경, 폭탄이 폭발하여 내 작품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릴 거야. 폭탄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샹들리에와는 전혀 무관한 장치가 특정 시간에 이를 폭발시킬 거야.

그 옆에는 내가 가짜 일기로 작성한 회색 천 노트, 독이 담긴 병들, 내가 사용했던 바늘들, 상아 지팡이, 베로 형사가 보낸 두 통의 편지, 그리고 죄인들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묻어뒀어.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아니, 절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영원히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될 거야. »

"아니면…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거나. 폭탄이 벽과 천장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지성과 직관으로 내가 얽어맨 실을 풀어내고, 수수께끼의 핵심에 도달해,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그 마지막 편지를 찾아내는 천재가 나타나거나."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이 편지를 쓴다. 그가 존재할 리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어쨌든 상관없다. 마리안과 소베랑은 이미 심연 속에 빠져 있을 테고, 아마 죽었거나, 어쨌든 영원히 헤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증오를 담은 이 증언을 운명의 손에 맡겨도 나는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셈이다."

"자, 이제 끝났네. 할 일은 서명하는 것뿐이야. 내 손은 점점 더 떨리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굵게 흐른다. 지옥의 영혼처럼 고통스럽지만, 나는 천국처럼 행복해!

아, 친구들이여. 너희는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 마리아나, 어리석은 너! 너는 몰래 나를 엿보던 눈빛 속에 숨기지 못했던 내 병을 본 너의 기쁨을 드러냈잖아. 너희 둘은 장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는지, 그토록 청렴결백함을 유지할 용기를 내었구나.

자, 여기 내 죽음이 있네. 그리고 너희는 내 무덤 위에서 하나가 되어, 철제 마차의 고리처럼 단단히 묶이게 되겠지. 마리아나, 너는 내 친구 소베랑의 아내가 되어라. 소베랑, 너에게 내 아내를 주마. 둘이 결합하라.

이혼 계약서는 검사관이 작성하고, 미사는 사형수가 집전하겠지. 아, 그토록 달콤한 쾌감! 고통스럽군. 하지만 그토록 달콤해! 죽음마저 사랑스럽게 만드는 순수한 증오라니. 나는 죽어서도 행복해. 마리아나는 감옥에 있고, 소베랑은 죄수의 독방에서 울고 있겠지.

문이 열리네. 오, 끔찍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온다. '가통 소베랑, 상고 기각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아, 차가운 아침, 단두대! 이제 네 차례야, 마리아나. 너는 연인을 따라 죽지 않고 살아남겠어? 소베랑은 죽었어. 이제 네 차례!

자, 여기 밧줄이 있네. 독약이 더 좋겠어? 어서 죽어라, 못된 녀석아. 불타 죽어라. 나처럼, 너를 증오하는 나처럼… 너를 증오하는 나처럼… 너를 증오하는 나처럼…”

데말리옹 씨는 모두의 경악 속에서 말을 멈췄다. 그는 마지막 몇 줄을 읽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글씨가 점점 흐릿해져 거의 읽을 수 없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종이를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히폴리트 포빌…….”

“서명도 분명하군요. 이 악당이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또렷하게 서명한 모양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이 의심받을까 봐 두려웠나 봅니다. 사실, 누가 그처럼 비열한 짓을 저지르리라 상상했겠습니까?”

그는 다시 도 루이스를 향해 말을 이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정말 exceptional한 통찰력과, 우리가 존경해야 할, 제가 존경하는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이 광인이 내놓은 모든 설명은 가장 정확하고도 놀랍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도 루이스가 고개를 숙였다. 칭찬에 답하지 않고 그는 말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총감님. 그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종류요. 날카로운 이성을 가진 광인이었습니다. 그

는 어떤 것도 자신을 돌려세우지 못하는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놀라운 집념으로 추구했습니다. 기계의 법칙에 종속된 세심한 두뇌가 가진 수단들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단호하고 잔인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두고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마치 실험자가 자신의 발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시간이 증명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는 너무도 성공했습니다. 법이 함정에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푸빌 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데말리옹 씨가 단호한 손짓을 했다. 이제 모든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었다. 수사만 제대로 진행하면 진상은 분명히 밝혀질 터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다. 마리안느 포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포빌 씨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사건 담당 판사를 소환할 테니, 기소 유예 처분이 곧 내려질 것입니다."

그는 재빨리 명령을 내렸다. 조사를 계속하고, 루이스 씨가 제시한 모든 가설을 검증하라는 것이었다. 그 뒤 루이스 씨를 향해 말했다.

"오시죠, 선생님. 포빌 씨가 자신의 구원자에게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제루, 당신도 오시오."

회의가 끝났다. 이 자리에서 돈 루이스는 자신의 재능을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는 마치 저승의 힘과 맞서 싸우는 듯했다. 그리고 죽음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게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策划되고 무덤 안에서 실현된 끔찍한 복수를, 마치 자신이 그 장면을 목격한 양 낱낱이 폭로했다.

데말리옹 씨는 침묵과 고개 끄덕임으로 자신의 감탄을 감추지 않았다.

페레나는 기이한 기분을 느꼈다. 반나절 전만 해도 경찰이 쫓고 다니던 자가, 바로 그 경찰의 수장 옆에 앉아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은 그가 사건을 얼마나 완벽하게 주도했는지, 그리고 그가 얻어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협력 가치는 너무나 커서, 사람들은 지난 이틀간의 소동을 잊어버리려 했다. 부청장 웨버의 원한도 도니 루이스 페레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

하지만 데말리옹 씨는 새로운 해결 방안들을 간략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몇몇 쟁점들을 논하며 결론을 내렸다.

"네, 맞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견은 일치합니다. 그게 맞고,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치아 자국이 그렇습니다. 포빌 씨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의 남편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총감님. 필요한 증거를 대며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웨버가 어제 아침, 르바수르 씨 방에서 폭발 사건과 관련된 종이 조각을 어떻게 찾아냈다는 겁니까?"

"그건 그렇고," 돈 루이스가 웃으며 덧붙였다. "제가 어떻게 그 방에서 다섯 날짜 목록, 즉 편지 전달일자를 적은 종이를 찾아냈을까요?"

"그렇다면, 데스말리옹 씨가 말했다. 레바슈르 씨의 역할은 적어도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총감님. 이제 푸빌 씨와 가스통 소베랑 씨를 심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걷히고, 레바슈르 씨의 嫌疑는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데스말리옹 씨가 재차 강조했다. "나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폴리트 푸빌의 자백에는 모닝턴 가문의 유산 이야기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실

을 몰랐던 걸까요? 우리는 이 연쇄 범죄와 모닝턴 유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일치 우연일 뿐이라고 봐야 할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총감님. 이피올트 포빌이 이 유산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포빌 공사의 유죄와 수감자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돈 루이스의 기쁨은 순결 그 자체였다. 그의 시각에서 이 흉악한 사건은 포빌 공사가 직접 쓴 자백서가 발견되는 순간 이미 종결되었다. 그 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포빌 공사와 플로랑스 르바세르, 그리고 가스통 소베랑이 해명해 줄 문제였다. 그 이상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다.

생라자르. 아직까지 삽질 한 번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비참하고 음습한 구형 감옥이었다.

도지사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문이 바로 열렸다.

"원장님 계십니까?" 도지사가 간수에게 물었다. "빨리 불러요. 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다. 병동으로 이어지는 복도로 재촉해 걸었다. 그리고 1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마침 원장과 마주쳤다.

"오 소르빌 원장?" 도지사는 서론 없이 물었다. "저를 모시게 해주세요."

그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원장의 얼굴이 너무도 당황한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오?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도지사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간수는 헛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미 도청에 전화했는데요."

"말하시오. 무슨 일이오? 뭐가 일어난 거요?"

"총감님, 오늘 아침 포빌 부인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독을 마셨죠."

데스말리옹 총감은 국장의 팔을 잡은 채 페레나와 마제루를 뒤따르며 간호실로 달려갔다. 방 하나에서 그는 젊은 여성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어깨에는 갈색 얼룩이 져 있었다. 그 얼룩은 베로 형사, 이폴리트 포빌, 그리고 그의 아들 에드몽의 시체에서 관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총감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독은…… 어디서 구한 거지?"

"이불 밑에 작은 병과 주사기를 찾았습니다, 총감님."

"이불 밑이라고?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거지? 누가 그녀에게 건넸다는 말인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총감님."

데말리옹 씨는 돈 루이스를 바라보았다.

이피올트 포빌의 자살로 일련의 범죄가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마리안느의 죽음만 초래한 것이 아니었다. 불행한 젊은 여자의 독살까지 결정지었던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 죽은 자의 복수가 똑같이 자동적이고 익명으로 이어지는 걸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아니면 누군가 또 다른 신비로운 의지가, 그림자 속에서 포빌 공작의 악마적인 계획을 같은 담력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흘 뒤,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다.

가스터 소베랑이 자신의 방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는 이불로 목을 조르는 용기를 냈다. 하지만 그를 살려내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옆 탁자 위에서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건네준 신문 기사 발췌문이 여섯 장가량 주워졌다.

모두 마리아나 포빌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다.

제14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밤, 낡은 마차 운전사 한 명이 거대한 코트를 뒤집어쓰고 페레나 호텔의 문두서리를 두드렸다. 그는 루이스 도니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곧장 운전사는 1층 서재로 안내되었다. 그는 코트를 벗을 겨를도 없이 서재에 들어선 뒤, 곧장 루이스 도니에게로 달려들었다.

"이번엔 정말 끝장났습니다, 보스. 장난이 아닙니다. 짐을 싸서 당장 이 자리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서둘러야 해요."

루이스 도니는 넓적한 안락의자에 편하게 앉아 담배를 담담하게 피우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마제루, 너는 시가냐, 담배냐?"

마제루가 분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보스, 신문은 안 읽으시나요?"

"아아, 안타깝게도."

"그럼 상황은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지난 사흘, 즉 마리안느 포빌과 그녀의 사촌 가스통 소베랑의 자살, 아니 살해 사건 이후로, 어떤 신문을 펼쳐도 이런 문장이나 비슷한 말을 보셨을 겁니다.

'포빌 씨의 아들, 아내, 그리고 사촌 가스통 소베랑이 모두 죽었으니, 이제 도니스 페렌나가 코스모 모닝턴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령관? 물론 부르바르 쉬셰 폭발 사건과 포빌 공학사의 사후 폭로도 화제에 오르지만, 사람들은 끔찍한 포빌을 비난하며 당신의 재주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와 논쟁을 압도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루셀 가문의 세 가지 혈통이 모두 단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니스 페렌나입니다. 자연 상속인이 없다면,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도니스 페렌나입니다."

"참으로 운이 좋군!"

"바로 그겁니다, 상사님. 이 연쇄 살인과 잔혹 사건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누군가 주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의도는 코스코 모닝턴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억 프랑을 빼앗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의도에 이름을 붙이려면,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이름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extraordinary한 인물, 명성은 높지만 평판은 나쁘고, 모호하고 신비로우며,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 인물 말입니다.

코스코 모닝턴의 친한 친구였던 그는, 사건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해 왔습니다. 상황을 조합하고, 누군가를 지목하며, 또 누군가를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체포도 시키고 탈출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산 사건의 모든 것을 조종한 것이죠.

그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일을 끌고 간다면, 마지막에는 이억 프랑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도니 루이스 페레나입니다. 다시 말해, 아르센 뤼팽이죠.

이토록 거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제 말씀입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포빌 씨와 가스통 소베랑이 살아 있을 때는 아무도 사장님이 유증자이자 법정 상속인이라는 점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죽고 보

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연히도 도 루이스 페레나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형사 원칙을 아시죠? '이익을 보는 자가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로셀 가의 상속인들이 모두 사라진 그 이익은 결국 도 루이스 페레나에게로 향합니다."

"악당!"

"도적. 그게 바로 베버가 상테 형무소와 수사국의 복도를 울려대는 말이에요. 당신도 도적이고, 플로랑스 르바세르도 당신의 공범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주장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경찰청장이라도 어떨까요? 당신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한 적도 있고, 당신을 위해 일궈낸 귀중한 공적이 그가 가장 먼저 인정할 만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총리인 발랑글레가 당신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도 소용없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경찰청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총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국도 있고, 검찰청도, 심판 판사도, 신문사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바로 그 여론이죠. 여론은 만족해야 하고, 용의자를 기다리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용의자는 당신이거나, 플로랑스 르바세르입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도 루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마제루는 한 분 더 기다렸다. 그러자 답이 없자 그는 절망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보스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제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두십시오. 내일 아침, 검사로부터 소환장이 올 것입니다. 심문을 마친 뒤, 그 심문이 어떻든 간에 당신은 곧장 파주(보안 감옥)로 이송됩니다. 영장은 이미 서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적들이 얻어낸 결과입니다."

"젠장!"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수를 간절히 바라는 웨버는 지금 바로 당신의 저택을 감시해 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플로랑스 르바소르처럼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한 시간 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광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보스님?"

돈 루이스는 여전히 느긋한 자세를 유지한 채 마제루에게 손짓했다.

"부장, 소파 밑을 봐. 두 창문 사이야."

돈 루이스의 표정이 진지했다. 본능적으로 마제루는 그 지시를 따랐다. 소파 밑에는 여행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부장, 열 분 후에 제 하인들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명하면, 이 가방을 리볼 거리 143번지 2호로 가져가시오. 그곳은 '르코크 씨'라는 이름으로 예약해 둔 작은 아파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상사?"

"이 말은, 사흘 동안 이 가방을 맡길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 그게 무슨……" 마제루는 당황하며 말더듬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은 도망치실 생각이었군요?"

"당연하지! 하지만 왜 나를 재촉하는 거지? 내가 너를 보안국에 배치한 건, 나를 노리는 음모를 캐내려는 거야. 위험이 닥쳤으니 나는 그냥 떠나."

그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마제루의 어깨를 툭 치며 엄하게 말했다.

"보아라, 형사. 택시 기사 복장으로 변장하고 직분을 저버릴 필요가 없었다는 걸. 직분을 저버려선 안 돼, 형사. 네 양심을 물어봐라. 내가 네게 마땅한 심판을 내릴 거란 걸 확신한다."

도 루이스는 진실을 말한 것이다. 마리아나와 소베랑의 죽음이 상황을 어떻게 뒤바꿔놓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몸을 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가 더 일찍 도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플로랑스 르바세르의 소식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편지든 전화든, 그녀로부터 연락이 올 것을 바랐다.

하지만 그 소녀는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켰다. 사건의 흐름을 볼 때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마당에, 도 루이스가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다음 날, 마제루가 상쾌한 기운을 안고 리볼 거리 작은 아파트에 나타났다.

"대단히 운이 좋으셨네요, 보스."

"오늘 아침부터 웨버는 새가 날아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상황은 점점 더 꼬이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대.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계속 추적해야 할지 말지조차 모르겠지. 어차피 신문 기사로 보셨을 거야."

"재판관은 파브빌이 자살했고, 아들 에드몽까지 죽였다고 주장해. 그래서 플로랑스 르바세르는 이 일과 무관하다는 거야.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쪽 문제는 종결된 셈이지."

"재판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네. 가통 소베랑 살해 사건은 어떻지? 플로랑스가 관여한 게 명백하지 않나? 나머지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나? 플로랑스의 집에서 셰익스피어 책 한 권을 뒤지다가, 파브빌 씨가 서신과 폭발 사건에 대해 취한 조치와 관련된 문서들이 발견되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마제루는 도 루이스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 위축되어 말을 멈췄다. 그는 주인이 그 소녀에게 더 이상 없던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유죄이든 무죄이든, 도 루이스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这个话题는 꺼내지 않죠."

그가 말했다.

"미래가 제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날은 흘러갔다. 마제루는 가능한 한 자주 찾아오거나, 상테 형무소와 생 라자르 감옥에서 진행 중인 이중 수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도 루이스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물론 알다시피 이 수사는 헛수고로 끝났다.

두에 루이스의 진술, 즉 전기식 천장등과 신비로운 편지 자동 배달 설비에 관해서는 정확함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두 건의 자살과 관련된 수사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사우베랑이 구금되기 전 간호실 공급업자를 매개로 마리안느와 편지 교환을 시도했다는 점뿐이었다.

독이 든 병과 주사기가 같은 경로를 통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증명할 길이 없었다.

게다가 마리안느의 자살을 다룬 신문 기사 발췌본이 가통 사우베랑의 감방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경로를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처음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과일 속에 새겨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빨 자국이라는 수수께끼였다.

오빌 부인의 사후 진술은 마리안느를 무죄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분명히, 사과에 자국을 남긴 건 마리안느의 이빨이었다.

우리가 '호랑이 이빨'이라 불렀던 것은, 바로 그녀의 이빨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일까?

마제루가 말했듯, 상황은 엉망이었다. 그 정도가 어떠했냐면, 유언장에 따라 유족들을 소집해야 할 권한을 가진 주지사도 당황해했다. 유족 소집은 유언자의 사후 최소 3개월, 최대 4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했는데, 그는 갑자기 일정을 앞당겼다. 다음 주, 즉 6월 9일에 회합을 열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사법부는 막막함만 드러냈을 뿐이었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든 유산 처리를 결정하고, 조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서서히 '호랑이 이빨'의 끔찍한 희생자들이 잊혀지기를 바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최근 며칠은 큰 전투를 앞둔 날들처럼 분주하고 열정적이었는데, 도니 루이는 평온하게 보좌의자에 앉아 리볼 거리 발

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다. 바람은 그 방울들을 튈르리 정원으로 날려 보냈다.

마제루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사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무심한 척하시는지!"

"나는 정말 평온하네, 알렉상드르."

"그럼 대체요? 사건이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란 말인가요? 모 포빌과 소베랑드의 복수를 포기하신 건가요? 공개적으로 당신을 비난하는데, 비눗방울을 불고 계신다니요?"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일은 없어요, 알렉상드르."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무지 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누가 알겠나, 알렉상드르."

루이스 후작은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또 몇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발코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참새들이 그가 던져주는 빵을 먹으러 날아들었다. 정말로, 그에게도 이 일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는 날, 마제루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편지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선생님, 이것 받으세요. 제 이름으로 왔지만, 안쪽 봉투에는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쉬운 일입니다, 알렉상드르. 적들이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죠. 하지만 제 주소를 모르니까…"

"적? 어떤 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밤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루이스는 봉투를 뜯어 붉은 잉크로 쓴 내용을 읽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뤼팽. 이 싸움에서 물러나라.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 네가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네 손이 나를 향해 올라가고 승리의 외침이 터져 나올 때, 바로 그 순간 네 발 아래로 구렁텅이가 열릴 것이다. 네가 죽을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함정도 준비되어 있다. 조심하라, 뤼팽."

돈 루이스는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감이 잡히는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이 편지를 건넨 이는 누구인가?"

"아, 이번만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를 건넨 사람은 파리 경찰국 소속 형사인데, 우연히도 그 편지를 배달한 남자가 사

는 집 바로 옆 집, 테른가에 살고 있거든요. 그 형사는 그 배달부 남자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루이스가 벌떡 일어났다. 기쁨에 넘쳐 있었다.

"무슨 노래야? 다 말해 봐! 단서를 잡았나?"

"그 남자는 하인입니다. 테른 대로에 있는 한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가자. 한 순간도 아까우면 안 돼."

"좋아요, 선배님. 드디어 찾아냈네요."

"그래. 할 일이 없던 때는 오늘 밤까지 기다리며 쉬고 있었지. 하지만 싸움이 치열할 거라 예상했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적이 실수를 저지르고, 길이 보였군. 이제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앞서 나가자. 자, 호랑이를 잡자, 마제루!"

오후 한 시쯤, 돈 루이스와 마제루는 테른스 클리닉에 도착했다.

종업원이 두 사람을 맞았다. 마제루가 팔꿈치로 돈 루이스를 툭 치며 눈짓했다.

그 남자는 틀림없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었다.

부장의 질문에 그 남자는 전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아침에 경찰청에 갔었다고 시인했다.

"누구 지시에요?" 마제루가 물었다.

"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소장님?"

"네, 이 클리닉에는 건강 관리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죠."

"소장님을 뵐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외출 중이거든요."

"돌아오시나요?"

"네, 언제든 오실 겁니다."

종업원이 그들을 앞현관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시간 이상이나 기다려야 했다. 둘은 무슨 일인지 궁금증이 가득했다. 그 수녀가 끼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건에서 그녀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

환자를 치료하는 방으로 안내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들어왔다. 조용히 오가며 일하는 자매들도 있었고, 허리에 동여맨 긴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도 있었다.

"여기서 곰팡이 피지 않도록 합시다, 상사." 마제루가 속삭였다.

"왜 그렇게 재촉하지? 네 연인이 보고 싶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 총독 관저와의 약속은 다섯 시까지다."

"뭐라고요? 상사,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죠? 정말로 참석하실 건가요?"

"왜 안 되지?"

"뭐라고요? 체포장이…"

"체포장? 종이 한 장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법의 심판을 거부하면, 그 종이는 현실이 될 거야. 네가 자백하러 나오지 않는 건 도발로 간주될 테니까."

"그리고 안 나오는 건 자백으로 간주되겠지. 이백만 프랑을 상속받은 남자가 그날을 피해 숨지 않는다. 설령 권리를 박탈당하더라도, 나는 그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해. 갈 거야."

"사장님…"

그들이 서 있는 바로 앞에서,闷闷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즉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간호사였다. 그녀는 복도를 가로질러 지나가다 멈추더니, 달려가 커튼을 걷어 올리고는 사라졌다.

도 루이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망설이며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러다 잠시, 사오 초 동안 주저하다가 그는 문득 천막 쪽으로 돌진했다.

그는 복도를 따라 달려 나갔고, 방금 닫혀 버린 두꺼운 가죽으로 덮인 문에 부딪혔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 문 주위를 맴돌며, 떨리는 손으로 또 몇 초를 허비했다.

문을 연 그는 부엌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올라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같은 계단이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는 내려갔다.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부엌일을 하던 여자를 붙잡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저기서 간호사가 나갔지?"

"게르트루드 여사? 새로 온 그 사람?"

"그래… 그래… 얼른… 저 위에서 그 사람을 찾고 있어…"

"세상에, 도대체 어느 길로 나갔다고?"

"이쪽… 이 문으로…"

돈 루이스가 몸을 날렸다. 작은 현관을 지나쳐 거리로 뛰쳐나갔다. 테른 대로였다.

"어이, 저런 질주라니!"

마제루가 그를 따라잡으며 외쳤다.

돈 루이스는 거리를 눈여겨보았다. 가까운 생페르디난드 광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것이 보였다.

"저기 있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그는 택시를 불렀다.

"기사님, 저 버스 뒤를 50미터 간격을 두고 따라가시오."

마제루가 물었다.

"플로랑스 르바세르 맞습니까?"

"저 자식, 정말 고약하군!"

병장이 투덜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보스님,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돈 루이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스님, 플로랑스 르바쾨르가 이 클리닉에 있다는 사실은 수학의 a+b처럼 명백합니다. 그녀가 하인에게 당신에게 협박장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맞습니다. 더 이상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플로랑스 르바쾨르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제가 아는 대로, 아니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열흘 전부터 당신은 이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 그녀를 무죄로 여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기소하는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이 당신의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보스님, 제가 틀리지 않았죠? 당신은 이제 선명하게 보시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도 루이스가 반박하지 않았다. 얼굴이 굳어 있고 눈빛이 차가웠다. 그는 하오스만 대로 모퉁이에 멈춰 서 있는 오토버스를 주시하고 있었다.

"멈춰!" 그가 운전사에게 외쳤다.

젊은 여성이 내렸다. 간호사 복장 아래에서도 플로랑스 르바세르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듯한 눈치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불바르와 페피니에르 거리를 지나 생라자르 역까지 갔다.

멀리서 돈 루이스는 그녀가 로마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상실자 홀 끝자락, 매표소 앞에 서 있는 모습도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빨리, 마제루! 보안국 신분을 보여주고, 여자가 방금 산 표가 뭔지 물어봐. 다른 여행객이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마제루가 재촉하며 매표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말했다.

"2등석, 루앙행."

"너도 하나 가져가."

부장이 순종적으로 따랐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지금 막 출발한다는 급행열차를 알게 되었다. 그들이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플로랑스는 중간 칸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었다.

열차가 휘파람을 불었다.

"타. 루앙에서 전보 치고, 오늘 밤 내가 합류할 거야. 특히 눈을 빛내. 그녀가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게 하지 마. 그 여자는 무척 교활하단 말야."

"하지만 상사님, 왜 직접 오지 않으십니까? 그게 훨씬 나을 텐데…"

"안 돼. 루앙에서는 정차하지 않아.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건 오늘 밤뿐이지. 그런데 경찰청 회의가 다섯 시에 열리거든."

"그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해. 자, 타."

그는 그를 뒷칸 승무실로 밀어 넣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터널 속으로 사라졌다.

루이스 대령은 대기실 벤치 중 하나에 털썩 주저앉아 두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신문을 읽는 체했지만, 눈빛은 흐릿했고 마

음은 한 가지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가득 찼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질문이었다.

'플로렌스는 유죄인가?'

정오 5시, 데말리옹先生的 서재 문이 열렸다. 아스트리냐크 백작 준장, 레페르튀이 경감, 그리고 미국 대사관 서기가 들어선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법원 집행관 대기실로 들어와 명함을 건넸다.

서비스 담당 서기가 브리스톨 명함을 힐끗 훑어보더니, 멀리서 수군거리는 무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새로 온 방문자에게 물었다.

"초대장 없으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돈 루이스 페레나 님을 알리시오."

그 말에 무리 쪽에서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몸짓이 일었다.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바로 부두 Weber였다.

두 남자는 잠시 동안,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듯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돈 루이스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Weber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자신을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쏟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었다.

그 옆에는 두 명의 기자와 함께 사법 경찰국 요원 네 명이 서 있었다.

‘대체 이 신사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도 루이스는 생각했다. ‘그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면, 내가 감히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모양이다. 이제야말로 나를 체포할까?’

베버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만족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마치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듯했다. ‘자, 이 자식아. 이제 내가 너를 붙잡았어. 이번엔 도망칠 수 없게 됐군.’

감리가 다시 돌아와서는 아무 말 없이 도 루이스에게 길을 안내했다.

도 루이스는 베버를 지나칠 때 가장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순경들에게도 작은 친근한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즉시 아스트리냐크 백작 지휘관이 그를 향해 다급히 다가왔다. 손을 내밀며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였다. 이는 모든 소문이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페레나에게 향한 것이 아니며, 그가 여전히 지휘관의 신임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태도는 냉담했다.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류 더미를 넘기며, 대사관 서기와 공증인과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돈 루이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친구 뤼팽, 여기서 철제 마차에 손목이 묶인 채 끌려나가는 자가 있을 걸세. 만약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 그건 바로 너일세, 불쌍한 친구여. 알아서 잘하시길.’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떠올렸다. 푸빌 호텔 사무실, 재판관들 앞. 그는 즉각 체포라는 위협 속에서 범죄자를 법정에 넘겨야만 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한편,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오직 필요한 승리들만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연이은 공격에 시달리며 늘 위험에 노출된 그는, 마리안과 소베랑을 심연 속으로 던졌다. 그들은 잔혹한 전투의 법칙에 따라 희생된 무고한 이들이었다.

이제 그는 드디어 진짜 적과 직접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그는 손바닥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행복해 보여서, 데스말리옹 씨는 저절로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도 루이스의 얼굴에는 한없이 기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순수한 즐거움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렬한 기쁨을 맛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경찰청장은 잠시 동안 침묵했다. 그는 이 사나운 남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그러곤 다시 서류 더미를 넘기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두 달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코스모 모닝턴의 유언장을 둘러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페루 영사관 부관인 카세레스 씨는 오지 못합니다. 방금 이탈리아에서 받은 전보에 따르면, 그는 꽤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참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아무도 빠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자리가 그들에게 권리를 인정해 줬어야 할, 즉 코스모 모닝턴의 상속자들 가운데 일부만 모였을 뿐이죠.

"한 분 더 빠진 분이 있습니다, 장관 각하."

데말리옹 장관이 고개를 들었다. 말한 이는 돈 루이스였다. 장관은 잠시 주저하다가, 마침내 그를 향해 물었다.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모닝턴 가의 상속자들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이번에도 도 루이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강제로 끌어냈다. 비록 그가 반대하더라도, 참석자들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카리스마에 끌려갔다. 어쨌든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일 테니까.

"총감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실을 제 방식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쉬셰 대로 폭발 사건 이후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자연스러운 이어짐이자 결론이 될 것입니다."

데말리옹 총감의 침묵은 도 루이스에게 그가 말해도 된다는 신호였다. 그는 즉시 말을 이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감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오빌 공학자의 자백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얼마나 흉악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진실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총감님이 수셰 대로에 있는 폐허가 된 호텔을 나서며 저에게 던진 한 가지 의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총감님은 물으셨습니다. '히폴리트 오빌의 자백에 코즈모 모닝턴의 유산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소?'"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총감님. 이피폴트 파빌은 유산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스통 소베랑이 저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그 유산에 대해 단 하나의 암시조차 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유산은 가스통 소베랑의 이야기에서 전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이피폴트 파빌도 모르고 있었죠. 마리안느 파빌도, 플로랑스 르바세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수심, 오직 복수심만이 이피폴트 파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코즈모 모닝턴의 수백만 프랑은 그에게 당연한 권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만약 그가 그 거금을 누리고자 했다면, 처음에 자신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히폴리트 포빌의 결정과 행동에는 유산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스모 모닝턴, 히폴리트 포빌, 에드몽 포빌, 마리안 포빌, 그리고 가스통 소베랑이 차례로 죽어간다. 마치 유산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순서대로 죽어가는 것처럼, 불변의 규칙성을 가지고 말이다.

먼저 재산을 소유한 자가 죽고, 이어 그가 유증자로 지명한 이들이 모두 사라진다. 내가 반복해서 강조하건대, 그들은 유언장이 재산 상속을 허용한 바로 그 순서대로 죽어간다!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는 분명 어떤 주도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논쟁의 이면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유산일 것입니다.

저 비열한 오빌의 증오와 질투를 초월하여, 훨씬 더 막강한 에너지를 지닌 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이 얽고 풀은 드라마의 무지한 배우들을 번호가 매겨진 희생자처럼 죽음으로 이끕니다.”

“총감님, 민중의 직관은 저와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경찰의 일부, 특히 베버 서기관을 필두로 한 간부들 역시 저와 똑같은 논리로 사고하죠. 그래서 그 존재의 실체는 순식간에 모두의 상상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의지와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이 필요했죠. 바로 저였습니다.

왜 제가 아니었겠어요? 저는 코즈모 모닝턴의 후계자였습니다. 범죄의 이해관계자로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외세의 개입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총감님, 저를 향해 부당한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간 제 행적을 보셨듯, 제가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하시리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총감님, 민중의 직관은 저를 비난하는 데 있어 옳습니다. 오직 오빌 공학자 한 명을 제외하면, 반드시 범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코스모 모닝턴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제가 그 범인이 아니라면, 코스모 모닝턴의 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저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총감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는, 잠시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고인의 의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인과만 싸워온 것이 아니며,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제 얼굴에 생명의 숨결이 부딪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호랑이가 저를 찢어뜨리려 하는 이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많은 일을 저질렀지만,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그 존재는 그의 명령을 실행한 유일한 수행자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그 계획에 협력한 공범자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고인이 아마도 영감을 주었을,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려버린 사업을 분명히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게 그 사업을 완성하고 최후의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코스모 모닝턴의 유언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자를 지목합니다, 장관님.”

"적어도 이 끔찍한 범죄들은 히폴리트 포빌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자가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자가 코스모 모닝턴의 변호사인 레페르튀이 노타르가 보관해 두었던 유언장을 훔치기 위해 책상 서랍을 부수고 열었다는 점을 지목합니다."

"또한 그자가 코스모 모닝턴의 아파트에 침입해, 주사용으로 준비된 나트륨 카복실산 앰플 중 하나를 독성 액체로 가득 채운 것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점도 지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자가 코스모 모닝턴의 사체를 확인하고 위조 사망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사 행세를 했다는 점도 지목합니다."

나는 그를 고발한다. 이피욜트 포빌에게 독약을 건넸다는 죄목으로. 그 독약은 차례로 베로 형사를, 에드몽 포빌을, 그리고 결국 이피욜트 포빌 자신까지 죽였다.

또한 그는 고발된다. 가스통 소베랑의 손을 빌려 내 목숨을 노렸다는 죄목으로. 그의 충고와 지시에 따라 가스통은 세 번이나 내 생명을 해치려 했고, 끝내 나의 운전기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발된다. 가스통 소베랑이 병원에서 마리안 포빌과 연락할 수 있게 해준 틈을 타, 불쌍한 마리안 포빌에게 자살을 실행할 독약 병과 주사기를 건넸다는 죄목으로.

» 나는 그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필연적인 결과를 미리 예상한 채, 마리아나의 죽음을 보도한 신문 기사 발췌문을 가스통 소베랑에게 전달했다고 비난합니다.

» 따라서 요컨대,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들—베로 형사 살해, 내 운전기사 살해—에는 관여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다음과 같이 비난합니다. 코스코 모닝턴을 죽이고, 에드몽 파빌을 죽이고, 이폴리트 파빌을 죽이고, 마리아나 파빌을 죽이고, 가스통 소베랑을 죽였다고. 결국, 수백만 프랑과 그 자신 사이에 있던 모든 이를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으로, 총감님, 제 생각이 명확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수백만 프랑을 손에 넣기 위해 다섯 명의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살해가 필연적이고 수학적으로 그 수백만 프랑의 소유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 백만장자와 그의 네 명의 상속인을 차례로 제거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백만장자의 다섯 번째 상속인입니다. 곧 그 사람이 여기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찰 총감의 탄성은 본능적인 것이었다. 그는 돈 루이스 페레나의 그토록 강력하고 치밀한 논변을 모두 잊은 채, 돈 루이스가 예고한 놀라운 등장 사실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다. 그러자 돈 루이스가 다시 말했다.

"총감님, 이 방문은 제가 제기한 혐의를 엄밀하게 결론짓는 것입니다. 코스코 모닝턴의 유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유언장은 명확합니다. 상속인의 권리는 오늘 열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총감이 외쳤다. 이는 돈 루이의 확신이 그의 의심을 조금씩 이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말이었다.

"그가 올 겁니다, 총감님. 만약 오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현재로선 이 사건은 공학자 포빌의 범죄와 행위로 축소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미친놈의 터무니없는 짓으로 치부할 수 있죠. 하지만 마리안 포빌과aston 소베랑의 죽음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필연적인 결말을 요구합니다."

"그건 바로 루아세 가문의 마지막 후손, 즉 코즈모 모닝턴의 가장 확실한 상속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그리고 더 강력한 권리로 두억 프랑의 재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무모한 용기를 통해 손에 넣은 재산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오지 않는다면요?" 데스말리옹 총감이 다시 한 번, 더 격정적으로 외쳤다.

"그렇다면, 총감님, 제가 범인이라는 뜻이군요. 그러면 이제 저를 체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 다섯 시에서 여섯 시 사이, 이 방 안, 바로 눈앞에 아침 모닝턴 가의 상속자들을 죽인 자가 나타날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죠. 결국 법정은 만족할 것입니다. 범인이 저이거나 그가 나타나거나, 선택지는 간단합니다."

데말리옹 총감은 침묵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염을 씹으며, 참석자들이 좁게 원을 이루고 있는 책상 주변을 서성였다.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추측에 반대되는 의문들이 선명해지고 있었다. 끝내 그는 중얼거렸다.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아니요. 아니요. 도대체 어찌 설명합니까? 이 남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이제야 나왔다는 사실을."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총감님. 혹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 강렬한 스릴을 갈구하는 병적인 욕망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더구나 기억하십니까, 총감님? 이 사건이 얼마나 정교하고, 기계적일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졌는지 말입니다. 모든 사건은 공학자 포빌이 정한 정확한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동조자 역시 그 방법론의 영향을 끝까지 받아, 마지막 순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데말리옹 총감은 마치 분노에 찬 듯 외쳤다.

"아니, 안 돼. 절대 불가능해. 만약 그런 끔찍한 연쇄 살인을 저지를 만큼 잔인한 괴물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 녀석은 자수할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자신을 찾아온 여기까지 온 이상, 총감님은 자신을 노리는 위험을 모르고 계십니다. 설령 그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조차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무슨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험? 만약 그가 정말로 그 연쇄 살인범이라면……"

"그가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총감님. 그가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이제 이 남자가 가진 뜻밖의 힘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실이 제 앞에 드러난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수단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그가 조종하는 기어들과 그가 쓰는 꾀들을 낱낱이 벗겨냈죠. 바로 이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총감님, 이 방식은 연쇄 살인 사건 전체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겉보기에 코스코 모닝턴은 잘못된 주사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른 사람'이 주사를 치명적으로 만든 것이죠."

"겉보기에 베로 형사는 이폴리트 포빌에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른 사람'이 범행을 기획했고, 포빌에게 그 필요성을 일깨워 주며, 말하자면 그의 손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보기에 포빌은 아들을 죽이고 자살했으며, 마리안느와 가스통 소베랑도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른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원했고, 그들을 자살로 내몰았으며, 죽을 방법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방식이 그의 수법입니다, 총감님.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마치 두려움이 섞인 듯한 어조로 덧붙였다.

"저는 인정합니다.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었지만, 이토록 끔찍한 인물은 처음입니다. 악마 같은 솜씨로, 그리고 날카로운 심리 분석으로 행동하다니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들은 점점 더 흥분했다. 보이지 않던 존재가 이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들의 상상력 속에서 그는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어 갔고,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이나 도 루이스가 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동작은 곧 나타날 그 인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혼자 행동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켰든, 법이 그를 잡으면 반드시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형사님, 검찰은 고전하실 겁니다, 총감."

"이런 실력자의 수법이라면, 그는 자신의 체포는 물론, 자신에게 제기될 혐의까지도 모두 계산했을 겁니다. 결국 검찰이 그를 겨냥할 수 있는 건 도덕적 추측일 뿐, 결정적인 증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총감, 저는 그의 변명을 모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경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를 잘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겠지요."

경찰청장은 여전히 책상 주변을 거닐고 있었다. 아스트리냐크 지휘관은 페레나의 차분함에 탄성을 질렀다. 반면 서기장과 대사관 비서들은 몹시 초조해 보였다.

사실 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생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저 끔찍한 살인자가 지금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조용히."

경찰청장이 멈춰 서며 말했다.

그들은 대기실을 지나쳤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법원 집행관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다. 쟁반 위에는 편지 한 통과, 방문객이 이름과 방문 목적을 적는 양식용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데말리옹 씨가 달려나갔다.

종이를 집으려던 순간, 그는 잠시 주저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는 이내 결심했다.

"아!"

그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는 시선을 도니 루이스에게로 돌렸다. 잠시 생각하더니, 편지를 들어 취객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나?"

"접견실입니다, 총감님."

"내가 종을 누르면 바로 들여보내라."

취객이 나갔다.

데말리옹 총감은 책상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도니 루이스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제야 불안감이 그를 뒤덮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총감은 날카로운 동작으로 손에 쥔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편지를 펼친 뒤,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표정까지 놓치지 않았다. 페레나의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인가? 다섯 번째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데스말리옹은 문장이 시작되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도 루이스에게로 몸을 돌리며 속삭였다.

"당신이 맞습니다, 각하. 우리는 지금 권리 주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의 주장입니까, 각하?" 도 루이스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데스말리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읽기를 계속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저울질하듯 주의 깊게 다시 읽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큰 소리로 읽어 나갔다.

"운명적인 편지 교환 덕분에 루셀 가문의 미처 알려지지 않은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에야 그 인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뜻밖의 장애물들이 닥친 끝에 마지막 순간에야 이 서류들을 당사자 본인을 통해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비밀을 존중하며, 우연히 얽히게 된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 맨아래에 서명을 하지 않는 점, prefect(도지사)님께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야 페레나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예언은 사건들을 통해 정확히 증명되고 있었다.

지정된 시간이 되자, 누군가 나타났다. 요구는 적절한 시기에 제기되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 특히 정확히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은, 이 사건 전체를 지배했던 기계적인 정확성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 낯선 이는 누구였는가? 가능한 상속자이자, 따라서 다섯이나 여섯 번 살해당한 자였을까? 그는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벽 하나만이 그를 시선으로부터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곧 그가 올 것이다. 곧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곧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총감이 종을 울렸다.

몇 초간의 불안이 흘렀다. 이상하게도 데말리옹 씨는 페레나의 시선을 떼지 못했다. 페레나는 겉으로는 완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이 밀려났다.

법원 집행관이 길을 비키며 누군가를 들여보냈다.

그 사람은 플로랑스 르바세르였다.

제15장

도 루이는 순간 경악했다. 플로랑스가 여기 있다? 그런데 그 플로랑스는 마제루의 감시 아래 기차에 태워둔 상태였고, 물리적으로 오후 여덟 시가 되기 전에는 파리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어지러워진 머리를 간신히 수습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뒤쫓기는 자신을 의식한 플로랑스가 그들을 생라자르 역까지 끌고 온 것이다. 그녀는 역선 너머로 몸을 숨겼고, 착실한 마제루는 기차에 실려 가면서 사라진 승객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의 눈앞에 끔찍한 현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플로랑스가 유산을 요구하러 나타난 것이다. 그 요구는 곧 그가 스스로 말한 대로, 가장 끔찍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도끼처럼 날카롭게 도 루이스가 소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팔을 꽉 잡더니, 거의 증오에 가까운 격렬한 어조로 외쳤다.

"여기서 대체 뭐 하러 온 거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소?"

데말리옹 지사가 나섰다. 하지만 도 루이스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소리쳤다.

"에이, 총감 각하! 보지 못하시나요? 이건 모두 착오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인물은 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쪽이 또다시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플로랑스 르바세르가…"

"저는 이 소녀에게 어떤 편견도 없습니다." 총감이 위압적인 어조로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방문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는 소녀를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혔다.

그 자신은 책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소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소녀의 등장은 도 루이스의 논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유산 상속 자격이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는 것은, 논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죄자가 직접 자신의 죄를 증명하러 온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도 루이스는 그 점을 명확히 느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가니마르 경찰청장을 눈에서 떼지 않았다.

플로랑스는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름다운 검은 눈에는 늘 그러하듯 고요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간호사 복장은 벗어던졌고, 장식이 없는 아주 단순한 회색 드레스는 그녀의 조화로운 몸매를 드러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진지하고 차분했다.

데말리옹씨가 그녀에게 말했다.

"설명해 주시오, 아가씨."

그녀가 대답했다.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총감님. 저는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그 임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요."

"무슨 뜻이오? 의미를 알지 못한다니?"

"여기 있습니다, 총감님. 제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가장 깊은 존경을 드리는 분께서 이 서류들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서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 중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즈모 모닝턴의 유산 배분 문제 말입니까?"

"네, 총감님."

"총감님은 아시겠지만, 만약 이 주장이 이번 회의 도중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미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류를 받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한두 시간 더 일찍 건네받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급히 빠져나와야 했거든요."

페레나는 자기가 범인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개입해서 플로랑스가 도망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적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주지사는 계속 말했다.

"그러면 이 문서들을 당신에게 맡긴 이유를 당신은 모른다는 거요?"

"네, 주지사님."

"그리고 당연히, 그 문서들이 당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역시 모른다는 거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지사님."

데말리옹 부인이 미소 지으며, 플로랑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동반된 편지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확실해 보이는 것은, 당신이 루셀 가문의 후손이며, 따라서 코즈모 모닝턴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는 저절로 터져 나왔다. 놀람과 항의의 비명이었다.

그는 즉시 재촉했다.

"저는 이 유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총경님. 전혀 없습니다. 모닝턴 씨를 만난 적도 없어요. 대체 무슨 말인가요?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겉보기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태도는 경찰 총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확실히 감동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총경은 도 루이스의 논거와, 이 모임에 나타날 사람에게 미리 제기된 비난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서류를 좀 주시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봉인되지 않은 파란색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접힌 부분이 닳고 여기저기 찢어진 누런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그는 고요한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찬찬히 훑어보고, 모든 각도에서 면밀히 살폈다. 돋보기를 들어 지문과 공인 날인이 찍힌 서명까지 하나하나 해독했다.

"모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인 날인도 분명하죠."

"그렇다면, 총감님?"

플로랑스의 목소리가 떨리며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미스. 당신의 무지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가转向하며 변호사에게 말을 건넸다.

“요약하자면, 이 문서들이 말해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고스통 소베랑은 코스모 모닝턴의 네 번째 상속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라울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라울은 아르헨티나 공화국에 살고 있었죠.

라울은 죽기 전, 한 아이를 유럽으로 보내었습니다. 아이는 다섯 살 여자아이가었고, 노모의 보호를 받으며 말입니다. 그 아이는 라울의 딸이었습니다. 사생아였지만,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딸이었죠. 어머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착한 프랑스인 교사, 르바세르 부인이었습니다.

여기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고 서명한 진술서도 있습니다. 노모가 작성한 확인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저명한 상인 세 명이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 증명서도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되었고, 프랑스 영사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서류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라울 소베랑의 딸, 즉 고스통 소베랑의 조카로 간주해야 합니다."

"가스통 소베랑의 조카라니…… 그 조카라니……" 플로랑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거의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극히 아끼던 가스통 소베랑을 떠올렸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녀와 혈연으로 깊게 연결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눈물은 진정한 것일까, 아니면 세세한 감정 표현까지 완벽하게 연기하는 배우의 눈물일까. 그녀에게 그 사실이 정말로 밝혀진 걸까, 아니면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연기하는 걸까.

루이스는 젊은 소녀를 감시하는 것 이상으로 데스말리옹 씨를 주시했다. 곧바로 결정을 내릴 그 남자의 속마음을 읽어내려 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는 확신했다. 플로랑스의 체포는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것을,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체포보다도 더 확실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

"플로랑스."

그녀는 눈물을 머금어 흐려진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이스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을 방어하려면, 플로랑스. 당신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플로랑스, 경찰청장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이끄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방에 들어와서 상속 권리가 명확한 사람은, 바로 모닝턴 일가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들어왔고, 당신은 코스모 모닝턴의 확실한 상속인입니다."

그는 그녀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떨리고, 죽은 자처럼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항변의 말 한마디도, 거부의 제스처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기소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대답할 게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하죠? 너무 모호한 일들이잖아요."

그녀 맞은편에 섰던 도 루이스는 공포에 떨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다예요? …수락하시는 건가요?”

잠시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제 죄를 인정하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다는 거요?”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듯했다. 공포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감옥은 마리안과 소베랑이 겪었던 고문과 같았을 것이다. 그것은 절망, 수치, 죽음, 그리고 마리안과 소베랑이 피할 수 없었던 모든 끔찍한 것들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의 희생자가 될 운명이었다…

거대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신음했다.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느껴! …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 어둠이 나를 질식시켜! … 아, 내가 보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

긴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 위에 몸을 굽힌 데스말리옹 씨는 집중력을 모아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하자, 그는 손으로 벨을 향해 뻗어 세 번 울렸다.

돈 루이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플로랑스에게서 단 한 순간도 떼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사랑과 관용의 본능이 그에게 이 소녀를 믿게 했지만, 이성은 그를 경계하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하여 그녀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을까?

베버가 들어왔다. 그의 부하들이 뒤따랐다. 데스말리옹 씨는 베버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플로랑스를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는 듯했다. 베버가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플로랑스." 돈 루이스가 불렀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베버와 그의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장 자신에게 닥칠 일을 깨달았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잠시 동안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어지러움에 빠진 그녀는 기절할 듯 쓰러져 돈 루이스의 품으로 떨어졌다.

"제발, 저를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그 제스처에는 그런 전적인 몰입이 담겨 있었고, 그 비명에는 무죄의 당혹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돈 루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뜨거운 믿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 그의 의심, 거리낌, 망설임, 고뇌는 모두 무자비하게 밀려오는 확고한 확신 앞에 삼켜졌다. 그것은 마치 통제할 수 없는 파도처럼 그의 안에서 거세게 밀려왔다.

그가 외쳤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총독 각하,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는 플로랑스를 품에 꼭 안았다. 그에게서 떨어뜨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소녀의 얼굴에 바짝 다가갔다.

그녀가 온몸으로 떨리고, 너무도 연약하며 당황해 있는 것을 느낀 그는 감격에 떨었다. 그리고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속삭였다.

"저를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플로랑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이 아셨으면…… 아, 플로랑스, 플로랑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총독의 손짓에 웨버는 물러났다. 드스말리옹 씨는 이 두 신비로운 인물, 돈 루이스 페르냐와 플로랑스 르바쾨르의 예상치 못한 조우를 지켜보고자 했다.

돈 루이스는 팔을 풀고 젊은 소녀를 안락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두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리고 정면으로 마주 보며 말했다.

"플로랑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어둠 속에서도 거의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플로랑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뒤, 당신 위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존재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건가요?"

"누구도 저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남들이 하라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어서 행동하는 일들이 많잖아. 하지만 그 결과까지 너는 모른 채로."

그가 쫓아 물었다.

"대답해 봐. 너는 완전히 자유로운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가?"

소녀는 정신을 가다듬은 듯했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 루이스의 질문이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준 것 같았다.

"아니요, 전혀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다시 추궁했다. 열정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였다.

"아니요, 확신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코스코 모닝턴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부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저도, 또 제가 단언하건대 당신 자신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답해 보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 혹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 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친구입니까? 약혼자입니까?"

그녀는 반발하듯 몸을 떨었다.

"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아!" 그가 외쳤다. 질투에 몸이 떨리며. "그렇다면 인정하는군요…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군요! 아, 그 비열한 놈을…."

그는 다시 데말리옹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증오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더 이상 참으려 하지도 않았다.

"총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 길로 가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 그 야수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총감, 이 문서들과 함께 온 편지, 미스께서 드린 서명 없는 그 편지는 테른스 가에 있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수녀원장이 쓴 것입니다."

"즉시 그 클리닉에서 조사하고, 수녀원장을 심문하며, 미스와 대면시켜 보세요. 그러면 범인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늦어지면 안 됩니다. 야수가 도망쳐 버릴 테니까요."

그의 격분은 어쩔 수 없이 치솟았다. 그의 확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밀려왔다.

드말리옹 씨가 반박했다.

"미스, 당신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녀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혹은 그 남자가 그녀의 눈앞에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 총감님, 이번에도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드린 약속을 모두 지켜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으십시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리안 포빌과 가스통 소베랑에게 가해진 가혹한 모든 혐의가 그들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당이 피오렌스 르바세르를 그 두 사람처럼 희생시키려 할까요?

제 요구는 그녀의 석방이 아닙니다. 그녀를 변호할 수 있는 방법, 즉 하루 이틀의 여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소위 Weber에게 그녀를 책임지게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경찰들이 동행하게 하십시오. 그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살인자를 완전히 포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데말리옹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웨버를 옆으로 불러내 몇 분간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다.

사실 데말리옹은 돈 루이스의 요구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이내 웨버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십시오, 총감님. 저희는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결국 데말리옹은 양보했다.

잠시 후 돈 루이스 페레나와 플로랑스는 웨버와 형사 두 명을 태운 자동차에 올랐다. 그 뒤를 경찰관들이 가득 탄 다른 자동차가 따랐다.

보건소는 경찰력들로 가득 찼고, 웨버는 철저한 포위 작전처럼 모든 경계 조치를 쌓아 올렸다.

경찰청장도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다. 하인이 그를 안내해 앞방으로, 이어 대기실로 들였다. 곧 수녀원장이 불려와 그와 합류했다.

루이스 신부, 웨버, 그리고 플로랑스가 함께 있는 자리였다. 경찰청장은 서론 없이 곧장 물었다.

"자매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이 편지가 배달되었더군요. 특정 유산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서명 없이 필체를 숨긴 이 편지가 바로 자매님의 손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강인한 인상의 수녀원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총감님. 제가 편지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기 쉬운 이유들이 있어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들을 보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들 손에 잡힌 이상, 저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스말리옹 총감이 플로랑스를 빤히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매님, 이 아가씨를 아십니까?"

"네, 총감님. 플로랑스는 몇 해 전 우리 집에서 약 여섯 달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훌륭해서, 여보름 전 다시 불러들였죠. 신문에 그녀의 사연이 실린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새로웠으니까요. 그녀에게 이곳은 확실한 피신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신문을 통해 그녀가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겠지요?"

"그런 비난은 피렌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monsieur le préfet. 저는 그녀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녀야말로 제가 만난 영혼 중 가장 고결하고, 양심 중 가장 고귀한 분이었습니다."

총경은 말을 이었다.

"그럼 문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나. 그 문서들은 어디서 온 것이오?"

"어제, monsieur le préfet. 제 방에 피렌체 르바세르 씨와 관련된 서류를 건네주겠다는 통지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소?" 데말리옹 씨가 끊어 말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 아침, 즉 오늘 아침에 베르사유 우체국에서 제 이름으로 서류가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 서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후 세 시에 플로랑스 레바쾨르에게 건네서 즉시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아울러 마제루 소위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임무도 맡았죠."

"마제루 소위라니! 이상하군."

"그 편지 역시 역시 같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플로랑스를 무척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고, 오늘 아침 베르사유로 향했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돌

아왔을 때 플로랑스는 없었죠. 오후 네 시쯤 그녀가 돌아와서야 비로소 서류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내온 거요?"

"파리였소. 봉투에는 니엘 거리 우표가 찍혀 있었소. 바로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이지."

"그런 것들이 당신의 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소?"

"물론입니다, 총감 각하. 하지만 그 자체만 보면 이 사건의 다른 모든 단서들과 다를 바 없었소."

"하지만…… 하지만……" 데말리옹 총감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플로랑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받은 지시가 바로 이 집, 이 곳에서 나왔고, 그 대상이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이……"

"플로랑스가 내 몰래 방에 숨어들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수녀원장이 외쳤다. "아, 총감님, 플로랑스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어요."

젊은 소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얼굴이 일그러진 채 공포에 질린 심정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루이스 신부가 다가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둠이 걷히고 있군요, 플로랑스? 그 사실이 당신을 괴롭히는군요. 누가 수녀원장의 방에 그 편지를 남겼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죠? 이 모든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인지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총감은 차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베버, 미스 플로랑스가 묵던 방을 조사해 주시오."

수녀가 항의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로랑스 아가씨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플로랑스 본인이 길을 안내했다. 하지만 웨버가 밖으로 나서는 순간, 도 루이스가 소리쳤다.

"조심하십시오, 차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조심해야 합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 루이스가 말했다. 그는 사실 플로랑스의 행동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단 경고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웨버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수녀원장과 함께 떠났다. 복도에서 그는 두 명의 병력을 추가로 데려왔다. 플로랑스가 앞서 걸었다. 그녀

는 한 층을 올라가, 방들이 늘어서 있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는 한 번 꺾여 매우 좁은 작은 복도로 이어졌고, 그 끝에는 한 개의 문이 있었다.

바로 그곳이 그녀의 거처였다.

문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열렸다. 플로랑스는 몸을 뒤로 빼면서 문을 자신 쪽으로 당겼다. 그러자 웨버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틈을 타 플로랑스는 안으로 뛰어들더니, 문득 문을 닫았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부하장은 문짝을 잡으려다 공중을 주무른 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웨버가 화가 난 듯 몸을 떨었다.

"저 여자가 서류를 태워버리려 해!"

그는 이모에게 물었다.

"이 방에는 다른 출구가 없나요?"

"없습니다, 각하."

웨버가 문을 열려 했지만, 자물쇠와 빗장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부하 중 한 명을 먼저 들여보냈다. 키가 큰 그 남자는 주먹으로 문짝 한쪽을 통째로 부수었다.

웨버가 다시 앞장서서 구멍을 통해 팔을 집어넣었다. 빗장을 풀고, 열쇠로 자물쇠를 돌린 뒤 안으로 들어섰다.

플로랑스는 이미 방에 없었다.

정면의 작은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가 간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젠장, 잘도 달아났네!" 그가 외쳤다.

그는 계단 쪽으로 돌아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모든 출구를 감시하라! 그녀를 꼭 붙잡아라!"

데말리옹 씨가 달려왔다. 부하 두목과 마주친 그는 설명을 듣고 나서 플로랑스의 방으로 향했다. 열린 창문은 안쪽의 작은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건물 일부 방들의 환기를 위해 쓰이는 우물 같은 공간이었다. 배관들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다. 플로랑스는 그 배관에 매달려 내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탈출을 가능하게 한 냉정함과 끈기라니!

이미 형사들은 도망자를 막기 위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곧 플로랑스의 행방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지하실과 1층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았지만, 사실 그녀는 안마당으로 들어와 바로 아래층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바로 수녀원장의 방이었다. 플로랑스는 수녀복을 입었고, 그 변장 덕분에 그녀를 쫓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인구가 밀집한 이 지역에서 수색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경찰청장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돈 루이스도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린 이 도주에 실망했지만, 웨버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형사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했어요."

르바쥬르 부인의 태도는 모든 것을 예감케 했다. 그녀는 범인을 알고 있었다. 범인을 만나 explanations을 구하고, 설령 설득이라도 된다면 그를 구원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신이 발각됐다고 느낀 범인은 아무 일도 저지를 수 있다.

데스말리옹 형사는 다시 수녀원장을 심문했다. 곧 그는 플로랑스 르바쥬르가 여덟 날 전, 클리닉으로 숨어들기 직전 사흘 동안 상테르르생루이 섬에 있는 작은 하숙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단서가 그리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파리 경찰청장은 플로랑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그 소녀를 붙잡는 일에 극도로 집착하고 있었다. 그는 웨버와 그 일행

에게 지체 없이 이 추적을 시작하라고 명했다. 돈 루이스도 부하장수를 따라 나섰다.

사실 경찰청장은 바로 그날부터 자신의 예언이 맞았음을 입증받았다.

플로랑스는 생루이섬에 있는 하숙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가명을 써서 방을 예약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한 어린 소년이 하숙집 사무실로 나타나 그녀를 불러냈다. 그리고는 그녀를 데리고 가버렸다.

방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신문을 감싼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수녀복이 들어 있었다.

오해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나중에 밤이 깊어서야 베버는 그 어린 소년을 찾아냈다. 소년은 근처에 사는 문지기 집 아들이었다.

그가 플로랑스를 어디로 데려갔을까. 물으니 그는 절대 그 여자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여자는 자신에게 의지하며 울면서 입맞춤까지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애원했고, 아버지는 때렸다. 하지만 소년은 단호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플로랑스가 생루이 섬이나 그 인근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온 밤내내 수색은 계속되었다. 베버는 정보 수집의 본거지를 한 술집에 마련해 두었다. 형사들이 가끔씩 그곳에 돌아와 지시를 받았고, 그는 경찰청과도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열 시 삼십 분, 주지사 파견 경찰들이 도착해 부경의 지시를 기다렸다. 루앙에서 급히 달려온 마제루도 이들에 합류했다. 그는 플로렌스를 원망하며 화가 잔뜩 차 있었다.

수색은 계속되었다. 루이스가 사실상 지휘를 맡았고, 웨버는 그의 지시를 받아 각 문을 두드리거나 특정 인물들을 심문했다.

열 한 시가 되자 수색 결과는 여전히 없었다. 루이스는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갔다.

하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섬의 동쪽 끝, 앙주 부두 끝자락으로 몰려들었다.

거기서 두 명의 순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경 주변에는 군중이 둘러서 있었다. 순경들은 방금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섬 바깥, 앙리 4세 부두 쪽에서 한 대의 택시가 한 집 앞에 멈춰 서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논쟁 소리를 들었다가, 곧 택시가 방생(方生)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Henri-IV 부두로 달려갔다. 집은 곧바로 지목되었다. 1층에 있는 문이 바로 인도와 이어져 있었다. 택시는 그 문 앞에 몇 분간 정차

해 있었다. 두 사람이 1층에서 내려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갔다. 차문이 닫히자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사, Saint-Germain 대로로. 부두를 지나서 Versailles로 가는 길로."

하지만 관리인의 말은 더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이 지하실 세입자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 세입자를 단 한 번, 저녁에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찰스라는 이름으로 서명한 우편환으로 집세를 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들르는 사람이었다. 관리인은 자신의 다락방이 그 아파트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목소리 소리를 들을 기회를 노렸다.

남자와 여자가 다투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남성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나와 함께 가요, 플로랑스. 제가 원해요. 내일 아침만 되면 제가 무죄라는 모든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설령 제가 당신과 결혼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저는 곧 배를 탈 거예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또 다시 매우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플로랑스? 내가 너를 죽일까 봐? 아니, 아니, 안심해라……"

경비 아줌마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정도면 모든 공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가?

도 루이스는 부장 형사의 팔을 꽉 잡았다.

"가자! 내가 알았어. 이 남자는 뭐든 할 수 있어. 호랑이야! 그가 플로랑스를 죽일 거야!"

그는 돌진하듯 뛰어나가, 부장 형사를 데리고五百 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한 검찰청 소속 자동차 두 대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제루는 여전히 항의했다.

"집을 수색하고 단서를 확보하는 게 더 나을 텐데요……"

"아!" 도 루이스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외쳤다. "집이든 단서든 나중에 다시 찾으면 돼…… 하지만 그는 시간을 벌고 있어…… 플로랑스를 데려가고 있고…… 곧 그녀를 죽일 거야…… 이건 함정이야. 나는 확신해."

그는 밤하늘을 가르며 비명을 질렀고, 두 사람을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출발!" 그들이 자동차들을 눈앞에 두고서야 돈 루이가 명령했다.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

그가 조수석에 오르려 했지만, 웨버가 그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며 말했다.

"필요 없어요… 이 운전사는 제 역할을 잘 알거든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돈 루이와 부두, 그리고 경찰 두 명이 차 안으로 쏘아 들어갔다. 마제루는 운전석 옆에 앉았다.

"베르사유 대로로!" 돈 루이가 내뱉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계속 말했다.

"우리가 잡았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차는 적당히 빨리 가야 해. 그가 추격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가속할 필요는 없어… 아, 이 도둑놈, 이제 코가 막힐 판이군… 더 빨리 가, 기사! 그런데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다니지? 우리 두 사람만 탔어도 충분했을 텐데… 에이, 마제루, 너는 내려서 다른 차로 옮겨 타라… 그렇지, 부장,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는 말을 멈췄다. 뒷좌석 중앙에 앉아 부장과 형사 한 명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다가가며 속삭였다.

"어이쿠, 저 멍청이가 어디로 가는 거지? 길이 아니야… 잠깐, 잠깐,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한바탕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Weber가 기쁨에 발을 구르고 있었던 것이다. Don Luis는 욕설을 삼키며, 간신히 힘을 모아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여섯 개의 손이 그에게 내려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부두목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형사들은 그의 팔을 마비시켰다. 차 안이 너무 좁아 몸부림칠 틈이 없었고, 그의 측두부에는 권총의 차가운 금속이 닿아 있었다.

"말장난 말고!" Weber가 포효했다. "안 그러면 쏴버리겠어, 친구야. 아하!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 하! Weber의 복수다…"

Perenna가 몸부림치자,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네 탓이야… 내가 세는 거야… 하나… 둘…"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이야?" Don Luis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주지사 지시야. 방금 받은 거."

"어떤 지시라고?"

"플로랑스가 또다시 우리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그 여자를 데포로 데려갈 거야."

"체포 영장이라도 준비했나?"

"영장은 가지고 있어."

"그다음엔?"

"그다음은 끝이야. 상테 형무소로 보내고, 심문 절차에 들어가는 거지."

"미친놈 같으니라니! 그 사이 호랑이는 이미 도망갔잖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바보들이 다 있지! 천벌이 내려야 해!"

그가 분노에 치밀어 오르고 있을 때, 차가 데포의 안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굳혔다. 부주임을 제압하고, 한 순경의 머리를 주먹으로 후려쳐 기절시켰다.

하지만 열 명의 남자들이 차 문틈으로 몰려들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분노는 더욱 치솟았다.

"바보 같은 놈들!" 그는 법원 사무실 문 앞에서 경찰들에게 에워싸여 몸수색을 받으면서도 소리를 질렀다. "먹튀들 같으니라니! 사보타주꾼들! 이런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범인은 코앞에 있는데 정작 잡히는 건 성실한 시민이라니……. 그리고 범인은 날뛰고 있다……. 곧 큰 일이 벌어질 거야……. 플로랑스……. 플로랑스……."

등불 불빛 아래, 자신을 붙잡은 경찰들 한가운데서 그는 무력함과 에너지가 뒤섞인 모습으로 장엄해 보였다.

그는 끌려갔다.

그는 놀라운 힘으로 몸을 일으켰다. 죽어가지만 제멋대로인 짐승의 살점을 뜯어먹는 사냥개 무리처럼 자신에게 달라붙은 남자들을 뿌리

쳤다. 웨버도 떨쳐내고, 마제루를 향해 다가가서는 반말을 쓰며 위엄 있게 말했다.

그의 태도는 거의 평온할 정도였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짧고 숨 찬 문장으로, 마치 군인의 명령처럼 간결하게 지시를 내렸다.

"마제루, 총독 관저로 가! 발랑글레에 전화해라… 네, 총리 각료에게… 내가 만나고 싶다. 미리 알리도록 해라. 내가 온다고… 내가 왔다고. 내 이름? 그건 알고 있을 거야.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에게 상기시켜 주게. 내 이름은 이렇네."

그는 몇 초간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더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아르센 뤼팽! 그에게 이 두 단어를 전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오. '아르센 뤼팽이 총리와 매우 중요한 건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즉시 전화하라. 나중에 내가 전한 요청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총리는 매우 불쾌해하실 것이다. 가시오, 마제루. 그리고 나서 그 도둑의 흔적을 쫓으시오."

보석 담당관은 구금 명부장을 펼쳤다.

"제 이름을 적어 주시오, 담당관님." 도 루이스가 말했다. "아르센 뤼팽이라고 적어 주시오."

담당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른 이름을 적어야 한다면 당황하겠지만, 이 이름은 적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르센 뤼팽, 일명 도 루이스 페레나.'"

돈 루이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오한이 일었다. 아르센 뤼팽으로 체포된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

"아, 그러셨군요." 돈 루이스가 말했다. "결정을 내리셨다고."

"당연하지." 웨버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소뿔로 소를 공격하기로 했어. 뤼팽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하는 거지. 대담하지 않나? 그래, 넌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돈 루이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제루를 돌아보며 반복해서 말했다.

"내 지시를 잊지 마, 마제루."

하지만 그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부른 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 루이스가 더 주의 깊게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몸이 떨렸다.

마제루도 주변에 남자들로 둘러싸여 단단히 제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불쌍한 병장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웨버는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미안해요, 뤼팽. 마제루 병장을 용서해 주시오. 그대는 그와 같은 수용소에 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구치소에서는 동료지."

"아!" 도 루이스가 몸을 굳히며 말했다. "마제루가 구금됐다고?"

"부Prefect의 명령입니다. 정식 영장도 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아르센 뤼팽의 공범."

"나? 내 공범이라고? 말이 안 돼! 세상에 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지. 하지만 그에게 편지를 쓰라고 부탁했고, 그 사람이 네 편지를 전달해 준 거야. 그가 네 은신처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지. 그리고 네게 설명해 줄 다른 일들도 많아. 뤼팽. 넌 충분히 재미있어질 거야."

돈 루이스가 중얼거렸다.

"불쌍한 마제루!"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 친구. 이 일은 밤새면 끝난다. 내가 너를 내 계획에 넣었어. 몇 시간 안에 그 왕을 무너뜨릴 거야. 울지 마. 너에게는 훨씬 더 멋지고, 더 명예로우며, 무엇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줄 자리를 준비해 뒀어. 내가 모든 걸 계산해 놨다고? 너를 잘 알잖아. 그러니 내일이면 나는 자유가 될 거야. 그리고 정부는 너를 석방한 뒤, 대장이라는 직함과 원수급의 봉급을 줄 거야. 울지 마, 마제루."

그리고는 웨버를 향해 돌아서서, 지휘자가 하달한 명령이 결코 반론의 여지 없이 실행될 것을 확신하는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마제로에게 맡겼던 중요한 임무를 다시 한번 수행해 주십시오. 먼저 경찰청장님께 총리대신에게 가장 중요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전하시고, 그다음 오늘 밤 바로 베르사유에서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내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신속함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내일 정오에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그는 지휘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뒤처럼,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감방으로 끌려갔다.

한 시간 열 분 전이었다.

오십 분 동안 적군은 주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플로랑스를 안고서, 이제야 되찾기 불가능한 사냥감처럼 말이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채워졌다.

돈 루이스는 생각했다.

"총감이 발랑글레에 전화해 주기로 동의한다 해도, 그는 오늘 아침이 돼서야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 제가 풀려날 때까지는, 그 강도에게 여덟 시간의 이득을 안겨주는 셈이죠. 여덟 시간…… 저주받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는 어깨를 으쓱였다. 당장 더 할 일이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고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자라, 뤼팽."

제16장

루이스는 잠을 부르는 힘이 강했지만, 결국 세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걱정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의 계획은 수학처럼 정확히 짜여 있었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막을 장애물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상상하며 불안해했다.

웨버는 데말리옹 씨에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데말리옹 씨는 발랑글레에게 전화를 걸까?

"걸겠지." 그가 발로 땅을 차며 단언했다. "그건 그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야. 하지만 걸지 않으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더구나 발랑글레는 내 체포 건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테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반드시 보고받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발랑글레는 경고를 받은 뒤 어떤 결단을 내릴지 궁금했다. 과연 프랑스 총리, 내각 수반이 뤼팽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비울 리가 있을까?

"그가 올 거야!"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외쳤다. 발랑글레는 의전 따위나 이런저런 궤변에 별 관심도 없을 테니까. 그가 올 거야. 호기심에서라도 올 거야. 도대체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넬지 궁금해할 테니까.

게다가 그는 나를 알고 있다. 나는 이유 없이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타입이 아니다. 나와 만나면 항상 무언가 얻어가는 법이니까. 그가 올 거야.

하지만 곧 다른 걱정거리가 떠올랐다. 발랑글레가 찾아왔다고 해서, 페레나가 제안할 거래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만약 루이스 도니도 그를 설득해 버린다면, 또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닥칠까. 의심스러운 점은 얼마나 많았는가. 실망스러운 일은 얼마나 많았는가.

웨버는 도망치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얼마나 빠르고 대담하게 쫓아갈 수 있을까. 발자취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찾았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상황이 호의적으로 흘러간다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는 맹수를 쫓고 있었다.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렇다. 하지만 그 맹수가 이미 먹이를 죽여 버린 것은 아닐까. 패배감을 느낀 자라면, 이 악당도 자신의 죄악 목록에 또 하나의 살인을 추가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까.

도 루이스에게 이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공포였다. 그는 끈질기게 믿으며 수많은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 왔건만, 결국 마주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피렌체가 희생당하고, 피렌체가 죽어 버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만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제거하는 거지."

데말리옹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를 체포하도록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까지 해서 귀찮은 아르센 뤼팽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법원은 그동안 뤼팽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피렌체 한 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고, 매분 매초가 아까웠다. 잃는 시간마다 피렌체는 끔찍한 절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몇 해 전, 자신의 감옥 문이 열리고 독일 황제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던 그 비슷한 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의 그 순간은 훨씬 더 엄숙했다. 옛날에는 그저 자신의 자유 문제가 걸려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운명은 플로랑스의 생명을 그에게 내어줄지, 아니면 거절할지 결정하려 하고 있었다.

"플로랑스! 플로랑스!"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무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즉 그녀를 납치한 자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점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녀를 탐내던 부의 담보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전리품으로 간주했다. 만약 그 전리품을 지킬 수 없다면, 그는 그것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플로랑스! 플로랑스!"

그는 전례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플로렌스를 쫓아갈 수 있을까? 살인자를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다. 그는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지금 그가 풀어야 할 문제는 오직 하나였다. 몇 달을, 아니면 몇 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플로랑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인생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의 열정, 사치에 대한 욕망, 권력욕, 투사로서의 쾌감, 야망, 원한은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두 달 동안 그는 오직 그녀를 얻기 위해 싸워왔다. 진실을 파헤치는 일, 범인을 처벌하는 일—그 모든 것은 플로랑스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만약 플로랑스가 죽고, 그녀를 적으로부터 구해낼 시간이 이미 지났다면, 감옥에 머무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르센 뤼팽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 이는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한 유일한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실패한 인생에게 어울리는 결말이 아니었을까?

일시적인 위기였다. 돈 루이스의 성격과는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던 그 상황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불안이나 의심의 찌꺼기조차 남지 않았다. 오직 절대적인 신뢰뿐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감방 안에는 점점 밝아지는 빛이 가득 찼다.

그때 돈 루이스가 문득 생각났다. 발랑글레가 아침 8시에 보오보 광장에서 각료 관저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평정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마치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느껴졌다.

투쟁은 손쉬워 보였고, 현실은 복잡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마치 이미 행동이 끝난 것처럼 명확히 직감했다.

차장은 반드시 경찰청장에게 정중한 보고를 했을 것이다.

경찰청장은 반드시 그날 아침 발랑글레에게 아르센 뤼팽의 요청을 전달했을 것이다.

발랑글레는 반드시 뤼팽과의 면담이라는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다.

그 면담에서 뤼팽은 반드시 발랑글레의 승낙을 받아냈을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확실한 사실이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결된 문제였다.

출발점이 A라면, 중간 과정 B와 C는 건너뛰어도 상관없다.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D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

돈 루이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자, 옛 친구 아르센. 생각해보게. 당신은 호엔촐레른 씨를 브란덴부르크 변방에서 불러왔잖소. 발랑글레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필요하면 당신도 움직일 수 있소. 그래, 내가 먼저 발을 들이겠소. 바로 보보 후작을 찾아가겠네. 부통령 각하, 존경을 표합니다."

그는 신이 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이미 열려 있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면 청문회에 참석할 차례가 된 것처럼 태연하게 굴었다.

세 번이나 그 장난스러운 행동을 반복했다. 깃털 달린 모자를 든 것처럼 깊게, 오래게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세사미, 열려라."

네 번째였을 때, 문이 열렸다.

경비가 나타났다.

그는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총리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나요?"

복도에는 형사 네 명이 서 있었다.

"이분들은 호위꾼이십니까? 자, 갑시다. 아르센 뤼팽, 스페인 대공, 폐하의 사촌이라는 걸 알리시오. 형사 여러분, 따라오시오. 간수, 잘 봐준 보상으로 은화 스무 닢 드려요."

그는 복도 한가운데서 발걸음을 멈췄다.

"크리스트여, 장갑 한 켤레도 없구려. 수염도 어제 깎은 지 하루가 지났군."

형사들은 그를 양쪽에서 에워싸며 다소 무례하게 밀어냈다. 그는 두 명의 팔을 꽉 잡았다. 형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알아들으면 고마워요,라고 했죠. 형사 여러분, 제게 구타를 가할 권한은 없죠? 감옥쇠를 채울 권한도 없겠죠? 그렇다면 서로 예의 바르게 지냅시다."

소방서장은 현관 홀에 서 있었다. 그는 뤼팽에게 말했다.

"좋은 밤입니다, 친애하는 원장님. '투어링 클럽' 객실은 정말 괜찮네요. 구치소 호텔에 한 표 드립니다. 호텔 기록장에 제 확인 서명을 해 드릴까요? 안 되나요? 혹시 제가 다시 돌아올 줄 아시나요? 아차, 원장님, 그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당에는 자동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네 명의 경찰관과 그가 함께 차에 올랐다.

"보보 광장으로 가십시오." 그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비뉴스 거리라고요." 한 경찰이 바로잡았다.

"오호?" 그가 말했다. "각하의 사택이군요. 각하께서는 제 방문을 비밀에 부치길 원하시는군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잠깐, 친구들, 지금 몇 시지?"

그의 물음에는 대답이 없었다. 경찰들이 커튼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외부 시계로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드디어 발랑글레의 집으로 들어섰다. 트로카데로 근처에 있는 작은 1층 방은 수상한 총리의 거처였다. 그곳에서 그는 시계를 하나 발견했다.

"일곱 시 반."

그가 외쳤다.

"좋아. 아직 시간이 남아돈다. 상황이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군."

발랑글레의 서재는 계단이 있는 현관과 이어져 있었다. 현관 아래로는 새장들이 가득한 정원이 내려다보였다. 방 안은 책과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벨 소리가 나자, 안내해 주던 노파가 경찰관들을 데리고 나갔다.

돈 루이스는 혼자 남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무언가 행동하고 싸우고 싶은 몸의 본능이 일었다. 그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시계 바늘로 돌아갔다.

큰 바늘이 이상하게도 살아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따랐다.

그는 발랑글레와 경찰청장을 알아봤다.

'드디어 잡았군.'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낡은 의장의 해골 같은 마른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친근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관과 자신이 만나 뵙는 이 의문스러운 인물 사이에 장벽을 쌓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경쾌함이 있었고, 뚜렷한 호기심과 우호심이 드러나 있었다.

맞다. 발랑글레가 결코 숨기지 않았던, 아니 심지어 드러내며 자랑까지 하던 그런 호의였다. 아르센 뤼팽이 죽었다는 가짜 소식이 퍼진

뒤, 그는 이 모험가를 두고 그들이 나누었던 기묘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다.

"변함없군요."

그가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다 말했다.

"피부는 더 검어졌고, 사원 쪽이 좀 더 희끗희끗해졌을 뿐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직설적인 어조로 물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답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각하. 오늘 밤 저를 경찰서로 데려다 준 위버 소과장이, 플로랑스 르바수르를 태운 자동차의 행방을 추적했는지요?"

"네, 그 자동차는 베르사유에서 멈췄습니다. 탑승자들은 다른 차를 빌려 나ント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 답변 외에 더 필요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원 해방입니다, 각하."

발랑글레가 웃으며 말했다.

"바로 지금 당장?"

"최대 40분에서 50분 이내로요."

"오전 8시 30분까지, 맞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각하."

"왜 하필 전원 해방입니까?"

"코스코 모닝턴 살인범, 베로 형사, 그리고 루셀 가문을 모두 쫓는 거죠."

"당신만이 그들을 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경찰은 총동원됐습니다. 전보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범인이 프랑스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서 결코逃(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죽이게 될 겁니다. 이 강도의 일곱 번째 희생자가 되는 거죠. 당신이 원한 일입니다."

발랑글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모든 겉보기와, 경찰청장의 매우 타당한 의심을 뒤로한 채, 플로랑스 르바세르가 무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절대 무죄입니다, 대통령 각하."

"그리고 그녀가 목숨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은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사랑합니까?"

"그녀를 사랑합니다."

발랑글레는 기쁨에 떨리는 작은 전율을 느꼈다. 뤼팽이 사랑에 빠졌다니! 사랑 때문에 행동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다니! 얼마나 열정적인 모험인가!

그가 말했다.

"모닝턴 사건을 하루하루 따라다녔습니다. 누락된 디테일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해냈군요, 선생님. 당신 없었으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실수들이, 사랑이 당신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표였다는 사실을 알면 쉽게 설명됩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의 주장과 달리, 플로랑스 르바서의 행동, 그녀가 상속자라는 신분,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뜻밖의 탈출은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큰 의심을 남깁니다."

도 루이스는 시계를 가리켰다.

"대통령 각하, 시간이 이미 늦었습니다."

발랑글레가 크게 웃어댔다.

"참으로 특이한 분이시군! 도 루이스 페르나, 만약 제가 전능한 군주라면 아까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신은 제 비밀 경찰의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 황제께서도 이미 그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발랑글레는 더 크게 웃었지만, 벽시계는 이미 7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 루이스는 불안해졌다. 발랑글레는 자리에 앉더니,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도 루이스 페레나 씨. 당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첫날, 즉 쉬셰 대로 살인 사건이 터진 그 순간부터, 경찰청장과 저는 이미 당신의 정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페레나라는 가면을 쓴 이는 바로 아르센 뤼팽이었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왜 당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부활시키려 하지 않았는지, 또 왜 당신에게 일종의 보호를 베풀었는지 그 이유를 당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찰청장도 제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던 일은 공중위생과 정의라는 선한 작업이었습니다. 당신의 협력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했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도 페레나는 올바른 싸

움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아르센 뤼팽이라는 존재를 그림자 속에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발랑글레는 잠시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불행히도, 경찰청장은 어제 저녁, 당신을 아르센 뤼팽으로 지목하는 매우 상세한 고발장과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돈 루이스가 외쳤다. “이건 그 누구도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르센 뤼팽은 이미 죽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지요.” 발랑글레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돈 루이스 페르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돈 루이스 페르나는 존재합니다, 대통령 각하. 아주 합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누가요?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고발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멍청하지는 않겠지만, 교활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페루 대사관 부관인 카세르스 씨의 일인가요?”

“하지만 그는 여행 중입니다!”

그는 대사관 금고 털이를 저지른 뒤 도망친 자다. 하지만 해외로 도망치기 직전, 어제 밤 우리에게 전달된 진술서에 서명했다. 그 진술서에는 그가 당신을 위해 '도니 루이스 페레냐'라는 가명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고 있다.

당신과 그의 편지 교환 내역과,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가 여기에 있다. 이 서류들을 살펴보기만 해도 당신은 확신할 수 있다. 첫째, 당신이 도니 루이스 페레냐가 아니라는 점. 둘째, 당신이 바로 아르센 뤼팽이라는 점.

도니 루이스는 분노에 찬 제스처를 취했다.

"저 개자식 카세레스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야. 그 이면에 있는 자, 그를 돈을 주고 부린 자가 진짜 범인일세. 바로 그 악당이지. 내 손길을 알아보는군. 또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제거하려던 거야."

"그렇게 믿겠습니다." 총리가 말했다. "하지만 동봉된 서한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모두 사진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을 체포하지 못하면, 원본은 오늘 밤 파리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이 제보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리 각하!" 돈 루이스가 외쳤다. "카세레스는 해외에 있고, 그에게서 이 문서를 산 도둑도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미 도망갔습니다. 이제 문서가 신문으로 넘어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적군은 미리 대비했을 것입니다. 동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돈 루이스는 발랑글레를 돌아보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말입니다. 카세레스 씨의 협박이 빗발쳤지만, 파리 경찰청장은 플로랑스 르바세르의 역할을 최대한 밝히려는 마음에서 어제 밤의 출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출동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최소한 루이 공이 우리 편에 서 있는 틈을 타서 아르센 뤼팽을 체포하려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를 석방한다면, 관련 문서들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중 앞에서 당혹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데 정작 그 순간에, 당신은 아르센 뤼팽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며 용납될 수 없는 석방이죠.

따라서 저는 당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절합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몇 초가 흐른 뒤, 그는 덧붙였다.

"아니면……"

"아니면 무엇?" 도 루이가 물었다.

"아니면, 제가 결국 말하려던 바입니다만, 제가 아르센 뤼팽을 무의미하게 석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골치 아픈 일들을 감수할 만큼, 대단하고도 놀라운 대가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하지만 대통령 각하, 제가 진범, 즉……의 살인자를 잡아가 드리면……"

"그건 제가 당신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각하께, 일을 마치는 대로 즉시 돌아와 스스로 투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명예로운 약속을 믿어 주시겠습니까?"

발랑글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대립각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졌다. 발랑글레 같은 남자가 말과 약속만으로 만족할 리 없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듯한 이득을 원했다.

돈 루이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도, 대통령阁下, 제가 조국을 위해 해드린 몇 가지 공적을 고려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설명해 보시오."

돈 루이스는 방 안을 몇 걸음 걸어 다니더니, 다시 발랑글레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각하. 1915년 5월,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파시 부두, 모래 더미 옆에 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상대로 은밀히 금화를 모아온 적국이, 그 금화 세억만 루이를 실은 주머니들을 이삿짐차에 싣고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주머니들을 몇 달째 찾아헤매고 있었죠."

"두 남자의 이름은 발랑글레와 데말리옹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이들을 이 자리에 부르며, 발랑글레 장관에게 지팡이를 모래 더미에 꽂으라고 권했습니다. 금화는 바로 그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며칠 후, 사억 루이 금화를 앞당겨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이탈리아가 프랑스 편에 서게 됩니다."

발랑글레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말해준 겁니까?"

"세 번째 인물이었군요."

"그 세 번째 인물의 이름은?"

"루이스 페레나 경."

"당신! 당신이라고!" 발랑글레가 외쳤다. "당신이 그 숨겨진 곳을 발견한 거요? 당신이었군요!"

"네, 대통령 각하. 그때 각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물으셨죠. 오늘 제가 그 보답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대답은 곧바로 돌아왔다. 그전에는 비웃음 섞인 작은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다.

"오늘? 네, 즉 사 년이 지난 오늘이군요. 참으로 늦으셨네요, 각하. 모든 일은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전쟁도 끝났잖아요. 옛날 일을 다시 파헤칠 필요는 없어요."

루이스 페레나 경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말을 이었다.

"1917년, 사레크 섬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소. 대통령 각하, 그건 잘 아시겠지. 하지만 도니 루이스 페르냐가 관여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꾸민 계획들은… 아시다시피 모르시겠지."

발랑글레가 책상 위에 주먹을 내리쳤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는 상대방을 향해 당당하면서도 친밀한 어조로 일갈했다.

"자, 아르센 뤼팽.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정말로 이一局를 이기고 싶다면, 필요한 값을 치르십시오.

당신은 과거나 미래의 은혜를 운운합니다. 하지만 아르센 뤼팽이라는 자가 발랑글레의 양심을 사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잠깐만요. 당신의 온갖 일화들, 특히 오늘 밤의 사건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이제 플로랑스 르바세르와 당신은 대중에게 있어 이미 이 비극의 책임 있는 저자들입니다. 아니, 뭐라 할까요?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범인이죠.

플로랑스가 도망친 지금,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요구하다니요. 좋습니다. 하지만 천벌받으라, 값을 치르십시오. 망설임 없이."

도 루이스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안에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려는 순간, 그는 마지막 망설임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멈춰 섰다. 결심이 선 것이다. 지불해야 했다. 그는 지불할 것이다.

"저는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도 루이스는 태도와 표정에서 큰 정직함을 드러내며 단언했다. "제가 당신께 바칠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놀랍고 위력적이라 하더라도, 플로렌스 르바세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덜 불리한 거래를 찾아볼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은 그 희망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요구한 대로, 그리고 제가 이미 결심한 대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지겠습니다."

구식 대통령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경이롭고도 놀라운 일이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어떤 제안이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

"말씀하십시오, 각하."

루이스 페레나 공작은 발랑글레와 마주 앉았다. 대등한 파트너가 거래를 나누듯 당당한 태도였다.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하. 제가 자국 정부 수반에게 제안할 거래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단 한 문장?"

"그렇습니다."

루이스 페레나는 발랑글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음절 하나하나를 분명히 짚어가며 말했다.

"자유를 스물네 시간만 주십시오.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내일 아침, 플로랑스와 함께 이 곳으로 다시 오겠다는 명예로운 약속을 대신으로요. 그녀가 없어도 제가 자수할 수 있도록, 제 무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무거운 어조로 이어서 말했다.

"저는 대통령閣下께 하나의 왕국을 드립니다."

이 말은 너무도 거대했고, 우스꽝스러웠으며, 바보 같았다.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오직 바보나 미치광이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발랑글레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남자가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비밀이 그토록 중요한 거대 정치 문제들에 익숙한 그였기에, 본능적으로 경찰청장을 향해 한눈을 팔았다. 데스말리옹 씨의 존재가 자신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듯이.

"저는 강력히 건의합니다." 돈 루이가 말했다. "경찰청장께서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가치에 가장 잘 공감하실 분입니다. 일부 내용에서는 그분의 증언이 정확성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더구나 데스말리옹 씨는 실수로라도 저를 실망시킬 만한 사생활 침해는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랑글레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대통령 각하."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군요." 데스말리옹 씨가 말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4년 전 파시 강변에서 우리가 비밀 회의를 나눴던 그날 밤, 저는 당신에게 약속했죠, 데스말리옹 씨. 당시에는 하급 관료에 불과했던 당신이 경찰청장이 되도록 해드리겠다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영향력 있는 세 명의 장관이 당신의 임명을 요청했죠. 그들을 지명해야 할까요?"

"필요 없소!" 발랑글레가 더 크게 웃으며 외쳤다. "필요 없소.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전능함을 믿죠. 자, 데스말리옹, 그 얼굴을 왜 그렇게 짓고 있소? 그런 분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치욕이 아니오. 말해보시오, 뤼팽."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도 루이스의 제안이 실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믿지도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악마 같은 인물이 어디까지 용감함을 밀어붙였는지였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평온하고 순진한 태도로 내세우는 주장이, 과연 어떤 기적적이고 새로운 모험에 기반한 것인지 궁금했다.

"잠시만요." 도 루이스가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쪽으로 다가가, 작은 벽걸이 지도 하나를 내려왔다. 아프리카 북서부를 그린 지도였다. 이어 그는 그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네 모서리에 무거운 물건들을 올려 지도가 펴지도록 한 채,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경찰청장이 매우 의아해하며 조사를 벌였던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아르센 뤼팽, 다시 말해 제 지난 3년, 특히 외국군단 시절의 행적입니다."

"그 조사는 나의 명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랑글레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결론은 어땠습니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 중 제 행적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총감님. 프랑스가 자국의 가장 헌신적인 아들 중 한 명이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제가 숨어 있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프랑스 대통령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끔찍한 사적인 비극과 실패한 자살 시도 끝에 외국군단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모로코의 총알이 제가 갈망하던 안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른 채로, 죽음이 피하자, 저는 천천히 다시 삶의 맛을 찾았습니다. 꽤 영광스러운 전과들이 저에게 자신감과 행동에 대한 욕구를 모두 되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꿈이 저를 덮쳤습니다. 새로운 이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자유, 더 넓은 지평선, 더 예측 불가능하고 더 개인적인 감정을 원했습니다. 그 영웅적이고 단란한 가족 같은 외국군단에 대한 애정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의 활동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아직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신비롭게 끌어당기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4년 11월, 유럽이 전쟁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페인 왕실에 매우 강력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와 파리 간의 협상 끝에, 저는 마드리드에서 소환되어 파리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잘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건을 세네네 건이나 처리했다. 금화 3억 프랑 사건 같은 것들 말이다. 그 덕분에 이탈리아의 참전에도 일조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모든 일은 나에게는 부차적일 뿐이었다.

나는 더 큰 것을 시도할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프랑스가 열세에 처할 수 있는 약점을 나는 꿰뚫고 있었다. 내가 찾고자 했던 목표가 내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임무가 끝나자, 나는 다시 모로코로 돌아갔다. 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부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베르베르인들에게 매복 공격을 당했다. 나는 쉽게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체포되었다.

"제독님, 제 모든 사정이 여기 있습니다. 죄수였지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원했던 또 다른 삶, 그 삶이 저 앞에 열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은 결국 나쁜 방향으로 치달을 뻔했다.

내 곁에는 베르베르인 사내 네 다스(48명)가 있었다. 이들은 중아틀라스 산맥 일대에 살던 유목 부족의 일부로, 주변 마을을 약탈하고 몸값을 요구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여종들을 지키고 있던 열 명 남짓한 호위병들과 합류했다. 호위병들은 여종들을 모시고 있던 작은 텐트 몇 채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짐을 싸서 떠났다.

나는 팔을 등 뒤로 묶인 채 말 탄 자들을 따라야 했기에, 여덟 날에 걸친 행군은 꽤 고통스러웠다. 결국 우리는 바위 절벽이 우뚝 솟은 좁은 고원 지대에 도착해 멈춰 섰다. 그곳의 바위들 사이에는 많은 사람의 뼈와 프랑스제 칼과 무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무 기둥 하나를 땅에 박고, 내게 그것을 묶었다. 납치자들의 태도와 내가 엿들었던 몇 마디 말로 미루어 보아, 나의 죽음이 이미 정해진 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내 귀와 코, 혀를 잘라낸 뒤, 아마도 머리를 베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근처 우물로 물을 길러 간 뒤, 함께 먹었다. 그리고는 나를 잊은 듯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 잔인한 처형을 웃으며 묘사하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또 한 밤이 지나갔다. 고문은 아침으로 미뤄졌다. 아침이 그들의 기호에 더 맞는 시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새벽이 밝자 그들은 비명과 포효, 그리고 여인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지르며 나를 에워쌌다.

그때 그들의 그림자가 어제 모래 위에 그어놓은 한 줄기를 가렸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고요해졌다.

그중 한 명이 나를 상대로 수술을 담당하는 자였다. 그는 다가와 내게 혀를 내밀라고 명했다. 나는 순종했다.

그는 버누스의 끝으로 내 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칼집에서 단도를 빼 들었다.

그 눈빛의 야만스러움과,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순진한 희열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장난스럽게 새의 날개와 다리를 꺾어대는 나쁜 아이의 눈빛 같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피그스가 더 이상 손잡이와 무해한 칼날의 찌꺼기뿐이며, 그마저도 지극히 우스꽝스러운 크기라 sheath(칼집)에 딱 들어갈 만큼밖에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경악도 나는 잊지 못한다.

그의 분노는 고함으로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옆에 있던 동료에게 달려가서 그의 피그스를 빼앗았다. 하지만 놀람은 똑같았다. 두 번째 피그스 역시 손잡이 바로 위에서 거의 부러져 있었다.

그 순간 온통 소동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칼을 휘두르며 분노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사십오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 손에 쥔 사십오 개의 칼이 모두 부러져 버린 것이다.

그 두목이 나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는 마치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의 책임자라도 된 양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이었으며, 약간 굽은 등과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보기 싫은 외모

였다. 그는 나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추해져서,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빗나갔다.

그가 다시 한 번 방아쇠를 당겼다. 두 번째 총알도 빗나갔다.

순간, 그들은 모두 소동을 피우며 몸부림치고 외치며 내가 묶여 있던 기둥 주위로 들이닥쳤다. 다양한 무기들을 겨누었다. 소총도, 권총도, 카빈도 있었고, 낡은 스페인산 대포도 있었다. 개들이 짖어댔다.

하지만 그 소총과 권총, 카빈, 그리고 스페인산 대포는 발사되지 않았다.

무슨 기적인가! 그들의 얼굴을 꼭 보셨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토록 크게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몇몇은 천막 쪽으로 달려가 화약을 보충하러 갔고, 다른 이들은 재빨리 총을 재장전했습니다. 또다시 실패였습니다. 저는 불사신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은 오래갈 수 없었다. 그들로서는 나를 죽일 다른 수단이 얼마든지 있었다. 내 목을 조일 손도, 두들겨 패기 위한 총검자루도, 돌팔매질을 할 돌멩이도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사십 명이 넘었다.

노인 두목이 큼직한 바위를 하나 집어 들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인해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두 명의 부하의 도움을 받아 그 거대한 바위를 내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놓아주었다.

바위는 내 바로 앞, 기둥에 떨어졌다.

불쌍한 노인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나는 단숨에 매듭을 풀고 뒤로 뛰쳐나와, 서 있었다. 그는 세 발짝 앞이었다. 나는 주먹을 쥐어 쥔 채 그를 향해 섰고, 그 주먹 안에는 내가 체포되었을 때 빼앗겼던 두 권의 권총이 들어 있었다.

일어난 일은 단 몇 초의 일이었다.

두목도 내 웃음소리를 따라 sarcastic(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혼란스러운 머리속에서는, 내가 총을 겨누고 있는 그 두 자루의 권총이 나를 구했던 쓸모없는 무기들만큼이나 무력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는 큰 돌을 주워 들어 올렸다. 던질 태세였다. 그의 두 동무들도 똑같이 돌을 들어 올렸다. 모두 그의 행동을 따랐을 것이다.

"발 좀 붙이고 있어, 안 그러면 쏴!" 내가 소리쳤다.

두목은 돌을 던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세 번의 총성이 울렸다.

두목과 그의 두 동무는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 쓰러졌다.

"저 세 분 중 첫 번째는?" 나는 나머지 무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마로코인들은 사십 이 명이나 남았다. 내 총알은 열한 발뿐이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자, 나는 한 손에 권총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작은 탄약통 두 개를 꺼냈다. 곧 오십 발의 추가 탄환이었다.

그리고 허리띠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칼 세 자루를 뽑아 들었다.

부대 절반이 항복의 표시를 하며 내 뒤에 줄을 섰다.

나머지 절반도 즉시 항복했다.

결전은 끝났다. 네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제17장

도 루이스는 말을 멈췄다.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 사분간의 일이 그를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모른다.

용기와 침착함으로 이름난 두 사람, 곧 발랑글레와 경찰청장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간이 그토록 터무니없는 한계까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

그는 벽난로 반대편으로 다가가, 프랑스의 도로를 그린 또 다른 벽걸이 지도를 가리켰다.

"부통령阁下, 그 강도들의 자동차가 베르사유를 떠나 낭트 방면으로 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가 이동 중이든, 낭트에서든, 배를 타려 할지 모르는 생나제르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돈 루이스 페레나는 프랑스 땅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뒤따랐다. 중간중간 멈춰 서서 발자취를 표시했다.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압도적이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격변 속에서도 그는 태연했다. 그 차분함은 오히려 사건을 조종하는 주인의 위엄을 드러냈다. 마치 그가 시간의 흐름까지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인자가 끊어지지 않는 실에 묶인 듯 도망치는 것 같았다. 그 실끝은 돈 루이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으로 그 도주를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지도 위에 몸을 굽혔다. 지도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을 미끄러져 지나가는 자동차, 그리고 그 차를 그의 독재적 의지대로 조종하는 넓은 도로 전체를 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말을 이었다.

전투는 끝났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승자를 상대로는 복수할 수 있다. 힘으로든, 속임수로든. 하지만 내 사십 명 부하 앞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상대가 있었다. 초자연적인 수단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존재였다.

목격자들이 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다른 해답은 없었다. 나는 마법사였다. 마치 마라부처럼, 혹은 선지자의 화신처럼.

발랑글레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해석이 그리 틀렸다고도 볼 수 없군요. 분명 속임수가 섞여 있지만, 저 역시도 그 일이 경이로울 정도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 발자크의 기묘한 단편소설 『사막의 열정』을 읽어보셨습니까?"

"자, 수수께끼의 열쇠는 여기 있다."

"뭐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을 호랑이 발톱이 쥔 게 아니었나요? 이 일에는 길들여야 할 호랑이가 없었는데."

"호랑이는 아니었지만, 여자들만은 있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만에, 대통령 각하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흘 동안이나 끌려 다닌 무리 속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발작의 호랑이처럼 길들일 수 있는 존재죠. 유혹하고, 부드럽게 풀어내어, 결국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음… 음." 대통령은 호기심에 가득 찼다.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사흘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가 필요하죠."

"아니요, 아니요, 대통령 각하. 우선은 눈이 중요합니다. 눈은 동정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애착과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눈빛 너머의 진짜 나를 만나고 싶은 욕망까지도요. 그다음엔 그저 운이 따라줄 뿐입니다."

"그런 운이 찾아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어느 밤, 저는 묶여 있었습니다. 혹은 묶인 줄로만 알았죠. 제 옆에, 수장의 총애를 받는 여자가 혼자 텐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도 길들여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발작의 호랑이처럼, 복종했고, 맹목적으로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섯 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라이벌들이 생길까 봐 걱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총애를 받는 여인이 질투를 부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반대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복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요컨대, 저는 다섯 명의 동맹을 얻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결단력 있는 여자들이었죠. 누구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정거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제 계획은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 제 다섯 사신은 모든 무기를 모았습니다. 단검은 땅에 꽂고 부러뜨렸고, 권총의 총알은 빼냈습니다. 화약은 물에 적셔 버렸죠. 이제 막을 올릴 준비가 된 셈입니다."

발랑글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 방법도 꽤 매력이 있군요. 다섯 분의 여성들이 모두 미인이셨겠죠?"

돈 루이스는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눈을 감더니, 짧게 한 마디 내뱉었다.

"추잡스럽군."

그 말에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돈 루이스는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어쨌든 그 녀석들은 나를 구해 주었다. 그 뒤로 그들의 도움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무기를 빼앗긴 채,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황량한 땅에서 전전긍긍하던 내 부하 42명의 베르베르족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보호자를 만난 듯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우리가 그들이 속한 큰 부족에 합류했을 때, 나는 이미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위기를 넘기고, 내 지시로 매복을 무력화하며, 내 지휘 아래 약탈과 습격을 감행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나는 부족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를 구사했고, 종교를 따랐으며, 복장을 입었다. 그들의 풍습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아니, 다섯 명의 아내를 둔 이상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꿈이 실현될 수 있었다.

나는 프랑스에 가장 신실한 부하 한 명을 보내, 60통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부하는 60명의 수신자 이름과 주소를 외워야 했다.

그 60명은 바로 아르센 뤼팽이 카프리 절벽에서 뛰어오르기 전에 해산시킨 동지들이었다.

모두 은퇴한 상태였다. 은퇴금으로 10만 프랑의 현금을 받았고, 소규모 상점이나 농장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담배 가게나 공원 경비원 자리, 혹은 각료청의 비싼 자리 하나를 물려주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정직한 부르주아들이었다.

공무원, 농부, 시의원, 식료품 상인, 사회 지도층, 교회 제단사까지. 나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편지를 쓰고, 똑같은 제안을 했으며, 승낙할 경우 똑같은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 각하, 제 생각엔 여든 명 중 열다섯 명, 많아야 스무 명쯤 따라오려나 했습니다. 하지만 여든 명이 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든 명이었죠.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정확히 도착한 사람은 여든 명."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각에, 제 옛 군함 '쿠논데스칸담?'호가 와디드라아 강 하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대서양 연안, 누앙 곶과 주비 곶 사이였습니다. 그 배는 제 옛 동지들이 매입한 것이죠."

"보트 두 척이 오가며 친구들과 그들이 가져온 전쟁 물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탄약, 야전 장비, 기관총, 모터보트, 식량, 통조림, 상거래용 물건, 구슬 장신구, 그리고 금화 상자들이었죠!"

"제 여든 명의 충직한 동지들은 옛 수익금 중 자신의 몫을 챙기는 동시에, 새로운 모험에 과거 상테 형무소 시절 보스로부터 받은 600만 프랑을 모두 쏟아붓기로 했으니까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閣下? 아르센 뤼팽이라는 지휘자가 여섯십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열 명의 마로칸 병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어떤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할까요?

그는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보다 더 웅장한 서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틀라스 산맥의 높은 봉우리들 위에서, 그 다음에는 사하라의 지

옥 같은 평원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 십오 개월 동안의 이야기 말입니다.

영웅적인 행적과 가난과 고문, 그리고 초인적인 기쁨이 어우러진 서사.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패배와 눈부신 승리의 서사."

"내 충실한 부하 60명은 마음껏 즐겼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주님, 그분들을 아시죠? 총경님, 그분들과 맞서 싸우셨잖아요. 그 놈들아! 어떤 기억들은 내 눈을 적시게 하네.

그중에는 람발 공작 부인의 다이너스티 사건으로 이름을 떨쳤던 샤롤레와 그의 아들들도 있었어. 케셀바흐 사건으로 명성을 얻은 마르코도 있었고, 주님, 총리께서 당신의 영수들을 이끌던 시절의 오귀스트도 있었지.

크리스탈 마개의 추적이 영광을 안겨준 그로그나르와 바루도 있었어. 내가 '두 명의 아킬레우스'라고 불렀던 베즈빌 형제도 있었지.

부르봉 왕가보다 더 고귀한 필리프 단트라크, 피에르 르 그랑, 장 르 보르뉴, 트리스탄 르 루, 그리고 조제프 르 주느도 함께했어."

"그곳에는 아르센 뤼팽이 있었지." 발랑글레가 끼어들었다. 그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처럼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 목록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르센 뤼팽이 있었소." 도 루이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띠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통령 각하, 그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말하면 각하는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가 외인부대에 다녔다는 소문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장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인부대 시절, 뤼팽은 그저 한 병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로코 남부에서는 그가 장군이 되었죠.

그곳에서 비로소 아르센 뤼팽의 진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저 자신에게도 놀라움으로 다가왔을 정도입니다.

전설 속 아킬레우스가 해낸 것보다 더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한니발이나 카이사르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죠.

아르센 뤼팽이 프랑스 두 배 크기의 왕국을 열다섯 달 만에 정복했다는 사실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는 모로코의 베르베르인, 타마지트 부족, 알제리 남부의 아랍인, 세네갈을 넘나드는 흑인들, 대서양 연안의 무어인들,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지옥 같은 땅까지 모두 정복했습니다.

그가 정복한 것은 사하라 사막의 절반과, 우리가 '고대 무리타니아'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모래와 습지로 이루어진 왕국이라니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와 샘물, 강과 숲,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부를 가진 왕국입니다. 백만 명의 백성과 이십만 명의 전사를 거느린 왕국이죠."

"이 왕국을 저는 프랑스에 바칩니다, 내각 총리 각하."

발랑글레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듣는 말에 감동하고, 심지어 혼란까지 느꼈다. 그는 놀라운 상대에게 몸을 기울였고, 손은 아프리카 지도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설명해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돈 루이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총리 각하, 최근 몇 년간의 일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각하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전쟁 중 모로코 봉기가 프랑스에 어떤 위기를 안겨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성전이 선포되었고, 불씨가 번져 북아프리카 해안 전체와 알제리,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보호 아래 있던 방대한 무슬림 인구를 위협할 뻔했습니다.

동맹국 정치가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 그 위기, 그리고 적이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기게 조장하려 했던 그 위험, 바로 그것을 저, 아르센 뤼팽이 막아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모로코 북부에서도 전쟁이 치열할 때, 저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부족들을 제게로 끌어들이고, 복종시켰으며,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집해 다른 지역, 다른 정복지로 보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이 싸우려던 프랑스를 위해 그들을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서 차츰 뚜렷해지던 그 위대한 꿈은,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단번에 모로코와 세네갈을 연결했죠.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큰 프랑스가 존재합니다. 덕분에 단단하고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땅, 튀니스에서 콩고까지, 의미 없는 몇몇 외딴곳을 제외하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끊이지 않는 해안선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제 업적입니다, 대통령 각하. 나머지는 다 장난입니다. 다른 모험들, 황금 삼각형의 모험이나 관이 서른 개 있는 섬의 모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 전쟁의 업적,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다섯 해 동안 시간을 낭비한 걸까요, 대통령 각하?

“그건 공상입니다, 공허한 환상입니다,” 발랑글레가 반박했다.

“진실입니다.”

“설마요! 그런 걸 이루려면 스무 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분만 주십시오!" 돈 루이스가 억누를 수 없는 열정으로 외쳤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국을 정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정복하고, 평화롭게 다스리며, 행정 체제를 갖추고, 활발히 일하고 있는 제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제 현재, 바로 제 현재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 각하, 저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며 모든 절벽을 굴러내려가고, 모든 봉우리를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크로이소스보다 부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이 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한보다 가난했습니다. 모든 보물을 나누어 주고 모든 것을 맛본 뒤, 불행한 삶에 지쳤고, 행복에 더 지쳤습니다. 쾌락에, 열정에, 감정에 모두 지친 상태였죠."

"그때 저는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아르센 뤼팽은 죽었고, 천일야화의 술탄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통치하고, 통치하며, 법을 만들고, 위엄을 떨치던 저는, 몇 년 안에 단번에 북부 모로코에서 여러분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반란 부족들의 장막을 찢어 버리려 했습니다. 그 장막 뒤에서 저는 평온하고 조용히 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와 마주 섰습니다. 프랑스와 동등한 힘으로, 이웃으로서 대등하게 대우하며 외쳤습니다."

"나야, 아르센 뤼팽! 전직 사기꾼, 신사의 도둑, 여기 있노라! 아드라르의 술탄, 이구이디의 술탄, 엘주프의 술탄, 투아레그의 술탄, 아우아부타의 술탄, 브락나스와 프레르존의 술탄, 술탄들의 술탄, 마호메트의 손자, 알라의 아들, 나, 나, 나, 아르센 뤼팽!"

"그리고 평화 조약, 제 왕국을 프랑스에 양도하는 증여 문서 아래에, 제 대신들과 카이, 파샤, 마라부토들의 서명 아래에, 제 합법적인 서명, 즉 제가 완전히 권리를 가진 서명을 남겼습니다. 제 칼끝으로 정복하고, 제 전능한 의지로 얻은 서명입니다."

"아르센 1세, 모리타니아의 황제!"

도 루이스는 그 모든 말을 힘차게, 그러나 과장 없이 내뱉었다. 그는 많은 일을 해낸 남자의 단순한 감동과 자부심을 드러냈고,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다. 한 명의 광인을 대하듯 어깨를 으쓱하는 것, 혹은 묵묵히 생각하며 찬성하는 침묵.

내각 총리와 경찰 총감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인간형, 즉 지나친 행동을 위해 창조되고 초자연적인 운명을 향해 스스로 다듬어진 존재 앞에 서 있다는 깊은 감각을 느꼈다.

도 루이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결말이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각하? 끝부분은 그 작품에 걸맞게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죠. 만약 그랬다면 저도 기뻐했을 텐데 말이죠."

"아르센 뤼팽이 왕좌에 앉아, 지팡이를 든 모습. 꽤나 위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르센 1세, 마우타니아의 황제이자 프랑스의 은인. 정말 극적인 종막이었죠."

"하지만 신들은 그걸 원치 않으셨군요. 아마도 질투심에서였겠죠. 신들은 저를 구세계의 사촌들처럼 낮추고, 이 absurde한 존재, 즉 망명자가 된 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하죠. 마우타니아 황제여, 평안을 얻으소서. 그는 장미가 사는 그 짧은 생을 살았으니까요. 아르센 1세는 죽었다. 프랑스 만세!"

"총리 각하, 제 제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플로랑스 르바세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이 그녀를 그 괴물에게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제가 필요로 하는 건 단 이십사 시간뿐입니다."

"이 이십사 시간의 자유와 맞바꿔, 마우타니아 제국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각하, 수락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렇군." 발랑글레가 웃으며 말했다. "수락하지. 그렇지 않소, 데스말리옹 형? 조금은 가톨릭 교리에 맞지 않는 짓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파리는 미사 한 번 치르는 가치가 있는 법이요. 그리고 모리타니 왕국이라는 보물도 만만치 않소. 한번 도전해 볼까."

돈 루이스의 얼굴은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왕관을 버리고, 한 인간이 꿈꿔 실현한 그 기막힌 환상을 깊은 구렁텅이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물었다.

"무슨 보증을 원하시오, 대통령 각하?"

"필요 없어."

"저는 조약이나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죠."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런 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일단 앞서 나가. 넌 자유다."

결정적인, 믿기 힘든 말이 입에서 떨어졌다.

돈 루이스는 문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잠깐만, 대통령 각하."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제 옛 동료들 중에는 제 취향과 자질을 고려했을 때 알맞은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 직위를 이용해 언젠가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를 아프리카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수비대 마제루 소위입니다."

"마제루 소위요? 카세레스 씨가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라고 증언하며 증거를 대며 고발한 그 사람이요?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마제루 소장은 직업적 명예의 모범입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찰 보조원이라는 신분이었고, 이 신분은 총독께서 인정하고 사실상 후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불법적인 시도를 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야말로 그가 가장 먼저 저를 체포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석방을 요청합니다."

"오호, 오호!"

"대통령 각하, 당신의 승인은 정의의 행위입니다. 저에게 그 승인을 내려주십시오. 마제루 소장은 프랑스를 떠날 것입니다. 그는 남부 모로코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라는 정부 지시를 받고, 식민지 경감이라는 직함을 달게 됩니다."

"결정됐네." 발랑글레가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총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원하면 수단도 따릅니다. 그 목적은 이 끔찍한 모닝턴 사건을 끝내는 것."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겁니다." 도 루이가 말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형사들이 그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형사들이 그 흔적을 쫓고 있긴 하지만, 매 도시마다, 매 마을마다, 마주치는 농부마다 그 흔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는지 물어봐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됩니다. 저는 그 도둑을 향해 바로 곧장 갈 겁니다."

"어떤 기적으로요?"

"그건 아직 제 비밀입니다, 대통령 각하.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총감께 제 계획 실행을 방해할 만한 사소한 난관이나 지시를 모두 풀어줄 수 있는 전권을 주시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좋소. 그 외에는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이 프랑스 지도 한 장이요."

"가지시오."

"그리고 브라우닝 권총 두 자루."

"총경께서 형사들에게 권총 두 자루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에게 건네주게 하시오. 더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까? 돈 같은 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항상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필수적인 오만 프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총감이 말을 끊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경찰서로 가는 동안 호위해 드려야겠군요. 당신의 지갑은 체포 시 압수한 물품 목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루이스가 미소를 지었다.

"총경 각하, 저에게서 압수할 수 있는 물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지갑은 확실히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죠. 하지만 돈은…"

그는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발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발뒤꿈치를 살짝 돌렸다.

끼익,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신발 앞쪽에서 작은 서랍 같은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겹의 깔창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이다.

그 안에는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 외에도 크기가 아주 작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작은 드릴, 시계 스프링, 그리고 몇 알의 알약들.

"도망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 그리고 죽는 데 필요한 것까지."

그가 말했다.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십시오."

현관 홀에서 드말리옹 씨는 형사들에게 죄수의 길을 비워주라고 명했다.

돈 루이스가 물었다.

"총경 각하, 베버 서무과장이 그 도둑의 자동차에 대해 어떤 정보를 전해 주었습니까?"

"베르사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인 코메트 항공사의 차입니다. 운전석은 왼쪽에 있고, 운전자는 회색 캔버스 모자에 검은 가죽 챙을 쓴 사람이었죠."

"감사합니다, 총감님."

그들은 집을 나섰다.

그렇게 믿을 수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돈 루이스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단 한 시간의 대화로 그는 다시금 행동할 힘을 되찾았고, 최후의 결전을 치를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밖에서는 경찰청의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돈 루이스와 데말리옹 씨는 그 차에 올랐다.

"이시레물리노로 갑시다! 최고 기어로!" 돈 루이스가 외쳤다.

그들은 빠시를 지나쳤다. 센 강을 건넜다. 불과 십 분 만에 이시레물리노 비행장에 도착했다.

바람이 꽤 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항공기도 이륙하지 않은 상태였다.

돈 루이스는 창고 쪽으로 돌진했다. 문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반!" 그가 속삭였다. "바로 내가 찾는 자군."

그때 마침 창고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키가 작고 체격이 굵은 사내가 긴 얼굴에 붉은 빛을 띠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기계공들이 한 대의 단엽기를 수리하느라 분주했다. 그 사내는 다반, 유명한 비행사가 틀림없었다.

돈 루이스는 그를 따로 불러냈다. 신문 기사로 그를 잘 알고 있던 그는, 처음부터 상대를 놀라게 할 만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선생님." 그가 프랑스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제가 잡으려는 남자가,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납치해 자동차로 달아났습니다. 방향은 낭트 쪽입니다. 납치 시간은 자정. 지금은 오전 아홉 시.

차량은 단순한 렌터카 택시입니다. 운전사에게 도망칠 이유가 없죠. 평균 시속 30킬로미터로 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12시간 후, 즉 정오쯤이면 360킬로미터 지점에 도달할 겁니다. 앙제와 낭트 사이 어딘가, 정확히 그 지점에요."

"드브리 다리가 맞습니다." 다반이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좋소. 다른 한편으로 상상해보자. 아침 아홉 시에 이시레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해, 시속 백이십 킬로미터로 쉬지 않고 날아간다면… 삼 시간 뒤, 즉 정오에 드립 교차점에 도착하겠지. 그때 자동차도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 거야, 그렇지?"

"당신의 말과 완전히 일치하오."

"그렇다면 의견이 일치하는 거니, 문제는 없어. 당신의 비행기는 승객을 태울 수 있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바로 출발하자."

"안 됩니다. 승인이 없어요."

"승인은 받았소. 여기 계신 경찰청장께서, 그리고 총리와도 이미 합의하셨으니, 당신이 떠나도록 허락하시겠소. 그러니 이제 출발이오. 조건은?"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르센 뤼팽!"

"젠장!" 다반느가 깜짝 놀라며 외쳤다.

"아르센 뤼팽. 신문 기사쯤은 보셨겠지요. 오늘 밤 플로랑스 르바세르가 납치됐습니다. 제가 그녀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를 요구합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모험이 재미있거든요. 저에게 홍보 효과가 생길 테니까."

"좋소. 하지만 내일까지는 침묵해야 해. 그 대가로 이걸 주마."

다반느가 두만 프랑을 건넸다.

열 분 뒤, 돈 루이스는 특수 의상을 입고 조종사 모자를 쓴 채 안경을 착용했다. 비행기는 800미터 고도로 상승해 기류를 피했고, 센 강 위를 선회한 뒤 프랑스 서쪽으로 곧장 내려앉았다.

베르사유, 마탕농, 샤르트르……

도 루이스는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사람이었다. 프랑스는 이미 하늘을 정복했고, 그는 그때도 사하라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레지옹의 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경험에 매우 민감했다. 그 어떤 감동보다도 이 경험이 그를 더 크게 떨게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첫 비행의 신비로운 쾌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신경을 긴장시키며, 몸속에서 놀라운 흥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오직 한 가지였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순간, 곧 이어질 추격전의 상상이었다.

그는 광활한 하늘과 끝없는 지평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들썩이는 날개와 엔진의 굉음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찾아냈다. 그의 눈은 그곳을 향했고, 그의 귀는 보이지 않는 자동차의 굉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자신의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붙이는, 거칠고도 강력한 사냥꾼. 그는 맹금과 같았다. 작은 짐승이 도망칠 수 없는, 필사적인 사냥꾼.

노장르루트루… 라페르테베르나르… 르망…

두 동지는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앞서 가는 페레나의 등 뒤가 보였다. 어깨는 넓고 목은 굵고 단단했다.

하지만 페레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공간이 그곳에 있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하얀 길이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져 나가는 그 길줄기였다.

때로는 실처럼 곧게 뻗어 있었고, 때로는 부드럽게 구부러졌다. 강이 꺾이는 곳이나 교회라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길은 끊기기도 했다.

그 길줄기 위, 점점 가까워지는 어딘가에는 플로랑스와 그를 납치한 자가 있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주황색 자동차는 용감하고도 인내심 있게 달리고 있었다.

킬로미터가 쌓이고, 평원이 계곡을 지나고, 들판이 숲을 지나갔다. 곧 앙제다. 곧 드르브 교량이다. 그리고 그 길 끝, 닿을 수 없는 목표지, ナント. 생나제르. 출항을 앞둔 배. 그리고 도둑의 승리.

그는 그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다른 승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매가 먹이를 잡듯, 날아오르는 것이 걷는 것을 제압하는 것처럼.

적군이 다른 길을 택해 도망쳤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하지 못했다. 어떤 확신은 사실과 다름없다. 그의 확신은 너무도 강렬해서, 적들도 그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자동차는 나망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시속 30킬로미터를 유지할 것이다. 반면 그는 시속 120킬로미터로 달려 충돌은 정해진 장소, 드리브 다리에서, 정해진 시간인 정오에 일어날 것이었다.

집들이 쌓여 있고, 성채의 덩어리가 있으며, 탑과 첨탑이 솟아 있다. 그곳이 앙제다.

돈 루이는 다반에게 시간을 묻는다. 정오 열 분 전이다.

앙제는 이미 사라진 풍경이 되어 버렸다. 다시 펼쳐진 시골 풍경, 다채로운 들판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 사이로 한 줄기의 도로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도로 위에는 노란색 자동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노란색 자동차! 바로 그 강도의 차였다. 플로랑스 르바쥬르를 태우고 달리는 차였다.

돈 루이의 기쁨에는 놀라움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바네가 돌아서며 외쳤다.

"이제 다다랐죠?"

"그래. 쫓아가."

비행기가 공중으로 돌진하며 차에 다가갔다. 거의 즉시 따라잡았다.

다바네는 속도를 줄이고, 차에서 약 이백 미터 위, 조금 뒤쪽에 위치해 멈춰 섰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운전석 왼쪽에는 운전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회색 캔버스 모자를 쓰고 있었고, 앞부분은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 확실했다. 이것은 '코멧 회사'의 자동차였다. 바로 쫓고 있던 그 차였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플로랑스가 납치범과 함께 타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붙잡았구나.' 도 루이스가 생각했다.

그들은 꽤 오래 그 거리를 유지하며 날아갔다.

다반느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돈 루이는 그 신호를 주느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快感은 자존심과 증오, 그리고 잔인함이 섞인 것이었다.

그는 정말로 공중을 날며 발톱으로 숨 가쁜 먹이를 움켜쥐기 직전의 독수리 같았다. 감옥에서 탈출하고,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에서 해방된 그는 멀리서 날아왔다. 이제 그는 무력한 먹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다반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특히 조심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총알 한 발에 우리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이 흘렀다.

그때였다. 한 킬로미터쯤 앞서서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넓은 네 거리가 나타났다. 세 길이 만나는 곳마다 잔디밭이 삼각형 모양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다.

"갈까요?" 다반이 돌아서며 물었다.

주변은 한적했다. 시골 길이라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가라!" 돈 루이스가 외쳤다.

비행기가 마치 용수철이 풀리듯, 혹은 이길 수 없는 힘에 쏘아 올려지듯 갑자기 속도를 냈다. 그 힘은 비행기를 총알처럼 목표지점 향해 날려 보냈다.

차 위를 백 미터쯤 높이가 지나간 비행기가, 갑자기 안정을 찾았다. 목표 지점을 정확히 가늠하듯, 밤하늘을 나는 새처럼 고요하고 차분했다. 나무와 전신주를 피해 가며, 그는 네거리 잔디밭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돈 루이스가 뛰어내려 차를 향해 달려갔다.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로 나서서 권총 두 자루를 겨누며 외쳤다.

"멈춰! 안 그러면 쏴!"

겁에 질린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 차가 멈췄다.

돈 루이스가 차 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이유 없이 권총을 한 발 쏘며 비명을 질렀다.

"젠장!"

총알이 유리를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제18장

돈 루이스는 전투와 승리를 향해 달리는 열정이 너무도 거세어, 거의 멈춤 없이 질주했다. 실망과 분노, 수치심, 그리고 공포가 한데 섞여 거대한 행동 욕구로 변했다. 알고 싶었고, 추적을 멈추지 않고 싶었다. 나머지는 중요치 않았다. 그건 곧 가장 간단하게 해결될 사소한 사건에 불과했다.

운전수는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멀리 농장에서 달려온 농부들을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비행기 소리에 이끌려 온 것이었다.

돈 루이스가 그의 목을 움켜쥐고, 권총 총구를 그의 측두부에 대었다.

"네가 아는 대로 말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불쌍한 남자가 간곡한 빌음을 더듬거리자,

"울어봐야 소용없어. 구조를 바라는 것도 물거품이야. 사람들이 도착하기엔 이미 늦었어. 그러니 너를 구할 길은 하나뿐이야. 말을 해."

"오늘 밤, 베르사유에서 파리에서 온 한 남자가 자신의 차를 두고 너의 차를 빌렸지, 그렇지?"

"그 남자는 부인과 함께였나?"

"그리고 그 남자는 너에게 나트까지 모셔다달라고 했지?"

"그런데 길이 막혀서 생각을 바꾼 뒤, 내려주지 않았나?"

"어느 도시에서?"

"망스 도착 전이었어. 오른쪽으로 난 작은 길이 하나 있었지. 거기서 두백 보쯤 더 가면 창고 같은 것이 하나 나왔어. 두 사람이 거기서 내려."

"그리고 너는 계속 갔지?"

"그렇게 해달라고 돈을 받았어."

"얼마나?"

"이천 프랑. 그리고 나스에서 다른 승객을 만나서 그를 파리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삼천 프랑을 더 받았지."

"그런 승객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나?"

"아니. 그건 사람을 속이기 위한 꾀였어. 나를 나스까지 쫓게 만드는 동안, 본인은 다른 길로 빠져나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돈을 받았다는 거지."

"그들을 떠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나?"

"조심해. 내 검지를 살짝 움직이는 순간, 네 머리가 산산조각 날 테니까. 이제 네 차례야. 말해."

"그래, 맞아. 나는 나무가 늘어진 비탈 뒤를 따라 걸어서 돌아왔네. 그 남자가 창고 문을 열고 작은 리무진을 시동 걸고 있었지. 부인은 타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꽤 큰 소리로 논쟁을 벌였어. 그는 그녀를 협박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듣지 못했어. 그녀는 매우 지쳐 보였다. 그는 창고 옆 분수대의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유리잔에 따라 그녀에게 주었지. 그러자 그녀는 결국 마음을 굳혔어. 그는 문짝을 닫고 그녀를 태운 뒤, 운전석에 앉았지."

"물 한 잔?" 돈 루이스가 외쳤다. "그 유리잔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거야, 확실해?"

운전수는 그 질문에 놀란 기색을 보이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 것 같았어요."

"부인이 눈치채지 못한 채?"

"네, 그녀는 볼 수 없었죠."

도누이스는 공포를 억눌렀다. 어차피 그 강도가 플로랑스를 그런 식으로, 그런 장소에서, 그리고 그토록 급하게 독살했을 리가 없었다.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마약이나 약물을 사용해 플로랑스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신이 어떤 길로, 어떤 도시로 끌려가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 그녀가 타기로 결단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그는 문짝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에 앉았죠. 저는 바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네, 모른 채였습니다."

"도중에서 그들이 뒤를 쫓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나요?"

"물론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몸을 내밀어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나요?"

"네가 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나?"

"절대 아닙니다. 베르사유에서는 이미 밤이었고, 오늘 아침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 봤을 때는 아주

커 보였는데, 오늘 아침엔 오히려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두 동강 난 것처럼 말이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 루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필요한 질문은 모두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 마리의 말이 쏜살같이 교차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다른 두 마리의 말도 보였다. 농부들의 무리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운전사를 향해 말했다.

"네 얼굴을 보니, 내가 어떻게 될지 말하려는 모양이군. 그러지 마라, 친구.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여기 천 프랑 지폐 하나 있네. 하지만 만약 네가 입을 열면, 난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알아서 잘 하길."

그는 다시 다반느 쪽으로 돌아갔다. 다반느의 장치가 이미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떠날까요?"

"당신의 명령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루이스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행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 지도를 펼치고 눈앞에 내려놓았다. 얽히고설킨 도로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는 잠시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무수히 많

은 은신처들, 도둑이 플로랑스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끝없는 곳들을 상상하며 마음이 조여들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주저해서는 안 되었다. 심지어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는 알고 싶었다. 단번에, 단서도 없이, 헛된 고민도 없이. 오직 인생의 중대한 순간들을 인도해 주던 그 놀라운 직관의 힘만으로.

그의 자존심도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다반에게 즉각 답장을 보내야 했고, 자신이 찾고 있던 이들이 사라진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는 지도에 시선을 고정했다. 한 손가락은 파리를, 다른 손가락은 르망을 가리켰다. 심지어 그 강도가 왜 파리-르망-앙제 방면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자문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알았다.

한 도시 이름이 그의 머리를 스쳤고, 그 순간 진리는 번개처럼 그의 안에서 타올랐다.

'알랑송!'

순간, 기억들이 그를 비췄다. 그는 어둠의 심연까지 파고들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와 왼쪽 뒤로."

"방향은?"

"알랑송."

"알겠습니다." 다반이 말했다. "도와주세요. 저기 밭에서 이륙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돈 루이스와 몇몇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고, 준비는 순식간에 끝났다. 다반은 자신의 엔진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때, 앙제르 도로에서 한 대의 강력한 토르페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렌은 성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차는 갑자기 멈춰 섰다.

세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노란색 자동차의 운전자를 향해 돌진했다. 돈 루이스는 그들을 알아봤다. 바로 부두장 베버와, 그날 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던 사람들이었다. 경찰청장은 그들을 도둑의 발자취를 쫓게 보냈다.

그들은 노란 차 운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는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듯했다. 그들은 손짓을 하며 새로운 질문을 쏟아냈고, 시계를 확인하며 도로 지도를 펼쳐들었다.

돈 루이스가 다가왔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목소리를 바꿔 말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베버 소위."

베버 소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돈 루이스가 비웃듯 웃었다.

"네, 날아갔지. 생루이섬의 그 녀석은 손재주가 남다르군. 세 번째 차를 탔어. 어제 밤 베르사유에서 신고한 노란색 차를 빼앗긴 후, 르망에서 또 다른 차를 빌렸지. 목적지는 알 수 없어."

소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문이 막혔다. 경찰청과 두 시에나 된 밤중에야 연락이 닿았던 사실들을, 이 낯선 인물이 어찌 다 알고 있을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나를 모르겠단 말이야? 정말 귀찮은 일이다. 약속 시간에 맞춰 기다리게 하려면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야 하는데, 정작 그들은 내 신분을 묻기만 한다. 봐라, 베버. 고의로 피하는 게 아니냐. 해가 정수리에 내리쬐는 데서도 나를 계속 응시해야 하단 말인가? 자, 가자."

그가 가면을 벗었다.

"아르센 뤼팽!"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례하지 않게, 젊은이. 걸어서, 말을 타고, 하늘을 날아도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베버는 경악했다. 열두 시간 전 자신이 직접 데려다 준 상테 형무소로부터 무려 사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자유의 몸인 아르센 뤼팽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얼어붙었다. 도니 루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다빈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참으로 멋진 스윙이었군. 네 번의 강력한 펀치에 이어 복부 후려치기 하나면, 충분히 녹아웃시켰어. 서둘 필요 없어. 그가 '엄마'라고 비명을 지르기까지 최소 30초는 더 걸릴 테니까."

다반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돈 루이스는 비행기 안으로 올라탔다. 농부들이 바퀴를 밀어 주었고, 비행기는 이륙했다.

"북북동으로 가." 돈 루이스가 명령했다. "시속 150킬로미터. 1만 프랑."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다반이 말했다.

"역풍 보너스로 5천 프랑을 더 주마." 돈 루이스가 내뱉었다.

그는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다. 포르미니에 닿기 위한 조급함이 그를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모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 그 시작점을 돌아보며,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창고에서 목이 달아난 두 시체와 모닝턴 가의 유산으로 촉발된 일련의 범죄 사이에서, 왜 자신이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을까.

더욱이, 기술자 포빌의 옛 친구였던 랑르노 부인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에서, 그 살인이 지닌 모든 단서를 왜 끌어내지 못했을까.

어둡고 음흉한 음모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기술자 포빌이 옛 친구 랑르노에게 보낸다는 명목으로 쓴 고발장들을, 누구 때문에 포빌의 대리인을 자처한 자가 가로챈 것일까.

마을 사람, 혹은 적어도 마을에 살았던 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바로 그 강도가 과거, 범죄 세계에 발을 들이던 초년생 시절에 랑르노 부친을 살해했고, 뒤이어 데데수스라마르 부부를 죽인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중에 저지른 일들과 같은 수법을 썼다.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익명의 살해였다.

미국인 모닝턴, 기술자 포빌, 마리안, 가스통 소베랑드처럼, 랑르노 부친도 교묘히 제거되었고, 데데수스라마르 부부는 자살로 내몰린 뒤 창고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이 '호랑이'는 파리로 올라왔고, 그곳에서 나중에 기술자 포빌과 코스모 모닝턴을 만나 상속 관련 비극적인 사건을 꾸몄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먼저 그가 플로랑스에게 마약을 먹인 사실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였다. 알랑송과 포르미니의 풍경,

그리고 가스통 소베랑과 함께 탐험했던 그 오래된 성을 플로랑스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녀를 잠들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또한 르망-앙제-낭트 방면으로 경찰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속임수는, 알랑송으로 가는 자동차에게 단 한두 시간의 우회만 강요할 뿐이었다. 만약 르망에서 방향을 틀었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큰 도시 근처에 있는 창고,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연료까지 가득 실린 리무진. 이 모든 것은 이 강도가 자신의 은신처로 갈 때, 르망에 들러 리무진으로 이동해 랑르노 씨의 버려진 영지로 향할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따라서 그날 아침 10시, 그는 자신의 굴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잠들어 기절해 있던 플로랑스 르바세르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끔찍하고도 집요한 물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플로랑스 레바세르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더 빨리! 더 빨리!" 도니 루이가 소리쳤다.

도둑의 은신처를 알게 된 뒤로, 이 남자의 속마음이 무서울 정도로 또렷이 보였다. 쫓기고, 도망칠 곳도 없으며, 이제 현실을 눈 뜨고 본 플로랑스에게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된 그 남자가, 다른 계획이라곤 있을 수 없었다.

매번 그랬듯, 그는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 빨리!" 도니 루이가 외쳤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아. 더 빨리!"

'피를 뿌린 피렌체!'

아직 그 잔혹한 행위는 완료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어야 했다. 살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앞에는 말다툼이 있고, 거래가 제안되며, 협박과 간청이 오간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음흉한 전조들이 깔린다. 하지만 그 일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피렌체가 죽게 되어 있었다!

피렌체는 자신을 사랑한 강도범의 손에 죽게 되어 있었다. 루이스는 그 기괴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고문과 피로 끝나는 것 외의 다른 방식으로 종결될 수 있겠는가?

사블레…… 시예르르지유.

대지가 그들 밑으로 달아났다. 도시와 집들은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알랑송이 나타났다.

그들이 도시에 있는 포르미니와 마을 사이의 초원에 내려온 때는 한 시간 반쯤 지났을까 말까였다.

돈 루이스는 주변 상황을 살폈다. 포르미니로 가는 도로를 여러 대의 자동차가 지나갔고, 그중 한 대는 작은 리무진이었다. 한 남자가 운전하는 그 차는 곁길로 빠져나갔다.

그 곁길은 랑르노 부자의 '구성' 뒤쪽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돈 루이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다반느와 작별한 뒤 그는 그를 다시 공중으로 띄워 주었다. 이제 그는 그에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다. 최종 결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달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먼지 위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따라, 그는 나뭇길을 따라 달렸다.

그의 큰 놀라움은, 그 길이 몇 주 전 그가 뛰어내렸던 '그랑고아팡디' 뒤의 담장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숲을 지나친 도 루이스는 넓은 황무지로 나섰다. 길은 다시 돌아서 저택 쪽으로 향했고, 결국 철제 판과 막대로 보강된 낡은 쌍문 앞에 다다랐다.

리무진이 바로 이 길을 지나갔다.

'여기를 통과해야 해. 어떻게든, 지금 당장. 헛된 시간을 보내며 틈새나 오를 나무를 찾을 여유가 없어.'

하지만 이 부분의 담장은 무려 네 미터나 높았다.

도 루이스는 그 절벽을 넘었다. 어떻게? 어떤 기적 같은 힘으로? 그 자신도 그 일을 마친 뒤라면 정확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보이지 않는 돌 틈새를 손톱으로 파고들며, 다반이 빌려준 칼을 바위 틈에 꽂아 고정한 채 간신히 그쪽을 건너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쪽 편에 도착한 그는, 타이어 자국을 다시 발견했다. 그 자국은 왼쪽으로, 그가 알지 못하는 공원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곳은 지형이 더 복잡하고, 작은 언덕들과 폐허가 뒤섞여 있었으며, 거대한 덩굴식물이 무성하게 내려덮인 곳이었다.

공원 나머지 부분은 이미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지만, 이 지역은 훨씬 더 야생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nettles와 가시덤불 사이, 그리고 커다란 들꽃들의 무성하고도 넘치는 식물들 사이에는 발레리아나, 부들, 독미나리, 디지탈리스, 안젤리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제멋대로 자라난 채로, 라우리허(월계수)의 울타리와 비커(Buxus, 상수리나무)의 벽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때였다. 오래된 녹나무 가로수 길 너머로, 도 루이스 페레나는 앞서 숨겨두었던 리무진을 발견했다. 아니, 숨겨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숨겨둔 것이었다.

차문은 열려 있었다. 차내의 어수선함, 발판 위에 늘어져 있는 카펫, 깨진 유리창 하나, 자리에서 벗어난 쿠션 하나까지. 모든 것이 플로랑스와 도적 사이에서 몸싸움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마도 도적은 소녀가 잠든 틈을 타 로프를 감아 묶었을 것이다. 그리고 리무진에서 내려놓으려던 순간, 플로랑스가 주변 물건을 붙잡고 매달렸던 모양이었다.

도 루이스 페레나는 즉시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했다.

언덕 경사면을 따라 이어진, 잔디가 무성하게 덮인 매우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는 발자국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비열한 놈이로군.'

그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희생자를 부르지 않는다. 끌고 가는 거야.'

만약 본능에만 이끌렸다면, 그는 즉시 플로랑스를 구하기 위해 뛰어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판단력이 그를 무모한 행동에서 막아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소음이 생기거나 경각심이 높아진다면, 호랑이는 자신의 먹이를 곧장 목을 졸라 죽일 터였다.

그 끔찍한 비극을 막으려면, 도 루이스가 그 남자를 기습해서 단숨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을 단단히 다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 채 계단을 올랐다.

산책로는 무너진 성벽과 돌무더기 사이를 비스듬히 올랐다. 너도밤나무와 참나무가 우뚝 솟은 관목들이 그 주변을 감쌌다.

분명히 이곳은 옛 영주의 성터였다. 바로 이 곳에서 성채의 이름이 유래한 땅이다. 그리고 정상 근처, 바로 이 곳이 강도가 숨어든 곳이었다.

발치에 쓰러진 풀잎들이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니 루이스는 풀숲 위에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고 단정한 반지였다. 금 테두리에 작은 진주 두 개가 박혀 있었다. 플로랑스의 손가락에서 자주 보던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반지 안쪽에 있었다. 풀 한 포기 반지가 고리를 빠져나가고, 다시 고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리를 감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리본을 감아둔 듯했다.

페레나는 생각했다. 신호는 분명했다. 강도가 여기서 잠시 쉬어갔을 가능성이 높았고, 플로랑스는 묶여 있었지만 손가락만은 자유롭게 쓸 수 있었기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돈 루이스는 감격에 젖어 생각했다. 그녀가 보낸 이 마지막 호소가 바로 자신을 향했을지도 모른다고.

다섯 걸음 더 나아갔다. 여기서는 강도가 겪은 기이한 피로감이 드러났다. 또 한 번 멈춰 선 자리에는 두 번째 단서가 있었다. 한 송이 꽃, 들민트였다. 그 불쌍한 손이 꺾어낸 꽃은 이미 꽃잎이 찢겨 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땅바닥에 오므린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돌멩이로 그은 십자 표시도 있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끔찍한 고문의 전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다.

마지막 정거장에 다다랐다. 가파른 절벽은 더 거칠어졌다. 무너진 바위들이 더 자주 장애물로 가로막았다. 오른쪽에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고딕 양식의 두 개의 아치형 구조물이 보였다. 성당 유적이었다. 왼쪽으로는 담벼락 일부가 벽난로의 외벽처럼 남아 있었다.

스무 걸음 더. 돈 루이스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무언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가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잘못 듣지 않았다.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것은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얼마나 끔찍한 웃음인지. 날카롭고, 악마처럼 사나우며, 너무도 날카로운 소리였다. 여자 웃음 같았다. 미친 여자 웃음 같았다.

다시 고요함. 그다음 또 다른 소리. 땅을 어떤 도구로 두드리는 소리. 다시 고요함.

이 모든 일은 도 루이스가 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일어났다.

산책로는 세 개의 계단으로 끝이 났다. 계단은 흙을 파서 만들었다. 그 위에는 매우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도 잔해와 폐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평원 한가운데, 정면에는 커다란 월계수 잎사귀들이 반원 모양으로 심어져 커튼처럼 서 있었다. 발자국이 난 풀들은 바로 그 월계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드루이스는 매우 당황했다. 커튼처럼 드리워진 나뭇가지들이 도무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예전에는 이곳에 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지들이 서로 엉키며 막혀버린 것이었다.

그 가지들을 헤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바로 그 틈을 통해 도적들이 지나간 것이다. 겉보기에 도적들은 이미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거리는 매우 가까웠고, 그들은 아마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였다. 공기를 가르는 비웃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드루이스는 놀라 몸을 떨었다. 도적이 이미 자신의 개입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손편지와 붉은 잉크로 쓴 글귀를 떠올렸다.

"아직 늦지 않았소, 뤼팽. 이 싸움에서 물러나시오. 안 그러면 당신도 죽음을 맞이할 테니까요. 당신이 승리를 확신하고, 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며 승리의 외침을 지를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발 아래로 심연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죽을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함정도 준비되어 있소. 조심하시오, 뤼팽."

편지 전체가 그의 머릿속을 지나갔다. 위협적이고도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그는 두려움의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남자를 두려움이 막을 수 있었을까? 그는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쥐었고, 온몸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길을 열었다.

그는 멈춰 섰다. 마지막 잎사귀 장막이 그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눈높이에서 몇 장의 잎을 치웠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일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플로랑스였다. 지금 혼자였다. 그녀가 그의 서른 미터 앞에서 누워 있었고, 묶여 있었다.

그가 곧 깨달았다. 그녀의 머리 움직임으로 보아,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제시간에 도착했다. 플로랑스는 죽지 않았다. 플로랑스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확정된 사실이었다. 어떤 것도 이를 뒤집을 수 없었다. 플로랑스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는 상황을 살폈다.

그의 양옆으로 라우르의 커튼이 휘어지며, 마치 하나의 아레나처럼 감싸고 있었다. 그곳에는 예전에 원추형으로 다듬어졌던 아이비 나무들 사이로, 기둥머리, 기둥, 아치와 천장의 조각들이 누워 있었다. 그것들은 분명히 오래된 망루의 폐허 위에 조성된, 규칙적인 선을 가진 정원을 장식하기 위해 놓여진 것이었다.

한가운데에는 작은 원형 광장이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개였다. 하나는 라우르의 커튼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직각으로 꺾여 라우르의 양쪽 끝을 이어주는 길이었다.

정면에는 무너진 돌들과 자연 그대로의 바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점토가 풀처럼 굳어 그 사이를 메웠고, 구불구불한 나무 뿌리들이 이를 단단히 묶고 있었다.

전경 한복판에는 깊지 않은 작은 동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틈새가 곳곳에 뚫려 있어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바닥은 세네 네 장의 판석으로 덮여 있었다. 돈 루이스는 그 바닥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동굴 아래에는 플로랑스 르바서가 묶인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마치 신비로운 의식을 치르려 제물로 바쳐진 희생양처럼 보였다. 의식은 그 동굴을 제단 삼아, 큰 월계수나무로 울타리를 친 낡은 정원의 극장 같은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 위로는 수백 년 된 유적의 무더기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돈 루이스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세밀한 부분까지 또렷이 볼 수 있었다.

극심한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다림의 표정, 심지어 희망의 빛까지 담겨 있는 듯했다. 피렌체가 아직 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입이 막히지 않았음에도 도움을 부르짖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까? 설령 비명을 질렀다 해도, 강도가 곧바로 막아버릴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 비명 소리보다, 그녀가 지나가며 남긴 흔적들이 자신을 찾아올 더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여겼을까?

이상하게도, 돈 루이스는 소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숨어 있는 정확한 지점을 끈질기게 응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간파했을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개입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 돈 루이스가 자신의 리볼버 중 하나를 움켜쥐고 팔을 반쯤 들어 올렸다. 겨냥할 채비를 갖춘 것이었다.

희생자가 누워 있던 제단 근처에서, 제물을 바치는 자, 곧 살인자가 나타나 있었다.

그는 가시덤불이 틈을 가리고 있는 두 바위 사이로 나왔다. 그곳은 통로가 매우 낮아, 그가 몸을 웅크린 채로 기어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머리를 깊이 숙인 채로, 두 개의 긴 팔이 땅에 닿을 듯이 늘어져 있었다.

그가 동굴 쪽으로 다가가자, 끔찍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전히 있군." 그가 말했다. "구원자는 오지 않았나? 메시아가 조금 늦었네. 서둘러야지!"

그 목소리는 너무도 날카로워 도 루이스는 모든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톤은 기이하고 인간적이지가 않아, 도 루이스는 진짜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리볼버를 꽉 쥐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이 보이면 곧장 쏠 태세였다.

"빨리 하라구!"

도적은 웃으며 다시 말했다.

"아니면 5분 뒤엔 모든 게 끝이니까. 보라구, 나는 철저한 인간이잖아, 사랑스러운 플로렌스여?"

그는 땅에서 무언가를 주워 들었다. 지팡이 모양의 목발이었다. 그는 그것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몸을 기대었다. 그러고는 허리를 심하게 굽힌 채, 서 있을 기운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자세를 바꿨다. 그는 일어서서 지팡이를 마치 일반 지팡이처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동굴 바깥 둘레를

돌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 조사의 의미는 돈 루이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다. 돈 루이는 쉽게 깨달았다. 노란 자동차의 운전수가 그를 이토록 다른 두 모습으로 보았다면, 그가 정말로 키가 큰지 작은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다리는 축 처지고 유연해서, 마치 오래도록 힘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흔들렸다. 그는 다시 쓰러졌다.

그는 걷는 데 장애가 있는 불구자였다. 어떤 운동 신경의 병을 앓고 있는, 지나치게 마른 구루병 환자였다. 더구나 루이스는 창백한 그의 얼굴, 뼈만 남은 볼, 꺼진 광대뼈, 양피지 같은 피부를 보았다. 피가 흐르지 않는 결핵 환자 특유의 얼굴이었다.

검사를 마친 그는 플로랑스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너는 착하고 아직 소리도 지르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편안한 입마개를 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

그는 소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넓은 수건으로 그녀의 턱과 입술을 감쌌다.

이어 몸을 더 깊이 숙인 채, 그는 소녀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거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흐릿한 웃음소리가 그 속삭임을 끊어놓았다. 듣기 끔찍할 지경이었다.

도 루이스는 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느꼈다. 비열한 자의 어떤 행동, 즉 갑작스러운 살해나 독침 한 방의 타격을 두려워했다. 그는 권총을 겨누고, 자신의 솜씨를 믿으며 기다렸다.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떤 말이 오가고 있었는가?

악당 플로랑스 르바세르에게 어떤 추악한 거래를 제안한 것인가?

그녀는 어떤 수치스러운 대가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가?

심한 분노의 어조로 비명을 지르며, 불구자는 격렬하게 물러섰다.

"하지만 네가 왜 망신인지 이해하지 못하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잖아. 네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내 뒤를 따라왔고, 내 뜻에 맡겼으니, 네가 바라는 게 뭐야? 자, 뭐지? 나를 설득하려는 거야? 아니면 내 열정이 나를 태우니까… 아! 아! 얼마나 착각하는지, 내 사랑! 네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신경 쓸 리가 없어… 죽으면, 나는 더 이상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럼 뭐지… 혹시 네가 불구인 내가 너를 죽일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너를 죽일 생각은 없어, 플로랑스! 내가 사람을 죽이겠어? 절대 아니야. 나는 너무 겁쟁이여서 사람을 죽일 용기가 없어, 두려워서 떨릴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플로랑스. 하지만… 자, 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깨닫

게 될 거야… 아, 이 일은 내가 잘하는 대로 계획했어… 그리고 특히 두려워하지 마, 플로랑스. 이건 그저 첫 번째 경고일 뿐이야…”

그는 몸을 뒤로 빼며 손과 나무 가지에 매달려 동굴 입구 오른쪽의 첫 계단을 기어 올랐다.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곁에는 작은 곡괭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고, 쌓여 있는 돌무더기에 세 번 내리쳤다. 돌무더기가 무너졌다.

도 루이스는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숨어 있던 곳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동굴과 무질서하게 쌓인 돌들, 그리고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이 모두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만약 무너지면 플로랑스가 돌무더기 아래 깔려 죽을 위험이 컸다.

따라서 지금 그가 물리쳐야 할 적수는 도둑이 아니었다. 당장 플로랑스를 구해야 했다.

그는 두세 초 만에 절반 정도를 달렸다.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빛처럼 빠른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짓눌린 풀자국이 중앙의 작은 회전교차로를 가로지르지 않았다는 것. 그 강도가 도둑이 교차로를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 그랬을까? 의심스러운 직감이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이성은 그 해답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

도니 루이스는 계속 말했다. 그는 그곳에 발을 디디자마자 곧장 참사가 일어났다.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었다. 마치 공중을 걷다가 허공으로 떨어지려는 듯했다. 땅이 그의 발아래로 꺼져 내렸다. 풀뿌리가 붙은 흙덩어리가 갈라지며, 그는 그대로 추락했다.

그는 구덩이에 빠졌다. 그 구덩이는 지름이 1미터 50cm를 넘지 않는 우물의 입구였다. 우물 가장자리는 땅면과 똑바로 평평하게 잘려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 돌진력이 그를 반대편 벽면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의 전완부는 바깥쪽 가장자리에 걸쳤고, 손은 식물의 뿌리에 매달렸다.

그의 힘이 워낙 강했다면 손목 힘으로 다시 몸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즉시, 그의 공격에 대응하듯 그 도적은 공격자를 막아 서기 위해 재빨리 달려왔다. 이제 그는 돈 루이스로부터 열 보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권총으로 그를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쏴 죽여."

도 루이스는 적의 총격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몇 초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불구자의 눈은 열병에 타오르는 환자처럼 타올랐다.

그는 기어 다니며 도 루이스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우물 옆에 웅크렸다. 팔을 뻗어 권총을 조준한 채였다. 그리고 다시 지옥 같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뤼팽! 뤼팽! 뤼팽! 드디어 찾았군! 드디어 뤼팽의 추락이군! 자네, 정말 대단한 내공이 있구려. 내가 피로 쓴 경고장을 보내지 않았나? 기억나지? '죽을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함정도 준비되어 있소. 조심하오, 뤼팽.' 그리고 이제 자네가 여기 있군. 자네는 아직 감옥에 있지 않은 게로군? 또 그 위기를 넘겼구려. 꾀부리군, 자네는.

다행히도 나는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두었소. 어떻게 했는지 보게. '전체 경찰이 내 뒤를 쫓아오겠지. 하지만 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오직 뤼팽뿐이야. 그러니 그에게 길을 보여줄까? 시신이 발견된 좁은 길을 따라, 마치 개를 산책시키듯 그를 이끌어 갈 수 있겠군.'

그리하여 여기저기에 지름길을 표시해 둔 거야. 여기는 여자의 반지에 풀잎을 말아둔 곳, 저기에는 찢어진 꽃잎, 또 저기에는 손가락 다섯 개가 파고든 자국, 그리고 십자 표시까지. 절대 헷갈릴 리 없지, 그렇지? 자네가 나를 너무 멍청하게 여겨, 플로랑스가 작은 피터 팬처럼 흔적을 남길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생각은 바로 내 함정으로 곧장 이어졌지. 바로 그 우물 입구로, 내가 지난달에 이 사건을 예상하고 덮어둔 잔디 덩어리 위로 말이야. 기억나지? 함정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함정은 내 방식대로, 최고급으로 만든 것이야. 아, 내가 가장 즐기는 일은 사람들의 도움과 자발적인 참여로 그들을 처리하는

거야. 우리는 좋은 친구처럼 협력하는 거지. 자네도 이미 그 점을 눈치 챘겠지?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스스로를 처리하는 거야. 스스로 목을 매거나, 독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자네처럼 우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지. 아, 불쌍한 옛 친구여, 자네는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든 거야? 아니, 자네 얼굴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게. 플로랑스, 자네 연인의 얼굴을 좀 봐요!"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터져 나오는 웃음에 몸이 떨렸고, 뻗은 팔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은 가장 야만적인 표정으로 일그러졌고, 몸통 아래 다리는 풀린 인형처럼 허공에서 춤을 추듯 떨렸다.

그의 맞은편, 상대의 힘이 빠지고 있었다.

노력하는 모습은 점점 더 절박해졌지만, 동시에 점점 더 무의미해졌다. 처음에는 풀뿌리에 매달렸던 손가락이 이제는 벽돌 틈새에 간신히 걸린 채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리고 어깨는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아 갔다.

"드디어 왔습니다." 도둑이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느님, 웃다니 얼마나 좋은지! 특히 평소에 웃지 않던 사람이면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저는 본래 음산한 인간이에요. 장례식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 플로랑스? 제가 웃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재미있어서 참을 수가 없네요. 뤼팽이 구덩이에 빠졌고, 플로랑스는 동굴 안에 있어요. 한 사람은 심연 위에서 발버둥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산더미 아래서 신음하고 있죠. 정말 멋진 광경이에요. 자, 뤼팽,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 그렇게 구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가요? 당신 같은 정직한 사람에게요. 현대의 돈키호테라니! 자, 내려가세요. 우물에는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물에 빠질 기회조차 없죠. 그냥 알 수 없는 곳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방금 불타는 종이를 던져봤는데,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으악!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자, 용기 내세요. 잠시뿐이에요. 당신은 다른 일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잘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어이, 뤼팽, 뤼팽! 뭐예요, 작별 인사도 없나요? 미소 하나, 감사의 말 하나도 없어요? 잘 가요, 뤼팽. 잘 가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치밀하게 준비해 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끔찍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과정은 그의 의지대로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어깨가 가라앉았다. 이어 경련처럼 일그러진 입술, 공포에 질린 눈동자, 이마, 머리카락, 그리고 마침내 온몸이 사라졌다.

불구자는 열광적인 듯, 환상 속인 듯 꼼짝도 없이 바라보았다. 야성적인 쾌락이 서린 표정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증오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 심연의 끝자락에서, 이제 남은 것은 손뿐이었다. 끈질기고 고집세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감한 손들. 그리고 비참하게도 힘을 잃어가는 손들. 그 손들만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었지만, 죽음과 함께 물러나며 점차 힘을 잃고, 결국 놓아버리고 말았다.

손이 미끄러졌다. 잠시 동안 손가락이 발톱처럼 단단히 매달렸다. 그들의 힘이 초자연적일 정도로 강했던 탓인지, 그들만으로도 이미 어둠 속에 묻힌 시신을 끌어올려 부활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 힘도 고갈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었다.

병약한 남자는 긴장이 풀린 듯 몸을 떨더니,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푸! 됐어! 뤼팽이 지옥 구석에 떨어졌군… 이 사건은 끝났어… 피! 팡! 푸!"

그는 플로렌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곧게 서더니, 이내 쪼그리고 앉았다. 마치 두꺼운 줄로 묶인 말뚝 같거나, 웃기게도 흐트러진 허수아비의 옷자락처럼 그의 다리가 움직였다.

그는 노래를 불렀다. 피리를 불기도 했다. 저주스러운 욕설을 토해냈고, 끔찍할 정도로 신성모독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런 뒤 그는 다시 그 깊고도 어두운 구덩이로 돌아갔다. 아직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무서운 듯, 멀리서 세 번이나 침을 뱉었다.

그의 증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땅바닥에는 조각상들의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한 머리를 집어 들더니 풀밭 위에서 굴려, 절벽 끝으로 툭 던졌다.

그리고 얼마 떨어진 곳에는 녹슨 구식 대포알들이 덩어리째 놓여 있었다. 그것들도 그는 끝까지 굴려 밀어냈다.

다섯 개, 열 개, 열다섯 개. 대포알들이 연이어 굴러떨어졌다. 절벽 벽면에 부딪히는 굉음이 울려 퍼졌고, 그 반향은 멀리 사라져 가는 우렁찬 천둥소리처럼 무서운 소음을 증폭시켰다.

"자, 받아 봐, 뤼팽! 아, 네가 나를 얼마나 골탕 먹였는지 알겠어? 더러운 개새끼야! 그 불운한 유산 때문에 내 발목을 얼마나 잡았는지 모른다고!"

"자, 이것도 받아! 그리고 이것도! 배고프지? 이것들로 배불리 먹어라. 더 원해? 자, 먹어라, 친구."

그는 제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어지러움을 느꼈다. 힘이 빠져 결국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경련이 그를 일으켰다. 그는 다시 절벽 끝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둠 속을 향해 몸을 굽히며, 그는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어이, 시체야. 지옥 문 두드리지 마라. 이 꼬마가 스무 분 뒤에 너를 따라갈 거다. 네 시계로 정확히 네 시에. 나는 정확함의 신하니까. 네 시 정각에 그녀는 약속 장소에 있을 거야. 아, 잊고 있었네. 유산 말이지. 모닝턴의 2억 프랑. 내가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물론, 내가 모든 준비를 해뒀겠지? 플로랑스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아주 완벽하게 꾸며 놨어. 보게 될 거야. 정말 보게 될 거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 음절들은 오히려 신음 같은 후두박질처럼 들렸다. 땀이 머리와 이마에서 뚝뚝 떨어졌고, 그는 죽어가는 자의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는 몇 분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깊은 곳까지 고통받는 듯했다. 병으로 뒤틀린 근육 하나, 불안정한 신경 하나마다 고통이 스며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무언가 생각한 듯,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한 손이 몸체를 따라 떨리며 미끄러졌다. 더듬거리며,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입가로 가져갔다. 그는 목을 메며 두세 모금을 들이켰다.

그 순간, 그는 살아났다. 마치 따뜻함과 힘을 마신 듯했다.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입가에 끔찍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플로렌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기뻐하지 마라, 아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처리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게다가 그 일이 끝나면 더 이상 귀찮은 일도, 몸이 찢어지게 만드는 작전과 싸움도 없다. 고요한 평온, 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백만 프랑이면 충분히 몸을 사릴 수 있지 않느냐, 아이야?"

"그래, 그래. 많이 나아졌네."

제19장

드디어 극의 두 번째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도니 루이스 페레나의 고문이 끝난 뒤, 이제 플로렌스의 차례였다.

그 불구자는 끔찍한 처형자나 다름없었다. 그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마치 도살장에서 도살할 짐승을 대하듯 아무런 자비도 없이 옮겨 다녔다.

아직도 기운이 빠져 나가는 듯했던 그는 젊은 소녀 쪽으로 기어갔다. 그리고는 닦인 금속 케이스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우더니, 잔인한 교묘함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이 담배가 다 타 없어지면, 플로랑스, 네 차례야. 눈을 떼지 마. 지금 너의 인생 마지막 순간들이 재가 되어 날아가고 있는 거야. 절대 눈을 떼지 말고, 생각해보렴. 플로랑스, 네가 반드시 알아들어야 할 말이 있어."

"너의 머리 위를 덮고 있는 바위더미는 항상 무너질 운명이라고 여겨져 왔어. 영지를 소유해 온 모든 사람들이, 특히 노년 랑르노가 그랬지."

"그런데 나,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바위더미를 더 약하게 만들었지. 빗물에 침식시키고, 결국은 이렇게 다져놓았어. 솔직히 말해, 지금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해는 돼. 방금 내가 파이프질로 내린 한 방은 단지 경고였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똑같은 곳을 또 한 번 치고, 두 블록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벽돌 하나를 밀어내면, 그 순간 사다리는 카드 집처럼 무너져 내릴 거야."

"작은 벽돌 하나, 플로랑스, 알아듣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벽돌이야. 우연히 두 블록 사이에 미끄러져 들어가 지금까지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던 벽돌이지. 그 벽돌이 튀어 오르면, 두 블록이 굴러떨어지고, 그리고 '방!' 하고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 다음?"

"그 다음이야, 플로랑스.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지. 첫째, 갱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네 시체를 찾을 수도 없는 경우야. 설령 누군가 너를 찾으러 온다 해도 말이지. 둘째, 시체가 일부 드러나는 경우. 이럴 땐 내가 얼른 묶여 있는 끈을 자르고 시체를 없애버릴 거야."

"그럼 수사관은 뭐라고 추리하겠지? 플로랑스 르바세르가 법의 추적을 피해 동굴에 숨었는데, 갱도가 무너져서 죽었다는 거야. 그게 전부야."

"조금의 추모 의식만 치르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그리고 나? 내 임무가 끝나고,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으니, 나는 짐을 챙겨. 내가 지나간 자취를 철저히 지워. 짓눌린 풀잎도 다듬고, 자동차를 다시 타. 잠시 동안 죽은 체하다가, 문득 반전을 준비해. 그리고 두억만 프랑을 요구하지."

그는 살짝 비웃는 웃음을 지었다. 담배를 두세 모금 깊게 들이마신 뒤, 그는 태연하게 덧붙였다.

"두억 프랑을 요구했고, 그걸 얻었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지. 내가 그 돈을 요구한 건 내 권리이기 때문이야. 뤼팽이 들이닥치기 전, 내가 이미 그 이유를 설명했잖아. 네가 죽은 순간부터 나는 가장 합법적이고 이의 제기할 여지가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내가 그 돈을 얻은 이유는, 나를 겨냥할 증거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나를 직접적으로 누를 혐의는 하나도 없어. 의심은 할 수 있겠지. 도덕적 추측이나 단서 같은 것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가져가. 하지만 물리적 증거는 없어.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떤 이는 나를 키가 크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작다고 했지. 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어."

"모든 범죄는 익명으로 저질렀고, 오히려 자살로 오해될 수 있거나 자살로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었어. 내가 말하지만, 사법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뤼팽이 죽고, 플로랑스 르바세르가 죽으면, 나를 증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설령 나를 체포한다 해도,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고 즉시 석방해야 해. 나는 가장 큰 악당들처럼 저주받고, 증오받고, 천박한 존재로 낙인찍히겠지. 하지만 두억 프랑은 내 것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사랑스러운 친구, 수많은 정직한 사람들의 우정도 얻게 되겠지."

"다시 말하지만, 뤼팽과 네가 사라지면 끝이야. 더 이상 남은 건 없어. 단지 몇 장의 서류와 작은 물건들뿐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 지갑에 간직해 둔 것들이야. 그건 나를 목 베이는 죄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해. 하지만 몇 분 안에 하나씩 불태워 우물 깊숙한 곳에 재를 버릴 거야."

"보잖아, 플로랑스. 모든 준비는 끝났어. 너는 어느 쪽에서도 희망을 걸 수 없어. 네 죽음은 내게 두억 프랑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르센 뤼팽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해야 해, 플로랑스. 드라마의 결말은 네 손에 달려 있어.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네 죽음, 아니면…… 아니면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나 아니오로 답해. 고개 끄덕임 하나로 네 운명이 결정될 거야."

"노라면 너는 죽어. 예라면 너를 풀어주고, 함께 떠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네 무죄가 입증되면——그건 내가 책임질게——너는 내 아내가 될 거야. 플로랑스, 예니?"

그는 진심 어린 불안과 억눌린 분노로 그녀를 추궁했다.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찼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가는 그의 모습은 절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빌었고, 위협했다. 승낙을 간절히 바랐지만, 동시에 거절도 원했다. 그의 본성이 이미 범죄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플로랑스? 고개 끄덕임 하나만 해줘. 아주 가벼운 것이라도 괜찮아. 너를 맹목적으로 믿겠어. 너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네 약속은 신성하니까. 플로랑스, 대답해 줘… 망설이는 건 미친 짓이야… 네 생명은 내 분노의 일격에 달려 있어… 대답해!"

"봐, 내 담배가 꺼졌어… 플로랑스, 내가 버릴게. 고개 끄덕임 하나만… 그래? 아니야?"

그가 그녀 위로 몸을 굽혀 어깨를 흔들었다. 그가 원하는 신호를 강요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광기 어린 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가 운다! 그녀가 운다! 감히 울다니!"

"불쌍한 여인아, 네가 왜 우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네 비밀, 나는 알고 있다, 내 사랑아. 네 눈물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야."

"너? 넌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다른 이유야… 내가 네 비밀을 말해줄까?"

"아니, 말해선 안 돼… 할 수 없어… 입술이 타들어 가."

"아, 저주받은 여자야! 아, 플로랑스, 네가 원한 거야. 네가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 거지, 우니까! 네가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 거야…"

말하면서도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끔찍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가 플로랑스에게 보여준 갈색 가죽 지갑, 그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다. 지갑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그는 재킷을 벗어 근처 관목 위에 던졌다. 그리고 곡괭이를 쥐고 아래쪽 바위들을 기어 올랐다.

그는 분노에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너 자신이 죽음을 원했어, 플로랑스. 이제 너를 살릴 수는 없어… 너의 머리 표식조차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어… 이미 늦었어!… 네가 원했잖아… 자네 탓이야… 아, 눈물을 흘리고 있어!… 너는 눈물을 흘릴 용기가 있나 봐! 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그는 동굴 오른쪽 위,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 증오심이 그를 일깨웠다. 눈은 피로 붉게 충혈된, 끔찍하고 추악하며 잔인한 모습이었다. 그는 곡괭이 끝을 벽돌이 끼어 있던 두 블록 사이로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몸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물러섰다. 그리고 벽돌을 향해 한 방, 이어 두 번째 방을 가했다. 세 번째 타격에 벽돌이 튀어 올랐다.

일어난 일은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돌과 파편으로 쌓인 피라미드가 동굴 안과 동굴 앞쪽으로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무너졌다. 그 충격으로, 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자는 눈사태에 휩쓸려 잔디밭으로 날아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그는 곧 몸을 일으키며 비명처럼 외쳤다.

"플로랑스! 플로랑스!"

그는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인할 정도로 조장했던 그 참사가,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해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젊은 여자를 찾아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짙은 먼지 속에 잠긴 폐허 주위를 기어 다녔다.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플로랑스는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보이지도 않았고, 이미 죽어 있었다.

"죽었다! … 죽었다! 플로랑스가 죽었다!"

그가 외쳤다. 눈동자는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금 완전히 무력해져 버렸다. 기운이 빠져나가 다리가 풀려 그는 쪼그리고 앉았고, 이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두 번의 충격,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목격한 참혹한 참상들은 그에게 남은 모든 기력을 앗아갔다.

아르센 뤼팽은 이미 죽었고, 플로랑스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증오도 사랑도 남아나지 않은 그는, 삶의 이유조차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입술이 두 번, '플로랑스'라는 이름을 조목조목 새겼다. 그는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걸까.

이 끔찍한 범죄의 연쇄가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는 지난 여정을 떠올리고 있었을까. 그 모든 길목마다 시체가 놓여 있던 곳 말이다.

그 거친 영혼 깊숙이, 떨리는 양심의 각성이 살아 숨 쉬고 있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포식자가 피를 마시고 배부른 뒤 찾아오는那种 물리적인 무기력함이었을까. 그것은 거의 쾌락에 가까운, 짐승이 잠든 듯한 나른함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는 한 번 더 '플로랑스'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그의 뺨을 눈물이 굴러내려갔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말도 하지 않는 채였다.

그는 잠시 약을 다시 몇 모금 삼켰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의 그 경쾌함은 어디 갔을까. 다리가 축 처진 채로 가볍게 뛰며 범죄 현장을 향해 달려가던 그 흥분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먼저 뤼팽이 자신을 발견했던 그 관목으로 향했다.

관목 뒤, 두 나무 사이에는 작은 천막이 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삽, 괭이, 총, 줄, 철사 같은 도구와 무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몇 차례에 걸쳐 그 물건들을 우물 근처로 가져갔다. 그리고 떠나는 길에 그들을 우물 안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올라갔던 작은 언덕을 한 뼘씩 살폈다. 자신의 발자국이 조금도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잔디밭을 걸어 다녔던 곳도 똑같이 살폈다. 다만 우물로 가는 길만은 나중에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쓰러진 풀들을 일으켜 세웠다. 밟혀서 흩어진 흙도 꼼꼼하게 다져서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악당으로서 몸에 밴 습관대로, 해야 할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그를 깨웠다. 다친 제비가 그의 곁으로 떨어졌다. 그는 손짓하듯 제비를 잡아 쥐었다. 그리고 종이를 말아쥐듯, 그 작은 생명을 손바닥 사이에서 으깨었다.

그의 눈에는 야만적인 기쁨이 빛났다. 피투성이가 된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는 피가 솟구치는 그 불쌍한 짐승을 넋 잃고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형체도 없이 죽은 작은 시체를 덤불 속에 던져 버리려 했다. 그때, 그 덤불의 가시 사이에 금발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플로랑스에 대한 기억이 스며들자, 그의 절망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무너진 동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뭇가지 두 개를 꺾어, 돌덩이 하나 아래에 십자 모양으로 놓았다.

그가 몸을 굽힌 사이,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이 빠져나왔다. 거울은 작은 돌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불길한 징후가 그를 강타했다. 그는 주위를 경계 섞인 눈초리로 두리번거렸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위협하는 듯해 온몸이 떨리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서워…… 이만 물러납시다, 이만 물러납시다……"

그가 시계를 보니 네 시 반이었다.

그는 덤불 위에 올려둔 조끼를 집어 들었다. 소매를 끼워 입더니, 오른쪽 바깥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다. 그곳에 그는 자신의 서류를 넣은 갈색 가죽 지갑을 넣어둔 것이었다.

"이거,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는 왼쪽 바깥 주머니를 뒤진 뒤, 옆구리 위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리고는 초조한 손길로 안주머니들을 하나둘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을 거라고 단언하던 다른 물건들도 하나도 없었다. 담배갑도, 성냥갑도, 수첩도 자취를 감췄다.

그는 당황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그러자 가장 무서운 생각이 그의 머리를 뒤덮었다. 그것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졌다.

노성(古城) 안에는 누군가 있었다.

오래된 성곽 안에 누군가 있었다!

그 누구인가는 지금 폐허 근처, 아니 폐허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나를 보았다! 아르센 뤼팽의 죽음과 플로랑스 르바세르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리고 내 부주의를 틈타, 내가 말한 서류의 존재를 알고는 내 조끼를 뒤져 주머니를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둠의 행위에 익숙한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추악한 짓을 누군가에게 들킨 뒤, 그 눈이 지금도 자신의 행동을 엿보고, 한 번도 모습을 드러본 적 없는 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 시선은 어디에서 왔을까? 정오의 햇살이 야행성 새를 당황하게 하듯, 그 눈빛은 어디서 날아온 것이었는가. 우연히 숨어 있던 침입자의 시선인가, 아니면 그를 무너뜨리려는 집요한 적의 시선인가. 아니면 아르센 뤼팽의 동맹자, 플로랑스의 친구, 혹은 경찰의 밀정이었을까.

그리고 그 적자는 노획물만 노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자신을 공격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불구자는 움직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적나라한 땅 위에 드러누운 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전에 날아올 수 있는 타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패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위기가 코앞으로 닥치자, 그는 다시금 힘을 얻었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다. 그의 집중력은 너무도 완벽해서,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놓칠 리가 없어 보였다.

바위 더미 사이든, 관목 뒤든, 혹은 큰 라우렐 장막 뒤든. 그는 가장 흐릿한 실루엣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목발이 그의 몸을 지탱해 주었다. 그는 발소리와 목발 끝의 고무 마개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걸었다.

오른손은 총을 단단히 쥐고 앞을 향해 뻗어 있었다.

손가락은 방아쇠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다.

그가 의지하는 것, 아니 그보다 더 작은 것, 즉 본능이 내리는 명령 하나만으로도 총알은 적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왼쪽으로 향했다. 그쪽에는 라우르 나무 끝과 무너진 바위들 사이에 작은 벽돌길이 있었다. 아마도 묻힌 담장 꼭대기였을 것이다. 이 길로 적군이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조끼가 걸린 덤불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장애인은 그 길을 따라갔다.

라우르 나무의 나뭇가지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는 가지들을 치웠다.

덤불 덩어리가 얽혀 있었다. 피하려면 언덕 기슭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나아가 거대한 바위를 돌아섰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뒤로 물러나 거의 균형을 잃었다. 지팡이가 떨어지고 권총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가 방금 목격한 것,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은 그에게 가능한 한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로부터 열 발짝 떨어진 곳.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리를 꼬며, 어깨 하나를 바위 벽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살아 돌아오지 않는 죽음으로.

따라서 그것은 유령이었다. 그리고 저승에서 나타난 이 현상은, 불구자의 공포를 한계까지 몰아넣었다.

그는 떨며 다시 열이 올랐다. 기절할 뻔했다. 그의 눈이 커지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악마 같은 믿음과 공포로 가득 찬 그의 온몸이, 매초마다 더 큰 공포를 더하는 그 광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굽어졌다. 도망칠 수도, 맞설 수도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은 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불과 한 시간 전, 그는 그 죽은 자를 돌과 화강암으로 만든 천으로 덮어 우물 깊은 곳에 묻어둔 것이다.

아르센 뤼팽의 유령!

누군가를 겨누고, 총을 쏘고, 그를 죽인다. 하지만 대상은 유령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그럼에도 초자연적인 힘을 모두 지니고 있

는! 이미 죽은 자의 지옥 같은 음모에 맞서 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랴? 떨어진 무기를 주워, 아르센 뤼팽의 형체 없는 망령을 향해 겨누는 것이 무슨 소용이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유령이 주머니에서 손을 꺼낸 것이다. 한 손에는 담배 케이스가 쥐어져 있었고, 그 불구자는 자신이 헛되이 찾아다녔던 바로 그 녹슨 금속 케이스임을 알아챘다.

그렇다면 옷을 뒤졌던 자가 바로 그 케이스를 열고, 담배 한 개를 고르며, 불구자의 상자에 들어 있던 성냥개비를 하나 떼어 내어 켠 바로 그 자였다는 의심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적이었다. 성냥불이 살아 있는 불꽃을 토해낸 것이다.

담배에서 고리포기 모양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진짜 연기였다. 그 특유의 냄새가 곧장 코를 찔렀다. 그는 그 냄새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유령일까, 환각일까. 저승에서 올라온 기운일까, 아니면 자신의 양심에서 생겨난 환영일까. 그는 눈이 그토록 고통받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낯선 존재가 자신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느꼈다. 팔이 뻗어 왔고, 한 손이 그를 붙잡았다. 손아귀는 절대 놓치지 않는 듯 단단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살아 있는 인간의 목소리였다. 아르센 뤼팽의 목소리였다.

"자, 봅시다. 우리 이렇게까지 흥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제 갑작스러운 귀환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심지어 무례하게 느껴지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요수아의 해 멈춤 사건이나 1755년 리스본 대지진 같은, 훨씬 더 기적적이고 충격적인 일들도 있었으니까요.

현자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재고, 자신의 운명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에 미친 파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백하세요, 당신의 그 작은 불행은 완전히 개인적인 일일 뿐이죠. 행성의 균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하체트 판 8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불구자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분명한 사실이었다. 아르센 뤼팽은 죽지 않았다는 것.

그는 땅속으로 떨어뜨렸고, 망치 철로 곤충을 짓이기는 것처럼 확실하게 눌러 죽인 남자. 아르센 뤼팽이 살아 있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불구자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아르센 뤼팽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아르센 뤼팽의 눈이 그를 응시했다. 입술이 움직였다. 살아 있는 사람의 눈이자 입처럼.

아르센 뤼팽은 죽지 않았다. 숨을 쉬었다. 미소 지었다. 말을 했다. 그는 살아 있었다!

그는 눈앞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짓눌렀다. 본능의 명령과 삶에 대한 끝없는 증오가 그를 밀어 올렸다. 그는 몸을 바닥에 완전히 드러누르고,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에 쥔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 루이스가 발끝으로 찬 한 방에 총구가 빗나갔다. 이어 두 번째 발차기가 총을 그의 손에서 튕겨 내던졌다.

노여움에 이를 갈던 그는, 즉각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도 루이스가 물었다. 그는 노란 액체가 담긴 주사기 같은 것을 꺼내 보였다.

"미안하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당신 스스로 찌르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주사가 될 테니까요. 저는 그런 실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병자는 무장을 잃은 상태였다. 상대가 더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한 나머지 잠시 주저했다. 그 틈을 타 무언가 할 수 있을지 노리고 있었다.

작고 눈부신 그의 눈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공격할 만한 물건을 찾는 눈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 생각은 서서히 그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 주었고, 뜻밖에도 그가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플로랑스를 잊지 마!" 그가 외쳤다. "내가 여기서 널 완전히 잡았어. 만약 내가 총으로 너를 맞추지 못한다 해도, 만약 네가 내 독을 훔쳐갔더라도, 너를 공격할 다른 방법이 있어. 바로 마음 한가운데를 꿰뚫는 방법으로 말이야."

그가 계속했다. "너는 플로랑스 없이 살 수 없지? 플로랑스가 죽으면, 너는 이미 심판받은 거나 다름없지? 플로랑스가 죽으면, 너 스스로 목에 로프를 감게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도 루이스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만약 플로랑스가 죽는다면, 저는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죽었어요!" 도적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며 무릎 위에서 통통 뛰었다. "정말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죠. 사체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살아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다릅니

다. 시체조차 남아 있지 않아요, 뤼팽. 살과 뼈가 섞인 죽창이 되어 버렸죠!"

그는 손짓하며 말했다. "석재 블록 전체가 그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이지 놀라운 광경이죠!"

"자, 서둘러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동할 준비를 하세요. 밧줄 조각이 필요합니까? 하하하! 정말 웃겨요. 하지만 제가 전에 말했죠, 지옥의 문 앞에서 만나자고요. 서두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계신가요? 프랑스의 예의라는 것이 어디 그런가요? 여성을 기다리게 할 수 있나요? 말 달리세요, 뤼팽! 플로랑스가 죽었어요!"

그는 그 말을 정말로 즐기는 듯이, 아니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입안에서 달콤함이 퍼지는 듯이 말했다.

돈 루이스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쉽군요."

불구자는 얼어붙은 듯했다. 기쁨으로 부르르 떨던 몸짓, 승리를 자랑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멈췄다. 그는 헛헛거렸다.

"뭐? 무슨 소리야? 네가 뭐라고?"

"저는요, 돈 루이스는 태연한 태도와 예의를 잃지 않은 채, 여전히 불구를 '너'로 부르지 않고 존댓말로 계속했다. "저는요, 친애하는 선생님이요,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레바소르 씨보다 더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인성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아름다움, 우아함, 균형 잡힌 체격, 그리고 청춘은 다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런 걸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불구자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돈 루이의 태연한 태도에 당황한 그는 하얗게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시 말해 주마. 플로랑스는 이미 죽었다. 동굴을 보지 못했느냐? 플로랑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건 믿기 싫소." 돈 루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했다. "만약 그런 일이라면 세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하늘에는 구름이 끼었을 테고, 새들은 울지 않았을 거야. 자연 전체가 애도의 옷을 입었을 테지. 하지만 새들은 노래하고, 하늘은 파랗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 착한 사람은 살아 있고, 도적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있네. 플로랑스가 어떻게 살아 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 이후 긴 침묵이 흘렀다.

두 적수는 서로 세 발자국 거리만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 루이스는 여전히 차분했고, 불구자는 미친 듯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괴물은 이해하고 있었다. 진실이 아무리 어둡고 희미해도, 그것은 눈부실 만큼 확실한 확신처럼 그에게 다가왔다. 플로랑스 르바세르도 살아 있었다.

사람의 상식과 물리적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도 루이스의 부활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도 루이스는 살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었으며, 옷도 찢어지거나 더럽혀진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괴물은 자기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남자는 한계가 없는 힘을 가진 자였다. 죽음의 팔에서 벗어나,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들을 죽음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자였다.

괴물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작은 벽돌 길 위에서 무릎을 끌며.

그는 뒤로 물러났다. 옛 동굴 자리 위에 어지럽게 널린 폐허를 지나갔지만, 시선은 그쪽으로 돌리지 않았다. 플로랑스가 그 거대한 무덤에서 무사히 벗어났다는 확신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뒤로 물러났다. 돈 루이스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주워 든 밧줄 한 뭉치를 풀고 있는 데만 정신이 팔려, 더 이상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였다. 그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더니, 몸을 번개처럼 틀었다. 무릎이 풀려 비틀거리던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더니, 우물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우물까지는 스무 걸음 남았다. 그는 절반, 사분의 삼까지 달렸다. 이제 우물 입구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머리부터 뛰어드는 사람처럼 팔을 뻗으며 몸을 내던졌다.

그러나 그 돌진력은 순식간에 끊어졌다. 그는 거칠게 뒤로 끌려와 바닥에 굴렀다. 팔이 몸통을 너무 세게 조여,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도 루이스가, 미리 준비해 둔 밧줄을 로프처럼 던진 것이다. 그가 절벽으로 몸을 내던지는 순간, 단단한 매듭이 그의 몸을 감아 묶은 것이었다.

몇 초 동안 그 장애자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올가미가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끝이 난 것이었다.

그때 줄 끝을 잡고 있던 돈 루이스 페레나가 그에게 다가가, 남은 줄로 그를 완전히 묶어 주었다. 작업은 세심하게 진행되었다. 돈 루이스는 여러 번 손질을 거듭했고, 강도가 우물 근처에 가져온 줄뭉치도 활용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그의 입을 막아 주었다.

그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마치 예의를 갖춘 듯 한 어조로 설명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사람들은 늘 자신감 넘침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적에게 자신에게 없는 자원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을 때, 어떻게 저 같은 남자, 어떻게 아르센 뤼팽 같은 남자가 우물 가장자리에 매달려, 팔뚝을 가장자리에 걸치고 발을 안쪽 벽에 딛고 있으면서도, 아무나처럼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신은 열다섯에서 스무 미터쯤 떨어져 있었죠. 저는 도약으로 올라설 힘이 없었고, 당신의 권총 총알을 맞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특히 플로랑스 르바세르와 저 자신을 구해야 할 때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선생님,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제가 그 노력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시다면요. 네? 그렇다면 배우십시오, 선생님. 처음부터 저는 무릎과 발을 바깥쪽 벽에 힘을 주어 지탱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 충격으로 우물 안쪽에 있던 오래된 구덩이를 막고 있던 얇은 석고층이 무너졌습니다. 운이 좋았죠? 상황을 바꿀 만한 일이었습니다.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구덩이로 떨어지는 척하며 연기를 부리는 동안, 가장 놀란 표정을 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장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척하며, 저는 그 구덩이를 넓혔습니다. 석고 조각들이 제 앞으로 떨어지도록 해서, 그 낙하 소음이 들리지 않게 했죠.

시계가 차자, 얼굴이 흐트러져 당신의 시야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저는 용감한 허리 돌림 한 번으로 제 은신처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 피난처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던 쪽으로 파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구멍 자체도 어두웠고, 우물 안으로는 빛을 비추지 않았죠. 그러니 저는 그저 기다리면 됐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여러분의 말과 협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사체들이 날아오는 것도 그냥 지나쳤죠. 그리고 여러분이 피렌체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은신처에서 나와 daylight 아래로 돌아와 여러분을 뒤쫓아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루이스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묶인 다발처럼 뒤집어엎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노르망디 센 강변에 있는 탕카르빌의 중세 성을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터 밖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는데, 당시 다른 우물들처럼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늘을 향해 열린 구멍이 있고, 그 아래 벽면 옆으로 파인 또 다른 구멍이 성의 한 방과 연결되어 있었죠. 탕카르빌에서는 이 두 번째 구멍이 지금 철창으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갈과 석고층으로 벽을 막아두었습니다."

"탕카르빌의 기억이 저를 머물게 만든 이유입니다. 게다가 급한 일도 없었습니다. 플로랑스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네 시가 넘어서라는 것을 너그러이 알려주셨으니까요."

나는 숨어 있던 곳을 다시 살폈다. 직감이 맞았다. 이곳은 이미 철거된 건물의 지하실이었고, 그 터 위에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위에서 동굴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 방향이었다. 나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계단 맨 아래에 부딪혔을 때, 위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계단을 올랐다.

머리 위에서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루이스 경은 불구자를 다시 뒤집었다. 다소 거칠게 말이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친구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제가 처음부터 육로를 통해 당신을 직접 공격했더라도, 결말은 완전히 동일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저는 운이 좋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의 싸움 동안 운명은 종종 저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불평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매우 상쾌했죠. 그래서 터널 입구를 열어준 그 운명이, 반드시 출구로 이끌어줄 것이라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몇 장의 벽돌로 쌓아 올려 구멍을 가렸던 그 약한 장애물을 부드럽게 치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루의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소리에 이끌려, 저는 돌틈 사이로 몸을 비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굴 깊숙한 곳, 플로랑스가 있던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친구여?

당신이 작은 연설을 하는 모습을 듣는 것이 얼마나 코믹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 하겠군요. '플로랑스, 네가 죽을지 살지 결정해라. 고개를 끄덕이면 살려주겠다. 끄덕이지 않으면 죽는다. 대답해라, 플로랑스. 고개를 끄덕이는가? 끄덕이는가?'

특히 당신의 마지막 대사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당신이 동굴 위로 올라가서 소리쳤을 때 말입니다. '네가 죽고 싶었던 거야, 플로랑스! 네가 원했잖아. 불행한 네 운명!'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 순간,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저는 단번에 플로랑스를 끌어당겨 안전하게 피난시켰습니다.

당신이 돌덩이들을 떨어뜨리며 내리던 중 부수어댄 것은, 아마도 돌판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거미 한두 마리와 파리의 몇 마리쯤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죠. 제1막: 아르센 뤼팽의 구조. 제2막: 플로랑스 르바세르의 구조. 그리고 제3막, 마지막 막: 괴물 Monsieur의 몰락. 그리고 그 몰락은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도 루이스가 몸을 일으켰다. 자신의 작품을 만족스러운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보들처럼 생겼네."

그는 본능적으로 돌아온 장난기 어린 태도와 적을 낮잡아 부르는 습관대로 '너'라는 호칭을 썼다.

"진짜 보들 같아!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건 가난한 집안의 리옹 소시지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어차피 너는 그런 데 치장을 하려는 성향이 없는 것 같지. 평소 모습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제안할 작은 방 안 체조에는 딱 어울려."

"봐라.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야. 서두르지 마."

그는 도둑이 가져온 총 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총 중간쯤에 길이 열두 미터에서 열다섯 미터쯤 되는 줄의 한쪽 끝을 단단히 매었다. 줄의 다른 쪽 끝은 이미 불구자의 등을 감싸고 있던 줄에 고정해 두었다.

그리고는 포로를 안아 들어 우물 위쪽으로 들어 올렸다.

"어지러우면 눈을 감아라.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매우 조심스럽다. 준비됐나?"

그는 불구자를 넓은 구멍 속으로 미끄러지듯 내려보냈다. 그리고 방금 매달아 둔 밧줄을 낚아챘다.

그는 조심조심, 엄지손가락만큼씩 천천히 밧줄을 풀었다. 불구자가 구석에 부딪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결국 그 덩어리는 팔을 쭉 뻗은 길이까지 내려갔다.

그때, 우물 한가운데 가로놓인 총이 밧줄을 막아섰다. 그는 어둠 한가운데, 좁은 원형의 중심에서 매달린 채 꼼짝도 못했다.

돈 루이스는 불붙인 종이 마개를 여러 개 던졌다. 종이 마개는 빙빙 돌며 떨어지며 벽면에 기묘한 빛을 비췄다.

그리고는 마지막 일갈을 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도둑이 그랬던 것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며 비웃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장소를 잘 고른 거야. 뭐, 원하면 내가 치료해 주지. 플로랑스한테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프랑스 정부에는 가능하면 생포해서 넘기겠다고 했어.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 서늘한 곳에 모셔둔 거야. 장치, 괜찮지? 너의 수법을 그대로 따랐으니, 기분이 나쁘지도 않겠지. 생각해보라구. 총은 양쪽 끝에서 단 이삼 센티미터만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 조금만 몸을 움직이거나 숨을 크게 쉬어도, 총구나 총받침이 흔들려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추락을 맞게 돼.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네가 죽으면, 그것은 자살로 처리되는 거야. 그냥 꼼짝하지 않으면 돼, 친구."

"내 작은 기계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네가 목이 잘리기 직전 그 마지막 밤들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는 거야. 지금 당장 네 자신과 마주서 있는 거야. 네 영혼이라 부르는 그 무엇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조용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야. 나는 너에게 친절하잖아, 친구? 자, 이제 갈게. 기억해. 절대 움직이지 마. 한숨도 쉬지 마. 눈도 깜빡이지 마. 심장도 뛰지 마. 특히 웃지 마! 웃으면 넌 끝이야. 명상해. 그게 네게 가장 좋은 일이야. 명상하고 기다려. 안녕, monsieur."

루이 경은 자신의 연설에 만족한 듯 중얼거리며 물러났다.

"좋아. 유진 수처럼 '대형 범죄자의 눈은 빼야 한다'고까지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몸으로 얻는 작은 징벌에 불안까지 더하면, 공평하고 위생적이며 도덕적이야."

돈 루이스는 자리를 떠났다. 그는 붉은 벽돌길을 다시 따라 걸었고, 무너진 잔해들을 우회했다. 성벽을 따라 내려가는 좁은 길로 들어서자, 소나무 숲이 나왔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이 바로 그가 플로랑스를 숨겨둔 곳이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끔찍한 고문으로 온몸이 멍들었지만, 이미 용기를 되찾아 있었다. 스스로를 단속하고 있었으며, 돈 루이스가 불구자와 맞서 싸우는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될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했다.

"끝났네." 그가 간단히 말했다. "내일 그를 법정에 세우겠어."

그녀는 전율에 떨었지만, 말문을 닫았다. 도니 루이스 페레나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수많은 비극으로 인해 갈라섰고, 이후에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적으로 마주선 채 지내왔다. 그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은 함께 있고, 또 오직 둘만 남게 된 것이다.

도니 루이스는 그 순간 큰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찮은 말들만 할 수 있었다.

"이 벽을 따라가다 왼쪽으로 꺾이면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그 때까지 걸으시는 게 힘드시진 않죠? 일단 차에 타면 알랑송으로 갑니다. 메인 광장 근처에 아주 조용한 호텔이 하나 있더군요. 거기서 사건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풀리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용의자가 이미 잡혔으니, 그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갑시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주려다 말았다. 그녀는 실족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조화로운 상체는 고른 리듬으로 고관절 위를 흔들고 있었다. 돈 루이스는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열렬한 사랑을 되찾았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이 그녀에게서 가장 먼 시절이라고 느꼈다. 기적 같은 의지로 방금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냈음에도 말이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의 말도 없었고,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날카로움이 조금 누그러진 시선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첫날처럼 신비로운 존재로 남았다. 그는 그녀의 숨겨진 영혼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고, 그토록 위엄 있는 사건들의 폭풍우조차 그녀의 내면에 단 하나의 빛도 비추지 못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원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그는 더 이상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제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분노와 원한으로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니, 안 돼.»

그가 생각했다. 리무진에 타려는 그녀를 보며.

«이렇게 헤어지지는 않겠어. 우리 사이에 오갈 말은 다 해야 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그녀가 감싸고 있는 가면을 벗겨내겠지.»

길은 짧았다. 알랑송 호텔에 도착해 돈 루이스는 플로렌스를 가짜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그녀를 혼자 남겨둔 채, 한 시간 뒤 그의 방 문두드렸다.

이번에도 그는 마음먹은 대로 당장 그 문제를 꺼내지 못했다. 용기가 서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는 즉시 확인해야 할 다른 사항들이 있었다.

“플로렌스.”

그가 말했다.

"이 남자를 넘기기 전에, 당신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불쌍한 친구였어요. 제가 불쌍히 여겨주던 친구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괴물을 불쌍히 여겼다니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몇 년 전,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일은 달랐죠. 그의 연약함과 육체적인 고통, 이미 죽음을 예고하는 여러 증상들 때문에 저는 그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몇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비록 그가 숨어 사는 삶은 저를 불편하게 하는 면이 있었지만, 그는 서서히 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의 절대적인 헌신을 믿었죠.

모닝턴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생각하니 그가 저를 조종했고, 나중에 가스통 소베랑도 조종했습니다. 그가 저를 거짓말과 연기에 빠지게 했어요. 마리안느를 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죠. 그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고, 그와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침묵하도록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스통 소베랑은 당신과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토록 눈이 멀 수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평생의 절반을 요양원과 클리닉에서 보내며, 가능한 모든 수술을 받고도, 때로는 사랑에 대해 말하곤 했지만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무해하고 병약한 그 존재를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플로랑스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돈 루이스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깊은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는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던지는 말들은 공허한 공간에 사라져 갔다.

돈 루이스에게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자신에게 관한 플로랑스의 복잡한 심정, 즉 혐오와 경멸의 감정만이 궁금할 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말은 헛되고 지루하기만 했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플로랑스, 플로랑스.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당신은 알고 있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 질문이 그녀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가 더 강하게 재촉했다. "그 사건의 깊이를 당신은 아직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임을 당신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알고 계신다면요," 그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저를 적대시하는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해야겠군요."

"처음부터 저는 당신의 친구였습니다. 오직 당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처음부터 저는 당신이 저를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저는 차가움, 당혹감, 경멸, 심지어 혐오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태로울 때조차 당신은 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모든 무모한 행동을 감수했습니다."

"저는 경계해야 할 적, 두려움과 함께 생각해야 할 존재일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증오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증오뿐이 아닙니까?"

플로랑스는 즉각 답하지 않았다. 입가에 올라온 말들을 꺼내는 시점을 미루는 듯했다. 피로와 절망으로 야윈 얼굴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증오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루이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대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투는 그를 심란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플로랑스의 눈에는 평소의 경멸이 사라지고, 우아함과 미소가 담기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앞에서 웃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말해 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가 더듬거렸다.

"다시 말해, 차가움과 불신, 두려움, 적대감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 피하진 않아요. 피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수치심을 느끼고, 반발하며, 저항하고, 잊으려 하지만, 결국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가 절박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며, 또 다른 말, 더 많은 말을 간청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가 그녀의 영혼 깊숙이 들어와 숨겨둔 사랑의 비밀을 모두 알아챌 수 있다는 뜻이었다.

도 루이스는 비틀거렸다. 그는 행복에 취해 있었고, 뜻밖의 기쁨에 몸이 아플 지경이었다.

방금 전까지의 끔찍했던 순간들이, 그 장엄한 배경을 지닌 구성(Old Castle)에서 흘러갔다. 이제 그에게 이 호텔 방이라는 평범한 공간에

서, 이처럼 기이한 행복이 갑자기 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친 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 주변에 넓은 공간이 있기를 원했다. 숲과 산맥, 달빛, 그리고 석양의 찬란한 빛.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시적 정취가 필요했다.

그는 단번에 행복의 최고봉에 올랐다.

플로렌스와 함께한 삶의 모든 순간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들이 만난 순간부터, 비틀거리는 자가 그녀에게 몸을 기우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눈을 보며 비명을 지르던 그 비극적인 순간까지.

"그녀가 울고 있다! 감히 울다니! 미친 짓이로다! 하지만 너의 비밀, 나는 알고 있다, 플로렌스! 그리고 너는 울고 있다! 플로렌스, 플로렌스, 죽고 싶었던 건 바로 너 자신이지!"

그녀는 첫날부터 도 루이스를 향해 떨리는 몸으로 달려들었던 사랑의 비밀, 열정의 충동을 품고 있었다.

그 감정은 그녀를 당황하게 하고 공포로 가득 채웠다. 마리안느와 소베랑에게 배신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를, 그의 용기와 충성심으로 인해, 때로는 멀리하고 때로는 가까이했다.

죄책감에 찢기고 범죄처럼 그녀를 뒤흔든 그 감정은, 결국 힘을 잃고 혼란에 빠진 그녀를, 자신을 노리던 악마 같은 도적의 영향력 아래 내맡겼다.

돈 루이스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떤 말로 자신의 광기를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눈물은 맺혔다. 그의 본능이 그를 재촉했다. 그는 이 소녀를 끌어안고, 아이가 입을 맞추듯, 온전히, 진심을 담아 입맞추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도 깊은 존경심이 그를 얼어붙게 했다. 감정에 압도당한 그는 소녀의 발치에 주저앉아, 사랑과 경배의 말을 더듬거리며 토해냈다.

제20장

다음 날 아침, 아홉 시 조금 전. 발랑글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그래, 당신도 내 생각에 동의하는 거야? 그가 올 거라고?"

"물론입니다, 대통령 각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전체를 지배하는 그 엄격한 규칙에 따라 그는 올 겁니다. 자존심에서 비롯된 장난으로, 아홉 시 종소리가 딱 울리는 순간에 나타날 테죠."

"그렇게 생각하시오?"

"대통령 각하, 저는 이 남자를 수개월 동안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이제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플로랑스 르바쇠르의 죽음과 삶이 갈리는 그 순간, 만약 그가 쫓고 있는 범인을 처단하지도, 묶어 끌고 오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플로랑스 르바쇠르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르센 뤼팽 역시 죽었다는 뜻이죠."

"아니, 뤼팽은 불사신이지요." 발랑글레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옳아요. 더구나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 훌륭한 친구가 정확히 이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누구보다 제가 더 놀라겠지요. 어제 앙제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죠?"

"네, 회장님. 우리 형사들이 도니 루이스 페레나를 방금 만났습니다. 페레나는 우리보다 앞서 비행기로 도착했죠. 그 후 다시 르망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버려진 창고에서 조사를 마친 뒤였죠."

"조사는 이미 뤼팽이 해놓았을 겁니다. 확실히 말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알게 되겠군요. 자, 아홉 시가 되었네요."

그 순간,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가 집 앞에 멈춰 섰고, 곧바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명령이 떨어졌다. 방문객이 안으로 들였다. 문이 열리고 돈 루이스 페레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발랑글레와 경찰청장에게 있어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면 더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쨌든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묘한 당혹감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총리 위원장이 재촉하듯 외쳤다.

"됐습니다, 총리 각하."

"범인을 체포했다는 말인가?"

"세상에나!" 발랑글레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참으로 거친 분이시군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범인은 어떤 자인가? 분명 거구일 테고, 악랄하고 길들일 수 없는 야수 같은 놈이겠지?"

"감옥에 갇힌 환자입니다, 대통령 각하.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자요. 물론 책임은 지지만, 의사가 척수 질환이나 결핵 같은 온갖 병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남자를 플로랑스 르바쇠르가 사랑했다는 말이오?"

"아, 대통령 각하!" 도 루이스가 힘차게 외쳤다. "플로랑스는 그 비열한 자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곧 죽을 운명인 사람을 대하듯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그와 결혼하겠다고 믿게 해준 것도 자비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여성다운 자비심, 각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플로랑스는 그 남자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정직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날카롭고 강력한 지성을 지녔다고 평가했기에, 마리안느 파빌을 구하기 위해 벌인 투쟁에서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각하.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도요. 제가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다른 말도 없이 그는 이어서 말했다.

"부장 판사님, 용의자가 이미 체포되었으니 사법부는 그의 생애를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괴물 같은 인생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범죄 부분만 따지고, 모닝턴 가 상속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 건의 살인은 빼고요."

"그는 알랑송 출신으로, 랑르노 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장 베르노크는 드데수스라마르 부부를 만나 그들의 재산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미제 사건으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포르미니 마을의 어느 마구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절망에 빠진 부부는 마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그 헛간은 장 베르노크의 보호자였던 랑르노 부인의 소유지 '오뜨 샤토' 안에 있었다. 당시 랑르노 부인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회복기를 지나던 그는 소총을 닦다가, 하체에 고철 총알을 한가득 맞고 말았다. 그 소총은 부인의 몰래 장전된 상태였다. 누가 그랬을까? 장 베르노크였다.

게다가 그 전날 밤, 그는 보호자의 금고까지 털어놓았다.

파리에 내려와 그제야 모은 작은 재산을 마음껏 누릴 때, 장 베르노크는 뜻밖의 기회를 잡았다. 친구 중 한 명에게서 중요한 서류를 사들인 것이다. 그 서류는 플로랑스 르바쥬르가 루셀 가문과 빅토르 소베랑의 유산에 대해 갖는 출생 증명과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 서류들은 플로랑스를 아메리카에서 데려온 늙은 유모에게서 그 친구가 훔쳐온 것이었다.

장 베르노크는 끈질긴 조사를 통해 먼저 플로랑스의 사진을 찾아냈고, 이어 플로랑스本人을 찾아냈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며 마치 그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때만 해도 장 베르노크는 훔친 서류와 플로랑스와의 관계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한 공증인 사무실의 서기가 누설한 말에 따르면, 레페르튀이 씨의 서랍에는 꼭 확인해 봐야 할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장 베르노크는 그 서기에게 천 프랑짜리 수표를 건네는 대가로 그 유언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서기는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 유언장은 바로 코즈모 모닝턴의 것이었다. 그리고 코즈모 모닝턴은 루셀 자매와 빅토르 소베랑의 상속인에게 자신의 막대한 부를 모두 물려주기로 했다.

장 베르노크는 자신의 계획을 확신했다. 2억 프랑이라는 거액이었다.

그가 부와 사치, 권력을 손에 쥐고, 세계 최고의 명의들에게 거액을 바쳐 건강과 체력을 되찾으려면, 할 일은 간단했다.

먼저 상속 재산과 플로랑스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사람을 없애야 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뒤, 플로랑스와 결혼하면 되었다.

장 베르노크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랑르노 부자의 옛 친구였던 이폴트 포빌의 서류 속에서 루셀 가문과 포빌 부부의 불화 내막을 파헤쳐냈다.

결국 그를 방해할 사람은 다섯 명뿐이었다.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은 단연 코스코 모닝턴이었다. 그 다음으로 권리가 있는 순서대로 이폴트 포빌 공학자, 그의 아들 에몽, 며느리 마리아나느, 그리고 사촌 가스통 소베랑이었다.

코스코 모닝턴은 손쉬운 상대였다. 그는 의사로 가장해 미국인 집에 잠입했고, 모닝턴이 주사를 맞을 때 쓸 앰플 중 하나에 독을 타 넣었다.

하지만 히폴리트 포빌은 랑르노 신부의 소개를 받아 그를 찾았고, 뤼팽은 그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빠르게 행사했습니다. 이때 뤼팽은 포빌의 어려움을 가장했습니다.

뤼팽은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포빌이 아내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둘째, 포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뤼팽은 런던에서 전문의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포빌의 마음에 끔찍한 자살 계획을 심어 넣었습니다.

당신도 나중에 그 계획이 어떻게 마키아벨리처럼 실행되었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뤼팽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포빌과 그의 아들을 제거했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나느와 소베랑을 악마처럼 몰아넣어 이 살인 사건의 모든 혐의를 그들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누구도 뤼팽 자신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과 무관한 채, 포빌조차 자신이 뤼팽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지 모른 채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현재의 유일한 걸림돌은 베로 형사의 개입이었다. 하지만 베로 형사는 이미 죽었다.

앞으로 닥칠 위험은 단 하나다. 바로 나, 돈 루이스 페레냐의 개입이다. 코스모 모닝턴이 나를 전 재산을 물려받는 유증자로 지목했으니, 베르노크는 내 행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위험을 막으려 베르노크는 두 가지 수를 썼다. 먼저 파르부르 광장의 저택을 내 거처로 제공하고, 비서로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붙였다. 그러다가 네 번이나 가스통 소베랑을 시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는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자신의 의지력과 유연한 성격으로 플로랑스는 물론, 나중에는 소베랑에게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며 그는 목표에 다다르고 있었다.

내가 마리안느 포빌과 가통 소베랑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자,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리안느 포빌이 죽었고, 가통 소베랑도 죽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나를 쫓고, 플로랑스를 쫓았지.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산을 인도받을期限이 다가왔다.

그건 그제 일이었다. 그때 장 베르노크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병들어 테른 대로에 있는 클리닉에 입원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플로랑스 르바세르에게 미친 영향력과, 베르사유에서 수녀원장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 사건을 조종했다.

수녀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플로랑스는 경찰청 회의장에 갔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문서들을 가져왔다.

그 사이 장 베르노크는 요양원을 빠져나와 생루이 섬 근처로 숨었다. 그는 일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 최악의 경우 그 일은 플로랑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적어도 그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연루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머지는 아시지요, 대통령閣下." 도 루이스가 마무리했다.

플로랑스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역할, 특히 장 베르노크가 그 사건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내가 요청한 대로 총독이 데려다준 클리닉에서 도망쳐 버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장 베르노크를 다시 만나, 해명을 요구하며, 자신을 변호할 단서를 그 입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장 베르노크는 플로랑스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그를 자동차에 태워 데려갔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통령阁下."

발랑글레는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악랄한 천재의 어두운 이야기를 점점 더 깊은 관심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대조로, 선한 편에서 싸운 자의 맑고, 쉬우며, 행복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천재성이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는 그리 불편하지 않게 들은 듯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어제 밤 세 시경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때에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 베르노크가 먼저 저를 우물 깊숙이 떨어뜨리고, 플로랑스를 돌덩이 밑에 깔아 죽였으니까요."

"오호, 오호. 그러니까 당신은 죽었던 셈이군요?"

"다시 한 번요, 대통령 각하."

"하지만 왜 그 악당들은 플로랑스 르바세르를 없애려 했소? 그녀를 죽이면 그가 꼭 필요로 했던 결혼 계획이 무산되는데."

"결혼은 두 사람이 해야 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런데 플로랑스는 거절했죠."

"그래서?"

"과거 장 베르노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플로랑스 르바세르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썼다. 플로랑스는 그를 불쌍히 여겨 늘 마음이 흔들렸고, 자신이 한 행동의 중대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장 베르노크를 위한, 결백함이 입증된 진정한 유언장이나 다름없었다.

그전 날 열린 회의에 참석했고, 루셀 가문과의 친연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들을 제출한 사실 하나로, 플로랑스는 코스코 모닝턴의 최종적이고 법적 상속인이 되었다. 플로랑스가 사망함으로써, 그 권리는 그의 최종적이고 법적 상속인인 장 베르노크에게로 넘어갔다. 장 베르노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재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체포된 후에도 결국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4건의 살인(내가 세어봤다)의 죄악을 안고도 평온하게 살았을 것이다. 주머니에는 2억 프랑이 들어 있었다. 그의 같은 괴물들에게는 이것이 저것을 충분히 상쇄해 줄 만한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증거, 정말 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발랑글레가 급하게 물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페레나가 불구자의 재킷에서 꺼낸 갈색 가죽 지갑을 들어 보였다. "이것은 편지들과 문서들입니다. 이 도둑이 간직해 둔 것들인데, 이는 모든 대범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우를 범한 결과입니다.

우선, 오빠르르 꺼내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빠르르와 푸빌 씨와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파르부르 광장의 호텔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준 전단지 원본도 있습니다.

또한 장 베르노크가 알랑송으로 가서 푸빌의 편지를 아버지 랑르노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로챈 여행 기록도 있습니다. 다른 한 장의 기록은 베로 형사가 푸빌과 그 공범자의 대화를 엿들었고, 플로렌스의 사진을 훔쳤으며, 베르노크가 푸빌을 쫓게 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기록은 셰익스피어 8권에 들어 있던 두 장의 기록을 베낀 것에 불과하지만, 장 베르노크가 이 셰익스피어 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푸빌의 모든 음모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기록은 매우 흥미롭고 심리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여기서 그는 플로렌스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루인 카세레스와의 서신, 그리고 저와 마제루르 병장을 고발하기 위해 신문사에 보내려던 고발장들도 있습니다.

자, 대통령 각하,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 손에는 가장 완벽한 사건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은 제가 이틀 전 경찰청장 앞에서 제기한 모든 주장이 엄격히 정확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발랑글레가 외쳤다.

"그놈은? 그 악당,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악당의 자동차 안에요."

"당신은 제 요원들에게 알렸습니까?" 데스말리옹 지사가 불안한 어조로 물었다.

"네, 지사님. 게다가 그놈은 꼼꼼하게 묶여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좋아, 발랑글레. 너는 모든 것을 준비했군. 이 사건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발랑글레가 말했다. "하지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아마도 여론을 가장 열띤 토론에 몰아넣었던 그 문제 말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과에 남은 이빨 자국, 즉 호랑이 이빨 자국에 대한 문제야. 사람들은 그것이 포빌 씨의 이빨이라고 말했지만, 포빌 씨는 무죄였지. 지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잖습니까?"

"네, 대통령 각하. 장 베르노크의 서류가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과일에 남은 자국은 바로 포빌 씨의 이빨이 남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을 물고 있는 건 포빌 씨本人이 아니었습니다."

"오호?"

"대통령 각하, 그것은 포빌 씨가 자백할 때 이 미스터리와 관련해 언급했던 문장과 거의 같습니다."

"포빌 씨는 미친 사람이었지."

"네, 하지만 그 사람은 미친 듯이 날카로운 이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 팔레르모에서, 포빌 부인이 불행하게도 넘어져 입이 콘솔의 대리석에 부딪혔죠. 위아래로 여러 개의 치아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 손상을 고치기 위해, 즉 포빌 부인이 몇 달간 착용했던 금식 교정 장치를 만들기 위해, 치과의사는 관례대로 정확한 치아 모델을 채취했죠.

포빌 부인은 그 모델을 우연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날 밤, 그 모델로 사과에 그녀의 치아 자국을 찍어낸 거예요. 바로 그 모델이 베로 형사가 잠시 훔쳐냈던 것인데, 그는 증거품을 남기고 싶어서 초콜릿 바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돈 루이의 설명이 끝나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 진실이 너무도 단순했기 때문이다. 수상 위원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마리-아나의 절망과 죽음, 가스통 소베랑의 죽음까지 이끈 모든 비극과 비난은, 단 한 가지 아주 사소한 디테일 위에 서 있었다. 그 디테일을 생각지 못한 사람은, 호랑이 이빨의 미스터리에 열광했던 수백만 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

호랑이 이빨!

사람들은 끈질기게 하나의 추론을 고수했다. 겉보기에 무결해 보이는 그 논리란, 사과 자국과 오 봉빌의 이빨 자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다. 세상에 두 사람이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똑같은 자국을 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오 봉빌이 유죄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그 추론이 너무나도 엄격해 보였다. 오 봉빌이 무죄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머리 속에서 이런 소박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빨 자국은 반드시 살아있는 이빨로 물어뜯어야만 남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작은 생각 말이다.

발랑글레가 웃으며 말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이치죠. 생각해 낸 사람이 대단할 뿐입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통령閣下. 그런 건 누구나 쉽게 잊어버리죠.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르센 뤼팽이 당시 '르노르망 씨'와 '파울 세르닌 공작'이라는 두 명의 이름을 동시에 썼을 때, 파울 세르닌

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아르센 뤼팽의 이름자를 재배열한 것(anagramme)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의 루이스 페레나는 아르센 뤼팽의 이름자를 재배열한 이름입니다. 두 이름에 쓰인 글자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더 없고, 하나도 덜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작은 연관성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달걀이군요. 생각해 낸 사람이 대단할 뿐입니다."

발랑글레는 이 고백에 다소 당황했다. 이 사나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당황하게 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그를 혼란에 빠뜨리기로 작정한 듯했다.

이 묘사는 그 인물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었다. 고귀함과 무례함이, 악의와 순진함이, 미소 짓는 풍자와 불안한 매력이 뒤섞인 기묘한 혼합체였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치르고 왕국을 정복하면서도, 자신의 이름 자음을 섞어 대중이 산만하고 경솔하다는 사실을 적발해 즐기는, 그런 종류의 영웅이었다.

대화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발랑글레는 페레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준 끝에, 결국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고 범인을 넘겨주셨습니다. 저도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지만 마제루 병장은요?"

"오늘 아침 석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장은 두 사람의 체포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처리했습니다. 선생님은 돈 루이 페레나입니다. 돈 루이 페레나로 남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플로랑스 르바세르 씨는요, 대통령 각하?"

"자기가 직접 조사판사에게 나가서 진술하게 하라. 기소는 피할 수 없다. 그녀는 무죄로 석방되어 어떤 혐의도 받지 않게 될 테니, 코스코 모닝턴의 합법적인 상속인으로 인정받아 2억 프랑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그 돈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판사님."

"무슨 뜻인가?"

"플로랑스 르바세르는 그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끔찍한 범죄들이 저질러졌으니까요. 그녀는 그 돈을 혐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코스코 모닝턴의 2억 프랑은 모두 모로코 남부와 콩고 북부에서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는 데 쓰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준 이 무리타니아 제국 말인가요?" 발랑글레가 웃으며 물었다. "대단한 배려군요. 저도 전심으로 동의합니다. 제국 하나에 제국 예산까지……. 도대체 도나 루이는 아르센 뤼팽의 빚을 얼마나 넓게 갚은 걸까요."

팔일 후, 도나 루이 페레나와 마제로는 도나 루이를 프랑스까지 태워다 주었던 요트 위에 올랐다. 플로랑스도 그들과 함께였다.

출발하기 직전, 그들은 장 베르노크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

도착한 그곳에서, 모리타니의 술탄 도 루이스 페레나는 옛 동료들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마제루를 그들 사이와 고위 관료들 앞에 공식 파견했다.

그는 자신의 양위 이후에 펼쳐질 정세를 정리하는 한편, 프랑스가 새 제국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모로코 국경 지대에서 프랑스군 사령관 로티 장군과 여러 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들을 통해 모든 조치가 공동으로 확정되었다. 이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됨으로써, 모로코 정복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끄럽게 이루어졌다.

이제 미래는 이미 보장된 것이다. 언젠가 그 순간이 오면, 평화로운 지역을 가리고 있던 반란 중인 부족들의 얇은 장막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면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제국이 드러날 것이다. 그 곳에는 도로가 깔리고, 학교와 법원이 세워져 있으며, 활발한 개발과 열기가 넘쳐흐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낸 도 루이스는 왕위를 버리고 프랑스 땅으로 돌아왔다.

그가 플로랑스 르바세르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은 다시 술렁거렸다. 논쟁이 재개되었고, 여러 신문은 아르센 뤼팽의 체포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가 뤼팽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르센 뤼팽과 도 루이스 페레냐라는 이름이 같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우연이 결국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다는 점도 모두 알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르센 뤼팽은 이미 죽었고, 도 루이스 페레냐는 살아있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살아 있는 자를 없앨 수도 없는 법이었다.

그는 지금 오아 강 기슭으로 내려가는 아담한 계곡들이 어우러진 생 마클루 마을에 산다. 분홍빛 벽에 초록색 창문을 단,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그 소박한 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일요일이면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나선다. 쑥나무 울타리 너머로 그를 엿보거나, 마을 광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서 말이다. 바로 전 아르센 뤼팽이었던 그 사람 말이다.

그는 여전히 젊어 보이는 얼굴과 소년 같은 걸음걸이를 하고 있다. 플로랑스도 함께 있다. 균형 잡힌 몸매에 금발 머리가 빛나고, 얼굴에

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이제 더 이상 나쁜 기억의 그림자조차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때때로 작은 나무 울타리를 두드리는 방문객들이 찾아오곤 한다. 그들은 주인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억압을 당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약해서 무너진 이들, 그리고 열정에 사로잡혀 길을 잃은 자들이다.

돈 루이스는 그들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푼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과 경험, 힘, 필요하면 자신의 시간까지 아낌없이 내어준다.

그리고 종종 상트 형무소나 경찰의 하급 관리들이 찾아와 난감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럴 때 돈 루이스는 끝없는 지혜의 자원을 마다하지 않고 쏟아붓는다.

그 외에도, 그가 큰 기쁨으로 다시 찾은 옛 도덕과 철학 서적들을 가꾸듯, 그는 자신의 정원을 돌본다. 꽃에 대한 그의 열정은 뜨겁다. 그는 그 꽃들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가 '아르센의 카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출품해, 원예 박람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붉고 노란 줄무늬 카네이션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 선명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큰 꽃들을 향하고 있다. 여름에 피어나는 꽃들 말이다. 7월과 8월, 그의 정원 절반과 채소밭의 모든 화단은 그 꽃들로 가득 차오른다.

깃발 대처럼 우뚝 선 아름다운 관상용 식물들은 푸른빛, 보라빛, 자홍빛, 분홍빛, 흰빛이 어우러진 이삭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뜨린다. 그는 자신의 땅에 '루피네의 동산(Clos des lupins)'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꽃들은 그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루팽의 품종은 모두 모여 있었다. 크ruikshanks의 루팽, 얼룩무늬 루팽, 향기로운 루팽, 그리고 막 등장한 '뤼팽의 루팽'까지.

그들은 모두 자라나 있었다. 군대의 병사들처럼 빽빽이 모여 각자 서로를 압도하려 애썼다. 그리고 해를 향해 가장 풍성하고 눈부러운 이삭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들의 다채로운 밭으로 이어지는 길 입구에는, 조제마리아드 에레디아의 아름다운 소네트에서 따온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것은 시인으로서의 고백인가? 왜 아니겠는가?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저는 그분을 많이 알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를 그리스 칠현인 중 한 명으로 꼽거나, 후세에 본보기를 제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혹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선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았고, 악에서는 절제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은 자들도 그들의 죄값을 치른 것이었고, 만약 그가 그들을 먼저 제압하지 않았다면, 운명도 언젠가는 그들을 응징했을 것입니다.

나쁜 부자들의 무리 중에서 희생자를 고른 뤼팽과, 군중을 약탈해 빈곤으로 내모는 거대 금융인과 비교할 때, 모든 이점이 뤼팽에게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의 선행은 어떠했습니까! 관대함과 이타주의의 증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둑질? 시인합니다. 사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 이상이었죠. 그의 재주와 영리함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다면, 그를 열광하게 만든 것은 다른 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난을 웃어넘겼지만, 그의 용기, 대담함, 모험 정신, 위험에 대한 경멸, 냉정함, 통찰력, 낙천성,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분출하는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이런 자질들은 우리 민족의 가장 활동적인 미덕이 고취되던 시대에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비행기의 영웅시대, 그리고 대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대였죠."

누군가 이렇게 지적했다.

"당신은 그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군요. 그의 모험이 끝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모험이야말로 아르센 뤼팽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가 숨을 쉬는 한, 그는 천 가지 백 가지 모험의 중심이자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 무덤에는 이렇게 써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모험가 아르센 뤼팽이 잠들다.'"

그것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은 진실이다. 그는 모험의 달인이었다.

과거 그가 때로 이웃의 주머니를 뒤지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험은 그를 전장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는 싸우고 이길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귀족의 작위를 안겨주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작위를 얻었다.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온 힘을 다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운명에 도전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그가 때로 경찰서장을 때리고 때로 조사 판사의 시계를 훔쳤더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의 스승들에게 관대해야 한다.

돈 루이스가 고개를 저으며 마무리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덕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그는 그 덕목으로 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미소였습니다."